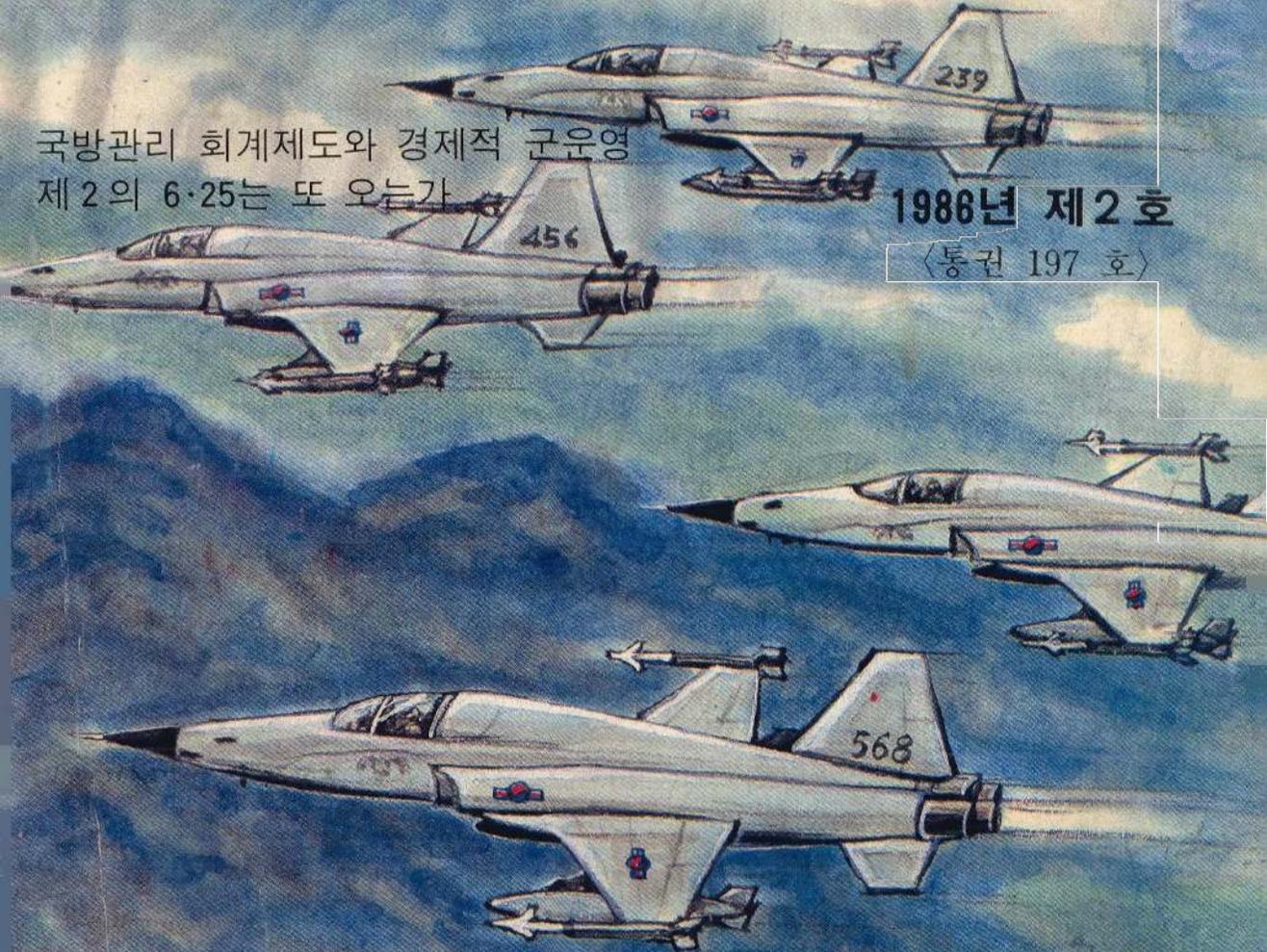


# 영진

국방관리 회계제도와 경제적 군운영  
제 2의 6·25는 또 오는가

1986년 제 2 호

〈통권 197 호〉



空軍本部

空軍



#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趙 芝 薰

하늘이 우리의 고향,  
그리고 또 하늘이 우리의 서열,  
떠나서 그리움에 우리 향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건너 하늘에 밤에 단정기에  
우리 가고 싶은 마흔의 전방을 하늘에 둔다.  
푸르고 밝은 하늘에 걸린 구름이  
깨어노 구름을 건넌 것만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대로  
푸른 하늘을 보던 것이 우리의 소망  
육신만이 머니 영혼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서  
새삼스리 마련된 은빛 영혼의 날개  
그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서러울 리 없니 고향의 하늘에  
이성과 의를 저버리면  
삼과 주건을  
제 마음대로 바쳐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린다.  
열린 하늘이 그대면 우리 영혼의 서열,  
아아 푸른 하늘 '꽃'  
오늘 영미 영혼, 이 땅의 하늘의 빛을 영미 영  
정인간가 믿어라.  
하늘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발행한다 믿어라.  
태양이 우리의 것  
저 신비의 세계도 우리의 것.  
데지어 이를 '영미간'  
내 영혼 영미  
저 하늘의 영혼이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피거애다.





### 공사 제34기 졸업 및 임관식('86. 3. 19)

「……祖国의 召命에 따라 이제 各自 任地로 向하는 卒業生 여러분에게 本人은 鐵桶같은 領空守護의 責任完遂를 當부함과 同時에 다가오는 航空宇宙時代를 이끌어 나갈 役軍으로 成長해 주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 공군

차 례

1986년 제 2 호  
(통권 제 197 호)

○ 卷 頭 言.....李 殷 鳳 (1)

## 論 壇

- 国防資源管理制度上的  
管理會計 및 費用分析 概念 .....李 炳 基 (3)
- 思想的 葛藤과 急進的  
이데올로기.....조 태 기 (14)
- 家庭教育과 社會化 教育.....金 在 恩 (26)
- 印度의 安保環境 .....박 종 권 (33)
- 신 제국주의론의 정체.....하 종 수 (40)

## 政訓 教育 資料

- 兵營生活의 明朗化 方案 .....공 진 구 (48)
- 東·西獨의 交流와 獨逸의  
統一展望.....金 鍾 淑 (67)
- '86 아시안게임의 역사와 전망 .....김 종 곤 (75)
- 韓國人의 道德心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이 남 진 (83)
- 美洲韓人들의 獨立運動과 獨立軍  
養成.....임 종 은 (90)
- 유로 코뮤니즘의 正體.....全 得 柱 (97)

## 將 兵 文 芸

수 필

봄을 맞으며 / 고 종 봉 ..... (108)

詩

레이다기지 예찬 / 전 호 명 ..... (110)

戀 歌 / 이 성 호 ..... (112)



未來의 韓國空軍  
F-16

## 特別企劃 6·25

- 내가 겪은 6·25.....문 종 진 (114)
- 6·25와 나  
..... - 조익래 - 이석규 - 강위철 (118)
- 歸順 操縱士는 證言한다(I)  
..... 정낙현 · 이웅평 (126)
- 歸順 操縱士는 證言한다(II).....李建淳 (135)
- 제 2 의 6·25는 또 오는가 .....홍지영 (150)

## 軍事知識

- 極超音速 大氣圈 横断機 TAV .....한성용 (157)
- 美 次期戰鬪機 開發計劃 (2).....이건순 (161)
- 英國空軍 參謀大學 .....이호일 (172)
- 붉은 별들의 戰略防衛 構想 .....任忠植 (184)

## 教 養

- 科 學 / 近距離 通信網에 대하여 .....李錫浩 (189)
- 常 識 / 自然環境 造成을 위한 올바른  
植樹와 造景 .....강준일 (197)
- 宗 教 / 기가 막힌 觀賞.....이정남 (205)
- 醫 學 / 尿의 生成과 異狀 .....이윤수 (211)
- 音 樂 / 세계의 國歌 어떻게 만들어  
졌나(2) .....尹德鉉 (218)



○ 차례화 / 金守泰



참모총장 부대순시('86. 1. 27)



팀 스피리트 참가장병 환영('86. 3. 16)



국방부장관 공본 순시 ('86. 1. 24)



군자녀 교육 ('86. 1. 28)



중공기 귀순 ('86.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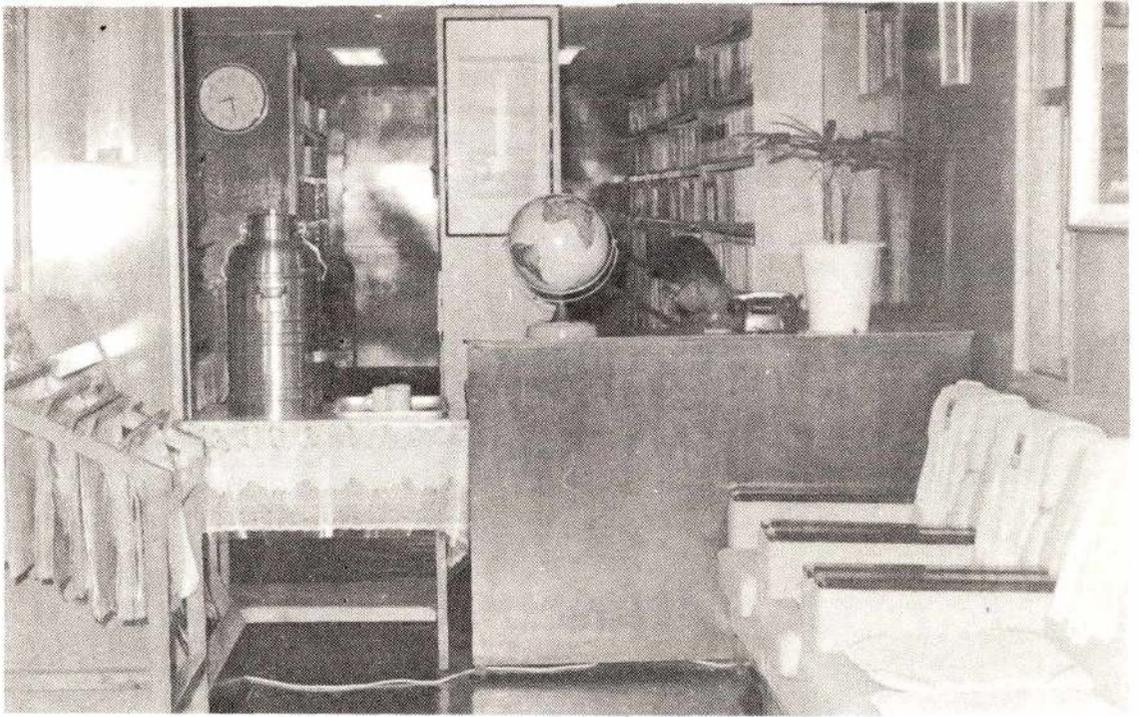
자유중국 부총사령 공본예방 ('86. 2. 24)



학군단 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86. 2. 27)



공군대학 졸업식('86. 3. 14)



△제3758부대 은파 새  
마을 독서대학 개관  
(’86. 2. 10)



▷부산 냉동공장 화재  
공군 헬기구조  
(’86. 1. 12)



## 強靱한 精神武裝이 필요한 時期

政訓監

空軍大領 李 殷 鳳

山野가 하루하루 綠陰으로 짙어가고 南으로 薰風이 불어오는 佳節이다. 이런 좋은 계절에는 우리 젊은 將兵들도 더욱 왕성한 意慾으로 所任完遂에 최선을 다하리라 본다.

‘居安宜操一心以慮患’ -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 마음으로 위급함을 생각하라는 옛 말처럼 軍人の 職分으로서는 이처럼 平穩할수록 더욱 敵에 대한 警戒心과 緊張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近者에 알려진 것처럼 北傀共産集團이 全兵力의 대부분을 休戰線 가까이 집중시키고, 미그-23 전술기와 SA지대공 미사일, 化學戰 무기 등 대량 살상용 공격무기를 배치하면서 우리의 安危와 生存을 노리며 밤낮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와 또 다른 高度의 精神武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거짓약속과 虛偽意識體系(Ideology)로 그 자유스러운 魂을 빼앗고, 欺瞞하여 特定目的의 道具로서 이용하는 그들이 얼마나 可憐스럽고 위험한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그 땅이 얼마나 숨막히는 곳인지, 남북된 두 映画人이 西方世界로 劇的으로 脱出에 성공함으로써 万人에

露出되는 것을 보았다.

‘공산주의란 책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단 하루만의 삶이라도 나에게서는 極惡스러운 경험이다’라는 말은 소련태생으로서 역시 자유세계로 亡命했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 비치」가 共產社會의 裏面을 赤裸裸하게 표현한 것이다.

‘惡은 必亡한다’는 峻嚴한 歷史의 法則이 偶像化 놀음과 侵略戰爭에 狂的으로 정착하고 있는 怪獸集團에 적용되지 않을리 없겠지만, 이런 歷史의 審判에 있어서 膺懲의 動因은 生存과 自由와 權利를 지키려 하는 自由人의 굳은 意志로서의 當爲의 存在가 될 것이다.

빛나는 未來를 創造하고자 분주히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跳躍의 계기가 될 國家의 大事도 머지 않았다. 우리 나라가 成長의 主体로서 더욱 커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이 또한 가까운 장래에 판명될 것이다. 따라서 시련과 도전에 대한 強韌한 克服意志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精神的 價值라고 본다. 克服意志는 現實을 先驗的으로 맞아들이는 積極적 자세이며 항상 至難한 현실보다 先行하는 解決方案과 지혜의 提示로서 그 危機를 헤쳐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社會와 國家의 安危야말로 個人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歷史的 體驗이 말해 주고 있다. 主人意識은 너와 내가 共有하는 부분에 대한 倖存의 運命意識, 아니 운명의식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危機에서고 그 국민과 국가를 救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現狀況을 부단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計劃性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히 찰나적인 思考와 無計劃的인 行爲로서는 變化와 긴급한 경우에 當하여 적절히 対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든 將兵이 자신의 職分에 만족하고 자신의 課業에 대한 肯定과 積極적인 비전을 분명히 함으로써 훌륭한 來日을 기대할 수 있다면, 머지 않은 장래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이야기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 国防資源 管理制度上的

## 管理會計 및 費用分析 概念



중령 李 炳 基

국방부 관리정보관실

### — 목 차 —

◎ 序 言

1. 国防資源管理制度(PPBEES)
2. 国防費用에 關한 諸 概念
3. 管理會計 및 費用分析의 基本方向
4. 費用分析의 役割 및 特性

◎ 結 語

### 序 言

国防資源管理의 基本理念은 資源을 運營하는 모든 国防組織 및 要員의 活動과 努力을 国防目標 達成을 위해 体系的으로 統合

誘導하고 調整統制함으로써 가장 效率的으로 軍事力을 建設하고 運營維持하는 것이며, 이는 곧 国防資源의 理想的인 配分과 經濟的인 運用을 通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지난 3 年에 걸쳐 汎軍的으로 推進해 온 豫算改革作業도 이러한 管理理念을 具體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合理的인 資源管理制度를 確立하기 위한 管理体制 改善作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그 最終 目標 課題인 国防管理會計 및 費用分析 業務가 금년부터 마무리 作業으로서 全面 試圖되고 있다.

한편 過去 10수년 간에 걸쳐 우리 軍은 合理主義 意識運動과 함께 經營管理 分野에 많은 關心을 기울여 어느정도 發展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軍의 複雜性和 大規模

性を体系的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資源管理制度를 완전히 定着시키지 못한 것은, 그간의 大部分의 努力이 外国制度를 皮像的으로 模倣하여 그 内容이 断片的이거나 蓋然的인 水準에 머물렀으며, 특히 실제 資源 運營結果로서 만이 皮相될 수 있는 각종 管理資料까지 外国으로 부터 그대로 導入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政策立案 또는 事業計劃 樹立시에 믿고 適用할 만한 資料나 基準이 없어서 苦心한 경험이었겠지만 事實 國防管理業務上 가장 深刻한 問題點은 可用 Data의 不在로서 이러한 管理資料들은 各 部署의 實務担当者들이 필요하다고 그때 그때 任意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管理制度的으로 公認된 資料가 生産・供給될 수 있는 基本體制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現代的인 經營管理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한 資料管理, 즉 管理情報體制(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主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자료를 기초로하여 統計學, OR/SA 등 科學的인 分析技法들을 使用하고 있는 바, 複雜龍大한 國防組織 및 資源을 效果的으로 管理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現代的 管理시스템을 導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國防費用情報資料를 生産・提供하기 위한 管理會計 및 費用分析機能은 合理的인 國防資源管理 體制定立의 基本要素이며, 豫算改革의 核心課題로서, 여기서 言及하는 내용은 專門的인 會計節次나 分析方法에 관한 사항 보다는 全体 國

防管理 次元에서 管理會計의 意義와 一般的인 概念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1. 國防資源管理制度(PPBEES)

軍事戰略 및 國防政策 遂行을 뒷받침할 수 있는 軍事力 育成을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資源의 所要가 發生하게 되는데 制限된 國防資源에 비해 目標所要가 항상 초과되고 있는 現實情에서 資源의 效率性を 極大化 할 수 있도록 戰力增強 및 運營維持計劃을 樹立・施行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重大한 當면과제이며, 이는 가장 合理的인 資源管理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原則的인 面에서 國防資源管理體制를 樹立하면서 지켜야할 기본원리는,

- 戰略遂行 能力의 極大化를 目標로 軍事力 所要를 總括하고 制限된 資源을 必要優先 順位에 따라 一貫性있게 配分할 수 있도록 中央集權的 計劃을 樹立하며,

- 配分된 資源의 經濟的 執行을 위해서는 各級 管理者의 動機誘發로 資源使用에 대한 內的統制 및 創意力을 保障할 수 있는 分權化 責任管理를 指向하며,

- 모든 資源운영결과에 대하여는 精確한 情報의 적시 획득으로 資源運營 現況把握과 費用情報를 生産함으로써, 성과분석 및 費用還流(Feed-Back)기능을 形成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國防資源管理制度는 이와 같은 原理를 國防體制上에 具體的으로 適用한 하나의 管理理論으로서, 그 骨幹은 企劃(P) - 計劃(P) - 豫算(B) - 執行(E) - 評

価(E) 機能을 有機的으로 연결하는 PPB-EES 개념이다.

이에 관해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 예상되는 敵 威脅에 대처할 수 있는 戰略을 樹立하고 이를 經濟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方向으로 軍事力 所要를 判斷하며 國防사업에 관한 政策을 決定하는 ‘企劃機能’,

- 提起된 軍事力 所要를 효율적으로 充足시킬 수 있도록 可用資源과 時間을 조직하여 國防事業에 具體的인 프로그램을 作成하는 ‘計劃機能’,

- 計劃된 事業을 最終的으로 實踐할 수 있도록 有權的으로 確定하고 事業別 責任 및 權限을 부여하는 ‘豫算機能’,

- 주어진 豫算으로 計劃된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源을 經濟的으로 획득·분배·운용하고 実績資料를 생산하는 ‘執行機能’,

- 위의 諸 機能 및 事業을 分析하고 執行結果에 대한 成果를 측정하며, 資源運營 実績資料들을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次期計劃에 Feed-Back 시킬 수 있는 標準資料들을 산출하는 ‘評價機能’, 등 각 단계의 業務體系는 그 機能別 固有役割은 存在하지만, 모든 國防事業은 위의 全 過程을 거쳐서 遂行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에 각기 独立的으로는 완전한 機能을 發揮할 수가 없으며, 先後過程이 Feed-Forward作用과 Feed-Back作用을 활발히 함으로써 P-P-B-E-E의 全体的인 흐름이 원활한 循環體系를 形成했을 때 비로소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과거 國防企劃制度의 根幹으로 삼아왔던 PPBS는 우리의 國防管理制度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한 훌륭한 計劃體系(PPB)이긴 하나, 執行 및 評價(EE) 機能을 基本過程으로 包含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補完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新制度를 施行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力點을 두고 推進해야 할 課題는 合理的인 執行管理 및 分析評價(EE)에 관한 業務體系를 定立하고 이를 既存의 計劃體系와 밀접한 連結로 완전한 國防管理循環體系를 構築하는 것으로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防管理會計 및 費用分析 機能을 確立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國防費用에 關한 諸 概念

### 가. 國防費用의 分類

일반적으로 軍事力建設 및 運營維持에 필요한 資源(Resorce), 즉 人力, 裝備, 施設, 物資 등을 獲得 또는 運用하는데 투입되는 경비를 ‘費用(Cost)’이라 하며, 이러한 비용을 들여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諸 活動을 資源管理 측면에서는 ‘事業(Project)’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國防費用의 分類는 事業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区分하게 되는데, 國防事業에 대한 意思決定 및 資源配分計劃 目的에 符合되도록 體系의이며 實用的으로 分類되며 또한 실제 資源執行結果로부터 費用資料의 生産 및 集計가 용이하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국방관리회계제도’의 費用計定科目 참조).

통상적으로 國防費用은 投資費와 運營維持費로 크게 두가지로 区分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軍事力의 建設事業과 既存 戰力の 運營維持事業 간에 限定된 國防豫算을 균형 있게 配分함으로써 資源의 效率的 使用으로 戰力の 極大化를 도모하기 위한 計劃目的 上的 分類概念으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費用이 포함된다.

• 投資費는 軍事力 建設 및 既存 戰力の 주요 能力發展事業에 投入되는 經費로서,

- 新規 裝備獲得, 主要 裝備性能改良費 및 이들 장비의 正常稼動시까지 試驗稼動 및 附帶經費,
- 新規 不動産(施設物·土地)獲得費 및 既存 施設의 主要 擴張·増築 經費,
- 部隊 增創設을 위한 一切의 經費,
- 戰爭持續能力 및 戰時 生存性 増大를 위한 主要物資 獲得經費,
- 戰力資源 開發 및 能力發展을 위한 研究開發 經費(‘연구개발비’는 별도 구분할 수도 있음) 등이 포함된다.

• 運營維持費: 앞의 投資費를 제외하고 既存戰力の 狀態維持 및 日常活動(任務 및 訓練)에 소요되는 反復的인 概念의 經費로서,

- 人力運營維持에 따른 給與, 給食, 被服費用,
- 裝備運營維持에 따른 整備材料 및 油類費用
- 施設 維持補修 및 運營管理費
- 國防組織 運營에 따른 部隊運營 및

機能別 參謀活動費

- 戰力淘汰에 따른 補充資源 養成 또는 獲得經費

- 其他 人的·物的資源 管理에 따른 直間接 經費 등이 포함된다.

※ 한편 ‘戰力增強費’는 現行 國防体制 및 與件上, 對北 戰力隔差의 早期解消를 目的으로 戰鬪力 增強에 直接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性格의 主要事業(주로 投資事業에 해당함)을 별도로 管理하기 위하여 특별히 設定된 概念으로서,

- 主要 武器體系의 新規獲得에 따른 一切의 經費

- 主要 編制裝備 交替에 따른 一切의 經費

- 戰爭 持續能力 増大를 위한 戰術工事 및 戰爭 緊要物資 獲得에 따른 一切의 經費 등이 포함된다.

나. 國防事業 및 費用에 관한 分析概念  
 國防事業 및 費用을 分析하는 基本目的은 國防費所要에 대한 效率性(經濟性 및 效果性) 分析으로 國防資源의 最適配分을 도모하고, 執行実績分析으로 事業成果를 測定하기 위한 것으로서, 國防事業에 대한 合理的인 意思決定, 計劃樹立 및 執行을 위해서는 企劃, 計劃·豫算·執行의 각 管理段階에서 事業別 費用對 效果分析과 成果分析 業務體系가 定立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費用對 效果分析 및 成果分析을 可能케 하는 제반 戰力運營基準 및 標準費用 算出·活用體系가 前提되어야 하는데, 現行 國防部 職制上 前者는 ‘評價分

析'機能으로서 評價分析官室에서, 後者は '費用分析'機能으로서 管理情報室에서 각각 遂行하게 된다.

• 評價分析: 國防事業에 대한 意思決定을 直接 支援하고 효율적 資源運用을 誘導·促進하는 機能으로서 事業所要나 執行 実績과 費用分析의 戰力運用基準 및 標準 費用을 基礎로 하여 事業種類別로 專門의 인 技法을 적용하여 分析한 후 그 結果를 決心權者와 事業主務部署에 反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分析目的 및 時期에 따라 事前 分析和 事後 分析으로 区分되며, 또한 事業種類와 分析對象에 따라 任務分析, 技術分析, 軍需支援分析, 費用對 效果分析 등으로 区分된다.

• 費用分析: 事業計劃에 대한 效果分析이다 成果分析 이전에 投資費·運營維持費를 막론하고 일정량의 軍事力을 새로 建設하거나 일정량의 戰力을 일정기간 - 일정수준으로 運營하는데 어느정도의 費用이 所要되는가를 算定하여 모든 資源관리활동에 共通으로 適用할 수 있는 標準費用情報를 生産·提供하는 機能으로서, 모든 國防組織의 資源運營実績資料를 統計적으로 分析하여 最適 基準値를 推定하게 된다.

但, 여기서는 관리회계를 통한 運營유지비에 관한 비용분석만 언급하기로 한다.

### 3. 管理會計 및 費用分析의 基本方向

#### 가. 國防管理會計의 意義

흔히 '會計는 經營의 言語(A language of business)'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는 會計가,

- 期間中 발생한 資源去來를 記錄하고,
- 그 情報를 要約하여,
- 報告 및 解析하는 過程으로 이루어짐으로써, 經營活動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는 가장 중요한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의 會計實情을 보면 源泉은 다 같은 國防豫算으로 獲得, 去來 및 運用되는 資源이지만, 現金은 豫算會計法, 物資는 軍需品管理法, 그리고 施設資產은 國有財產法에 의해 각기 다른 部署에서 獨立적으로 管理되므로 인해 部隊別로 總括的인 資產保有現況이나 狀態把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會計行爲 自体가 硬直된 統制基準을 피하기 위해 變則的인 合法性만 도모하거나, 必要時 証拠保全 目的에만 급급하게 되는 경향으로, 國家財產의 保護, 部隊運營 結果把握 및 事實費用資料 生産과 같은 軍會計 本然의 役割이 거의 마비되므로 인해 國防資源管理 目的에는 전혀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解消할 수 있는 제도로써 管理會計는 지금까지의 個別法定會計를 一元化하여 現金豫算, 物資, 裝備, 施設, 人力 등 모든 資源에 대하여 일정 時点에서의 現況과 일정 期間中の 運營(去來·消耗·稼動)実績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들을 体系的으로 記錄·集計·分類 함으로써, 各급 管理者가 필요로 하는 部隊運營資料를 提供하여 효과적인 資源管理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根本趣旨가 있다.

그러므로 管理會計의 主体는 資源管理單

位(飛行團級)部隊로서 對內外的 모든 資源 去來 증빙서와 個個의 資源消耗 기록카드가 事前 設定된 計定科目에 의거 資源種類別-任務 및 機能別-事業別로 既存 資產 現況과 함께 總括集計 및 分類되므로 인해

• 期間中 部隊運營結果 및 費用分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生産하며,

• 部隊 指揮官이 指揮와 管理를 일원 化하여 효율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部隊別 豫算編成 및 請求去來制에 의 한 軍需管理機能을 促進하여 單位部隊別 責任管理制度 施行의 基礎를 確立하는 重要한 役割을 한다.

이러한 管理會計를 施行함에 있어서 節次 上 크게 두가지 原理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약간 進문화된 感이 있으나 이를 간략하게 紹介하면,

첫째, 單一價值計算의 原理로서 各양각색의 財産變動을 질서정연하게 記錄·計算하기 위해서는 諸 形態의 財産에 대한 共通 尺度가 필요한데 保有資產現況이나, 資源의 去來 및 變動이 모두 標準價格으로서의 單一貨幣價值로 換算記錄하여야 한다.

둘째, 貸借對照 및 平均의 原理로서 調達 源泉에 따른 資本(貸辺: 장부 右변에 기록 사항)과 投下된 資本의 存在形態에 따른 資產(借辺: 장부 左변에 기재사항)의 증감변 화는 去來의 二重性에 의해 相互 같은 액 수의 거래요소를 수반하게 되며, 借·貸의 會計는 각각 일치한다.

나. 費用資料生産 및 分析 概要

#### • 費用分析 對象 및 範圍

國防費用分析의 對象範圍는 投資費· 運營維持費를 막론하고 國防豫算이 投入되 는 全分野에 해당되지만 管理會計로부터 얻 어질 수 있는 費用資料는 일부 研究開發 또는 生産機關의 主要事業別 費用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運營維持費에 관한 자료이 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유지비에 局限해서 費用分析을 實施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도 이 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主要 投資事業에 관한 費用은 대 부분이 海外購買事業으로서 反復의인性格이 아니므로 標準費用을 算定하는 自体 로서는 별다른 意味가 없고 事業別 費用對 效果分析이 同時에 遂行되는 것이 常例이 므로 이는 評價分析 또는 投資事業計劃시 에 正確한 市場價格情報를 獲得함으로써 可能하며,

이때 고려해야 될 壽命週期費用(Life-cycle Cost)은 既 保有裝備는 管理會計資料 로서, 新規裝備는 外國情報資料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投資事業管理에 대 한 業務는 中央部署의 比較적 소수의 專門 家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 으며 運營維持費처럼 複雜老大한 業務는 아니다.

그러므로 資源管理單位部隊의 管理會計 資料 즉, 部隊別 資源保有現況, 各種 資源 消耗実績 및 裝備稼動 등 기타 운영실적을 토대로 算出되는 費用係數 및 標準費用은 다음과 같다.

① 各級 戰力單位部隊別 創設費 및 運

營維持費

② 身分別, 階級別, 特技別 年間 人當維持費

③ 일정기간-일정운영수준당 장비모델별 台當維持費 및 單位運營量當 費用(費用係數)

④ 施設 用途別, 構造別 單位面積當 平均 維持補修費

⑤ 教育課程別 教育原価 및 人當養成 經費(教育部隊)

⑥ 主要 整備作業種類別 整備原価(軍需部隊)

⑦ 主要 製品別 生産原価(研究生産機関 또는 軍需部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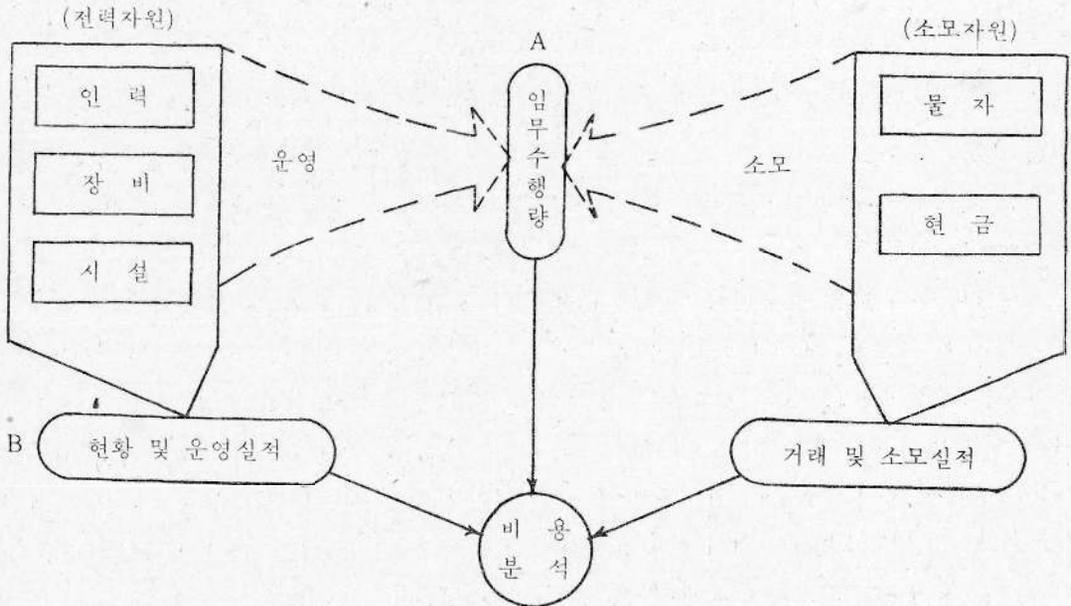
⑧ 其他 主要任務 또는 訓練種類別 費用  
• 費用分析要素 및 具備條件

國防運營維持費用은 각 국방조직이 주어진 任務活動을 위하여 人員·裝備·施設 등 戰力資源을 運營하는데 現金·物資 등의 消耗資源을 使用함으로써 發生된다. 따라서 費用分析의 基本方向은 “어떤 任務에, 어느 정도의 戰力資源을 運營하는데, 얼마 정도의 消耗資源을 使用했는가?”를 把握·分析하고 이들 자료들을 綜合하여 追後 國防管理目標에 필요한 普遍的인 基準값들을 推定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들이 요구된다(그림 1 참조).

① 任務達成度 또는 任務遂行量

② 戰力資源(人力·裝備·施設 등)의 保有量, 狀態 및 使用実績

③ 消耗資源(物資·現金 등)의 去來 및 用途別 消耗実績



“비용분석 = A. B. C 분석”

그림 1. 운영유지비 분석개념

한편, 위와같은 자료들을 생산하여 費用分析이 遂行되려면 다음과 같은 要件들이 事前에 갖추어져야 하며 또한 이들은 국방부에서부터 단위부대 實務部署에 이르기까지 全軍의으로 統一과 標準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總體的 國防費用構成要素 分類:

戰力單位部隊別 費用을 비롯하여 費用分析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費用에 관하여 각각의 使用目的과 자료의 종류 및 발생분야에 따라 전체내용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를 합리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초자료가 생산되고 의미있게 集計·分類·分析되어야 하는데, 통산 기능별·입무활동별·事業別·資源種類別 및 直·間接要素別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게 되며, 이는 管理會計의 計定科目과 費用要素處理基準의 표준화된 세부 분류기준에 의해 統一的으로 定하여진다.

② 正確한 基礎資料生産 및 效果的 資料管理體制 構築

費用分析의 生命은 한마디로 자료의 正確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종류별로 기초자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체의 누락 또는 중복됨이 없이 記錄集計되어야 하며, 종합된 기초자료는 同種/同級 部隊別·機能別·事業別로 再分類 및 比較分析될 수 있도록 電算處理 및 半永久的으로 保管됨으로써 항상 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科學的 分析方法 및 모델 적용: 算出

하고자 하는 비용의 종류와 자료의 性格에 따라 科學的이면서도 實用性이 있는 方法과 基準을 設定·適用하여 기초자료를 檢証 및 取捨選擇하고 비용종류별로 最適모델을 적용하여 대표값(계수 또는 표준치)을 산출함으로써, 비용발생에 작용된 相關變數들의 寄與度와 信賴度가 立証되는 동시에 戰力資源의 壽命週期 및 用途에 따른 비용의 變動趨勢까지도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다. 費用資料의 電算處理 概要

국방운영유지비에 관한 자료관리업무는 그 규모나 性格上 이미 手記式處理의 限界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電算化處理가 前提되어야 하는데, 비용자료의 電算處理過程은 크게 2段階로 区分하여 資源管理單位部隊의 基礎資料生産過程과 이들 基礎資料를 종합하여 各軍本部 또는 國防部에서의 綜合處理過程으로 이루어진다.

• 基礎資料 生産: 資源管理單位部隊의 管理會計를 통한 費用分析 基礎資料의 生産은,

① 부대 자원거래증빙서와 각종 자원 사용실적 기록카드를 分介하여 電算入力伝票를 作成하고,

② 個別入力된 전표가 비용분류코드, 자원분류코드 및 부대분류코드 등 既設置된 전산보조화일에 의거 보유資源現況과 資産履歷이 Up-Date되고, 예산 및 물자와 제반 내용이 상세하게 순서대로 분류기록되는 部隊資源管理 기본화일을 작성하며,

③ 각종 기본화일들이 연계처리되어 부

대운영 및 내용분석 기초자료가 되는 관리 목적별 資源現況 및 費用이 出力樣式에 의거 집계처리하는 分析報告書화일을 作成하는 등의 過程으로 되는데, 단위부대에서는 모든 入出力 자료의 添削(人爲的 加工)이 일체 금지되며, 사실대로의 実績値와 그에 대한 原因分析만 따르면 된다(그림 2 참조).

• 綜合集計 및 分類: 모든 資源管理單位部隊에서 生産·報告된 基礎資料를 접수한 各軍本部 및 國防部 비용분석 전담부서의 綜合處理는,

① 既設置된 부대분류코드, 비용분류코드 및 자원분류코드에 의거 同種/同級部隊別로 자원현황 및 비용종류별로 비교 검토 될 수 있도록 類型部隊別 分類處理,

② 분류된 비용종류별로 각종 표준비용 및 계수산출공식과 해당 戰力運營基準을 적용하여 목적하는 비용을 산출하며, 出力된 자료를 최종분석하여 合理的인 값을 追計하는 過程으로 이루어 진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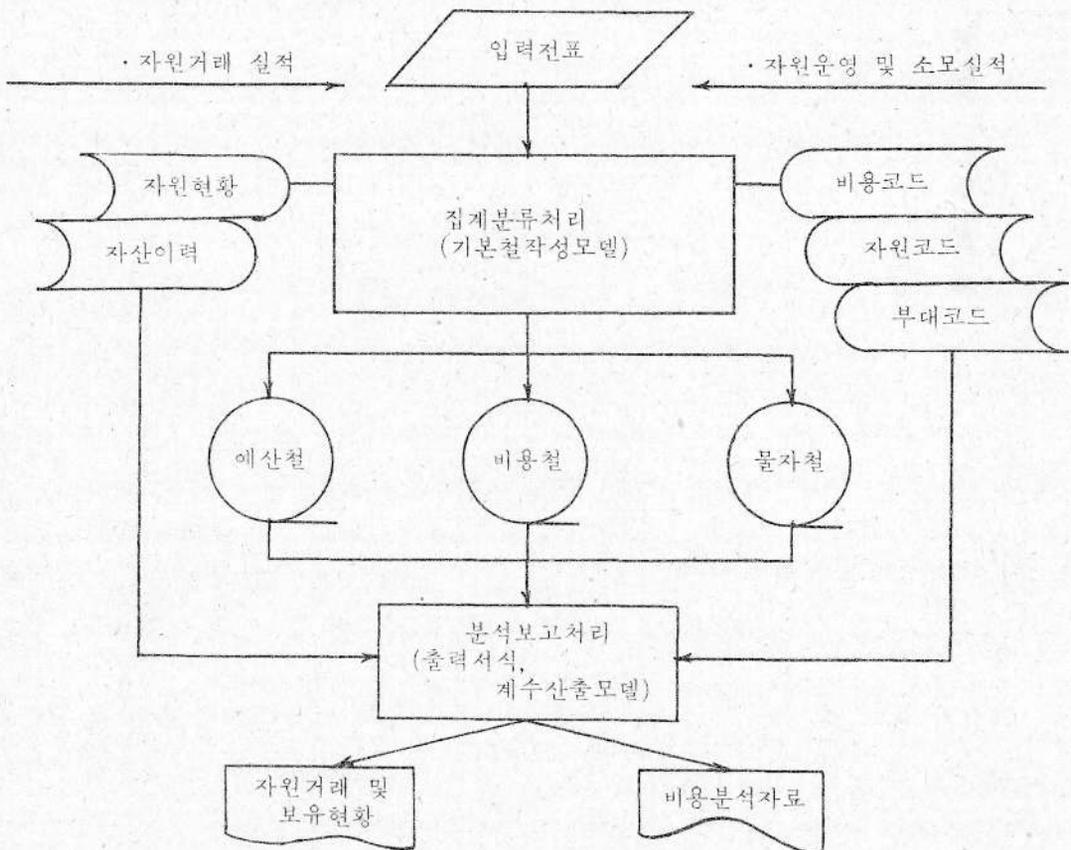


그림 2. 부대관리회계 전산처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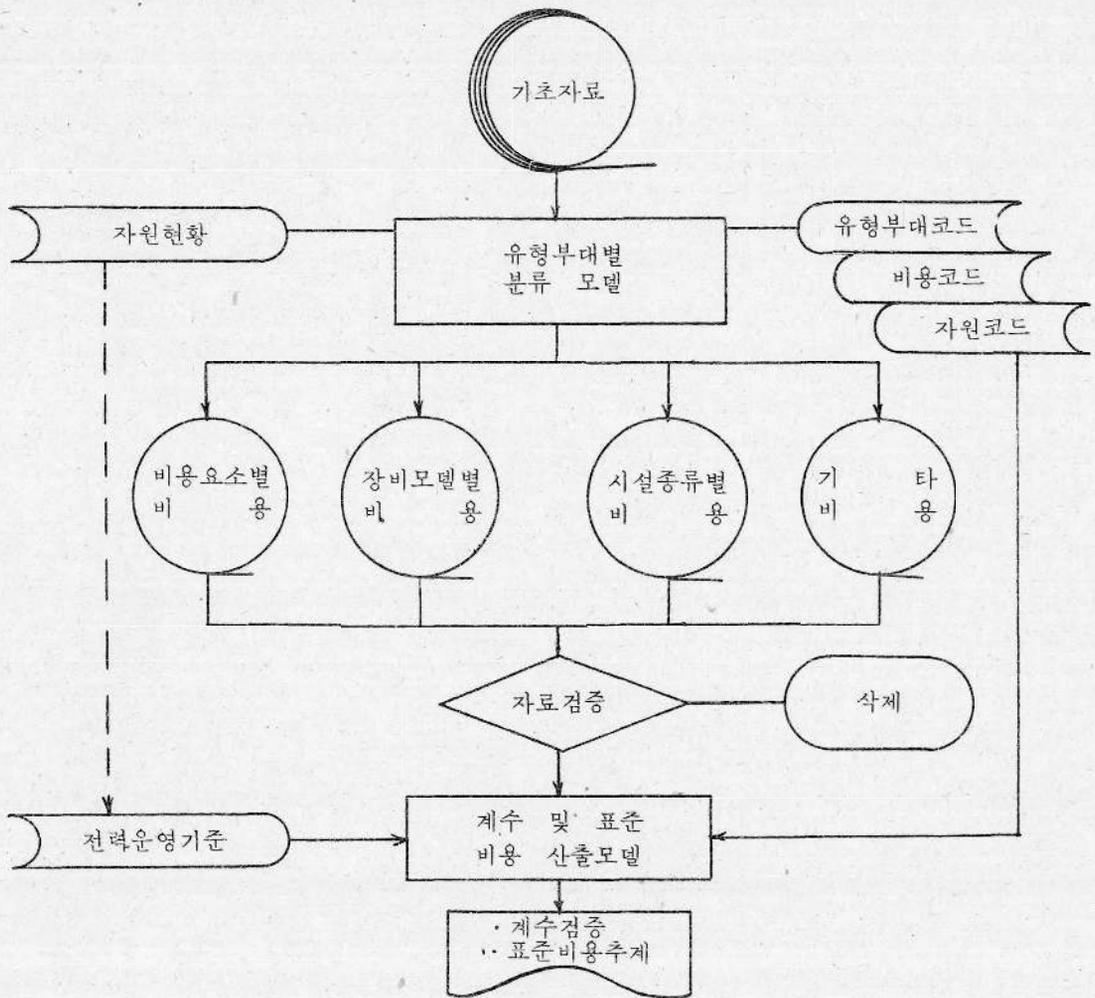


그림 3 비용분석자료 종합처리 개요

#### 4. 国防費用分析의 役割 및 特性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한마디로 해서 費用分析이란 国防資源 運營結果 資料를 분석하여 合理的 資源관리를 위한 費用情報과 基準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費用分析을 통하여 산출되는 費用情報資料는 国防管理情報(MIS)의 核心機能으로서,

첫째, 国防政策 및 事業에 대한 意思決定, 計劃樹立 및 豫算編成 등의 資源配分과, 資源의 運用통제 및 사업평가를 위한 費用基準을 提供하며,

둘째, 裝備 및 施設 등 主要 戰力資源에 대한 壽命週期費用 算定과 經濟的인 淘汰時期를 決定하도록 하며,

셋째, 單位部隊別 分權化 資源管理機能 強化 및 效率的인 軍需管理를 促進하는 등

시에 全般的인 国防管理業務의 標準化, 能率化 및 體制合理化에 寄與하는 커다란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費用分析機能이 갖는 일반적인 機能別任務와 다른 主要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국방자원, 조직 및 기능을 총망라하여 사업과 비용을 분류하여 자료를 산출하여,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의 모든 관리기능부서 및 부대에서 공통으로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綜合体系的이며, 總體性を 가지며,

둘째, 複合的인 자료로부터 하나의 표준을 산정하고 과거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電算을 비롯한 경영학, 통계학, OR/SA 등 학문적 理論과 分析技法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科學性和 進就性을 가지며,

셋째, 생산된 자료와 계수는 전산에 의해 半永久的으로 保管하면서, 새로운 자료의 生産과 與件의 變化를 고려하여 기존자료와 係數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 함으로써 새로운 費用을 산출하기 때문에 持續性을 가진다.

## 結 言

国防運營維持費는 資源을 實際로 運營하는 수많은 국방조직과 요원들의 참여로 관리되기 때문에 자원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計劃과 統制力을 행사할 수 있는 單位部隊의 資源管理 役割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

금까지는 제반, 여건, 특히 우리의 管理制度的인 不合理性 때문에 資源의 效用價值를 높이는 데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운영결과에 대한 실적자료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部隊管理者가 자기부대에 얼마만큼의 資產을 保有하고 있는지, 연간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改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資源管理體制를 分權化責任管理制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각급 관리자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 実績으로 正確한 分析和 評價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러한 體制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요원들이 참여하고 合理的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豫算改革作業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제반 관리제도를 現代化하는 동시에 全軍的인 참여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궁극의 目標課題로 国防管理會計 및 費用分析制度를 試圖하게 된 것인데, 이는 그 만큼 複雜하고 어려운 課題이기 때문에 몇 단계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마무리 作業으로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자원관리제도 발전의 基盤이 될 관리회계와 비용분석 기능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급부서에서는 본 제도의 방법 및 절차를 가장 합리적이며 실용성있게 보완·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위부대 실무요원들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思想的 葛藤과 急進的 이데올로기



趙 泰 基  
인천 전문대 교수 : 政治思想

## — 目 次 —

1. 問題의 提起
2. 靑春의 특징 · 正體感 · 갈등 · 社會發展
3. 急進的 左傾思潮
4. 結 語

### 1. 問題의 提起

人間은 본시 思惟하는 存在이다. 그 思惟를 통해 주위세계에 대한 人間의 민족과 불만,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 등을 표현한다.

思惟란 인간이 그의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媒介이며, 인간이 그의 주위세계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형성한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思惟는 단순하기도 하나, 반면에 여러 論理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도 한다. 즉 “삶이 괴롭다”. “나쁜 사회” 등을 직접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왜 나의 삶이 불행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왜 現存의 條件이 改善되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政治·社會體制의 變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論理的 思惟가 일어나며 이 진술은 진정한 삶에 대한 哲學과 그 實現을 도모하는 어떤 理論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가 體系를 갖추게 되면 그것은 곧 政治思想이 되고, 한 集團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政治的 目標달성에 理念의 구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라고 불리워진다. 1)

그런데 現代人은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이데올로기의 홍수 내지 포화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現代를 「이데올로기의 時代」라고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그 낱말의 의미부터가 언제나 人間行爲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온 것이 사실이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現代의 戰爭은 이데올로기의 戰爭이며, 現代集團의 갈등은 곧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本質이나, 그 영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이는 現代政治에 대한 研究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이데올로기란 現存 또는 미래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政治질서를 설명하고 正當化하는 信念體系일 뿐만 아니라 人間の 本性和 目的 그리고 그의 存在樣式을 충족시키는 조건 등에 관한 규범적인 기본 전제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歷史的·社會的 制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변화하지 않는 狀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知識은 변하고 발전하며, 이데올로기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모든 이데올로기의 주장자들은 그들 이데올로기의 普遍性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를 偏狹하고 硬直된 것으로 만들어 人間の 批判理性을 혼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諸이데올로기를 인간의 참다운 自

我表現을 가능케 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哲學과 理論에 기초하여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고 지닐 수 있는 「사상적 갈등-특히 우리의 젊은 世代가 수용하고 있고 또한 표출하고 있는-」과 급진적 좌파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젊음의 특징 · 正體感 · 갈등 · 社會發展

젊음의 특징이 開放的 素朴性과 純真性이 進就的 改革意志와 調和롭게 섞여 있으며, 그것이 이념이든, 의견이든, 혹은 주장이든 간에 異質的인 것을 포용하고 허심탄회하게 對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現實, 그 現實에 뒤엉켜 있는 不條理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힘이 곧 젊음의 表象임도 分明하다. 젊은이들이 創造的인 돌파구를 自由롭게 形成할 수 있는 社會가 곧 살아 있는 開放體制인 것이며, 그야말로 “멋진 社會”<sup>3)</sup>라는 견해 또한 필자도 공감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작금에 표출되어진 大學生의 思想的 갈등의 轉移과정과 그 발현이 무엇인가 開放體制 속에서의 順기능적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발현이 종래의 示威라는 學生運動의 차원을 완전히 떠나, “民主化”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을 점거한 다음,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등을 마구 사용하면서 방화까지 자행하는 등 「暴力鬭爭」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표출된 學生運動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民主爭取·民衆解放·民族統一」을 理念으로, 「民主·民衆·民族」을 口號로, 「民衆民主主義」를 目標로 하는 일련의 유인물(全學聯合합심포지움 자료집 : 참고문헌 22권까지 표기된 69面, 일보전진·깃발 I호 : 18面, II호 : 26面, 민주선언 : 제 1호('85. 9. 13)부터 제 8호, '85년 중간호('85. 12. 2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실천양상도, 「우리들의 상황인식이…… 비판적, 변혁적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 자체가 革命的 사건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이란 곧 實踐임을 명심하자. 올바른 학생관단은 인식적 實踐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자<sup>4)</sup>」라고 선언하면서, 그 주장도 단순한 학내문제나 학원 자율화 등의 요구에서 벗어나 社會革命을 선동하고, 體制까지 들먹이는 「強力한 實踐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60년대 - 정확히 말하면 昭和 30年(1955년) - 日本에서 문제시 되었던 第 2次 瀧川事件에서 있었던 학생운동의 내용과 흡사하며(①학생자치의 문제 ②反美的, 反資本主義的, 反帝國主義的인 政治運動의 性向 ③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의 지령에 따른 統一的인 행동양식<sup>5)</sup>, 더 나아가 勞働者, 都市貧民, 農民 등과 운동권 학생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이른바 「勞學연대 투쟁」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학생소요에서 제기되는 이슈도 처음에는

「民主化」였던 것이 이제는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 등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은 물론 현 헌법의 단순한 改正이 아니라 「기존헌법과의 단절 속에서」<sup>6)</sup>를 전제로 「三民統一헌법」의 제정을 선동하면서, 그들의 사상적 갈등을 左派이데올로기에서 해결해 보려는 性向마저 농후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自由民主主義란 多様な 의견이나 異見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競争的 政党的의 活性化된 정책대결을 전제로, 의견과 異見을 선의의 줄다리기와 對話를 통해 集約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침묵이나 무관심보다 훨씬 값진 것이어서 「좀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政治發展의 신음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적법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議會制度를 바탕으로, 민의수렴과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의 내부적 갈등을 極小化해 나가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이건 갈등은 있게 마련이며 進歩派와 保守派는 있게 마련이다. 美國에도 있고 西歐에도 있다.

즉 갈등과 社會發展의 연계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갈등이 없는 사회」- 이른바 全体主義國家에서는 公式 또는 官製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에 統制되어 갈등의 表出은 惡德이며, 強壓된 합구가 美德으로 맹신되어, 마치 「무덤 속의 安定」일 수 밖에 없는 상태, 바꿔 말하면 폐쇄적 全体主義社會는 특히 젊은 世代에게 오로지 同調와

服從을 강요하기 때문에, 젊은이의 正體 (identity) 도 그들 스스로가 애써 찾기 보다 이미 固定化되고 化石化된 이념을 「위로부터」 일방통행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오로지 體制를 경직하게 강화 하는데 動員되고, 흡사 당한다. 결국 敎育은 없고, 敎化 (Indoctrination) 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政治的 敎化를 통해 철저한 動員 體制下에서 젊은이들을 꼭둑각시처럼 주조 (Mould)해 내는 社會-이다.

둘째는, 「分明히 있는 갈등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풀어나가는 社會」-오히려 갈등이 社會發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그 갈등을 점진적 改革을 통해 풀어나가면서 보다 바람직하게 성숙되어 가는 상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시작된 의욕적인 近代化작업 (급속한 工業化 내지 産業化)의 副産物인 심각한 不平等, 혜택의 公正한 分配들, 원활히 동반하지 못한 經濟成長, 勤勞者의 열악한 조건 등에서 유래되는 社會正義에 대한 願望 등의 갈등이 분명히

있음을 전제로 議會制度內에서의 점진적 改革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社會-이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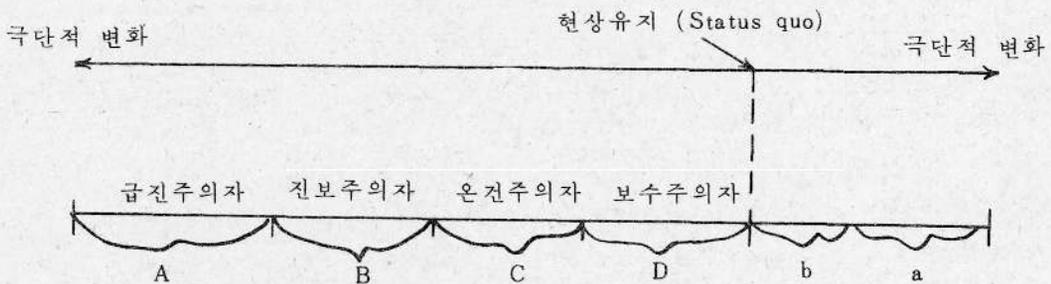
문제는 「분명히 있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社會」 안에 있는 大學生의 사상적 갈등의 表出이 「문제제기」<sup>8)</sup>의 次元이 아닌, 「문제야기」의 경지에 이르러, 그것도 「문제야기」 내지 「문제의 해결」을 急進的 좌경사상에 흡사한 이데올로기에 준거하려는 性向은 마땅히 철저한 學問的 分析과 건전한 批判的 視角의 여과를 거친 후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개관된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大學生이 수용하고 있는 急進的 左傾思想의 源流를 간추리고자 한다.

### 3. 急進的 左傾思潮

본래 保守, 온건, 진보 및 急進的 思想의 구분이 확연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表 1)에서 나눈 「政治的 스펙트럼 (Political Spectrum)」에 준거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表 1) 政治的 스펙트럼 (Political Spectrum)<sup>9)</sup>



즉 政治的 스펙트럼에서 사람들은 現存하는 政治体制(현상)에 있어서의 變化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急進主義者는 현재의 사회에 극도로 불만족스러워 그것의 變化를 위한 兪 兪 단적인 제안들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急進主義者는 社會의 兪 兪 각적이고도, 根本的인 變化(Radical: 급진주의적 兪 兪 경의식이라는 용어는 본래 그 어원이 뿌리(Radix)에서 유래하여 ‘뿌리채 뒤엎는 兪 兪 향’을 가짐)를 좋아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急進主義者들은 「革命的 兪 兪 變」을 좋아한다.

동시에 그 兪 兪 體의 變化를 「暴力的」 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兪 兪 본적으로 자기들을 兪 兪 統制하는 兪 兪 政治體制를 반대하기 때문에 兪 兪 法을 兪 兪 尊崇하기는 어려운 兪 兪 集團이 되고 만다. 10)

이러한 맥락에서 兪 兪 急進的 兪 兪 左傾思想을 분석해 보면 주로 1) 兪 兪 新帝國主義論과 兪 兪 新植民主主義 2) 兪 兪 네오·마르크스주의와 兪 兪 新좌파운동 3) 兪 兪 從屬理論과 兪 兪 急進的 兪 兪 基督教 兪 兪 神學思想(사회복음의 兪 兪 神學·희망의 兪 兪 神學·革命神學·解放神學·恨의 兪 兪 神學·억눌린 자의 兪 兪 神學·변두리 사람의 兪 兪 神學·民衆神學: 넓은 의미의 兪 兪 世俗化 兪 兪 神學<sup>11)</sup>) 등이 그 兪 兪 主流를 이룬다.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 兪 兪 大學生의 兪 兪 社會형성에 어떻게 兪 兪 接木·변이되었는지를 간추려 보려고 한다.

첫째, 兪 兪 네오·마르크시즘<sup>12)</sup> 이란 兪 兪 소련, 兪 兪 東歐 그리고 兪 兪 西歐 등에서 마르크스의 兪 兪 初期 저작에 나타난 「兪 兪 人間中心主義思想」을 강조하

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兪 兪 견해를 말한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새로운 兪 兪 해석을 시도하는 사상들의 兪 兪 집합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스탈린主義와의 兪 兪 分離<sup>13)</sup>를 전제로 「젊은 마르크스」의 兪 兪 人間主義的 측면을 강조하는 “Return to young Marx 또는 Return to the writings of young Marx”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사상의 兪 兪 요체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자본주의를 포함한 兪 兪 非共產主義體制를 공격하는 「한쪽에만 날이 달린 칼」이라면, 兪 兪 네오·마르크스主義는 兪 兪 공산주의 兪 兪 一黨體制와 자본주의체제를 동시에 공격하는 「양 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①마르크스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兪 兪 定義함으로써 ② 마르크스주의에 새로운 兪 兪 活力소를 주입시켜 ③非共產世界의 젊은 兪 兪 知性에게 네오·마르크스주의적 兪 兪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마르크스사상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兪 兪 現共產主義 兪 兪 一黨體制도 “改革”하면, 兪 兪 個人的 兪 兪 自由가 보장되는 兪 兪 體制로 변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하며, 兪 兪 小련과 兪 兪 東歐에서의 兪 兪 反體制운동의 兪 兪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①마르크스이론 兪 兪 體系 가운데 兪 兪 一部分, 특히 1848년 이전의 마르크스 사상 만을 兪 兪 준거집단으로 할 때 이론體系上 “部分을 兪 兪 全體化”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마르크스主義는 휴머니즘」이라는 슬로건은 兪 兪 기만적 단순성(Deceptive Simplicity)의 대표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사상의 핵심은 자본주의사회의 革命的 變革(…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of all the existing social conditions), 즉 社會革命이론이다. 소비에트·마르크스주의자의 사회비판의 주무기가 「착취」인데 反하여 Neo-marxists는 「疎外論」을 이용하여 後期資本主義的 복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②자본주의 생산양식과 勞動分業 등 經濟的 要因을 疎外的 源泉으로 단정함으로써 單一因果論(Monistic explanation of causes) 내지 經濟結定論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이제까지의 역사는 人間疎外的 歷史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疎外는 마르크스가 定義한 「社會主義 (現 소련·東歐 사회주의와는 다름)」에 이르면 克服된다고 강조한다. 물론 具體的 代案이나 실천적 행동강령은 결여된 채 現實社會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할 뿐이다.

요컨대 가장 경계해야 할 측면은 「Marxism is Humanism」의 공식만을 내세워 마치 反共이 잘못된 것인양 逆기능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60년대에 젊은이의 異見과 反抗이 요원의 불꽃처럼 歐美社會와 新生諸國에 번졌던 이른바 「新左派運動: New left movement」<sup>14)</sup>를 들 수 있다.

즉 신좌파는 ①체제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좌파자유주의자들과 구별된다. ②代議政治(기존질서 내에서의)의 의존을 거부한다. ③직접행동(Direct action)-항의, 데모, 해방, 극단적인 경우에는 物理的 暴力 등을 강조한다. 물론 여타의 혁명운동과 마

찬가지로 신좌파운동도 그 양상이 몹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앞의 특징을 바탕으로 간추려 보면 ①이 운동의 참가자들이 주로 학생과 지식인들 및 청년들이었다는 점 ②이 운동은 대부분 後進國 보다는 풍요를 구가하는 先進國들에서 일어났다는 점 ③신좌파의 동기면에서 그것은 先進産業社會에 만연된 부조리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등이다.<sup>15)</sup>

특히 신좌파가 도입한 急進的 전통의 가장 중요한 人物이 마르쿠제(H. Marcuse)<sup>16)</sup>인데 그의 「一次元的인 人間(One-dimensional man)」란 저서에서 바람직한 革命的 變혁의 세력을 ①西方의 疎外된 인텔리겐차 ②천대받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흑인들, ③유럽, 특히 프랑스의 재각성된 革命的 좌파 ④제3세계의 革命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신좌파운동의 영향 중 대학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要因은 ①現實社會批判, ②社會의 既存질서의 變혁주체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세째, 從屬理論 및 그 이론에 근거한 급진적 기독교사상.

세계 제2차대전 후 反植民主義의 사조와 民族主義的 각성에 따른 신생독립의 제3세계국가들은 政治的 독립(대등한 주권)과 經濟的 自立(공정한 배분)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戰後 西歐社會科學者들, 특히 美國의 社會科學者들은 이러한 從屬관계-政治的으로는 명목상 독립하였지만, 經濟的으

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다는 것-가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주장, 그것을 불식시키는 길은 저개발국가의 近代化 성취가 급선무임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즉 “西歐的 모델”의 조속한 답습이나, 西歐化의 촉진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것이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혹은 확산모델(Diffusion model)로 등장하게 되었다.

확산이론에 의하면 近代化 촉진은 그 論理的 結果로 낡은 전통적인 후진지역에 西歐의 資本·技術·制度 등을 擴散시키는 「滴下理論(Trickle down theory)」에 의하여 후진지역은 근대화 상황으로 전진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확산모델이나, 近代化理論은 “변형된 支配·從屬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自我準拠的 분석이론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탐구의 政治經濟的 조류를 통틀어 從屬理論이라고 지칭한다. 18)

그러나 從屬이론에 대한 견해와 시각은 너무나 多様하다. 특히 이중에서도 네오·마르크스주의적인 흐름으로 파악되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急進的인 시각을 가진 從屬論者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제 프랑크 19)의 다음과 같은 명쾌한 주장 한마디는 그 종속이론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즉 「나는 과거에 있어서 저발전을 초래했고, 현재에 있어서도 계속 저 발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세계적이며 일국적인 資本主義라고 믿는다」

라는 전제하에 從屬克服의 방안은 勞動者와 농민에 의해 착취계급인 資本家階級을 타파하고 資本主義 정치를 파괴시키는 社會主義革命인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는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資本·制度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사실상 현실적으로 先進國의 技術의 우월성을 外面할 수 있는가(단절의 무모성) 하는 문제와 「아민(Amin) 교수가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은 라틴아메리카와는 달리 中心國 진입가능성이 있음」20)을 시사한 면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관이 聖書나 傳統보다는 ①역사적 實在(역사적 현실상황(Context)에 비추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와 더불어 시작하여-오늘의 삶에 대한 관심(Not what is beyond, but what is here 또는 here and now)과 世俗의 삶의 현장-②社會科學(남미에서의 從屬理論, 사회분석 도구로서의 Marxism 이론-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革命論, 솔(Richard Shaull)의 모택동 전술을 수렴한 革命神學 등)의 도움을 끌어들여 남미의 교회와 정부에 맹렬한 항거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解放神學」의 영향이다. 21)

즉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The Oppressed)들을 解放하기 위한 運動의 理論的 기반이며, 토착화 신학 이후에 나온 소위 神學的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을 바탕으로 프락시스(Praxis)에 역점을 둔 神學이며, 教會의 율타리 안에 갇혀진 神學이나 神學的 교과서에서 나온 神學이 아니라 삶의 現場에서

그리고 歷史와 社會의 地下에서 태어난 實踐的·行動的 神學이어서, 이것을 케릴라神學이라고도 한다.

물론 現世의 삶의 現場에서 제나름대로 짊어진 人間的인 그리고 政治的·社會的인 문제들과 힘겨운 鬭爭을 벌이면서 이것을 基督的인 次元과 神學的인 바탕에서 해결해 보려는 열렬한 努力을 배제하거나, 나름대로의 聖書的인 典據를 오류로 단정하지는 않으나, 문제는 ①二分法的인 社會分析(Dichotomy)〈사회를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二分: Marx의 「Two great hostile camps」(兩大진영)〉<sup>22)</sup> ②階級鬭爭의 불가피성<sup>23)</sup> ③暴力에 의한 社會主義革命의 적실성<sup>24)</sup>에 대한 신뢰 등이다.

즉 ①죄로부터의 인간의 解放 ②남미의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로부터의 解放 ③저발전과 從屬으로부터의 남미解放<sup>25)</sup> 등을 그 요체로 하면서 전통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자칫 「계급투쟁을 전제로 폭력적 혁명을 통한 (Orthopraxis) 社會主義革命에 기초한 政治·經濟的인 해방」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짊어지게 된다.

끝으로, 근자에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民衆이데올로기」<sup>26)</sup>의 문제점이다.

본래 「民衆」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좌경이나 급진은 물론 아니다. 民衆·民主·民族이란 말, 그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民衆이란 본시 「管子」와 같은 古典에도 나왔고, 「孟子」에는 그말을 거꾸로 「衆民」이라고도 했다.<sup>27)</sup>

물론 말의 뜻과 쓰임은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理念語」가 될 때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理念語」가 되어버린 「民衆」의 階級主義的인 측면이다. 즉 ①일단 「敵」과 「我方」을 철저히 兩分시키고 있다.<sup>28)</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7대階級(매관 독점자본, 신중산계급, 중소상공업자, 부농, 빈농, 노동자, 도시빈민)으로 나누되 「民衆」은 지배·피지배관계에 있어서 3階級(노동자, 빈농, 도시빈민)만이라는 전제다. 따라서 「敵對的인 分類」은 鬭爭을 전제한 것이며, 鬭爭은 필연코 어느 일방의 「必滅」과 타방의 「必勝」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는 「完勝」과 「完敗」적 사유를 큰 기둥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민중 民主主義 民族革命論」과 「民族的인 正統性」에 문제이다.

즉 民族的인 正統性을 좌파운동에 가담하였던 人士들에게만<sup>29)</sup>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상이 짊어지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主体는 한민족이며, 正統性은 主体의 再結合에 있다」라는 當爲論的인 전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 이론의 검증은 대한민국(원천國家 또는 총괄국가)→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현 대한민국의 기미진 국으로부터의 연속성)→국제사회의 승인(1948. 12. 12 UN 총회결의 제195호 II) 등의 史實은 存在論적인 대담의 객관적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 좌경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일부 대학생들의 유인물은 대한민국정부를 「親日的·매관자본, 半봉건적 土

着地主層과 附日관료층을 階級기반으로 反共的 親美的 政權수립을 요구하는 美国과 부착함에 따라 성립된 政權」으로 규정하고 「학생운동은 政治權力的 획득을 위한 非妥協的 政治鬭爭」이어야한다는 論理에까지 비약하고 「기존의 헌법과의 단절 속에서 民衆的 正義와 民主的 기본질서」云云 하면서 기존체제를 뿌리째 뒤엎는 「革命的 속성」을 노정하고 있다.

#### 4. 結 論

現代社会(특히 우리나라의 分断상황, 급속한 공업화, 전통윤리의 흔들림, 개방사회의 逆기능 등)가 사회갈등의 대단한 파동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문제는 「分明히 있는 갈등」을 ①점진적 내지 진화적 과정·방법(Evolutionary process)으로 사회안정의 바탕 위에 가능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census)를 통해 풀어나가는 슬기를 집약·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②革命的 변화·변혁(Revolutionary change)에 의존하여 体制의 뿌리마

저 흔드는 과격한 프락시스(Praxis: 實踐)의 逆기능을 감수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국민 모두의 앞에 놓여있다.

이제 大学生은 「知的 편견」- 민중혁명의 선동은 階層간의 和合보다는 적대감·항심과 증오 등의 유발→계층간의 대립의 침체화→생산과 성장의 위축→사회불안 조성 - 에서 벗어나 「行動에 앞선 創造的 사고(學理와 主義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이지 움직일 수 없는 信條는 아니다)에 전념하며 〈學生은 政治人일 수 없다〉<sup>30)</sup> 이제 大學도 홍역은 짧을수록 좋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학원이 「國家전부의 기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의 自律大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겠다.

끝으로 「과거의 역사를 批判할 수는 있지만 재판할 수는 없다」라는 시각에서 体制内の 安定과 발전을 도모해 보려는 自家省察(여·야, 국민 모두의)을 필요로 하는 地歩에 이르렀음을 깨닫기로 한다.

#### 註 解 釋

- 1)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現代 이데올로기의 諸問題」, (서울: 민음사, 1978), 序文, p. 참조.
- 2) Frederick M. Watkins,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195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4), pp. vii-viii (Preface).
- 3)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서울: 법문사, 1974), pp. 3~4. 머리말.
- 4) 서울대 민주학우, 「깃발」 제 1호: 1984. 8. 31, p. 3.
- 5) 高坂正顯, 「학생운동의 虛像과 實像」, (단국대학 문화진흥위원회 譯, 1984), pp. 34~40 참조.

조.

- 6) 서울대학교 민주선언 제 1호 (1985. 9. 13) 창간호, 「민주제 개헌과 민중 민주화운동」, 題下, p. 5
- 7) 趙泰基, 「大学の 제자리: 급진적 좌경사상의 性向分析」, (京仁日報, 1985. 8. 26). 韓完相, 앞의 책, p. 22 참조. 「青年文化에 있어서 改革的 人間像과 질서지향적 인간 간의 조화를 역설하고, 한국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사회구조적 分化가 심각한 단절현상을 유발시키는 사회에서는 비록 호두와 같이 딱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中心이 어느 정도 잡힌 正體意識이 필요함」을 명기하고 있다.
- 8) 중앙일보, 「학생은 문제제기에 그쳐야 한다」(1985. 5. 25日字), 제 3면, 「대학생들의 '美文化院 점거사건' 이렇게 본다: 이기택, 이명박, 이상희, 임방현(여·야, 실업계, 교수)의 좌담,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제기한 문제를 너무나 단번에, "몸부림을 쳐서라로" 승부를 내려는 자세는 民主主義의 발전에 위태롭다」. 「(운동권) 학생들이 '변화의 論理' 를 주장하면, '安定的 論理' 도 주장하는 階層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아량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大學生이 현실 政治문제를 재단하거나 좌우할 입장은 아니다」. 「내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은 독재라고 여기는데, 非民主的 心性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 9) 신복룡·조태기 外 譯, 「現代政治思想」(서울: 평민사, 1985)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Their origins and impac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4). p. 66
- 10) Ibid, p. 73 참조. 특히, 進歩主義者와 급진주의자 간의 法과 그 體制에 대한 근본적 태도의 상정, 細目.
- 11) 趙泰基, 「解放神學과 政治이데올로기」(서울: 현대 사회연구소, 現代社會 봄호 1984), pp. 61-78 참조, 특히 Marcuse의 영향을 받은 Richard Shaull의 革命神學의 細目: p. 63의 註 6 참조. 「솔」의 게릴라적 혁명전략의 分析은 p. 65.
- 12) Richard T. De George, *The New Marxism* (New York: 1968)과 J. M. Bochenski et al. (ed) *Guide to Marxist Philosophy* (Chicago: The Swallow press, 1983)를 근거로 작성한, 金甲喆, 「Neo-Marxism의 本質과 機能」(건국대 부설, 현대이념 비교 연구회, "현대 이념 연구, 제 2집 1984), pp. 67-81 참조, 즉 1932년 초기 저작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과 *The German Ideology (1845)*」이 出刊되고 나서부터 Neo-Marxism이라 부르는 제 3의 경향이 출현하였다.
- 13) 스탈린주의와의 分離를 내세우는 것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의 격하 또는 脫 스탈린주의를 역설하여 스탈린의 잔악한 독재·대숙청 등을 담은 연설「個人崇拜 및 그 有害한 諸 結果」 참조.
- 14) Edward J. Baccioo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Reform to Revolution, 19*

- 56 to 1970(California, Hoover Institute Press, 1974), 「1960 : 美国 신좌파의 기원」, pp. 21-28, 「신좌파의 정신」 pp. 29-86 등 참조.
- 15) Max Mark, *Modern Ideologies*(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3), pp. 210-212 참조.
- 16)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에릭프롬(Erich Fromm), 허버트·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 독일 프랑크푸르트학과 및 그의 동료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적 전통과 앙리·르페브르(Henri Lefebvre) 같은 革命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의 批判的 思潮 등이다.
- 17) 金甲喆, 「新좌파운동 : 이데올로기와 행동강령」, 현대이념연구 제 3集,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연구회, 1985), pp. 33-45 참조.
- 18) 葉鴻철, 「現代급진사상」, (현대사회와 전통사상의 연계성 모색 : '85전국대학 국민윤리 전담교수 연수회, 국민윤리학회, 1985. 8. 26-29), p. 23.
- 19) A. G. Frank, *on Capitalist Development*(Bombay : Oxford Univ. press, 1975) p. 107 107 참조. Antony Brewer,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Routledge Kegan & paul, 1980), p. XI 참조.
- 20) 「한국의 발전과 從屬理論의 쟁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85. 6月, 아민(Amin) 교수의 발언 요지 참조).
- 21) 趙泰基, 「現代社會와 經濟倫理」 : 산업선교와 노동운동(국민윤리교육의 현실과 그 과제 : 국민윤리학회, 서울·경기지회 워크샵, 1985. 6. 29) p. 45. 전통적 시각에서의 기독교사상과의 비교는, 趙泰基, 「해방신학-정치이데올로기의 성향을 중심으로-」, 현대이념연구 제 2집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연구회, 1984). pp. 1-3 참조.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Falcon, London, 1975) (서정운역, 현대기독교 선교, 대한기독교 서회, 1982) p. 137 참조.
- 22) Juan Luis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s, 1976), p. 14. Gustavo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s, 1973). pp. 272-73 우리말 해설의 상세한 내용은, 고범서, 「解放神學」(서울, 汎和社, 1985) pp. 101-105.
- 23) Juan Luis Segundo, 같은 책. p. 14, Gutiérrez, 같은 책, p. 273 고범서, 같은 책. pp. 105-110.
- 24) Gutierrez, 같은 책, p. 276. 고범서, 같은 책, pp. 111-114 참조. 특히 쉘(Richard Shaull)의 이론과 토레스(Camilo Torres) 神父 등의 이론과 실천의 혁명적 투쟁사래의 상세한 내용은, 조태기, 「해방신학-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중심으로-」, pp. 99-102, pp. 111-113 참조.
- 25) Thomas G. Sanders, "The New Latin American Catholicism", in Donald Eugene Smith (ed), *Religion and Political Modernization*,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1974), pp. 294-295.

- 26) 조선일보, '85. 7. 19 1면, 조태기, 「大学の 제자리」(京仁日報, '85. 8. 26), 김태환, 「민중교육, 무엇이 문제인가」(自由公論, '85. 10月号), pp. 90-93 참조.
- 27) 學問의 分析接近은 아니지만 民衆·民族·民主, 「三民」이 등장하게 된 간략한 배경과 그 쓰임새의 흥미있는 설명은, 「한국일보」, 1985. 7. 20. 第一面 「地平線」 참조.
- 28) Karl Mark and Fredev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co., Inc., 26th Printing., 1985), p. 9 「Two great hostile camps: Society as a whole is more and more Aplitting up into two great hostile camps, into two great, classes directly facing each other: Bourgeoisie and Proletariat: 兩大敵大진영論」.
- 29) 김창순, 「공산주의 민족이론과 정책비판-전환기의 사상-」, 부록 I, 「역사로 본 한인공산주의 운동」, pp. 115-214, 부록 II, 「기록으로 본 북한 김일성」, pp. 215-255 등 참조. 특히 「光復 40년-우리는 어디에 있는가-〈1〉」, 동아일보 1985. 8. 5. 제 5면, 윤형섭〈공동토론 참석자: 김정흠, 노재봉, 박용욱, 박우희, 송복, 안병영, 유영임, 윤사순, 윤형섭, 이효재, 조순, 차경주, 대표집필 윤형섭〉.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한민족 동질성 회복 캠페인, 〈29〉」, 조선일보, 1985. 7. 26. 제 5면.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일부 젊은이의 우려되는 해방후史 인식-」, 동아일보, 1985. 8. 7. 제 2면 사설. 「왜 민족적 正統性을 회의케 하는가」, 경향신문, 1985. 7. 25. 제 2면 사설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30) 張日祚, 「政治의 현장이 된 캠퍼스」(月刊朝鮮, 1985. 12月号) pp. 135-141. 특히 「학생은 政治人이 아니다」, pp. 136-7. 「사상의 혼미와 계몽적 自由는 별개」, pp. 139-40 참조.

목숨바쳐 지킨 조국

멸공으로 빛내가자



- 목 차 -

1. 가정교육은 교육의 원형
2. 현대가정의 교육적 과제
3. 현대가정이 해야 할 교육적 기능
4. 가정교육과 사회화 교육

# 가정교육과 사회화 교육

## — 家庭의 달을 맞아 —

### 1. 가정교육은 교육의 원형

극히 적은 수의 불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가정을 인생의 요람이요, 동시에 무덤이라고 하게 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고든 교육은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민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갈무리를 하는 방법을 자기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옷의 원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직조를 하는지를 가르쳤다. 집은 어떻게 짓고, 연료는 어떻게 만드느지를 보여주고 가르쳤다.

유목민들은 대개 말타는 방법, 물이하는 방법, 동물의 가죽 벗기는 방법, 동물의 고기 요리하는 방법, 나아가 동물의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들고, 물물교환으로 장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김 재 은

이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하고, 연장자나 연하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족의 신과 자연의 신에게 어떤 제사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막고 어떤 식으로 피하고, 어떤 식으로 무기를 만들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기네 조상(부모)이 가르쳐준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셈이다.

오늘날의 사회도 그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교육방법이 달라졌거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매체가 달라졌을뿐, 2세들이 배우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즉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의 제도와 법을 배우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몇10년 몇100년이 지나도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변화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10년만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갈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옛날에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정 안에서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거의 모두 가정 밖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변함이 없

는 몇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가정이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며, 앞서가는 어른 부모는 자라나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의 건전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정이란 생명을 이어주는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관계란 점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비록 부부가 이혼한다 해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인위적인 관계(예를들면 아이를 유기해서 남의 집에 양자가 되어가서 그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해도)로서 끊을 수가 없는 생명적인 관계이다.

세째로, 가정은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잇는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간혹 미혼자가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거나 양자를 들인다해도 그런 대를 잇는 관계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정의 자녀양육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만 주로 말하려고 한다.

## 2. 현대가정의 교육적 과제

가정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녀를 생산(대를 잇는 일)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가 장차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문화전승, 자립적 인간)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습

관을 철저히 길러 주었다. 예를들면 혼자서 옷입고 벗기, 대소변 가누기, 대소변 처리하기, 음식 흘리지않고 먹기, 음식 남기지않고 깨끗하게 먹기,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어른께 문안드리기, 일 열심히 하기, 어른에게 존대말쓰기 등을 비교적 잘 가르쳤다. 그런데 이런 기본습관의 교육에서 오늘날의 가정은 소홀히 하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대소변 가누기만은 비교적 잘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그 나머지 기본습관은 잘못된 점이 많다.

예를들면, 음식먹을 때도 투정을 해도 비교적 잘 들어 주지를 않으나, 가려먹으면 야단은 치지만 아이들이 대개는 이기게 되고 부모는 그 편식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굳 것질을 시키질 않나, 아이들이 사달래는 인스탄트식품을 대개는 사주질 않나, 식사 한 가지만 가지고도 편식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한쪽으로 기울고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어른에게 경어를 쓴다거나 공손히 대한다거나 하는 것도 대체로 안 되어있고, 옷입고 벗는 것만해도 혼자서 못하고 꼭 어른들이 시중을 들어주어야 한다거나 하는 습관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로, 옛날에 가정에서 가르치던 도덕교육이 오늘날의 가정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읍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 철저히 잘하기, 부모에게 효도하기,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따르기,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갖기, 근면성, 성실성, 검약정신, 협조하기, 희생정신 같은 것

은 거의 못가르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협력보다는 경쟁에 몰두하는 사람, 정직보다는 요령부리기, 근면성보다는 게으름피우기, 검약보다 낭비가 조장되고 있는 가정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세번째는,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결혼 후에 살아갈 준비를 시켰다. 여성으로 말한다면 결혼식과 첫날밤지내기, 시부모·시동생·시누이 대하기, 요리하기, 의복만들기, 음식 갈무리하기, 농사짓기 등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이런 모든 기능적인 훈련은 거의 시키지 않는다. 남자에게도 그런 교육을 했다. 특히 직업교육을 비교적 철저히 했다. 오늘날은 가업을 잇는 경우란 극히 드물어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이상에서나 시키게 되어 있다.

네째로, 옛날에는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덕성교육을 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내성의 교육, 겸손의 교육, 중용지도의 교육, 충성심의 교육 같은 것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이런 인격교육은 별로 하는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가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가야 되겠다.

### 3. 현대가정이 해야할 교육적 기능

앞에서 옛날 가정에서 했던 일중 오늘날의 가정에 결여된 점등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옛날 가정이 하던 일을 되풀이하면 된

다는 말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던 바를 반영해서 교육을 했던 것인만큼 오늘날의 가정교육은 오늘날의 사회가 요청하는 바를 반드시 반영해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해야할 교육적 기능은, 첫째, 기본습관을 좀 더 철저히 가르쳐야할 일, 둘째, 건강습관과 스포츠교육, 셋째, 가정내의 질서지키기, 넷째, 중요한 德目的 함양, 다섯째, 민주사회에 적응할 시민적 자질함양, 여섯째, 직업준비에 대한 교육등이 될 것이다.

첫째,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기본습관을 좀 더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 기본습관이란 어릴 때 들여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길러놓으면 커서는 좀처럼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너무 늦지않게 자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세수하고, 잠옷 챙기고 하는 습관부터 들여야겠다.

그런데 흔히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두들겨서 깨우고, 일어나고난 후에도 부모나 가정부가 이불을 개고, 옷을 입혀주곤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스스로 하도록 권장할 일이다. 식사를 할 때에는 고루고루 먹고 깨끗이 자기 몫을 먹는 습관과 주는대로 불평없고 먹을 수 있는 잡식성(雜食性)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쪽 음식에 쉽게 적응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자주 이 닦고, 목욕을 자주하고, 운동하고 하는 습관,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튼튼한 피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습관이다. 특히 커서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더운 지방이나 추운지방이나를 막론하고 기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갖는데 꼭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서 몸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면 위급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또 협동정신과 용기와 공정한 정신을 갖게 하는대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습관은 우리가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문명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몫을 할 것이다. 문명인일수록 몸가짐도 깔끔하게, 옷매무새도 깔끔하게, 생활주변환경도 청결하게 가꾸는 생활일 것이다. 일생동안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해가는데 어릴 때의 청결에 대한 습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도 기본습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면관계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

다음은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질서지키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즉,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이고 어버이고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사랑하고도 존경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은 그저 친구처럼만 다루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호칭도 함부로 쓰고, 말도 함부로 하

고, 부모옆에서의 거동도 불손하고, 정제하지 못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20세나 되는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빠”하지를 않나, 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덤비지를 않나, 이런 인간관계의 무질서는 결국 사회의 무질서를 낳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언니나 누나와 오빠나 형에 대한 태도, 동생에 대한 태도 등을 때때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德目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다. 옛날 儒者自評書인 小學이나 童蒙先習이나 明心寶鑑을 보면 주로 三綱五倫이 주축이 되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德目을 발견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와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태도, 남의 의견도 자기 자신의 의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집단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것이면 자기 의견과 안맞아도 승복하는 태도, 이런 것을 민주적 덕목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정신, 정의, 권리주장 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이행, 협력, 준법정신 같은 덕목은 현대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질서지키기와 법을 지키기와 위에서 이미 말한 그런 특질들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사회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남과 더불어 살아야

되므로 많은 종류의 사람과 넓게 사귀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내 가정이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직업에 대한 준비이다. 직업에 대한 준비는 직업교육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직업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그쪽으로 자기의 적성을 발전시켜나가도록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이 현대가정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가정교육과 사회화 교육

가정은 교육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의 기능이다. 보호의 기능이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나 물결, 부조리,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크면 어차피 사회로 진출을 해야 하기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준비를 시켜주는 이른바 사회화의 기능이다.

사회라는데는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잡다한 불순요소들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 범죄도 있고 비인간적인 것, 비문화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비교육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강력한 물결이 되어서 대중홍보매체를 타고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물결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생활경험과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교육매체 등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교육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신이 사회의 어두운 것, 불순한 것, 비윤리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아이들은 그것들을 소화시킬 능력을 갖기도 전에 좌절하고 心性이 파괴되고 정신이 오염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방과제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 거친 世波를 차단해서 부드럽게 완화된 물결만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깨어지고 제구실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차츰 이 사회의 實存的 모습에 접근해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어울리게 이 사회의 역사나 제도나 규격이나 구조에 가까이 접근해 가야한다. 언제까지나 방과제인저 내해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다. 배는 항구(부모)를 떠나야 하고 항해를 하거나 고기잡이를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제구실을 할 수가 없다. 거친 물결을 헤치고라도 항해를 강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 항해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사회화 교육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저 바깥사회가 반드시 비교육적이거나 비문화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므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잡다한 사회현상 중에서 바람직스러운 것과 바람직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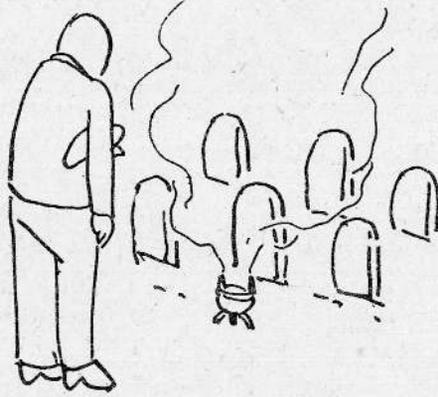
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는 TV프로 중 젊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해한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프로들을 선별해서 볼 수 있고 판단능력 같은 것을 길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둡고 추잡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소화시켜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것을 배척하는 힘을 길러주는 면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사회화 교육의 소극적 면이라고 보겠다.

또 다른 한 면은, 이 사회가 어차피 자기가 살아가야할 운명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역사나 제도나 법률이나 전통적인 문화나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시민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 이 두가지 사회화 교육을 다 감당하기에는 力不足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교육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특히 그 사회의 역사나 제도 법률 전통을 부모들이 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정이 곧 민주사회의 축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전대 부모는 어른이지만 부당하게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무시

## 〈현 충 일〉

호국영령 받들어 충의전통 이어가자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맡겨진 직책을 다 제대로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는 책임과 동시에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회화교육은 부모의 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자신이 민주시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도 민주시민이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화교육의 이 두번째 측면에 관한한은 부모가 최상의 교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교육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1985年

# 印度의 安保環境

- 목 차 -

- 序 言
- 1. 印度의 政治
- 2. 印度의 國防
- 3. 印度의 經濟
- 結 論

준 장 박      鍾 權  
(제5315부대)



## 序 言

2000年代를 바라보며 世界 속의 韓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들의 視角에 비춰지는  
오늘의 印度는, 과거의 歷史와 文化, 그리고  
宗教로 엮어진 原色的이며 外形적인 모습  
보다는 貧困과 後進性을 脫皮해 가면서 非  
同盟運動의 盟主國으로서 第三世界를 主導  
하여 미·소 양대진영에 外交的 挑戰을 감  
행하고 있는 動的이며 內在的 實像이 되어

야 할 것이다. 多民族·多言語·多宗教의  
갈등으로 內的 安保威脅이 極甚한 가운데서  
도 妙한 調和를 유지하며, 世界 最大의 民  
主主義 政治體制를 自負하면서도 3代에 걸  
친 家族政治가 行해지고 있는 가운데 經濟  
的으로는 社會主義 혼합체제에서 점진적으  
로 資本主義 開放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印  
度를, 現地에서 1년간 직접 체험하면서 나  
름대로 그들 체제를 理解하고 파악하는데  
는 너무도 복잡하고 異質的인 要素들이 많  
았었다.

한편 '8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印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 印度는 가장 市場性있는 우리의 수출대상국가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85年度부터 시작된 제7차 5개년 경제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標本으로 하여 進推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印度에 대한 우리의 知識과 情報는 歷史·地理·文化 등 靜的인 자료에만 置重되었으며, 政治·經濟·軍事·外交 등 國家安保와 社會力學的인 動的分野의 지식에는 상당히 어두웠으며 制限된 一部 專門分野에서나 약간 다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했다.

外交의으로는 非同盟國家들을 이끌면서 國際的 地位는 크게 伸張시켜 왔으나 國內的으로는 人口抑制·經濟發展·人種과 宗教問題 解決 등 政治的·社會的 難題들을 안고서도 2000년대를 向하여 매진하고 있는 印度에 관하여 우리는 보다 正確한 지식과 多角的인 分析이 必要할 것 같다.

이 글은 筆者가 印度國防大學院에서 13個國 軍將星, 印度의 高級軍官 및 行政官吏들과 같이 1년간 安保研究課程을 이수하면서, 認識되고 수집된 印度의 政治·軍事·經濟 등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1985年을 中心으로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1. 印度의 政治

### 가. 政治狀況

1984年 10月 31日 시크교도 (수상경호원 2명 포함)에 의한 인디라 간디 수상의 암살사건은 1947년 印度獨立 이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간에 最惡의 流血事態를 빚었으며 수상 장례식을 전후하여 일어난 힌두교도들의 폭동은 뉴델리를 비롯한 인도 전역 80여개 都市로 확산되어 무차별 殺肉과 放火로 인해 2,146명의 시크교도가 殺害되고 뉴델리에서만도 3만여명이 집을 잃는 등 人種間·宗派間 致命的의 衝突로 인도근세사에서 最大의 政治的·社會的 혼란기를 맞이하였는데 '85년의 政治狀況은 이러한 혼란의 여파로 沾染되어 왔다.

인디라 간디의 뒤를 이어 자일 싱 대통령의 指名으로 새 수상에 취임한 라지브 간디는 早期總選을 실시하여 집권의회당이 총 의석 544席中 401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새로운 內閣責任政府를 일단 출범시켰는데, 이는 수상암살에 따른 충격적인 同情을 이용한 執權與黨의 選舉戰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總選舉時에 全國 22개 州 가운데서 Punjab州와 Assam州는 人種 및 宗派間 不和와 州 자체의 社會不安으로 選舉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Gujarat州 또한 賤民特惠 쿼터 문제로 인한 6개월 간의 유혈폭동은 라지브 간디 새 내각의 政治發展에 커다란 障礙要因들로서 그 내용을 좀더 설명하면

• 먼저 Punjab州는 시크교도들이 Kharistan國으로서의 完全분리 獨立主張에 따른 示威 및 組織的 테러행위는 계속적인 社會 소요와 政治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바, 라지브 간디는 이들에 대한 忍耐와 說得으로 '85년 9월에는 州 선거를 실시하는 등 무마작업에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으며,

• Assam州는 1965년 인·파戰爭 이후 파키스탄 난민들을 비롯한 변방 流民들이 Assam州로 모여들어 오늘날은 經濟的·社會的 地位가 크게 浮上되므로 인해 原住民들의 移住民에 대한 拒否現狀이 深化되어 상호간 基本權利鬭爭을 誘發한 것인데 이에 中央政府가 介入하여 1971년 2차 인·파戰爭 이전의 移住民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移住民에게는 永住權만 부여한다는 원칙으로 타협점을 찾아 州選舉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 그리고 Gujarat州는 마하트마 간디 出生州로서 무저항운동의 始發地인 동시에 하층계급의 사회적 特惠가 가장 높은 곳인데 6개월간 亂動의 주 쟁점은 賤民階級에 대한 특수전문직(의사·법률가·엔지니어 등)의 대학입학 배분을쿼터를 下向調整하라는 일반대중의 要求鬭爭으로서 군대와 중앙경찰의 介入事態까지 물고 왔으나, 특별 쿼터의 調整으로 수개월전 폭동이 진정되고 일단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 나. 政治的 課題 및 展望

라지브 간디 수상은 취임이래 모든 政策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면 재검토 및 평가로 제반 계획을 재정립함으로써 7차 5개년계획 조정·교육정책확립·사회계획 실천방안 정립·행정법 간소화·수출입 규제완화 등 일부 비판 가운데서도 인도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治癒하는 體制改善 노력을 경주하여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어가고 있다.

현행 인도정부의 최대 政治課業은 7억 5

천만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과 無知의 大衆을 救濟하여 社會的 生産活動에 참여시키고 分配의 均衡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이들 본질적인 정치과제는 後進國 및 開途國의 共通的인 문제이지만 거대한 인구때문에 인도는 특히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 같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自負하고 있지만 독립 이후 40여년간 사실상 일가족 統治下에 이끌려 왔으며, 약체의 政黨은 일반대중의 輿論收斂 기능이 저조하고 言論의 自由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극히 미온적이다.

일부 政治家들의 知的水準 및 政治的 眼目は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公共機關의 낮은 行政處理, 公務員의 怠慢과 業務의 非能率性은 일대 刷新이 불가피하고, 富의 積단에 있는 상류층과 절대빈곤의 하부층간 貧富隔差 解消, 무한정 번식하고 있는 人口增加의 抑制, 人種과 宗派간의 和合, 中央政府의 行政權 강화 등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단결을 호소하며 정치제도의 발전, 부정부패의 일소 및 대중적인 삶의 향상을 主唱하는 신임 라지브 간디 수상의 새로운 정치감각에 국민적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대의 인도는 현대과학 및 산업기술의 효과적인 導入과 풍부한 人的·物的 資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한다면 經濟自立의 단계를 넘어 제3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浮上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印度의 國防

### 가. 安保環境

印度大陸은 약 330만km<sup>2</sup>로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길이가 가로세로 共히 3,000km가 넘는다. 邊境 접경국가로는 서북에서부터 파키스탄, 중공, 네팔, 부탄, 버마, 방글라데시의 6개국과 접하고 있고 東으로는 暹羅灣, 西로는 아라비아海, 그리고 南으로는 印度洋으로 둘러싸여 육지 邊境 총 거리 15,200km, 海안선은 총 5,700km이다.

따라서 龐大한 국토와 인구는 地域國家間의 關係形成에 상당한 影響力을 발휘하여, 부탄왕국의 방위책임도 인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네팔·버마·방글라데시는 歷史的·地理的으로 印度安保上 전혀 위협적 요소가 없다. 東南方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印度의 安保環境에 뚜렷한 영향은 주지 않지만 스리랑카에 定着한 인도의 Tamil 原住民이 스리랑카로부터 獨立主張을 하고 있어서 양국 政府間 主權侵害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國家安保的 次元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中共과도 북부지방 領土問題로 갈등은 있으나 Himalia 산맥의 천혜적인 방어 벽 때문에 군사적 安保 측면에서 볼 때 局地的 國境分爭 이상의 깊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樂觀的인 견해가 支配的이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 30여년간 인도의 安保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敵對視해 왔으며 Kashmir 領土權 문제로 두차례 (1947, 1965)의 전쟁과, 방글라데시 獨立問題로

1971년 한차례의 전쟁을 치루었는가 하면, 최근에도 파키스탄의 급격한 軍備增強으로 印度安保環境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印度 역시 軍의 裝備現代化 및 戰力增強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양국이 共히 核武器 生産여부까지 論爭이 고조되고 있는 實情이다.

### 나. 軍事外交 및 軍備現況

1980년대에 있어서 印度 外交政策의 基調는 強大國과의 均衡外交와 非同盟主義이지만 주변국가의 安保環境과 情勢變化에 유연성있게 対応發展시키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은 印度의 軍事外交 및 國防政策 수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3차례에 걸친 인·파 전쟁과 아직도 UN 감시에 있는 休戰狀態 및 領土紛糾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는 파키스탄을 抑制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특히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은 파키스탄의 空軍現代化에 충격받은 인도는 '84~'85 2년 동안에 각 분야에 걸쳐 현저한 軍備增強을 이룩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란서로부터 Miraju 2000 다목적 항공기 구입으로서 지난 6월부터 1차 계약분 40대가 단계적으로 인수되고 있으며 Miraju 4000도 '88년 導入計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는 Jaguar 전투기와 Harrier 함재기를 78년부터 引受해 오고 있고 '86년에는 해상초계 Hel機 Seaking을 도입하며, 독일로부터는 잠수함 4척(2척 도입

· 2척 기술생산)을 86년 구입계획으로 있다. 또한 印度의 항공기 생산능력은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MiG-21, 23, 25, 27과 불란서 Hel機 Alatte II 및 영국 수송기 HS-748을 기술생산하고 있으며, MiG-29도 85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계획하는가 하면, 3軍 전력증강의 均衡을 위해 최신행 소련탱크(T-72)의 추가도입, 장갑차 및 대포의 생생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해군의 유일한 航空母艦 VIKRAN号에 추가하여 3~4척의 航空母艦 導入計劃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의 武器体系는 多国籍이며 東西 양진영의 무기가 共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도의 軍事外交 및 향후 武器体系管理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軍事武器 援助나 導入은 아직 없었으나 최근 인도의 国营航空会社(HAL)가 설계하고 있는 輕量급 전투기의 엔진을 미국 GE社로부터 導入을 內定한 사실은 양국간 획기적인 군사외교관계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印度의 軍備增強을 위한 親西方外交로의 부분적 방향전환은 엿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소련에 대한 軍事依存度가 他國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安保에 관련된 外交關係는 相互不信의 澎湃로 好轉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예상되며 특히 '85년 9월 파키스탄의 核保有能力 開發推進에 신경이 곤두선 印度는 自體의 核武器 生産 여부를 두고 政治的·外交的 名分에 논란이 일고 있

어서 파키스탄의 不可侵條約 提議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계속 疏遠하다.

#### 다. 防産能力과 展望

印度는 1960년대부터 防衛産業 中心으로 重工業 育成에 힘을 써서 비록 중소기업과 일반공업분야는 낙후되어 있어도 航空機·軍艦·戰車·大砲·레이다·人工衛星·컴퓨터 分野는 中共에 이어 제 3세계의 先頭에 나서고 있어서 이는 印度에 대한 普遍的 認識을 완전히 달리 해야 할 정도인데,

航空機는 Bargalore의 Hindustan-Aeronotic LTD에서 종합조립과 시험비행을 하면서 南部州 5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엔진, 동체 및 날개·통신·전자 등을 각기 專門的으로 分業化하여 개발하는 동시에 導入 航空機의 대부분은 기술생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남부지역의 Madras는 重工業의 중심지로서 전자 및 대포공장, 자체건설에 의한 거대한 精油工場 및 原子力發電所(인도 전역은 총 6개소)가 있으며, 199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造船所는 Bombag에 있는데, 그곳의 Mazagon Dock는 200년의 歷史를 가진 戰艦工場이지만 설비와 규모는 대단한 것이 못 되었으며, 인도는 현재까지 5개의 人工衛星을 外國(소3·미2)에서 발사하였는데 1990년에 自體發射를 목표로 설계 중에 있다.

지금껏 非核運動을 主唱해 온 印度가 核武器 生産의 當爲性을 찾기는 곤란한 입장이지만, 최근 파키스탄의 核武器運搬 및 生

産能力 開發推進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은, 核武器 生産의 불가피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分析되며 印度의 방위산업과 원자력에너지 개발능력을 감안하면 核武器開發 基礎体制은 이미具備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印度의 '86년 국방예산은 GNP의 약 4% (중앙정부예산의 33.5%) 수준으로서 空軍과 海軍力 增強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国力伸張과 軍事力 增大로 인해 계속적인 軍備增強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印度의 基本軍事戰略은 '80년대의 攻勢的防衛戰略에서 90년대는 部分的抑制戰略으로 轉換을 시도하고 있다.

### 3. 印度의 經濟

#### 가. 經濟構造와 最近動向

印度의 經濟体制은 지금까지 社會主義 混合經濟体制을 유지해 왔는데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經濟의 自足性을 갖지 못한 것은 농업의존에 의한 産業化의 落後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까지 경제발전이 침체되어 개인소득 270불 정도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 重工業은 국영기업체로 政府가 주도하고 있으며 낙후된 경영관리 및 높은 관세로 市場價格은 높고 국제경쟁력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반면 소모성 工產品과 자동차·면직물·전자제품 등의 中小企業은 私企業체로서 최근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政府는 国营企業체를 단계적으로 私企業化하려는 政策을 입안하고 있으나 그간 私企業育成政策의 不在

로 아직 그 준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印度政府는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생산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현대화·산업투자 증대·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무역확대·단계적 수입자유화 등 자유경제체제로 그 체도를 수정해 왔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産業現代化를 위한 기술도입과 設備投資에 IMF, AD B, IBRD의 차관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최근 印度의 산업통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 곡물생산은 연간 1억5천만톤으로 '84년에 약 9% 증가하여 2천만톤 이상의 비축능력을 확보하였으며
- 광공업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철강 매장량은 126억톤(세계 2위), 석탄 880억톤(세계 6위), 원유 150억톤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이들 생산량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 어업자원은 인도양, 벵갈만, 아라비아해에 풍부한 魚場을 갖고 있어서 연간 어획고가 3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 및 장비의 낙후로 近海魚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 外債現況은 '84년에 200억불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84~'85 경제성장률은 4.5%로서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 나. 貿易政策

인도는 경제규모에 비해 對外貿易 규모는 작은 편으로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약 15%에 불과하나 自由開放經濟体制로의 修正

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貿易對象國으로는 미국, 소련, 영국, 일본 등인데 '78년부터 계속된 수입목표의 가격급등, 생산성 저하에 따른 對外競爭力 惡化 및 交易條件의 不利로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84년에는 약55억불의 貿易赤字를 내었다. 그리하여 각종 수출진흥정책과 석유·비료·철강·시멘트 등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과 강화를 위해 先進技術, 設備 및 機資材 도입등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중장기적인 貿易擴大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 結 論

전 세계를 통하여 印度처럼 國內事情이 복잡다양한 국가는 없을 것이며, 거기에 인도政治의 어려움이 있다. 엄청난 人口와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 심각한 人種과 宗教의 갈등, 행정의 손이 못미치는 貧困과 無知의 大衆, 反中央政府的 州들과 地域마다 相異한 수백가지의 言語로 인한 行政과 統治問題 등 수많은 難題들이 얽혀 있지만 印度는 결코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內的으로 收容하면서 거대한 코끼리의 모습

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印度政府는 강력한 中央集權體制를 指向하면서 범국민적 和合과 團結로 모든 대중이 생산과 분배의 社會活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풍부한 人的物的 資源을 바탕으로 經濟的 自立은 물론 세계적인 강국으로 浮上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는 금년부터 일부 분쟁지역의 정치적 과제를 마무리짓고 정상적인 議會政治體制로서 集權議會黨의 一黨政治가 지속될 것이며 軍事力 또한 장비현대화에 집중하여 空軍力의 현저한 증가와 核武器의 生産體制로까지 발전해 나감으로써 파키스탄을 庄倒하려 할 것이다.

한편 外交的으로는 소련과의 유대를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經濟·軍事·文化交流를 증대시켜 兩大國 사이에서 印度의 外交的 地位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中共과도 友誼的 國交發展으로 印度洋 주변 국가를 위시한 西南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제3세계를 완전히 主導하는 힘의 국가로 浮上하려는 印度의 基本政策과 目標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展望된다.

화 합 으 로      맞 은 손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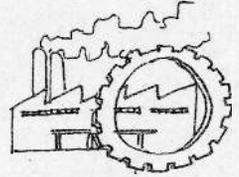
웃 으 면 서      돌 아 간 다

# 新 帝 國 主 義 論 의 正 體

- 학원가의 반미성향을 중심으로 -

소 위 하 종 수

제9785부대



## 목 차

- I. 서 론
- II.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그 관계
- III. 신제국주의론의 등장
- IV. 제국주의의 순수이론
- V. 남북대립과 주한미군
- VI. 결 론

## I. 서 론

근래에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는 이른바 학생운동에 관한 기사를 대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착잡함과 동시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그들의 과격한 폭력행사에 집중될 뿐 사실상 더욱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사상적 무장, 말하자면 신좌경사상<sup>1)</sup>이라 통칭되는 그들의 이론

적 명분에 대하여는 무관심 내지 무지한 형편이다.

일전에 어떤 시위주동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미제국주의 타도,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장면을 TV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국민들도 많겠지만, 과연 저들의 주장하는 제국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막연히 정치, 경제면에서의 속국화라고만 규정할 뿐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걸 보았다.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sup>2)</sup>“현재 학생운동 명목화에 실제로는 「한국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생운동주도자들이 제작, 유포시키고 있는 문서들에 의하면, 민족해방 명분하에 반외세 투쟁을 표방하면서 반미구호를 앞세워 반 제국주의 논리를 전개하며,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인 것으로 독단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논리를 그대로 도식적으로 인용하고 국토분단과 분단고착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전가하며, 미군의 한국방위 역할을 민족분단, 민족말살의 기본요인으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 특히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반미 의식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 학생운동의 반미성향을 심각히 진단해 볼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과연 학생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란 무엇 의미하는가? 학생들의 반미구호는 어떤 의미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 미군은 제국주의 정책의 산물이며, 또 실제로 제국주의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II.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그 한계

1916년에 저술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 발달의 최종단계이며, 이러한 시기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생산과 자본의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둘째,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 지배체급이 형성되며 셋째, 상품수출보다 자본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넷째, 독점자본가들이 전쟁을 일으켜 세계의 영토를 분할하고 지배체급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기생적이고 사치방자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전에 사멸해 간다는 것이다.<sup>3)</sup> 레닌은 이러한 시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의 말대로 그 시기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레닌

의 결론을 보노라면 그 박진감있는 이론의 전개와 실제 세계사의 흐름과의 일치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믿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학창시절 어느 학우가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 레닌의 예언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뎀에는 똑똑하다는 녀석이 어떻게 그토록 무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이론의 횡포라 할까, 어떤 이론에 몰입하다 보면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걸 실감케 되었다. 생각해 보자.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1916년에 쓰여졌고 그때는 이미 전쟁이 한창이던 때가 아닌가? 어떻게 지나간 사실의 서술이 예언이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아무 비판없이 이론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위적 유추까지도 서슴치 않은 데 있다 하겠다. 어쨌든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당시대의 상황을 여러 가지 정치역학-이른바 프로이센의 호전성과 유럽 열강간의 알력-에서 찾지 않고 자본주의의 체제상 모순에서 구하려 했던 바에야 레닌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위대한 예언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가지 해프닝으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사상적 비판에 앞서 이렇게 이론 자체에 대한 오해가 없나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경험으로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극소수 운동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위학생들의 대부분은 맹목적 정의감에 불타는 그 순수함으로, 또는 막연한 엘리트로

서의 책임의식으로 시위에 임할 뿐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하여는 그들 스스로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흔히 보았다. 레닌은 자신의 정치목표였던 폭력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전략전술에 시각을 맞추었으므로 그의 제국주의론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현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목표 달성을 위한 선전활동과 전략개발이 중심이 될 뿐이다.<sup>4)</sup>

### III. 신제국주의론의 등장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으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의 낙후와 토착자본의 미성숙으로 여전히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 구미열강의 자본주의체제가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비판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신제국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신생독립국에서 새로이 성립된 정치권력도 저개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구식민 지배자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소련 공산당 이론가들은 제 3 세계와 구식민지배국 사이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신식민주의 혹은 신제국주의라 명명하였다.<sup>5)</sup> 즉, 과거의 제국주의가 정치적 지배관계의 바탕 위에서 경제적 예속관계를 유지하였음에 비하여 신제국주의는 정치적 지배를 수반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제 3 세

제국이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적절한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위 비동맹 운동의 기수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이집트의 나세르, 가나의 앙크루마 등은 서방을 비방하는데 이러한 논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식민주의 또는 신제국주의가 국제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제국들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에 대한 기대의 좌절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을 상대로 한 소련의 국제전략과 시간적으로 일치 - 1950년대 - 된 데에 있다. 따라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성급히 나타난 이론이 체계적 일리가 없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이 서방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비방될 수 있는 내용은 모조리 신식민주의 내지 신제국주의 현상으로 표현되었다.<sup>6)</sup> 즉, 정부차원이나 민간수준에서 서방진영이 신생국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계획, 서방 각국이 해외에 갖고 있었던 각종 기지들, 서방진영 자체 또는 과거 식민지역과 식민모국 사이의 각종 협력체제, 신생 독립국 내의 각종 분리주의 운동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던 신생국의 지도자들이 정변 등을 통하여 국제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sup>7)</sup> 정치현실을 신식민주의론으로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신식민주의 또는 신제국주의라는 구호는 일단 제 3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에서 떠나게 되고 문제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론가들에 의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 IV. 제국주의의 순수이론(바란, 맥더프론)

1.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하여 시위학생들은 종종 제국주의 산물로 규정하고 마땅히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근거로서 흔히들 폴·바란과 해리·맥더프 등의 신 제국주의 이론을 인용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각광받는 듯하다. 바란과 맥더프의 이론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아무도 부인 못할 남북의 첨예화된 군사적 대립 등이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오해나 곡해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순수한 이론으로서의 바란, 맥더프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바란”이 주장하는 선진 자본주의론의 내용을 보면, 8)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생산관계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국민 총생산량이 일반적으로 이 생산에 필요한 제비용을 상회하여 초과이윤, 즉, 잉여가 만들어진다. 경쟁단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잉여를 생산에 재투자하지만 이미 독점단계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이윤율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이는 수요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잉여의 흡수는 1930년대와 같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비생산적

낭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낭비적 형태의 잉여 흡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비 지출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액수의 군사비 지출은 바로 제국주의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주역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기업인데 이들 독점 다국적 기업은 상품수출보다도 자본수출에 역점을 둔다고 한다. 상품수출의 경우 수지균형상 비슷한 양의 상품수입이 수반되므로 잉여흡수의 문제를 크게 돕지 못하는 반면, 자본수출은 필연적으로 상품수출까지 동반하게 되므로 잉여흡수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바란”은 주장한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윤보장을 위하여 교역 상대국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자국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활동을 위하여 군사시설유지, 해외원조, 기술지원 등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지출이 요구되는데 “바란”의 경우 제국주의가 의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대한 국가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바란”은 몇가지 중요한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그 성격상 생산량 보다 소비가 밀돌게 되고 이 성향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다는 소위 저소비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경험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지만 마르크스주

의 이론가들조차도 가장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체제가 “바란” 자신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 해외 투자가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또 국내 잉여를 처리하기 위해 유지된다는 논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우리의 경우 오로지 미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가? 아니 도대체 인간 상호간의 모든 유기적 관계를 모두 착취돼 피압박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마르크스 이론가들이 구상하는 사회주의 파라다이스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모든 결합관계가 무시되는 단절의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바란”의 견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점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장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자의 이익옹호에서 오는 것이라면 소련의 군사력 확장과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9)

3. “맥더프론”의 제국주의론은 이론적으로 “바란”의 논지를 거의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가설에 대한 비판은 “바란”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맥더프론”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점과 집단 안보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전자의 경우 미국은 이미 세계차원의 전략 수립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제간섭 등 부정적 사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맥더프론”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

하는 여러 가지 단편적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제국주의 체제의 조직자 또는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미국이 세계금융질서의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 팽창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의 군사, 외교, 원조정책들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10)

그의 비판의 중심내용은 미국의 과거 대외정책이나 또는 현재의 정책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시인되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이란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국가다.

미국이 세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무런 과오나 비판의 여지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미국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본디 이기적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하므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이기적 행태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지만 과연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의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적 위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 V. 남북대립과 주한미군

남북대립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역시 냉엄한 정치체제의 논리를 고려할 때 군사적 대결의 성격을 제외한다면 어떤 주장도 현실성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군사적 대결에서의 패배는 사실상 모든 논쟁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다.

신제국주의론자들의 국제협력비판론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도 연결된다. 명분론상으로는 외국군대가 자국영토 안에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르나, 이진 한국분단과 남북군사대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에서 연유하는 것이리라. 물론, 미군의 한국주둔 목적에는 제국주의론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기업의 보호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 보호의 의미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써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선심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괴의 남침 억제력의 상징이란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VI. 결 론

이상에서 근래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서 논의되고 있는 신제국주의론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의 이론적 맥락을 더듬어 보았으나 역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의 비판은 불가능하였다. 때로 높은 이론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복합적 유기관계를 아무 주관적 확신없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론면에 있어서는 마르크시즘 또는 신좌경사상가들의 논리

가 탁월한 점도 일부 있다. 실제로 신좌경사상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혁명의 주체세력으로는 급진적 지식인과 예비 엘리트계층인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시즘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로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은 무지하여서 착취와 피압박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 불만계층이 아닌 그들에게 폭력혁명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노동자 농민이 불만을 가지게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코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역사발전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복지, 사회보장면에서 괄목할 변화를 보이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좌경사상가들이 주체세력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수호하려는 저의는 바로 이제 더이상 그들의 논리로서는 현실세계의 현재상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988년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안정과 경제면에서의 뚜렷한 회복전망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사회건설의 욕구가 팽배된 상황이다. 그러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는 과격한 학생운동은 그 질적 성격으로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미상불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치, 경제면에서의 막대한 손실까지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함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방관만 하면서 그들의 자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통칭 신좌경사상이라는 네오막시즘, 종속이론, 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등은 이미 50~60년대 서방세계를 풍미하다가 스스로 사멸해 버린 이미 낡은 이론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이 왜 뒤늦게 우리나라의 영역에 수용되어야 하는가? 불순세력에 의한 고의적 치환임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도 고립된 공산정권이라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책동에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일부 세력들에 대해선 깊은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역사의 주역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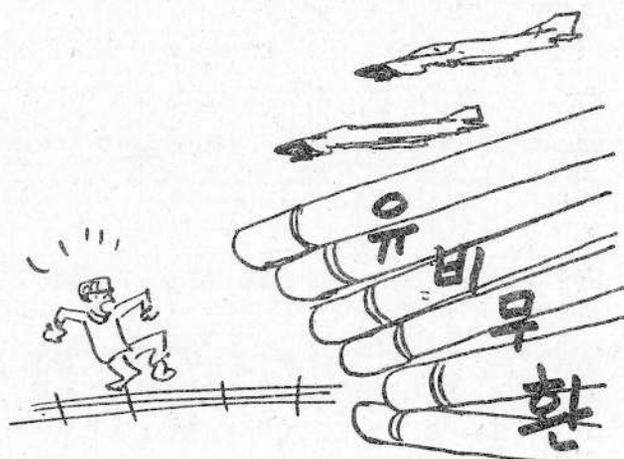
자처하는 바 과연 그들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반문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미문화원사건 담당재판부의 훈계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11)

「의사표시의 폭력화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전체의 노력을 역행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없는 주장은 무책임함을 의미하고, 무책임한 주장은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학원을 뛰쳐나와 거리를 향하고, 정치를 향한 학생은 이미 학생의 신분을 떠난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회현상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의 사정과 나의 사정이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나만의 존재의 강변은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한 주장이 못된다. 그것이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5년간에 걸친, 국가시책에 대하여 폭력적인 데모로서 대처하려고 하는 의사표시 방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고, 국민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 註 解 釋

- 1) 196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좌파에 치우친 사상들로서 현존의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이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일체의 혁명적인 이념체제를 통칭하는데 여기에는 종속이론, 해방신학, 신마르크스주의, 신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및 신좌파운동 등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 공산주의 그 자체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로코뮤니즘이 있다.
- 2) 자유공론 85-9월호 p. 51 「의식화, 과격화 행동의 실패와 문제점」 홍성문
- 3)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 레닌(1916)
- 4) 자유공론 82-9월호 p. 106 「제국주의론 비판」 박용상

## 空 軍 漫 評



4천만의 보금자리

한치땅도 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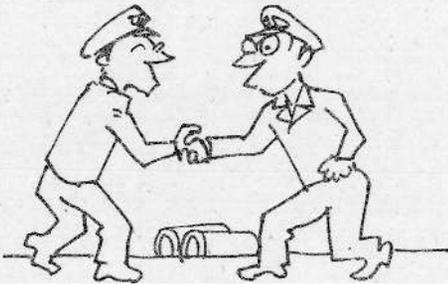
- 5) “신식민주의” “신제국주의” 또는 “경제적 제국주의”라고도 한다. 1961년 카이로의 제3차전 아프리카 인민대회에서는 신제국주의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식민주의란 신생국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식민지체제를 말한다. 이들 신생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기술적 힘에 의한 간접적이고도 교묘한 지배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 6) All-African People's Conference 결의문(1961).
- 7) 나제르를 제외하고는 앙크루마, 수카르노 등은 모두 쿠데타에 의해 실각되었다.
- 8) 바란의 선진 자본주의론은 사실상 195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주로 미국경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9) 다만 기왕의 마르크스주의가 신생국 문제연구에 게을리 한데 비하여 신생국 문제를 정식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그의 학문적 공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 10) 사실상 그의 논의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론에 합당한 사례와 통계를 각 사건이 갖는 구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의 전체상을 왜곡하고 있다.
- 11) “2000년”지 85-11월호. p. 74에서 재인용.

# 兵營生活의 明朗化 方案

## — 下士와 兵의 關係定立 —

소령 공진 구

제 5672 부대



### — 목 차 —

- I. 서 론
- II.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의 중요성
- III.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분석
- IV. 발전방향
- V. 결 론

### I. 서 론

제 2 차 세계대전후의 미·소 양국을 정점으로한 자유, 공산진영의 양극체제가 오늘날 다극화체제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괴의 위협이 常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속에서는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의 힘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자주국방대세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 호국의지 고양이 국력증강의 한 요소로 대두되게 된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2천년대를 향한 국민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물질전력 위주로 무작정 증강시킬 수 없다는 제약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물질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괴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신전력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같이 북괴의 무력도발과 정치·사상적 도전을 받고 있는 반면 유형전력상의 제

한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정신전력의 강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신전력은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도·육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연구는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정신전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우리 군내에 殘存하고 있는 하사와 병간의 갈등 원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하사와 병간의 관계재정립을 위해 단위부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상경하애와 상호신뢰의 기풍을 진작시켜 명량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신전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의 중요성

### 1. 군 조직내에 미치는 영향

정신전력이란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서, 信念, 士氣, 團結 및 軍紀를 그 핵심요소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sup>1)</sup>

정신전력을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정신」이란 군인정신을 의미하며 「전력」이란 전력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전력이란 바로 군인정신의 전력

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전력은 ①휘하 각개 장병에게 군인정신을 배양함으로써 ②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부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화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전력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속성 속에 집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력이란 원래 집단과 집단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전투수행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개인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규합해서 집단의 힘, 즉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개인각자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집단의 신념이 사기로 행동화되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임무수행을 위한 단결심이 부족하다면 정신전력은 조직화된 집단 의지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신념이 사기에 의하여 행동화되었다하더라도 군 특유의 질서의식인 군기가 없다면 역시 오합지졸의 모임에 불과한 부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신전력의 구성요소인 신념, 사기, 단결 및 군기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신전력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구조적, 기능적 관계를 생각할 때 군 전투력의 강약을 좌우하는 정신전력의 측면에서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군 위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하사와 병간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향후 올바른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국민정신교육과의 연계성

정신교육이란 보통 과학·기술교육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과거부터 실시해온 개성교육, 인격교육, 도덕·윤리교육, 인간교육, 시민교육, 정치적 사회화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며, 보통의 경우 지(知), 정(情), 의(意)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 국민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실천의지를 단련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덕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정신교육'에는 애국·애족하는 심성과 정신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국민정신교육에는 인간·도덕교육이라는 보편적 측면에 애국·애족이라는 특수한 측면이 추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정신교육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민의 정신 자세, 즉 국민의 가치관, 신념, 덕성과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이다.<sup>2)</sup>

따라서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인간을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으로 기르려는 교육이 국민정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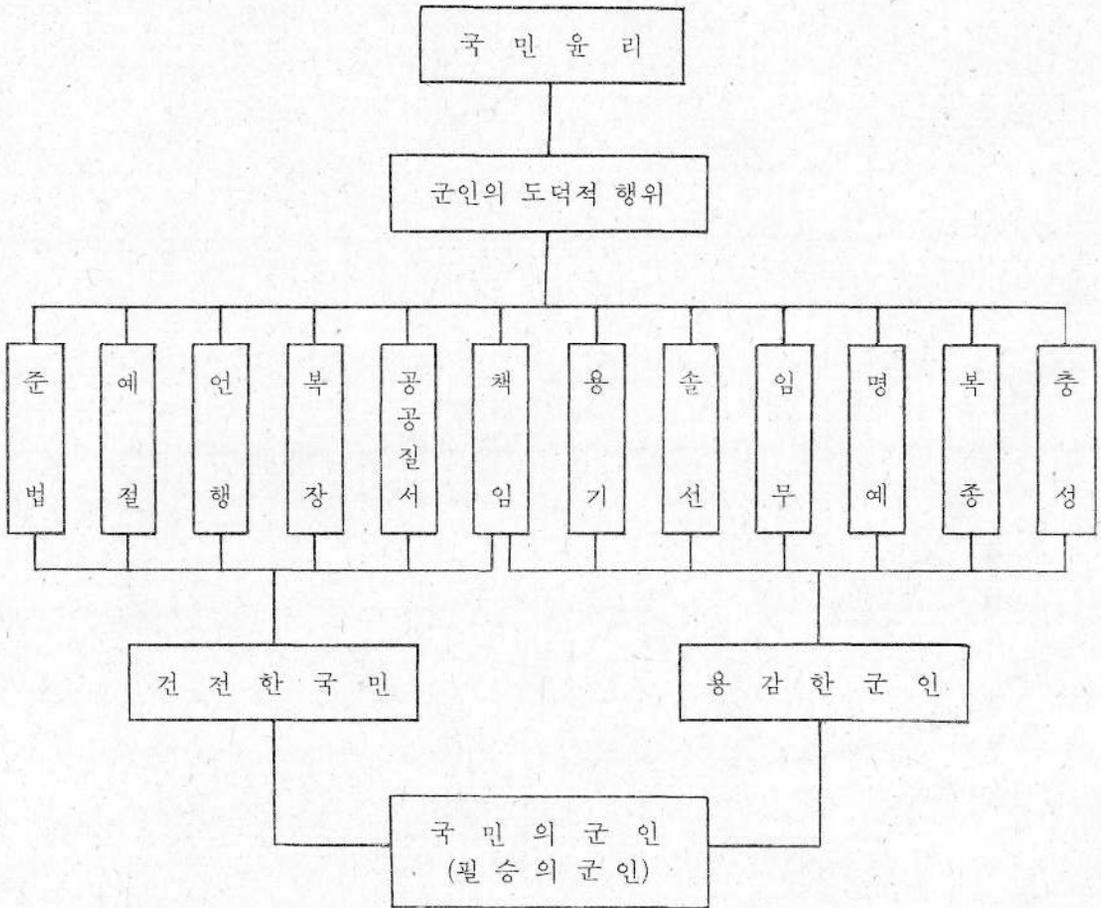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또 '위대한 한국'을 건설하려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인식, 감정상태, 실천의지를 심어주며, 그 목

표에 부합하는 국민의 문화풍토나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다.<sup>3)</sup>

도덕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양식을 규율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그 도덕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 행위라 하고, 이때 비로소 조직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라는 집단에서도 국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군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도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단정한 복장, 올바른 자세, 절도있는 동작, 친절한 예의, 공중질서의 준수수범과 군인으로서의 행동 등 사회인보다 더 많은 규범을 행동화하여야 한다.<sup>4)</sup>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통제받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군인은 준법정신, 협동심, 준수수범, 용감성, 책임감있는 인격적 군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길이 된다. 정신전력은 특수한 교육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라기 보다 평소의 병영생활과 훈련 속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전투적 요소라고 생각할 때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덕적인 군생활은 장병들을 전투행위에 있어 필승의 신념을 전지한 군인으로 육성하여, 정신전력의 극대화는 물론, 나아가 전전한 국민의 자질을 길러 그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국민정신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 Ⅲ.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1985. 5. 31 공군 제○○○○부대 장병 201명(장교29, 영의하사관43, 영내하사44, 병85)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

〈도표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병들이 하사와 병 두 계층간의 갈등을 경험한 바 있고, 또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양계층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主觀的 認知度)를 조사한 결과 80%이상의 장교 및 하사관들이 이러한 갈등은 내무생활의 명랑화나 지휘질서확립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응

<도표 - 2>

<인원 / 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금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갈등의 경험	26 / 89.7	33 / 76.7	40 / 90.9	53 / 62.3	2 / 6.9	6 / 13.9	3 / 6.8	20 / 23.5	1 / 3.4	3 / 7.1	1 / 2.3
갈등의 실제 인 정	9 / 31.0	18 / 41.9	23 / 52.3	35 / 41.2	11 / 37.9	15 / 34.9	18 / 40.9	33 / 59.2	4 / 13.8	8 / 18.7	2 / 4.3	12 / 14.1
내무생활 명랑화 저해	23 / 79.3	38 / 88.4	37 / 82.2	54 / 63.5	6 / 20.7	5 / 11.6	7 / 15.9	18 / 21.2	0 / 0	0 / 0	0 / 0	9 / 10.6
지휘질서 문란	25 / 86.2	35 / 81.4	41 / 93.1	33 / 38.8	2 / 6.9	7 / 16.3	2 / 4.5	32 / 37.6	1 / 5.9	1 / 2.3	1 / 2.2	19 / 22.3
고질적으로 해결 불능	4 / 13.8	3 / 9.0	7 / 13.9	30 / 23.3	22 / 75.9	39 / 90.7	35 / 79.5	55 / 64.7	5 / 10.5	1 / 2.3	2 / 4.5	12 / 14.1

<도표 - 3>

<인원 / 비율>

응답별 계통별 질문별	금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언 어 나 호칭문제	20 / 69.0	35 / 81.4	37 / 82.2	45 / 52.9	6 / 20.7	7 / 16.2	7 / 15.6	21 / 51.3	3 / 10.3	2 / 4.6	0 / 0
간접배제육구	11 / 37.9	22 / 81.4	23 / 51.1	39 / 45.9	11 / 37.9	15 / 34.9	19 / 42.2	30 / 33.2	7 / 24.1	5 / 11.6	1 / 2.2	16 / 13.6
내 무 반 주도권획득	6 / 20.7	14 / 32.6	11 / 24.4	8 / 9.4	12 / 41.5	26 / 60.3	30 / 66.7	61 / 71.8	9 / 31.0	5 / 11.6	3 / 6.7	16 / 18.8
군 계 급 체계의모순	13 / 51.7	11 / 25.5	26 / 37.8	35 / 64.7	11 / 37.9	24 / 55.9	8 / 17.8	14 / 16.4	3 / 10.3	7 / 16.2	6 / 13.3	16 / 18.3
고참병의 신 송	16 / 35.1	31 / 70.1	36 / 80.0	9 / 10.6	6 / 20.7	9 / 20.9	1 / 0.2	66 / 77.6	6 / 20.7	4 / 9.3	5 / 11.1	10 / 11.3

답하고 있다. 그러나 병들의 경우에는 내무생활 명랑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60%정도 밖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병들이 하사를 상급자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해결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제해결에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 2. 갈등의 원인

〈도표-3〉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상호언어와 호칭사용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와 고참병의 신병에 대한 신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도표-3〉의 분석결과에서는 병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사와 병간 상호구타사고에 관련된 병들과의 비공식면담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이 이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병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책임한 자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군제급체제의 모순에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긍정하고 있는데 타문항과 관련하여, 이는 하사의 학력과 나이에 관련된 의견으로 판단된다.

〈도표-4〉는 갈등의 가장 주된 원인이 라고 응답한 언어나 호칭문제를 좀더 분석해 본 것이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교 및 하사관들은 병들이 하사에 대하여 확실한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병의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존칭

〈도표-4〉

(인원/비율)

질문별	응답별 계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장 교	영 외 하사관	영 내 하사관	병
병의 하사에 대한 존중	24 / 82.7	43 / 100.0	43 / 95.6	41 / 48.2	1 / 3.4	0 / 0	1 / 2.2	28 / 32.9	3 / 10.3	0 / 0	0 / 0	16 / 18.8	
하사의 병에 대한 존중	14 / 48.2	22 / 75.9	25 / 86.2	69 / 81.1	13 / 44.8	17 / 37.8	14 / 31.8	8 / 9.4	2 / 6.8	3 / 6.9	3 / 6.8	8 / 9.4	
나이에 의한 존칭 사용	3 / 10.3	7 / 24.1	1 / 2.2	33 / 33.9	21 / 72.4	34 / 79.0	41 / 93.1	21 / 24.7	5 / 17.2	2 / 4.6	0 / 0	31 / 39.4	

을 사용함으로써, 계급과는 별도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

하고 있다. 다만 뒤에 분석되는 문항29(도 표-8 참조)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하사의 병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언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4>

<인원 / 비율>

질문별	응답별 계층별	긍정				부정				보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병의 하사에 대한 존중		24 / 82.7	43 / 100.0	43 / 95.6	41 / 48.2	1 / 3.4	0 / 0	1 / 2.2	28 / 32.9	3 / 10.3	0 / 0	0 / 0	16 / 18.8
하사의 병에 대한 존중		14 / 46.2	22 / 75.9	25 / 86.2	69 / 81.1	13 / 44.8	17 / 37.8	14 / 31.8	8 / 9.4	2 / 6.8	3 / 6.9	3 / 6.8	8 / 9.4
나이에 의한 존칭 사용		3 / 10.3	7 / 24.1	1 / 2.2	33 / 33.9	21 / 72.4	34 / 79.0	41 / 93.1	21 / 24.7	5 / 17.2	2 / 4.6	0 / 0	31 / 39.4

<도표-5>

<인원 / 비율>

질문별	응답별 계층별	긍정				부정				보류			
		장교	외·하	내·하	병	장교	외·하	내·하	병	장교	외·하	내·하	병
병은 하사에게 절대 복종		25 / 86.2	36 / 83.9	35 / 79.5	13 / 15.3	5 / 17.2	6 / 15.9	6 / 15.3	33 / 64.7	1 / 3.4	1 / 2.3	2 / 4.5	17 / 0.2
하사의 지휘에 복종		22 / 75.9	33 / 16.8	34 / 71.3	42 / 50.4	1 / 3.4	2 / 4.6	0 / 0	17 / 20.0	5 / 17.2	7 / 16.3	7 / 15.9	25 / 29.4
학력, 지식수준 에 관계없이 복종		17 / 58.6	31 / 72.1	23 / 52.3	20 / 23.5	4 / 13.8	6 / 13.9	4 / 8.9	19 / 22.4	5 / 27.6	6 / 13.9	8 / 18.2	43 / 36.3
병보다 어린 하사 존대		16 / 55.1	34 / 79.1	23 / 52.3	25 / 29.4	10 / 34.5	7 / 16.2	14 / 31.1	45 / 52.9	3 / 10.3	2 / 4.6	6 / 13.6	13 / 17.6

반면, 사병들이 하사들에게 고참병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

하고 있음은 군 계급질서를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도표-5>에서와 같이, 병이하사의 학력이나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하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데는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나, 나이 어린 하사에 대한 복종이나 절대적 복종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을 하고 있음은 병의 계급존엄성 및 복종심이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표-6>

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계급구조 및 상하질서관계에 대한 인식정도를 좀 더 분석해보면 <도표-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병의 계급존엄성 및 복종심 부족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군계급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지휘질서확립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경력에 대한 인식상태를 분석해보면 <도표-7>에서와 같이 병들은 군대가 오 <인원/비율>

질문별 응답별 계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계급 질서 문란 엄단	22 / 75.9	41 / 95.3	28 / 86.4	36 / 42.4	3 / 10.3	0 / 0	4 / 9.1	31 / 36.5	3 / 10.7	2 / 4.7	2 / 4.5	18 / 21.2
계급에 따른 행동	23 / 79.3	35 / 81.4	34 / 77.3	43 / 50.6	4 / 15.8	7 / 16.3	10 / 22.7	24 / 28.2	2 / 6.9	1 / 2.3	0 / 0	8 / 24
상관에의 복종	24 / 82.8	25 / 58.1	40 / 90.9	49 / 57.6	3 / 10.3	6 / 20.7	1 / 2.3	21 / 24.7	2 / 6.9	2 / 4.7	2 / 4.5	13 / 15.3
계급 이외의 특권 불인정	26 / 89.7	34 / 79.1	40 / 90.9	48 / 36.5	3 / 10.5	6 / 20.7	3 / 6.8	16 / 18.8	0 / 0	2 / 4.7	1 / 2.3	21 / 24.7

<도표-7>

<인원/비율>

질문별 응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하사는 병의 경력 인정	18 / 62.1	23 / 53.4	30 / 68.2	74 / 87.1	10 / 34.5	16 / 37.2	11 / 0.25	5 / 5.9	1 / 3.4	4 / 9.3	1 / 2.3	6 / 7.1
병의 지나친 경력 주장	20 / 69.1	32 / 74.4	39 / 88.6	12 / 14.1	5 / 17.2	6 / 14.1	4 / 9.1	57 / 67.1	4 / 3.4	4 / 9.3	1 / 2.3	12 / 14.1
군대는 경력 이 최우선	2 / 69.1	0 / 0	3 / 6.8	15 / 17.6	25 / 86.2	40 / 93.0	39 / 88.6	43 / 50.6	2 / 6.8	2 / 4.7	2 / 4.5	27 / 81.8

직 경력에 의하여 질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는 하사들이 고참병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식해 줌으로써 상호 이해의 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장교와 하사관들은 병의 지나친 자기경력 주장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표-8>에 의하면 하사의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유없는 집합, 구타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사의 공사(公私) 구분여부, 부당한 지시·명령의 여부, 인격무시언행 등에 관해 장교와 하사관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병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음은 병의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하사의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 및 병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병의 인식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8>

<인원/비율>

응답별 질문별 계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직무 수행	8	4	7	19	19	35	35	34	2	2	1	32
능력 부족	/	/	/	/	/	/	/	/	/	/	/	/
이유없는집합	1	2	1	17	17	37	3	14	11	3	39	34
이나 구타	/	/	/	/	/	/	/	/	/	/	/	/
공사 구분	6	7	4	48	19	29	38	19	4	2	0	18
부 족	/	/	/	/	/	/	/	/	/	/	/	/
부당한	4	2	1	42	12	36	38	25	13	3	2	17
명령지시	/	/	/	/	/	/	/	/	/	/	/	/
병의 인격무시	1	1	1	44	21	40	39	26	7	2	2	15
	/	/	/	/	/	/	/	/	/	/	/	/
	3.5	2.5	2.3	59.8	72.4	93.0	89.0	30.6	24.1	4.7	4.5	17.6

기타 요인으로서 <도표-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 내무반(병동)을 사용함

로써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병에 대한 하사의 현실적 제재권이 없음을 병이 악용하여 하사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문제발생시 상급자의 무관심이나 하사에 대한 일방적인 두둔도 상대적인 반발을 가져

오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갈등의 원인종합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하사와 병간의 주된 갈등의 원인은 언어나 호

<도표-9>

<인원 / 비율>

응답별 질문별 계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장 교	외·하	내·하	병
자존심에 의한 갈 등	2 / 6.9	4 / 9.3	3 / 11.4	28 / 30.6	22 / 73.9	37 / 56.0	33 / 79.5	36 / 42.4	4 / 3.4	2 / 4.6	3 / 6.3	23 / 27.1
상급자의 편견 에 의한 갈등	6 / 20.7	7 / 16.3	13 / 28.5	36 / 42.4	15 / 31.7	23 / 65.1	23 / 56.6	31 / 36.5	6 / 20.7	7 / 16.3	6 / 13.6	13 / 21.2
상급자의 무관심	4 / 13.3	12 / 27.9	26 / 59.1	13 / 15.3	21 / 72.4	26 / 60.5	14 / 31.8	59 / 69.4	4 / 13.8	5 / 11.6	4 / 9.1	12 / 14.1
상급자의 하사두둔	4 / 13.3	2 / 4.7	2 / 4.5	64 / 75.2	21 / 72.4	39 / 90.7	39 / 33.6	14 / 16.3	4 / 13.8	3 / 6.9	1 / 2.3	7 / 15.9
동일 내무반 사 용	12 / 41.4	21 / 43.3	27 / 61.4	43 / 30.6	12 / 41.3	16 / 37.2	16 / 36.4	33 / 41.2	5 / 7.2	5 / 11.6	1 / 2.3	9 / 10.6
하사의 병 제재권 부재	20 / 33.0	57 / 36.0	40 / 93.0	7 / 3.2	4 / 13.8	3 / 6.9	4 / 9.1	57 / 67.0	3 / 17.2	2 / 4.6	0 / 0	21 / 24.7

칭사용문제, 고참병의 신송, 하사의 연령 문제, 상호 간섭배제 욕구 등의 순으로 분

석되며 병의 하사에 대한 계급인정, 계급에 대한 존엄성, 군위계질서의 수용자세가 부족하다는 점과 하사의 지휘 및 업무처리에 있어 병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들이 악용하여 하사에게 반발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상급자의 편견이나 무관심, 일방적인 하사두둔이 문제해결의 악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사와 병, 두 계층의 상호이해와 인격존중이 결여되어 관계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발전방향

### 1. 계층별 의견

〈도표-10〉은 하사와 병간의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각 계층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집단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데에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병들이 대화만을 주장하는 반면, 상급자들은 제재의 강화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교, 하사관은 모두 쌍방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강한 긍정의 의견을 보인 반면 병들은 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처벌을 혼자 받을 수 없다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절대다수가 하

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급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2. 향후 추진방향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양계급의 갈등을 단위 부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하사와 병간의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주기적으로 내무반별로 사전에 선정된 주제(※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접근하는 내용이 아닌)를 가지고, 준사관급이상 장교 또는 토론경험과 설득력이 풍부한 영외하사관이 참석하여, 긍정적 사고함양을 위한 유도 및 강평을 실시하는 직장단결회의 등을 이용하여 대화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하사·병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군 전투력형성에 저해되는 요소(이기심 등)를 스스로 인식, 배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진행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sup>5)</sup> 또한 대대 및 부(전대) 주관의 내무반별 체육활동(구기 등)의 강화로 단결심 및 전우애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6)</sup>

나. 각급 지휘관, 참모 및 영외장병의 관심 제고

당사자인 하사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각급 지휘관·참모 그리고 영외장병들의 관심 속에서 적극적인 선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별 질문별 계층별	긍 정				부 정				보 류			
	정·장	외·하	내·하	병	정·장	외·하	내·하	병	정·장	외·하	내·하	병
병의 부중심	20	25	32	4	5	11	7	69	3	7	3	12
배 양	/	/	/	/	/	/	/	/	/	/	/	/
	68.0	38.1	72.7	4.7	17.2	25.6	15.9	81.2	10.3	16.3	6.8	14.1
현실적 제대권	20	35	42	6	4	5	1	34	5	3	0	22
부 여	/	/	/	/	/	/	/	/	/	/	/	/
	68.0	2.3	95.4	7.1	13.8	17.2	2.3	63.5	17.2	6.9	0	25.9
쌍방 처벌의	7	38	35	42	18	5	5	10	4	2	0	33
효과·전무	/	/	/	/	/	/	/	/	/	/	/	/
	24.4	88.4	86.4	49.4	62.1	17.2	11.4	11.3	13.8	4.9	0	35.8
처벌의 강화	16	30	23	8	8	8	11	62	5	4	9	15
	/	/	/	/	/	/	/	/	/	/	/	/
	33.1	69.8	52.3	9.4	27.6	27.6	25.0	72.9	17.2	9.3	20.3	17.6
두집단의 대화	19	22	31	71	6	14	9	5	4	7	2	9
	/	/	/	/	/	/	/	/	/	/	/	/
	65.5	51.1	70.5	83.5	20.7	48.3	20.4	5.9	13.8	16.3	4.5	10.6
하사들의 노력	25	35	38	54	4	6	3	17	2	2	3	14
만으로써 결불능	/	/	/	/	/	/	/	/	/	/	/	/
	79.3	81.4	86.4	63.5	13.8	20.7	6.3	20	6.9	4.7	6.8	16.4

첫째, 갈등의 원인분석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상급자는 군계급질서에 대한 병의 부중심 고취와 상경하애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조직내에 있어서의 단결 및 전우애 고양의 필요성, 부대애 함양을 목표로 단결강화활동 및 지도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군기확립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부중심이 배양되

도록 교육하고, 2차적으로 자발적인 부중심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병들에게는 법규에 의하여 이행을 강요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군 고유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셋째로 영외하사관의 병에 대한 편견 및 인격무시와 관련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하사와 병의 구분

없이 공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호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 기 타

현실적으로는 하사에게 병에 대한 제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하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취학권장, 새마을 독서대학 운영 등)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에서 요구하는 초급간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장병들의 가치관변화를 어떻게 적절히 다루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현대군이 직면하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은 정신전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군의 전통과 관습 등에 대한 장병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군의 긍지와 사기 등 정신전력의 제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

동은 인간의 심리와 태도, 행동을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질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지향적인 군조직의 공통변수 속에서 최대공약수가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따라 집단적 생산성이 도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현대사회 속에서 군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집단과 개인의 관계 재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에서나 그 구성원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며 그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집단의 결속과 사기 및 효율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이란 상이한 개성을 가진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차와 욕구 및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사와 병의 관계 재정립은 부대내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집단의 단결과 효율적인 집단기능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전투력형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註 解 釋

- 1)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 1983, p 25.
- 2) 韓昇助,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국민윤리연구12집.
- 3) 上揭書
- 4)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1976.

- 5) 韓琪愚, “인간관계 개선에 따른 정신전력실천모형의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 4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3, p 185.
- 6) 유한동, “체육과 종교가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휘성공사례집, 국방부, 1979, p 49.

## 참 고 문 헌

1.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 1983.
2. 韓昇助,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국민윤리연구 1집.
3.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1976.
4. 韓琪愚, “인간관계 개선에 따른 정신전력 실천모형의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 4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3.
5. 유한동, “체육과 종교가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휘성공사례집, 국방부, 1979.
6. 육군본부, 전장의 실제와 전투지휘, 1980.
7. 박종수, “효과적인 정신훈화방안”, 정신전력연구 제 2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1.
8. 김순대,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정신전력연구 제 5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4.
9. 강동인, “장병심성개발을 위한 집단상담연구”, 지휘성공사례 및 논문집, 국방부, 1982.

# 영내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을 위한 설문

〈5 전비 정훈관실〉

## 참 고 자 료

대 상	장교, 영의하사관, 영내하사, 병
복 무 구 분	장기, 단기 연령 만 ( ) 세
군 생활 경력	입관후 ( ) 년 ( ) 개월
학 력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교, 중학교) 졸업 (대학, 전문대학, 고교, 중학교) 재학 또는 중퇴

※ ○표 또는 숫자 기입

1. 본 설문 조사는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으로 상경하애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평소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대로 소신껏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렇지    잘 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보기) 웃으면 복이와요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런편이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하사와 병의 갈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장교의 경우 : 부하 사병간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 ) ( ) ( )
2. 우리 내무반의 하사와 병간에는 갈등이 있다.    ( ) ( ) ( ) ( ) ( )
3. 상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사와 병의 갈등은 일어나도 할 수 없다.    ( ) ( ) ( ) ( ) ( )
4. 하사와 병의 갈등은 내무생활 명랑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 ( ) ( ) ( ) ( )
5. 하사와 병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휘 질서의 문란으로 전력이 약화될 것이다.    ( ) ( ) ( ) ( ) ( )
6. 실제로 하사와 병간에는 갈등이 심하지 않으나, 상급자들의 편견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 ( ) ( ) ( ) ( )
7. 군대의 계급질서를 문란케 하는 언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 ( ) ( ) ( ) ( )
8. 하사와 병의 갈등은 고질적인 것으로 해결 불가능하다.    ( ) ( ) ( ) ( ) ( )
9.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병 때문이다.    ( ) ( ) ( ) ( ) ( )
10. 군대의 계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항상 계급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    ( ) ( ) ( ) ( ) ( )
11. 하사와 병간의 갈등은 주로 언어나 호칭문제에서 일어난다.    ( ) ( ) ( ) ( ) ( )
12. 군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13. 병이 하사를 호칭할 때는 "○○하사님"으로 해야 한다.    ( ) ( ) ( ) ( ) ( )
14. 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에게 존대말을    ( ) ( ) ( ) ( ) ( )

전 혀 그렇지 잘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써야 한다.

15. 하사는 병의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 ) ( ) ( ) ( )
16. 병이라고 해서 하사에게 반드시 복종할 필  
 요는 없다. ( ) ( ) ( ) ( ) ( )
17. 하사와 병이 같은 내무반(병동)에서 함께 ( ) ( ) ( ) ( ) ( )  
 생활하기 때문에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 ) ( ) ( ) ( ) ( )
18.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데서 ( ) ( ) ( ) ( ) ( )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난다.
19. 하사와 병의 갈등은 내무반 주도권 싸움일 ( ) ( ) ( ) ( ) ( )  
 뿐이다.
20. 하사와 병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상급자 ( ) ( ) ( ) ( ) ( )  
 (장교나 영외하사관)의 무관심때문이다.
21.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군계급 ( ) ( ) ( ) ( ) ( )  
 체계의 구조적 모순때문이다. ( ) ( ) ( ) ( ) ( )
22. 병들이 필요없이 자신의 군경력을 내세운다. ( ) ( ) ( ) ( ) ( )
23.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 ) ( ) ( ) ( ) ( )  
 명령에 불복한 병에 대한 제재권이 하사에  
 게 없기 때문이다.
24. 하사와 병의 직무 수행능력이나 행동에는 ( ) ( ) ( ) ( ) ( )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급을 인정할 수 없  
 다.
25.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하사들이 이유 ( ) ( ) ( ) ( ) ( )  
 없이 집합이나 구타가 많다.
26. 하사들이 공격 업무와 사적감정을 구별하지 ( ) ( ) ( ) ( ) ( )  
 못하고 있다.
27. 하사들의 명령이나 지시에는 부당한 것이 ( ) ( ) ( ) ( ) ( )  
 많다.
28. 하사들의 병에 대한 지휘와 관련한 말이나 ( ) ( ) ( ) ( ) ( )  
 태도는 따를 필요가 없다.
29. 하사들이 병의 인격을 무시한다. ( ) ( ) ( ) ( ) ( )



전 혀 그렇지 잘 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결해야 한다.

44. 하사들의 노력만으론 하사와 병의 갈등을 ( ) ( ) ( ) ( ) ( )  
해소할 수 없다.
45. 군대이지만 계급 이외의 군생활 경력이나 ( ) ( ) ( ) ( ) ( )  
기타 이유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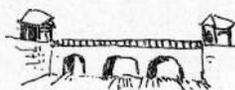
\*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계신 발생원인, 문제점, 개  
선방향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히 기  
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東 · 西獨의 交流와 獨逸의 統一展望

소령 김 종 숙

제 3591 부대



## - 목 차 -

1. 머리말
2. 東·西獨 交流의 배경
3. 東·西獨의 交流現況
4. 맺음말(獨逸의 統一展望)

### 1. 머리말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의 부산물로 강대국에 의하여 국토가 양분되어 東·西진영의 경계선에서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분단지역이 自由民主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국토분단이라는 정치적 공동운명에 처해 있지만 분단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단지역 간의 교류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승전 연합국에 의하여 4개지역으로 분리점령되었으며 동서 양진영의 세력권으로 구분 관리되었는데 이는 독일이 끊임없이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계평화 유지라는 측면에서의 연합국에 의한 강제적 분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연합국에 의하여 패전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인위적 38선이 사용되어 고착되었는데,

분단은 오히려 패전국인 일본이 감당했어야 할 일이다.

統一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13세기에 걸쳐 單一民族, 統一國家를 형성하여 왔고, 정치·역사·문화의 동질성은 민족주의의 바탕으로 통일은 民族史的인 정치지상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명목상으로 서독의 기본법이 통일추구를 정치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현상변화를 의미하는 독일의 통일을 강대국에서 원치 않는다는 점을 서독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 동독과의 관계개선은 유럽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독은 1974년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주의 통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토통일을 공식으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정과 통일개념에 있어서 상이한 점도 있지만, 경제적 교류 및 협력면에서 독일은 부러울 만큼 諸 교류의 량과 質이 확대되어 있다. 이는 동·서독 국토분단이 심각해지면서 兩獨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역이었는데 강대국간의 냉전체제에 불가피하게 휩쓸리면서도 한가닥의 연결선을 유지해 보자고 하는 양독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간에는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東·西獨間의 교류의 배경 및 그 과정, 그들의 통일노력을 살펴 보는 것은 앞으로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임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2. 東·西獨 交流의 배경

東·西獨의 교류와 協力は 2차대전 이후부터 4대국관리하에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72년 12월의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서독간의 관계발전은 「先交流·後關係正常化」라고 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兩獨이 상호교류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수반되었다.

첫째는,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문제였다. 동독은 서독과 서방세계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제교류나 교통문제 등에서 서독으로는 수락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교류의 절차나 방법들을 까다롭게 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東·西獨교류로 비롯될 수 있는 자유사상의 유입을 동독이 우려한 나머지 각종 교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점이다.

셋째는, 서베르린을 서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東·西獨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인 점이다. 동독은 서베르린을 서독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서독은 자기들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은 동·서독접근과 교류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으나, 서독의 「브란트」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브란트」수상은 1969년 10월 28일 시정연설에서, 西獨은 東獨을 국제법상으로 승인할 의도는 없다고 하면서도 「독일 내에서의 두 국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브란트」는 「만일 독일 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이들 서로의 관계는 다만 특별한 성격이다」고 말함으로써 東·西獨은 외국이 아닌 특별관계임을 밝혔다.

이러한 서독의 사실상의 동독승인은 동·서독관계 정상화와 이로 인한 교류, 협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한 動因으로 작용하였다. 서독은 분단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東獨과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여 긴장완화와 신뢰 및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한편 유럽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東·西獨 基本條約 第7條에 의하면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쌍방의 관계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를 조정한다. 쌍방은 본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과학, 기술, 교통, 법률, 체신, 보건, 문화, 체육, 환경정화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발전 증진시킬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 3. 東·西獨의 交流現況

東·西獨은 1972년 12월, 基本條約을 체결한 후 1983년 12월 말까지, 상호교류 협력

에 관해 약 13개에 달하는 協定이나 議定書를 체결 또는 조인하였다.

그리하여 동·서독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협정에 기초해서 교역, 왕래, 행정 및 사법상의 협조, 학술, 체육, 문화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東·西獨은 비록 국토가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人的, 物的, 文化的인 각종 교류를 증대시켜 왔으며 이는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外的 변화가 독일에 유리할 때에는 평화적으로 統一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內獨關係省 빈델렌 長官의 말과 같이 “東獨國民들이 西獨國民들과 같이 自由를 향유할 수 있을 때 統一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분단국의 분단해결책은 당장 단일民族國家를 형성하기 보다는 分斷된 양편의國民들이 동일한 自由와 존엄성,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統一의 첫단계가 된다.”는 말 속에는 바로 그들의 統獨政策이 나타나있다고 볼 수 있다.

#### 가. 인적 교류

동·서독은 4大國의 명령(1946. 10. 29. 명령 63호)에 따라 분단된 東·西獨間의 교통왕래가 베르린 封鎖期間(1948. 7. 18~1949. 5. 12)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다.

그후 東獨은 「年金生活者의 西獨訪問許容(1964. 9. 9)을 法令으로 公布하면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의 西獨訪問을 許容함으로

써 다시 制限된 人的交流가 시작되었다.

1972年 5月 26日에 체결된 「通行協定」에 의하여 자유로운 交通往来가 이루어짐으로써 人的交流는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1) 東独住民의 西独訪問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通行料를 받지 않고 아무런 制限없이 訪問하도록 최

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방문기간은 30日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親戚의 결혼, 장례식 등 哀慶事에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중요한 家族行 事 참석을 위한 旅行便宜規定」을 만들어 訪問機會를 확대시켰다.

〈表 1〉 東独주민의 西独·서베를린 방문자 現況(1984. 5현재)

年 度	年金生活者 西独 및 서베를린 訪問者	其他東独住民 西独訪問者(서베를린 除外)	備 考
1979	1,369,288	41,474	
1980	1,554,764	40,455	
1981	1,563,961	36,667	
1982	1,553,873	45,790	
1983	1,462,949	64,025	
1984	637,608	22,345	1~5月까지 統計

(2) 西独住民의 東独訪問

서독주민은 年間 30日間の 동독방문이 동독정부에 의하여 허용된다. 동독의 허가만 얻으면 방문목적, 방문지역에 따라 동독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가족 친척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서베를린市民的 동독 방문은 1일체제 비자(VISA)를 얻어 당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그밖에 상업, 문화, 체육, 종교 등의 행사로 東独政府의 초청이 있을 때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發給時 수수료(5DM)와 通行料(방문거리에 따라), 방문일수에 따른 強制換金(1日 25DM)을 받

드시 지불해야 한다.

東·西独의 人的交流는 단순한 相互訪問에 그치지 않고 移住도 가능하게 되었다. 「移 民에 관한 基本協定」에 따라 매년 4천명에서 1만 2천명까지 移住가 合法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1983년에 8천명이 移住해 왔고, 1984년에는 1월에서 5월까지 2만5천명의 移住者가 왔다. 이들은 모두 이산가족이 아닌 단순한 移住者도 많았다.

동독이 서독이주를 許容하는 속사정은 人道的 要請이라는 大義名分을 과시하여 宣傳 效果를 얻으면서 東独内の 불평불만이 많은

不純勢力을 제거하여 一挙兩得의 效果를 거두는 동시에 「教育費返還에 의한 外貨獲得, 경제적 도움이라는 實利追求의 目的이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表 2〉 西独주민의 東独(제 3 국)방문 및 서베를린 交通왕래현황(육로)

年 度	西独住民 東独訪問 (동독경유 제 3 국여행)	서베를린 交通왕래 현황 (육 로)	備 考
1979	2,923,212	18,577,060	
1980	2,746,273	19,409,605	
1981	2,088,213	19,562,450	
1982	2,218,486	19,522,571	
1983	2,219,868	20,130,830	
1984	913,451	7,939,755	1~5월까지 統計

나. 경제 交流

經濟交流분야에서는 1952년도에 3억마르크에 불과했던 兩独교역량이 1980년도에는 그 30배인 약 90억마르크(45억달러)까지 늘 어났다. 이것은 서독의 연간 총 무역량의 약 2%, 동독 총 무역량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表 3〉 内独交易 중 物품교역 총액 (단위 1백만마르크)

연 도	서 독 수 입	서 독 수 출	총 액
1979	4,790.0	5,090.0	9,880.0
1980	5,578.0	5,293.0	10,871.0
1981	6,050.6	5,575.1	11,625.7
1982	6,639.3	6,382.3	13,021.6
1983	6,878.2	6,947.1	13,825.3
1984	7,732.4	6,403.1	14,135.4
1985. 1	646.2	585.8	1,232.0

그후 1983년도에는 쌍방교역이 68억6,000 만달러로 전년대비 8%가 증가되었다. 더 우기 서독은 동독주민의 생활개선과 민족동 질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東独의

對西獨태도를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統獨基盤을 다져나갈 목적으로 東獨에게 無利子 借款을 제공하고 있다.

西獨은 「콜」政府출범 이후 지난 '83년 7월, 10억「마르크」(3억5,000만달러) 규모의 對東獨無利子 新規借款제공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교역면에서 아직도 동독측의 정치적 의도와 이에 따른 각종 통제조치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해마다 量的인 증가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다. 體育交流

兩獨간의 스포츠교류는 1955년 초의 西獨의 독일스포츠연맹과 東獨의 독일체조연맹 사이의 접촉으로 다른 부문의 교류보다도 활발하였다. 이 접촉으로 東·西獨은 1956년의 멜번올림픽대회를 비롯하여 1960년의 로마올림픽대회, 1964년의 東京올림픽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단일팀의 國號는 獨逸(Germany)로 하였으며, 國歌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중 「아름다운 神들의 불꽃」으로 하였고 國旗는 黑·朱·黃의 3色에 올림픽 마크를 넣는 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의 스포츠협력은 東獨체육인이 대거 西獨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되어 단일팀 구성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쌍방지역을 오고가는 친선교환경기만을 지속시키고 있다.

1968년 西獨은 1972년에 열릴 예정인 「뮌헨올림픽대회」에 東獨의 參加를 許容하였고,

그 외에 西獨에서 개최되는 國際大會에 東獨의 參加는 물론 西獨내에서 東獨의 國旗揭揚과 國歌演奏를 許容함으로써 東·西獨 體育關係는 다시 정상적인 交流段階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4年 「體育關係 規則에 관한 議政書」의 合意에 따라 體育交流는 한층 더 높은 段階로 향상되었다.

1982년 한해만 하더라도 쌍방 사이에 78건의 교환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800여명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 라. 遞信交流

東·西獨은 우편, 전화를 통한 체신교류를 계속 증진해 왔다.

1970년까지 수동식 전화가 34回線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설되어 1984년 현재 장거리 직통전화회선이 1천5백17회선으로 연간통화수가 2천3백여만 통화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8년 「우편, 전화소통료 청산협정」에 따라 우편물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

동·서독은 상호간의 우편, 전화소통을 국외우편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우편·전화협정(1976. 3. 30)」을 체결함으로써 國外手数料, 稅関用內容說明書, 국제전신에 필요한 수속을 생각하도록 간소화시켜 편리하고 원활한 체신교류의 正常化 方案을 마련하게 되었다.

西獨은 東獨에 대하여 매년 8천5백만 D M의 체신요금을 지불했으며,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2억DM씩 체신요금을 지불하도록 새로운 協定을 맺었다.

## 마. 학술·문화交流

兩獨간의 학술, 문화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獨 작가인 「하이더 뵐러」, 「페터 하크스」 등의 작품들이 西獨의 연극무대에서 상연되고 있다. 1979년 3월, 西獨에서 초빙해 온 東獨감독인 「하리 부크비트」는 바이마르 국립극장에서 「뒤렌마투의 작품 「노부인의 방문」을 상연했는데, 이 공연실황이 東獨텔레비죤 방송에 의해 중계까지 된 적이 있다.

또 基本條約체결 이전부터 東獨의 연극단과 오케스트라가 정기적으로 西獨에서 초청공연을 가져왔다.

동독의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서독의 「본」을 비롯한 수개도시에 와서 음악회를 연주하였고 역시 동독의 전통깊은 「토마너」합창단은 서독 전역에 걸쳐 20회 이상의 공연을 하여 관중들의 관심과 갈채를 받았다.

또한 西獨의 「요헨 브라우더」밴드단은 1977년 한해에 19회에 걸친 東獨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東獨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東獨의 문예작품들이 西獨에서 출판허가를 받고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東獨도 西獨의 현대문학에 대한 출판인가권을 획득하고 있다.

동독 내에서 서독문예작품의 발행부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동독인들의 강렬한 욕구 때문에 삽시간에 매진된다.

兩獨학자들의 접촉빈도도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東獨의 대학교수들이 개별적으로 西獨대학의 초청에 의해 세미나와 강연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교수들이 동독대학에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하지 않다. 또한 西獨 내의 학교나 기관이 동독에서 넘어 온 사람에 대한 성적표, 시험, 졸업, 자격증에 관한 서류를 東獨의 해당기관에 요청하면 송부해 주고 있다.

## 바. 其他 交流

1983년 「文化協定」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文化·藝術分野는 보다 폭넓은 交流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言論人의 交流는 현재 Bonn市에 동독언론인 6명이 주재하고 있고, 반면 TV, 라디오 방송 등, 17개기관의 19名の 특파원이 東獨에 파견되어 취재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예술공연, 음악감상회, 연극발표회, 미술전시회 등, 수 많은 文化, 藝術分野의 各種 行事を 통한 交流를 실시하고 있다.

## 4. 맺음말(獨逸의 統一展望)

東·西獨의 統一論爭은 東西解氷이라는 國際政治의 추세속에서 「東·西獨 基本條約」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統一實現을 歷史的 課題로 미루고,

分断으로 인한 고통, 民族의 異質感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交流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暫定的인 解決의 길을 모색해 가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東·西獨이 統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西獨은 全獨逸을 自由民主主義를 토대로한 統一을 실현하려는 것이 基本政策이기 때문에 東·西獨은 서로 유리한 統一與件만 조성된다면 그 어느쪽도 獨逸의 統一成就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편다는 基本方針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西獨은 統一에 대한 内外與件이 유리하게 성숙되면 다시 統一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西獨은 장기적인 統一政策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① 東·西獨 國民이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歸屬感情을 지속하도록 靑少年의 民族教育에 힘쓴다.
- ② 增大되는 東獨訪問을 계기로 東獨住民에게 物質的 도움을 주어 同胞愛가 지속되도록 힘쓴다.
- ③ 東·西獨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 ④ 東歐共產諸國과의 紐帶를 긴밀히 하여

親善圖謀와 相互協力에 힘쓴다.

이와 같이 西獨은 東方政策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東·西方 歐洲諸國들의 平和的 주변환경을 조성한 바탕 위에서 獨逸統一에 대한 부정적 자세가 완화될 때 統一을 성취해 보겠다는 長期的 構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변정세에 못지 않게 국내적인 問題로서 國民들 사이에 信賴回復이 시급하고, 자기의 주변환경과 운영에 대하여 認識이 같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利害가 같다고 하는 運命共同體意識의 공감대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國民的 統合이라는 문제가 領土의 統合에 先行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東·西獨은 불편없는 상호交流와 協力으로서 信賴回復과 共存共榮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民族史의 課題인 祖國統一을 성취시켜야 할 우리에게 南北對話와 交流增進의 難題를 目前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東·西獨의 문제는 많은 相異點이 있는 가운데 많은 共通點도 있다는 事實에 유의하여 많은 教訓과 참고적인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완 전 무 결 영 공 수 호

휘 날 리 는 오 룬 깃 발

# '86 아시안게임의 역사와 전망



소령 김 종 곤  
(국군체육부대)

## 1. 아시안게임의 역사

1950년 6.25동란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당시 저멀리 인도의 뉴델리에서 제 1회 아시안게임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후 한국은 1952년 7월 24일의 제 2차 아시아경기연맹 평위원회의에서 홍콩, 월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1954년 3월 1일 제 2회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은 6.25동란 후 외화사정이 극히 어렵던 때여서 논란을 벌인 끝에 8개경기종목 중 6개종목(육상, 역도, 복싱, 레슬링, 축구, 농구)에만 81명을 출전시켰다.

그후 4년을 주기로 하여 아시아청년의 영원한 전진(Ever onward)을 표어로 내걸고 스포츠외교인 아시아의 축제행사로 '86년 서울아시안게임까지 10회를 걸어오고 있다.

## 2. 한국의 첫출전과 그 에피소드

1954년 5월 2일 하오 2시, 불별더위 속에서도 제 2회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인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메모리얼 스타디움에는 1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었다. 1천5백미터의 남자육상경기가 치르어질 예정이었다. 각국을 대표한 8명의 건장들이 스타트 라인에 다가섰다.

그중에는 한국의 최윤철, 배희조와 강력한 우승후보인 일본의 무로야도 끼어 있었다. 준비자세에 이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를 신호로 이들은 일제히 내달았다. 선두주자는 뜻밖에도 배희조였다. 순식간에 20~30m 앞서 치달는 배희조를 보자 무로야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그의 다리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최윤철은 무로야의 뒤에서 보조를 잃지 않고 뒤쫓고 있었다.

그러나 배희조는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다. 무로야는 더욱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400m트랙 한 바퀴 반을 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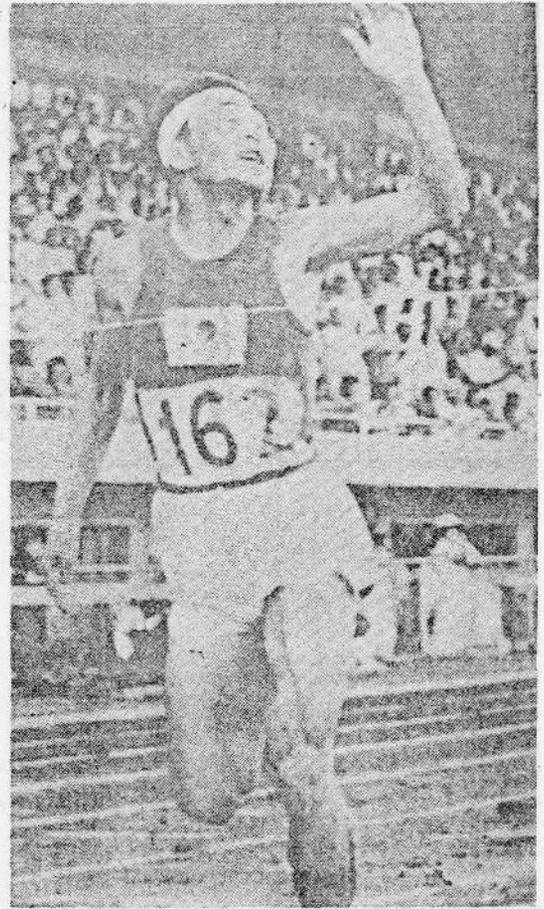
600m지점쯤에서 무로야는 마침내 배회조를 따라잡았다. 관중들의 열화같은 박수갈채 속에 선두로 치달았다. 최윤철은 여전히 20~30m 뒤처져 그를 뒤쫓았다. 배회조는 두 바퀴째 돌면서 기권하고 말았다. 이제 레이스는 절반을 넘어섰다. 세 바퀴와 4분의 3을 돌아야 끝인하는 1천5백m 중 두 바퀴 반까지도 선두와 2위간에는 20~30m의 간격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때 무로야의 스피드가 급격히 떨어졌다. 배회조를 따라잡느라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그의 다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순간 최윤철의 발놀림이 빨라졌다. 세 바퀴를 돌아 커브를 접어들 때쯤 이미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무로야도 다시 스피드를 냈고 최윤철도 뒤질 세라 힘껏 달렸다. 30초간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를 방불케 했다. 끝인지점을 몇m 앞두고 최윤철이 조금 앞서기 시작했다. 드디어 끝인, 최윤철이 간발의 차로 1위로 끝인, 대회 첫출전에 첫금메달을 따낸 순간이었다. 이는 36년간의 식민지생활을 겪은 그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일본선수를 꺾고 우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은 제2회 아시안게임에 첫출전하여 금 8, 은 6, 동 5개로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아시아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 출발 청신호를 보여 주었다.

그후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중공과 함께 아시아의 스포츠강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제10회 아시안게

임을 우리 서울에서 거행하게 된 것이다.



◆ 최윤철선수가 육상남자 1천5백m에서 우승, 마닐라하늘에 첫번째 태극기를 휘날렸다. 이를 신호로 한국은 금8, 은6, 동5로 첫출전에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 3.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큰 잔치일 뿐 아니라 대회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9월 20일(토)부터 10월 5일(일)까지 16일 동안 열리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종목이 25개로 가장 많고 대회사상 가장 많은 35개국의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참가대상국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가

입된 36개 회원국에서 북한이 불참가능성이 높으므로 35개국일 것 전망이다.

1982년 뉴델리대회 때의 21개 경기종목에 태권도, 펜싱, 볼링, 유도 등 4개 종목이 늘어난 것이다. 초창기대회에는 육상, 수영, 테니스, 하키, 농구, 배구, 축구, 복싱, 레슬링, 역도와 동계종목이 포함되었으나 수차에 걸친 현장개정으로 동계종목이 삭제됐고 서울아시아올림픽평의회총회에서 오는

3월 삿포르(일본)에서 제1회동계아시아게임을 창설했다.

이번 대회의 25개 경기종목은 서울과 경기일원(성남, 시흥, 광주, 고양, 수원, 용인)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별도의 연습장도 58개가 사용된다.

서울아시아게임은 25개종목에 걸쳐 269개의 경기를 펼쳐 금메달수가 무려 269개로

〈표 1〉 10회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수 및 한국의 획득희망 메달수

경 기	종 목 별 금 메 달 수					희 망 메 달 수			
	남	여	오	혼	계	금	은	동	계
육 상	23	19	0	0	42	3	8	13	24
수 영	18	16	0	0	34	1	3	8	12
양 궁	6	6	0	0	12	9	3	6	18
배드민턴	3	3	0	1	7	3	2	1	6
농 구	1	1	0	0	2	1	1	0	2
볼 링	6	6	0	0	12	3	4	2	9
복 싱	12	0	0	0	12	7	2	3	12
사 이 클	7	2	0	0	9	5	3	1	9
승 마	0	0	6	0	6	2	2	2	6
펜 싱	6	2	0	0	8	2	3	3	8
축 구	1	0	0	0	1	1	0	0	1
골 프	2	0	0	0	2	1	0	1	2
체 조	8	6	0	0	14	1	3	4	8
핸 드 볼	1	0	0	0	1	1	0	0	1
하 키	1	1	0	0	2	1	0	1	2
유 도	8	0	0	0	8	4	2	2	8
조 정	5	3	0	0	8	1	2	2	5
사 격	18	8	4	0	30	4	4	4	12
탁 구	3	3	0	1	7	0	2	2	4
태 권 도	8	0	0	0	8	8	0	0	8
테 니 스	3	3	0	1	7	4	2	2	8
배 구	1	1	0	0	2	1	1	1	2
역 도	10	0	0	0	10	2	2	2	6
레 슬 링	20	0	0	0	20	6	5	5	16
요 트	0	0	5	0	5	0	1	1	2
계	171	80	15	3	269	71	55	65	191

※ 오픈종목이란 남녀구별없이 출전하는 종목.

※ 혼성종목은 남녀가 짝이 되어 출전하는 종목.

'82년 제 9 회 대회 199개보다 70개가 늘어났으며 대회사상 가장 많은 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42개로 가장 많고 수영 34개, 사격 30개, 레슬링 20개, 체조 14개, 양궁, 볼링, 복싱이 12개순이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종목 보다는 개인종목이 노다지다. 269개 경기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종목이 171개, 여자종목이 8개, 남녀구별없는 오픈종목이 15개, 혼합종목이 3개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아시안게임에 동원되는 운영요원은 기획, 관리에서 경기진행, 안내까지 6만5천1백71명에 달하며, 이중 83%인 5만4천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충당되어 선수와 임원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들 운영요원 중 개폐회식요원이 20,399명, 경기운영요원이 15,945명, 의무요원이 2,113명, 행정지원 및 기타요원이 26,704명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대회에 활용한 것은 '83년 에드먼턴유니버시아드대회와 '84년 LA올림픽에서 큰 효과를 보았으며, 우리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서울올림픽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의 협동과 애국심의 총정임을 알 수 있다. '86아시안게임의 선수단입장은 아시아올림픽회원국의 국가이름에 한글호칭을 확정하여 한글호칭의 가나다순에 따라 입장한다. 그리고 주최국인 한국은 맨마지막에 입장케 된다.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30억아시아

인의 스포츠대제전을 맞아 입장수입확보와 최대관중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86아시안게임의 예상관중과 종목별 인기도순위는 도표 2와 같다.

#### 4. 서울아시안게임의 전망

한국스포츠는 인기구기종목에서는 그런대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메달이 많이 걸린 육상, 수영 등 기본기록종목에서는 약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오는 '86아시안게임 5개기록경기에서 한국이 노리는 금메달은 모두 18개, 이중 양궁이 8개이다. 이들 5개종목의 금메달 총수가 128개로 269개의 금메달 총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이 양궁을 제외한 다른 기록경기에서 얼마나 뒤져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5개기록경기의 한국기록과 아시아 및 세계수준을 비교하여 '86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수를 전망해 본다.

#### ▲ 육 상

한국이 '86아시안게임육상에서 목표로 하는 메달수는 금3, 은8, 동13으로 이의 달성은 쉽지 않다.

한국이 '86육상에서 전질 수 있는 확실한 금메달은 장재근(해태타이거즈)의 200m 하나 뿐이다. 지난해 5월 전국종별선수권에서 아시아신기록(20초73)을 세워 한국육상에 청신호를 올렸던 장재근은 고오베유니버시아

◇ '86아시안게임 예상관중수 ◇

(표 2)

종 목	관중석 규모	총판매가능 좌석 수	예상관중 (무료석포함)	예상유료 관 중	인기도 순위	
육 상	69,967	314,852	72,557	37,574	6	
수 영	4,528	77,431	34,311	25,710	7	
양 궁	1,500	5,400	2,380	1,780	17	
배 드 민 턴	(13,662)	110,663	15,403	3,018	24	
체 조	13,662	49,184	20,564	15,198	4	
농 구	12,631	238,726	81,415	54,890	2	
볼 링	450	2,430	4,097	3,827	15	
복 심	7,701	62,379	23,642	16,712	5	
사 이 클	5,975	26,888	4,848	1,861	20	
승 마	4,769	34,337	9,130	5,315	10	
펜 싱	7,094	73,846	10,183	3,089	22	
축 구	동대문	30,000	556,783	175,328	144,831	1
	잠 실	(69,967)				
	부 산	30,000		114,992	94,990	
	대 전	26,610				
	대 구	24,000		65,336	53,972	
	광 주	24,000				
골 프	2,000	7,200	3,135	2,335	21	
핸 드 볼	5,145	37,044	9,251	5,135	14	
하 키	21,262	229,630	28,498	2,984	23	
유 도	4,216	15,178	18,996	17,301	13	
조 정	23,270	62,829	4,586	905	19	
사 격	2,284	14,390	4,238	2,640	18	
탁 구	5,728	41,242	13,148	8,566	9	
태 권 도	2,916	10,498	4,641	3,475	11	
테 니 스	15,889	171,602	34,836	15,770	8	
배 구	6,837	141,526	60,149	44,424	3	
역 도	3,312	29,808	7,307	3,995	25	
레 슬 링	4,410	31,752	11,310	7,782	16	
요 트	-	-	-	(무료)	12	
개 폐 회 식	(69,967)	101,256	139,934	111,256		
계	360,156	2,446,874	974,215	689,335		

※ 괄호안은 경기장 중복

드에서 값진 동메달(20초78)을 차지하며 세계수준급의 선두로 도약했다. 이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아시아신기록(20초41)을 세우며 우승, 올해 대회에서 커다란 이

변이 없는 한 200m의 금메달은 장재근의 것이란 걸 입증했다. 김종일(동아대)의 멀리뛰기도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 '82년 뉴델리대회에서 금메달(7m94)을 잡았던 김

종일은 자신의 최고기록(7m98)이 중공의 유옥황이 보유한 아시아기록(8m14)에 16cm가 뒤져 있다.

세단뛰기의 박영준(한체대)은 금메달에 근접한 선수, 박선수는 작년 9월 아시아선수전에서 한국신기록(16m35)을 세우며 중공의 텡홍신(16m38)에게 3cm의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양보했었다.

### ▲ 수 영

아시아수영강국을 노리는 중공의 세찬 물살이 한국과 수영강국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34개의 금메달이 걸린 수영에서 우승을 겨냥하고 있는 중공은 최근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가지며 각종대회에 출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2년 뉴델리대회에서 금3, 은10, 동8개를 획득, 일본(금21, 은12, 동7)에 이어 종합 2위를 했던 중공은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수영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현상황에서 한국은 수영종목 총 금메달수 34개 중 금1, 은3, 동8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금메달조차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이 금메달 후보로 내세운 남자접영 200m의 방준영은 제 2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이 종목에서 홍콩선수와 공동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이때 방선수의 기록(2분 6초28)은 한국신기록임에도 불구하고 '85년 일본랭킹 9위에나 해당할 뿐이다. 일본의 최고기록은 2분2초72였다.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최윤희 여자선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대회 최고기록 3

개(배영2, 개인혼영200m)를 갖고 있으나 이미 일본선수들은 최선수의 기록을 돌파했다.

### ▲ 양 궁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강세를 보여 온 양궁은 금메달숫자가 예전의 4개에서 이번 '86 아시안게임부터는 12개로 늘어나 문자 그대로 한국의 메달박스로 될 전망이다. 12개 부문 중 한국의 양궁대표팀은 8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서 한국은 남녀단체전은 석권했으나 남녀개인전은 은메달에 머무르고 말았다. 남자개인은 일본에, 여자개인은 북한에 넘어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기록은 아시아, 오세아니아주기록을 모두 능가하는데다 홈코트의 잇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호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짙다.

### ▲ 사 격

사격은 3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황금어장이자, 한국은 4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 각국의 사격수준은 뛰어나다. 지난 '82뉴델리대회에서 한국은 11개의 금메달 중 금3, 은3, 동5개를 따내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했었으나, '86년아시안게임에서는 공기총종목이 대폭등장해 남자부문에서 18개, 여자부문에서 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 ▲ 역 도

도틀기록을 비교할 때 체급마다 대략 30

~85kg의 엄청난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경량급에서 중량급으로 갈수록 편차는 더욱 벌어진다. 가장 근접한 것이 52kg급으로 전병관의 한국최고기록(232.5kg)이 30kg차로 불가리아의 테르지스키(23세)가 보유한 세계최고기록(262.5kg)에 접근하고 있어 아직 17세인 어린 전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량급(110kg 이상급)에서 한국최고기록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민우는 이란선수 테이무리가 보유한 아시아최고기록에 인상은 15.5kg, 용상 7.5kg 총계 25kg이 각각 뒤져 있다.

한국은 금메달박스인 기록 5경기에서 최소한 16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체급경기인 태권도, 복싱, 유도에서 금메달을 휩쓸 경우 2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 태 권 도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세계정상인 만큼 8체급 전체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절호의 메달박스종목이다.

### ▲ 복싱 및 유도

12개의 금이 걸려있는 복싱은 7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유도는 일본의 강세를 누르고 있는 현실판으로 보아서 8개의 메달 중 4개의 금메달의 제패는 무난하다고 본다.

### ▲ 체 조

1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체조는 중공이 남녀에, 일본이 남자종목에서 세계정상

급으로서 우리로서는 남자마루운동부문에서 한층식만 금 1개를 바라볼 뿐이다.

### ▲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는 중공에 밀려 금메달획득이 곤란하고, 테니스는 7개 전종목에서 금메달획득을 목표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은 남녀복식, 혼합복식 및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획득이 기대된다.

### ▲ 구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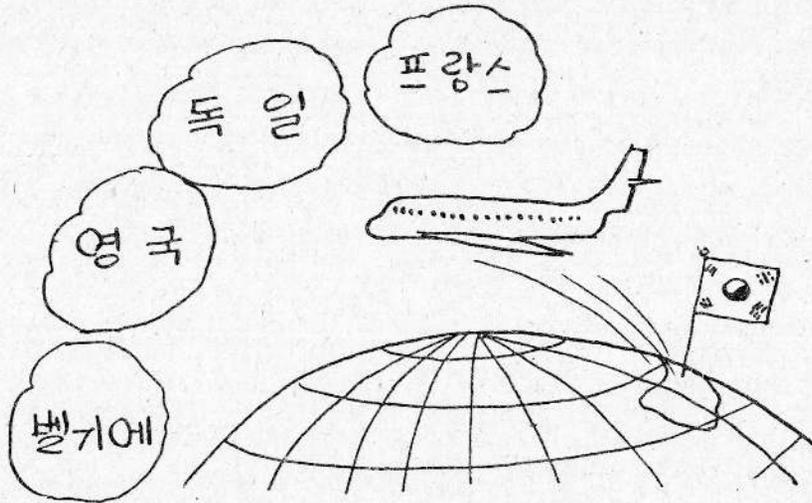
구기종목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는 것은 축구, 여자농구, 남자배구, 여자하키 등이며, 은메달이 기대되는 것은 남자농구, 여자배구 등이다.

### ▲ 기타 종목

펜싱은 남자에빠개인과 단체전의 금메달이, 조정에서는 남자의 무타페어, 승마는 장애물비월의 개인과 종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요트는 메달전망이 흐리며, 골프는 개인전이든 단체전에서 1개의 금이, 볼링에서는 3개 정도의 금메달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9회뉴델리아시안게임 때 획득한 금메달 28개의 2.5배수인 71개의 금메달획득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가 새로운 경기로 채택되고, 유도 및 양궁의 급성장, 전통적인 복싱과 배드민턴, 사이클, 하키, 테니스가 눈부신 비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종전에 초강대국으로서 자랑해 오던 육

# 空 軍 漫 評



대통령각하 유럽 4개국 순방

「세계속의 한국을……」

상과 수영이 중공에 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공이 전 종목에 걸쳐서 비약적인 스포츠강세로 한국은 중공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홈그라운드인 잇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 스포츠판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대회의 디딤돌역할을 충분히 마련하리라 전망된다.

# 韓國人の 道徳心

—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



소령 이 남 진

(공본 정훈감실)

- 목 차 -

- I. 머리 말
- II. 선비정신의 기본덕목
  - 1. 忠義      4. 敬
  - 2. 孝        5. 信
  - 3. 誠        6. 公
- III. 맺는 글

## I. 머리 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전개해 오면 거기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원동력은 그 민족의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슬기롭게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은 오천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영위해 오면서 숭한 격변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형성하여 왔으며, 커다란 外侵도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온 원동력은 “선비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에 “선비는 나라의 元氣”(土國之元氣)라고 하였으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선비는 역사를 이끌어 온 중요한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선비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선비들에게 강조되었던 덕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선비정신의 기본덕목

### 1. 忠 義

忠義란 나라와 大義를 위하여 “殺身成仁” 하는 정신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外侵을 받아 왔으나 그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외적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들이 대부분 선비들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參禮역에 나붙은 의병격문에는,

임금이 옥을 보면 신하가 죽는 것이 의리이니 충의를 다하여 목숨을 바칠 날을 당한 것이다……. 무릇 忠君愛國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달 27일까지 삼례역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동향 동지들에게 거듭 고한다. 우리들이 평소에 배운 것이 무엇이며 강론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신하로서 忠에 죽고 자로서 孝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구한말 儒林의 泰斗였던 勉庵 崔益

鉉(1833~1906)은 이른바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전국의 선비들에게 檄文을 보내어 拳義의 뜻을 천명한 뒤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하였다. 그가 일제에 붙잡혀 대마도에 유배된 후 日人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끝내 굶어죽은 것은 선비의 충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이다. 崔益鉉 외에도 柳麟錫·李殷贊·李康年·許蔭 등 많은 의병장들이 자기 일신상의 일은 잊고 오직 나라의 위태로움만을 걱정하여 義로운 순국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朴殷植은 「獨立運動之血史」에서 “義兵은 우리 민족의 國粹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의병의 거의를 주도한 인물들이 선비였고 이 선비들이 지닌 忠義의 정신이 난국을 극복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니 “선비는 곧 우리 민족의 國粹”인 것이다.

또한 일찌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士可殺 不可辱)고 하였다. 이 말은 선비들의 義理·志操·清白意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항상 선비로서의 典型을 다 갖추고 몸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大義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이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죽음도 불사한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士禍가 한창일 때 연산군은 수 많은 선비들에게 사약을 내리고 사람을 시켜 어떻

게 죽어나고 살피게 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비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약을 마시고 죽어갔다.

이와같이 나라와 대의를 위하여 “殺身成仁”하는 선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으뜸가는 정신이라 하겠다.

## 2. 孝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하나이며 교육적 전통의 하나는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다. 물론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우리나라만이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孝의 정신이 더욱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하나의 생활방식으로서 행하여져왔다.

신라의 “국학”에서는 「論語」와 「孝經」이 필수과목으로서 선비의 덕행과 지식을 쌓는 입문서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 내재되어 가정도덕규범으로 발전되었다.

그렇기에 栗谷 李珣(1536~1584)는 「擊蒙要訣」에서 선비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百行이 있어도 孝와 悌가 본이 되며 죄가 삼천이 있어도 불효가 가장 큰 죄이니, 아버이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居에 敬하여 순순히 받아들이는 예를 다하고, 養에는 口體의 奉을 다하고, 병에는 근심하여 의약의 방을 다하고, 걸으로는 슬퍼하여 慎終의 예를 다하고, 제사에는 엄하여 追遠(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

지낸다는 외에 : 필자註)의 誠을 다 하여야 한다. 온정, 定省과 出告하는 반면에 하나도 성현의 가르침을 좇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성을 다하여 웃으면서 아뢰고 점점 도리로서 말하며, 안으로 내 몸을 돌아보아 행실에 불비한 것이 없고 시종에 덕을 온전히 하여 소생에 욕됨이 없는 연후에 능히 事親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孝는 선비의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孝가 반드시 선비에게만 중요시된 것은 아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 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孝를 행함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조 초기의 학자였던 陽村 權近(1352~1409)은 태종에게 올린 글(壽昌宮災上書) 가운데 그 옛날 舜임금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야 한다면서 군왕으로서 수양할 바 그 첫째가 篤誠孝라고 하였다.

이처럼 孝는 선비에게 있어서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고, 또한 선비는 일반 백성은 물론 임금에게까지도 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당위적인 생활규범이 되게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3. 誠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자녀들에게 참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왔다. 그래서 율곡도 「聖學輯要」에서 “뜻에 誠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이요, 理에 誠이 없으면 능히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성을 다 해야 비로소 뜻도 서게 되고 진리도 깨닫게 되며 기질에 변화도 가져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誠은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그래서 「大學」에서는 誠에 대하여 “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道요, 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라고 하였다. 사람이 뜻을 세워 그 뜻을 이루려면 선참(성실)되어야 하며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율곡은 「擊蒙要訣」에서 선비가 먼저 참되지기 위한 몸가짐을 갖는 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作聖할 뜻을 세우면 반드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결같이 향학에 뜻을 두라. 身行을 단속하여 평상시에 일찍 일어나고, 의관을 반드시 바르고 단정하게 하며, 용모를 반드시 점잖게 하며, 視聽을 반드시 단정히 하며, 거처를 반드시 공손히 하며, 歩立을 반드시 바르게 하며, 음식은 반드시 질조있게 하며, 寫字를 반드시 공경히 하며, 책상을 반드시 바르게 정돈하며, 방안을 반드시 깨끗이 하라. 항상 九容으로 몸을 가져야할 것이니, 足容은 무겁게, 手容은 공손히, 目容은 단정히, 口容은 가만히, 聲容은 고요히, 頭容은 깨끗이, 氣容은 점잖게, 立容은 덕스럽게, 色容은 씩씩하게 하며, 禮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듣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動하지 말라. 이른바 非禮란 것은 조금이라도 天理에 어긋나면 곧 비례가 되는 것이니 대강들이 말하자면 倡優(광대: 필자註)의 부정한 빛과 俗樂의 음비한 소리와 더럽고 교만한 회롱과 流連하고 慌忙한 놀이를 더욱 근절해야 한다.

이처럼 참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서 선비의 몸가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의 흐트러짐이 없는 자제와 대쪽같은 기개도 이러한 교육의 결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誠의 덕목은 선비정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다.

#### 4. 敬

敬이란 禮를 숭상하고 남을 존중하는 덕목이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져왔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현판에는 “崇禮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예의를 숭상하라는 가르침도 되는 동시에 숭례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性理學에서는 거경궁리(居敬窮理)가 강조되었다. 이는 항상 자기 수양에 힘쓰고 진리를 궁구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敬이란 자기자신을 수양하는데 있어 준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修己治人の 유교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退溪 李滉(1501~1570)은 자기수양에 엄격했음은

물론 남을 존중하고 젊은 후진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고 또 존중하는 매우 중요한 敬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퇴계보다 35세나 아래인 23세의 율곡이 퇴계를 예방했을 때 퇴계는 율곡의 비범한 인품을 알아보고 “옛 성인이 말하기를 後生이 可畏라 하였는데 참말 그렇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퇴계의 敬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율곡은 선비의 敬하는 자세에 대하여 「擊蒙要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進德하고 수업하는 것은 오직 篤敬에 있으니 敬에 두렵지 못하면 다만 空言일 뿐이다. 모름지기 겉과 속이 여일하여 조금도 간단이 없고, 언어에는 교양이 있고, 행동에는 법이 있으며, 낮에는 하는 것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일순에도 存이 있고, 일식에도 養이 있어야 한다. 用功이 비록 오랜지라도 효과 있기를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꾸준히 부지런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이것을 힘쓰지 않고 다만 변박한 설화로 몸을 文彩내는 장식만 삼는 자는 선비의 賊이다. 어찌 두렵지 않으랴.

이처럼 선비는 예를 숭상하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 수양에 힘쓰는 敬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 5. 信

대쪽같은 선비의 절개라는 말도 있듯이 옛부터 선비의 절개란 목숨과도 바꿀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여말 선조에 정몽주 같은 선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끝끝내 不事二君하여 고려조에 대한 節義를 지킨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이라든가 야은 길재(吉再: 1353~1419) 같은 선비의 절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참여함으로써 절의면에서 흠이 있다고 평가되는 權近은 기회있을 때마다 절의를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아들에게 “信한 즉 망녕되지 않으며 성의를 가지고 그 뜻을 굳게 지켜 스스로 변경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는 또 태종에게 올린 글 가운데서 여섯가지 중 두 가지는 “褒節義”와 “行厲祭”로서 그 중심되는 덕목은 信에 관한 것이었다. 즉 절의있는 사람을 포상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고려조를 위해서 끝끝내 절의를 굽히지 않았던 정몽주와 김약항(金若恒)의 경우를 들기로 하였다. 또 위령제를 거행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친 영령들을 추도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信이란 사람人 변에 말씀할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을 삼가하라고 가르쳐 왔다. 言行에 대하여 율곡은 「學校模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儒行에 힘쓰려면 모름지기 언행을 삼가야 한다. 사람의 허물은 대개 말

로써 되는 것이니 말은 반드시 忠信하여서 반드시 할 때만 하고, 허락을 중히 하고, 목소리를 엄숙히 하고, 농담을 하지 말고, 싸움을 말며, 문자나 의리에 유익된 이야기만 하며, 거칠고 잡된 말이나 시정비리의 말 같은 것은 입에 내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부추겨 空談으로 날을 보내고 時政이나 논하고 남의 장단이나 비교하는 것은 일에 해를 끼치는 것이니 마땅히 경계하라.

고 선비들에게 훈계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선비에게 절개와 지조를 중히 여겼던 것이다.

## 6. 公

公이란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무사함을 뜻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先公後私의 정신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는 합리적인 교육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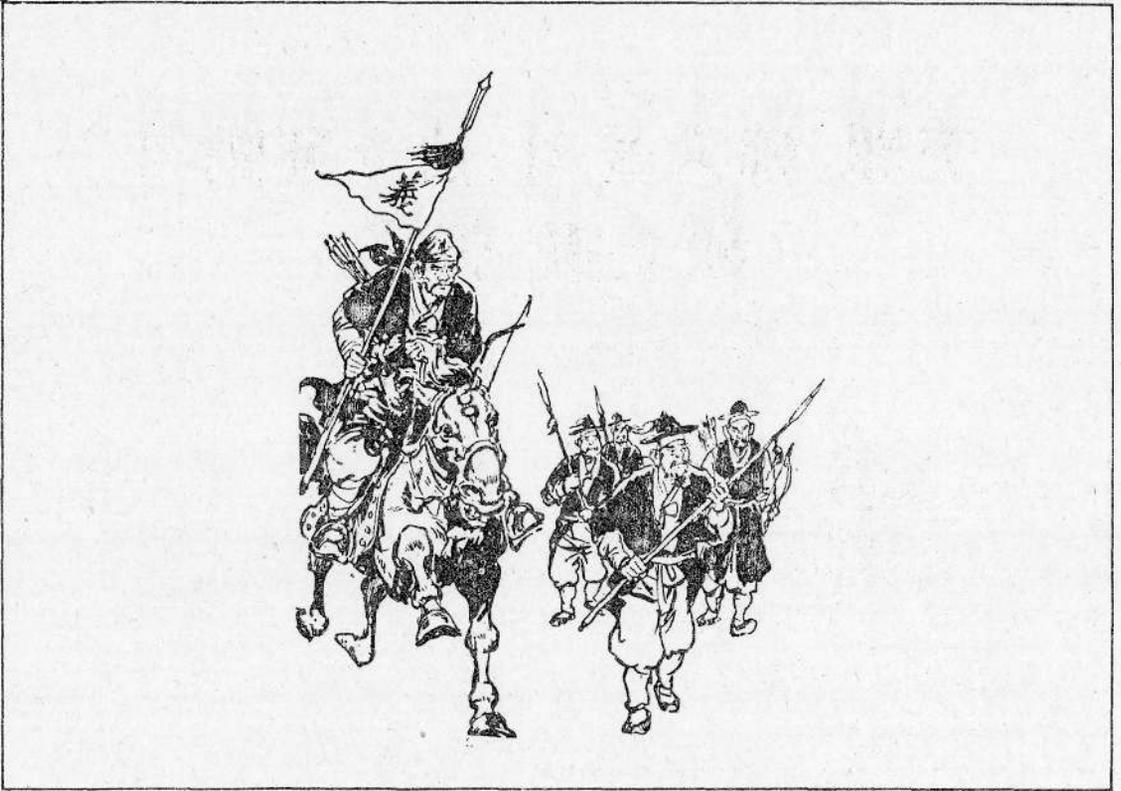
또한 책읽기를 권변하여 집집마다 큰 소리로 책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이를 자랑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에 으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왕성한 교육열은 先公後私의 마음, 승문사상, 그리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심성을 키우는데 이바지 하였다. 율곡은 선비의 독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擊蒙要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는 항상 마음을 存하여 사물의 이기는 바가 되지않게 하고 모름지기 이치

를 궁구하여 善을 밝힌 연후에야 당연히 행할 길이 분명히 앞에 나타나서 가히 진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道에 들어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고 궁구하는데는 글을 읽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니 성현의 용감하신 자취와 善의 본받을 만한 것과 惡의 경계할 만한 것들이 다 글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독서하는 이는 반드시 端拱하고 바로 앉아서 공경히 책을 대하여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뜻을 극진히 하여 정확하게 생각하고 익숙히 연구하여 義趣를 깊이 이해하되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할 것이다.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여 몸으로 행하지 못하면 글은 글이요, 나는 내가 되고 말 것이니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먼저 小學을 읽어서 부모를 섬김과 형을 공경함과 스승을 높임과 벗을 친하는 도리에 일일이 자세하게 음미하여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 무릇 독서는 반드시 한 책을 熟誦하여 뜻을 다 알고 貫通하여 의심이 없는 연후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며 많이 읽기를 힘써 바쁘게 넘기지 말라.

이처럼 선비에게 있어서 독서는 책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수양의 길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天理가 무엇인지 밝히려 하였고 잠시도 천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힘썼던 것이다. 權近이 그의 아들에게 “公하여 私가 없고 마음이 밝고 욕심이 없으며 일이 지당하게



나오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정직이다”라고 한 것 역시 公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 Ⅲ. 맺는 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은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은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비정신이 형성되는데는 선비에게 여러가지가 강조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섯가지 덕목 즉, 忠, 義, 孝, 誠, 敬, 信, 公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덕목이 妙合을 이루면서 肉化되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身命을 바쳐 난국을 극복하고, 大義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대쪽같은 기개의 선비정신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우리의 특징적인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선비정신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정신이었고 또한 역사를 통하여 전개되었던 구체적인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하겠다.

# 美 洲 韓 人 들 의 獨 立 運 動 과 獨 立 軍 養 成



중 위 임 중 은

제 5315 부대

## - 目 次 -

- I. 序 言
- II. 大韓人 国民会和 그 活躍相
- III. 興士团과 同盟修鍊運動
- IV. 美 洲의 軍人養成運動
- V. 婦人会의 獨立後援

## I. 머리말

祖国이 日帝로부터 光復을 되찾은지 어언 40여년이 지났지만, 解放은 联合国 勝利의 産物인 것 처럼만 여기고, 기실 歷史의 陰地에서 獨立을 위해 獻身했던 先烈들의 活動은 아직껏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감이 있다.

특히 国内나 滿洲, 中国에서의 活動보다

는 美 洲에서의 獨立運動이 그 활약상에 비해 자료나 기록이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美 洲에서 (風習과 言語, 思考方式이 워낙 다른)의 獨立運動은 다음에서 소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大韓人 国民会, 興士团, 婦人会 등의 각종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온갖 어려움에도 不拘, 활발히 전개 되었으며, 더욱이 抗日運動史에 特記할 만한 사실은 하와이, 미국 서부 등에서는 軍人養成에서 힘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美 洲의 獨立運動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義士들의 굳기찬 기상과 協同精神, 조직력 등을 배우기에 충분한 것이라 본다.

## II. 大韓人 国民会和 그 活躍相

1908年 3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張仁

煥, 田明雲에 의한 스티븐즈 저격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현지 미국정부와 언론기관의 우호적인 태우를 받게 되자 미주에 살고 있던 교포들의 항일 의식은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朴容萬, 李承晩, 尹炳求 등은 그 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시(市)에서 애국동지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大會와 때를 같이 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음모를 규탄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을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호소하여 미국 政界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해외 각지의 한국인 團體를 규합하여 조국의 독립 옹호에 일치단결하여 행동통일을 기하자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汎美洲抗日團體 결성의 기운이 크게 고조되어 마침내 1909년 2월 1일 國民會가 탄생되었다.

그리하여 國民會는 「教育和 實業을 振興하여 자유, 평등을 제창하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하고, 조국의 독립을 회복함」이라는 목적 아래 미본토에 북미지방 총회를 두어 각 지방회를 통할하게 하고, 해외 한인들을 망라하려고 했다.

1909년 4월에는 북미지방 총회에서 황사용과 방화중을 특파하여 멕시코지방 총회를 설립하고, 5월에는 미주와 하와이지방 총회의 공동결의로서 정재관, 이 강 등이 滿洲를 巡行하고 이상설은 러시아 쪽을 순방하면서 독립운동을 촉진했다. 또 국민회는 '新韓民報'와 '新韓國報' 등의 기관지도

발간하였다.

1910년 이 나라의 主權이 日帝에 짓밟히자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한·일 合邦을 부인하고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는 공동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 연합통신으로 발표하였다.

1. 우리는 萬古의 치욕적 日·韓 병합을 부인하며 그에 관한 왜적의 一切行事を 배척함.

2. 우리는 大韓民族이요, 왜적의 부속민이 되지 않을 것을 맹서하며, 소위 「日·韓 合邦」은 우리 민족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니고 왜적의 위협적 위조(偽造)인 것임.

3. 우리는 韓國의 國號와 國旗를 보장하며 왜적을 축출할 때까지는 8월 29일을 國恥日로 기념하여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새롭게 함.

4. 한국과의 조약상 의무가 있는 각국 정부에 公牒을 보내서 한·일합병 否認의 이유와 일본이 우리의 원수인 사실과 국제상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한인 국민회가 재미한인을 대표할 것을 알게 하기로 함.

1911년에는 다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해외 독립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북미·하와이·만주·시베리아 등 4개 지방총회를 두었으며 멕시코와 쿠바에도 지방회를 두었다. 이후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는 亡命自治政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조국 광복운동과 동포의 안정보장을 확보하기에 힘썼으며, 재미동포가 이를 지지하였다. 중앙총회장은 안창호, 백일규, 윤병구 등이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있

어 미주에서 중심체제의 역할을 다하였다. 1913년 6월 20일에는 회장李大爲의 이름으로 미국무장관 브라이언에게 「재미 한인을 일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며, 한인에 관한 문제는 한인사회에 교섭하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여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독립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게 한 다음 1914년 3월 5일에는 캐나다 정부의 官許狀을 얻어 회원의 안녕을 보장하고 비영리적인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와이지방총회는 1915년까지 자치규모가 확립되어 하와이 정부로부터 信用警察權을 위임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경찰행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朴容萬의 환영을 받으며 1913년 2월 7일 감리교 평신도 대표로 파견된 이승만이 하와이에 온 후부터 국민회 내부에서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1월 제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 대통령 윌슨의 평화원칙이 발표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는 미주·하와이·멕시코 등 각지에 연락하여 재미 한인 전체 대표회를 열고 광복운동 방침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한경, 閔瓚鎬를 임명하였으나 출국허가를 얻지 못하여 끝내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弱小國 同盟會에 민찬호가 참석하였다.

그런데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승만은 「한국이 일본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완전한 정부를 설립하고 內治와 外交의 권리가 있을 때

까지는 國際聯盟委任統治에 붙여서 보호를 받게 해 달라」는 소위 위임통치 청원서를 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윌슨대통령에게 송달함으로써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국내에서 3.1 운동이 전개되자 이 소식을 들은 대한인 국민회는 3월 15일 미주, 하와이, 멕시코 재류동포 전체 대표회를 개최하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1915년 이래 국민회와 이승만 사이의 불화는 1919년 歐美委員部 조직 이래 더욱 악화되어 끝내는 1921년 하와이지방 총회가 국민회에서 이탈하여 僑民團으로 독립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 Ⅲ. 興士團과 同盟修鍊運動

興士團은 구한국 말엽부터 민족운동과 신문화운동을 전개하던 新民會의 後身으로서, 1911년 9월 安昌浩가 도미하여 하상옥, 정도원, 강영소 등과 더불어 同盟修鍊運動을 시작함으로써 그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래 地盤을 국내로 결정하고, 흥사단을 설립하여 항일 투쟁의 장기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① 동맹수련으로 英才를 배양하며, ② 그 정신에 적합한 理想村을 건설하여 민족의 생활모범이 되며, ③ 民性 혁신에 필요한 민중운동을 전개하여 장래 사업의 준비 역할을 기

도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하여 1917년 1월부터 北美實業會社를 조직하고 株金 9만5천달러를 모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홍사단 이사장에는 閔贊鎬, 의사장(議事長)에는 韓承坤이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1919년 5월, 안창호가 臨時政府 내무총장이 되어 上海로 가게 되자, 그는 상해에서도 홍사단 극동 임시위원부를 설치했는데, 특히 李光洙는 홍사단을 과학적으로 조직화하여 名士와 장래성 있는 청년들을 다수 입단시켰다.

#### IV. 美洲의 軍人養成運動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서부연안과 멕시코에 이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항일 운동사에 특기할 만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미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1883년 5월 19일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부터이다. 그 해 7월 주미대사 閔泳翊이 최초로 도미하였고, 그 후 公使 朴定陽을 비롯하여 甲申政變의 망명객 徐光範, 朴泳孝, 徐載弼 등과 유학생 俞吉濬, 尹致昊, 金奎植, 李剛 등이 건너갔다.

그러나 정식 移民이 건너간 것은 1902년 11월 20일 제정 공포된 緩民院官制에 의해 그해 12월 제 1차 하와이 이민 1백 1명이 한국을 떠나 이듬해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때부터라고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이민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도합 7천2백26명이 66차에 걸쳐 하와이에 정착

하였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토지를 잃고 나라를 등진 영세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과 때를 같이 하여 尹炳求, 安昌浩, 鄭翰景, 李承晚, 朴容萬 등이 건너가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애국적인 문화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한인 교포의 단결과 문화,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들은 강력한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해서는 많은 군사훈련 단체가 생겨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사관생도를 양성, 독립 항쟁에 크게 공헌하였다. 미국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 군사훈련이란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며, 많은 난관이 따랐으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미국 시민의 동정과 미국 政界 및 종교계 등에서 많은 협조를 얻어 당국의 양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애국 동맹단과 하와이의 대동 공진단에서는 무에 장려문을 발표하여 동포의 무에 정신을 고취하고 「체조 요지」를 출판하여 반포하는 등 청년들의 군사훈련을 장려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한국 군인출신으로서 이민되어 온 동포가 미본토 및 하와이에 5백 여명 가량 있었고, 멕시코에는 2백 여명이 있어 이들이 교련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미주 교포의 훈련은 1910년 10월 3일부터 클레어먼트에 의용 훈련대를 조직하고 매주 3일 저녁 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8 일에는 롬폭에서도 의용훈련대를 조직하였다.

그 해 11월 10일에는 캔자스市에 소년병 학교를 조직하여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12월 5일에는 와이오밍과 수페리어에서 청년병 학원을 조직하여 매일 저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와이 교포들의 훈련은 처음에는 대동 공진단이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후 국민회 안에 연무부를 설립하는 한편, 다수 교포가 거주하는 지방마다 군사훈련을 시작하여 매일 저녁 청년교포들이 목총을 메고 교련을 받았으며 그 수는 2백여명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군사훈련 단체가 활동하였는데, 그 중 몇 개의 주요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브레스카 소년병 학교의 활동이다.

미주 네브레스카에서 유학하던 박용만이 커니 농장과 학생 노동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일을 얻어주고 있었는데 이 때 지방당국의 양해를 얻어 소년병학교를 설립하고 사관 양성을 시작하였다.

1910년 6월 헤스팅스대학 학장의 후원으로 교실과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 뒤부터 학교조직이 확장되었는데 이때 교장은 박용만이었고, 학생은 27명이었다.

이 소년병학교는 1912년 9월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 수는 13명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하여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목총을 메고 훈련하며 농장에 일이 없는 때에는 학반에서 군사학을 강습하면서 3년만에 양

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 11월 교장 박용만이 하와이로 가자 네브레스카 소년병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둘째, 멕시코 崇武学校는 1910년 11월 17일 멕시코의 메리다에서 이근영, 조병하, 이순근 등의 발기로 설립되어 사관 양성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학생 수가 1백 18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교가 확장되면 때, 마침 그곳 멕시코에서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 대부분이 가족을 따라 피난하거나 전쟁에 참가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 교육을 계속하지 못하고 1913년 3월 폐교하고 말았다.

세째, 国民軍團의 활동이다.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후, 가할루 지방에 있던 아후마두 농장에서 설립된 국민군단은 네브레스카에서 돌아온 박용만의 노력으로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의 연무부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안원규와 박종수는 리비회사와 계약한 1천 5백 에이커의 파인애플 경작 도급을 기부하고 임응천, 한태경, 한치운, 이치영 등이 와이아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번그래의 수입을 기부하여 군단의 재원을 삼게 하였다.

미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의 군사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하와이 군사령부가 이를 묵허하는 대신 軍材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되 다만 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목총을 사용하였다.

국민군단이 학도들의 기숙을 제공하며 製服所를 설비하여 군복을 용달하였고, 교련 기구는 사관의 단총(45式) 39정과 군도 10자루, 나팔 12개, 북 6개, 목총 3백50정과 병학 교과서(英文書籍) 28종이 있었다. 이들은 농장주인에게 목재를 얻어 營門을 세웠으며, 1914년 8월 29일 낙성식에서는 6백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단 학생들의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학도 1백 3명으로 시작된 국민군단은 이때 3백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설비는 적었으나 완전한 군대였다. 이제 국민군단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군단 사령부

단장:박용만, 부관:구종권, 태병선, 서기:백운택, 장재, 최순서

### 2. 군단 경리부

부관:노훈, 박승선:회계, 이성근, 장부:정인수, 군의:홍중훈

### 3. 제복소 주임

소대장:김성옥, 김승윤

### 4. 병학교 주임

단장:박용만, 대대장:박종수, 대대 부관:최창영, 정교:정명렬

### 5. 훈련대 주임

대대장:박종수, 부관:이둔환, 허용, 중대장:김세근, 부관:이성근, 부위:김치명,

조봉운, 참위:임성우, 전종운, 정교:방재순, 임순용, 김순근

소대장:박춘식, 강태순, 한용순, 참위:안경식, 이상호, 김예준, 김성옥, 김용팔, 한경선, 하사:김상호, 윤희중, 이태홍, 서순백, 백운서

### 6. 별동대 주임

노백린, 김성옥, 허용, 이복희, 이상호

### 7. 니팔수 및 고수

이제원, 강달재, 강운학, 백운경, 차성철, 김용환, 이창규, 이봉용, 김백화, 최태재, 김중환

국민군단의 학생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받고, 학반에서 군사학을 공부하는 한편, 때때로 實戰을 방불케 하는 작전연습을 하였으며, 차례로 농장에서 일을 하여 독립군 편성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1916년 10월에는 국민군단의 경작 계약이 만료되고 더구나 그 농토의 토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군단은 적합한 곳을 얻지 못하고 사관양성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국민군단이 중단된 후에 한인의 군인양성 사업이 일반적으로 중지되었다.

국민군단의 재정은 파인애플 경작 도급과 의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총액이 7만 8천 6백 52달러 25센트이고, 2년동안 군단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 8천 4백 42달러 25센트이었으며, 잔여금 2만 2백 달러는 遠東軍事資金으로 적립되었다.

## V. 婦人會의 獨立後援

1908년 5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 한인들이 자녀들의 국어교육을 장려하고 동포간의 친목을 증진하며, 교육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아래 설립된 한국 부인회가 재미 부인회 조직 및 운영의 효시인 것이다.

한국 부인회는 1914년 1월 12일 하와이, 가와이, 골로아 지방에서 지회를 결성하고 5월 2일에는 선교사 노블 목사를 통하여 서간도 재난동포 구제금 2백 달러를 송달하였다.

1917년 3월 17일에는 새크라멘토 지방에 있던 부녀들이 대한인 국민회 사업을 후원하며 가정 일용품의 일본 물품 배격을 목적으로 韓人 婦人會를 조직하였는데 초대회장은 양재현이었다.

1919년 3월 2일에는 중부 캘리포니아주 덴버지방의 부녀들이 新韓 婦人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강원신을 선출하였다. 신한 부인회는 부녀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대한인 국민회의 광복운동을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같은 해 3월 2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지방의 부녀들이 동포간의 親愛를 도모하고 식료품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을 마련, 송달할 목적으로 大韓 親愛會를 조직하였고,

멕시코의 메리다지방 거류 부녀들도 대한인 국민회의 조국 광복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하여 대한 부인 애국회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부인회에서도 국내의 3.1 독립운동에 자극되어 3월 15일 하와이 각 부녀 대표자 41명이 호놀룰루에서 공동대회를 갖고 조국 독립운동을 후원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4월 1일에는 대한 부인 구제회(救濟會)를 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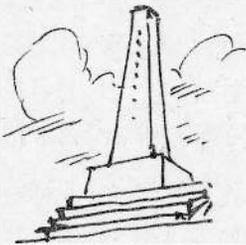
이후 7월 10일에는 덴버,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윌로우스지방의 대표들이 캘리포니아주 덴버지방에 모여 공동결의로서 大韓 女子愛國團을 설립하고 대한인 국민회의 인준을 얻었다. 이들은 金惠淑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참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1920년 2월에는 애국 성금 5백 달러를 상해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미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상해에까지 뻗쳐 여성단체로서는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하와이의 대한 부인 구제회는 임시정부와 외교 위원부에 후원금을 보내고 만주의 大韓 軍政署와 대한 독립군 총사령부에 출정 군인 구호금을 보내 적극 지원하였고, 3.1운동때 死傷한 애국지사와 가족들에게는 구제금 1천 5백 달러를 보내는 등 독립운동 후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 유로코뮤니즘의 正体

全 得 柱

승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目 次 —

- I. 序 論
- II. 유로코뮤니즘의 概念과 起源
- III. 유로코뮤니즘의 共通된 政治理  
念的 内容
- IV. 유로코뮤니즘의 勢力現況
- V. 評 価

### I. 序 論 : 유로코뮤니즘의 正体 란 ?

유로코뮤니즘이란 말은 아직 우리의 政治文化에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일부 知識層에게는 이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유로코뮤니즘이 사나운 이빨을 감춘 신사로 변장한 이리메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本 原稿는 이러한 유로코뮤니즘의 理論的 内容을 이해하고 批判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本 論文은 第II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을 파악하고 유로코뮤니즘이 어떻게 形成되었나를 알아보며 第III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의 共通된 政治理念的 内容을 分析해 보며 第IV章에서는 유로코뮤니즘에 속하는 共產主義 政黨이 어떠한 나라들이며 그 勢力은 현재 어떠한지 일별하고 마지막 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을 評價코자 한다.

## II. 유로코뮤니즘의 概念과 起源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의 概念은 1975年 이태리의 保守派 言論人인 프라네 바르베리(Frane Barberi)에 의해서 처음으로 使用되었다는 것이 支配的 見解이다.

이처럼 '70年代 中盤에 生成되었던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은 처음에는 현 유로코뮤니스트들(즉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유고 등)에 의해서 使用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 人氣度가 점차 높아지자 결국은 이 概念을 받아들여 使用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유로코뮤니즘에 있어서는 그 理念이 어느 블록에 속하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認識의 関心事는 유로코뮤니즘이 議會民主主義를 신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유로코뮤니스트들은 民主主義가 社会生活의 모든 領域에 확산되고, 勞動組合들은 그들의 權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파업을 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며, 政府나 기타 機關으로부터 독립된 힘으로 머무르며, 野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民主主義的 自由權을 보장해 줄 것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을 보다 정확히 理解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에 留意해야 한다:

첫째,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은 마치 모든 共產主義者들이 유럽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

은 결코 아니며 단지 10개도 안 되는 西欧의 共產黨만이 유로코뮤니즘에 속하고 있고 기타 西欧의 共產黨들은 蘇聯 或은 中共의 路線을 걷고 있다.

둘째,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은 그 이데올로기적 側面에서 볼 때, 순수한 유럽적 現象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非유럽지역들인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共產黨 이데올로기들로 유로코뮤니즘의 諸理念과 많은 共通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은 蘇聯 共產黨이 취하고 있는 一般路線이나 中共統制 機構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의 주요 政策指導者들이 필요할 때에 평등한 입장에서 會同하며 各 政黨마다 상이한 路線과 目標를 가지고 있고, 특히 对内 및 对外政策에 있어서는 그들 各國의 實情에 따라서 強調點이 달라진다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유로코뮤니즘을 研究하는 學者들은 유로코뮤니스트들의 政綱政策의 여러 部分에서 일정한 共通點과 그들의 自律性을 發見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 유로코뮤니즘의 概念은 一般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定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로코뮤니즘은 民族主義的 側面과 소련 共產主義를 改革하겠다는 側面에서 定義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民族主義的 共產主義 概念은 蘇聯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라는 旗幟아래 國際共產主義를 그들의 對外政策의 道具로 利用했다는 事實을 인식하고, 蘇聯이라는 統制機構로부터의 解放을 의미하며, 改革的 共產

主義란 蘇聯으로부터의 解放뿐만 아니라, 1917년에 행해진 蘇聯式 暴力革命에 의한 政權奪取方式을 拋棄하고 西歐의 政治文化나 傳統에 알맞는 非暴力·民主的 方式을 통한 政權 爭取를 意味한다.

우리가 유로코뮤니즘의 歷史的 起源을 찾는다면 第2次 世界大戰前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태리와 프랑스의 共產黨은 각각 獨逸나치와 이태리의 파쇼와의 鬭爭에서 그들의 民族과 國家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非나치 및 非파쇼 勢力들과 聯合前線을 폈으며, 1944년~1947년 간에는 그들 國家의 새로운 憲法制定 및 聯立政府 樹立에도 참여했던 經驗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로코뮤니즘의 一般적 口號는, 西歐 뿐만 아니라 東歐에서까지도 각 民族마다 獨自의인 方式을 통한 社會主義 建設이었다. 그러나 스탈린(Stalin)이 1947년에 코민포름(Cominform)을 유고의 首都 벨그라드에 創設하여 蘇聯主導下의 共產主義 勢力을 形成함으로써 유로코뮤니즘의 民族主義 運動도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共產主義 內部的 主要 事件들은 유로코뮤니즘의 形成에 決定的 影響을 주었다.

첫째, 蘇聯의 統制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與件과 現實에 맞는 社會主義을 建設했던 유고의 成功 케이스이다.

둘째, 蘇聯共產黨 第20次 全黨大會(1956)에서 후르시쵸프(Nikita Khrushchev)는 스탈린 格下運動宣言과 平和的 方法에 의한

社會主義 建設可能性을 示唆했다는 점이다<sup>3)</sup>. 그 結果 소련에 從屬되어 있던 東歐의 共產黨들이 脫從屬化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1956년에 일어났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反蘇蜂起이었다. 이러한 反蘇蜂起는 소련의 軍事介入으로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모스크바는 다시 모든 共產國家의 고삐를 휘어잡고 蘇聯式 社會主義 模型을 취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西歐의 몇몇 國家들의 共產黨들은 蘇聯式 社會主義 建設模型로의 복귀를 願치 않고 自己 나름대로 共產主義理論을 開發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로코뮤니즘에 影響을 준 事件은 <체코政權의 自由化 運動>(1968)과 <蘇聯의 체코침공>(1968) 및 <칠레 軍部에 의한 아헨데 政權의 人民戰線의 붕괴>(1973)를 들 수 있다.

소련의 체코武力侵攻은 유로코뮤니스트들(특히 프랑스, 이태리 共產黨)의 비난의 對象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보다 結속된 協力을 하게 되었다.

또한 칠레의 아헨데 政權의 붕괴로 社會主義의 진정한 길은 人民 속의 방대한 同盟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고, 소수 혹은 과반수의 찬성과 지지만으로는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平和的 政權維持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터득하게 되었다<sup>4)</sup>.

이러한 上記 네 가지 事件들은 유로코뮤니즘의 戰略과 路線變更에 결정적 影響을 주었다. 그 結果 1970년대 그들의 主要 對內戰略 및 路線變更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프랑스의 共産党, 社会党 및 極左派는 당초 共同計劃의 實踐을 위해 聯合戰線을 形成했으며 1981년 프랑스大統 領선거 후 社会党和 聯政에 參與까지 했다.

둘째, 1973년 이태리共産党이 基民党和 의 聯政에 參與할 수 있다는 소위 歷史的 妥協戰略이 선포되었다.

세째, 스페인에서 独裁者 프랑코의 서거 이후 議會民主主義의 수립에 共産党이 참여했다.

네째, 1976년 여름에 東베를린에서 開催 되었던 구라과共産党大会에서 이들 나라의 共産党들은 소련을 위시한 東歐 共産党들과 理念的 對決을 노골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유로코뮤니즘은 그들 각국의 民族的 傳統과 政治文化에 맞지 않는 소련 식 共産主義 모델을 배척하고 그들의 輿件과 實情에 맞게 改革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도 다음과 같은 国内政治的 動機要因이 없었다면 不可能했을 것이다.

스탈린 格下運動을 前後하여 이태리 및 프랑스 共産党에 대한 이태리와 프랑스의 國民支持度는 停滯狀態에 있었고, 그 黨員數도 下向趨勢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上記 두 共産党은 勞動者 階級 이외의 다른 階層들의 支持 獲得없이 政權爭取를 위한 過半數 支持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 到達하게 되었다<sup>5)</sup>.

### Ⅲ. 유로코뮤니즘의 共通된 政治 理念的 內容

대부분의 유로코뮤니스트들이 政治理念的 측면에서 나타난 共通點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自律性和 同等權이다. 모든 유로코뮤니스트들은 世界 共産主義運動의 통일된 중심체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의무화된 一般路線 즉, 통일적으로 조정되는 中央機關과 教科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자기들이 갖는 共産主義의 형태가 존재해 왔으나 各國마다 共産党的 相異한 조건과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蘇聯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배격한다. 蘇聯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國境을 초월해서라도 團結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蘇聯에 의한 共産主義의 통일을 正當化하려는 시도이며 소련에 의한 世界 共産主義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유로코뮤니즘은 각 共産党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실현시키는 權利를 갖고 있으며 더우기 그들은 各國의 傳統 즉, 經濟·政治 및 文化的 特殊性의 토대 위에서 소위 다양성 속에서의 統一原則을 옹호·지지하고 있다. 共産党들, 즉 支配共産党이든 非支配共産党이든 간에 그들의 관계는 絶對的 平等과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에 기초를 두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스크바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대신에 유

로코뮤니스트들은 각 政党的 同等權, 獨立과 自主의 토대 위에서 相異한 여러 나라의 공산당의 自意的 合意라는 의미에서 (國際的 連帶)라는 개념의 사용을 더 원하고 있다<sup>6)</sup>.

둘째, 社會主義에로의 民主主義的 길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폭력적 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등 蘇聯의 社會主義 建設 方法論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에 의하면 1917년의 소련혁명은 모든 나라와 모든 시기에 특히 民主主義的 傳統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사회주의에로의 過渡的 方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社會狀況, 변화된 社會條件들, 변화된 階級勢力과 議會民主主義 傳統의 의미는 社會主義에로 가는 과도기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로 가는 民主的 길이라는 그들의 사상은 多黨制의 인정, 즉, 모든 政黨이나 정치집단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하고 보통, 직접 및 비밀선거제의 정기적 실시를 통한 권력장악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들의 복안은 議會制度의 새로운 해석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議會는 레닌이 한 때 말한 것처럼 不正과 非理를 위한 資本主義 階級의 꼭두각시나 사회주의 계급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니고 사회주의에로의 轉換過程에 있어서, 또 사회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과도기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政治生活의 주요한 制度로 인정한다<sup>7)</sup>.

셋째, 한 共產黨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광범한 同盟政策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에로의 民主的 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다른 社會政治 및 世界觀的 勢力과 광범한 同盟政策을 각 勢力의 대화와 自主 및 相互寬容을 토대로 추구해야 한다.

蘇聯을 중심으로 한 同盟政策과의 기본적인 차이란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에서 共產黨들의 동맹정책을 위한 共產黨들의 하나의 지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에서는 共產黨만이 그의 經濟, 政治, 社會 批判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政黨이나 政治集團들은 그 일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이러한 共產黨의 指導的 役割을 포기하고 同盟 내에서 그들의 黨을 다른 政黨 및 政治組織과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있다<sup>8)</sup>.

넷째, 마르크스주의의 開放과 對話이다. 동등한 동반자간의 同盟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요구한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소련 형태를 통일된 세계관으로서 부인하고 있다. 蘇聯式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敎義와 소련 자신에게 이로운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過去, 現在, 未來에 있어서 모든 民族에게 通用되는 自然, 社會 및 人間 思惟의 一般的 學問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

식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개념 대신에 科学的 社會主義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누구나 討論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入黨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sup>9)</sup>.

다섯째, 蘇聯과 東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무비판적으로 소련 및 東歐 지도층의 모든 발전, 대책 및 聲明書 등을 환영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政策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한다. 親蘇 共產黨은 蘇聯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고 있는 東歐諸國의 상태를 진정한 社會主義라고 부르며 그들의 社會主義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의 10월 혁명과 세계 최초의 社會主義 國家의 建設을 認定하지만 소련의 전반적인 발전을 그들의 귀감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東歐에 있어서 경제·정치권력의 과도한 中央集權化와 관료화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東歐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그 침해를 신랄히 비난한다. 소련의 체코 侵攻(1968)이나 폴란드의 勞動者 叛亂(1970, 1976) 및 폭동에 대한 소련의 억압정책도 비난하면서, 1982년까지의 폴란드 사태를 두고 소련을 反駁하고 있다<sup>10)</sup>.

여섯째, 多元的, 民主的 社會主義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共產體制가 너무나 独占的이고 독재적인 中央集權的 및 官僚主義的이라고 비난하면서 議會民主主義의 전통을 가진 유로코뮤니즘은 그러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民主的 自由權과 모든 國家事業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社會主義 모델을 변호하고 있다.

일곱째, 레닌의 黨構造의 否定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 및 동구의 당구조를 거절한다. 특히 현재 실천되고 있는 레닌의 黨理論을 배척한다. 다시 말하면 레닌의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原則, 즉 명령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下向式 命令體系를 가지며 어디까지나 革命的 엘리트 黨, 강철과 같은 黨規律, 모든 당원의 이데올로기적 確信下에서 모든 組織, 즉 勞組, 청년단체, 協同組合, 文化團體들은 共產黨의 지도부에 예속되어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할 의무를 진다는 민주적 中央集權主義(Democratic Centralism)을 반대한다는 것이다<sup>11)</sup>.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로코뮤니스트들의 對外政策 목표는 모스크바의 對外政策과 相異하다.

첫째, 소련의 中共非難 및 中國 共產黨에 대한 非難宣傳은 유로코뮤니스트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

둘째, 〈平和와 社會主義〉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바르샤바條約機構와 〈戰爭과 資本主義〉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나토 機構와의 對立狀態를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거부하고 있으며 유고를 비롯한 몇몇의 유로코뮤니스트 당들은 非同盟을 옹호하고 있다. 이태리 共產黨과 스페인 共產黨은 軍事적으로 歐洲大陸의 分斷을 극복하여 점차적으로 軍事基地와 外國軍隊의 구주주둔

을 철수시키며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관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비판하고 있다.

세계, 장차 歐洲에서 美·蘇의 양 블록을 쟁한다는 유로코뮤니즘의 長期的 목표와 함께 이태리 및 스페인 共産黨을 위시한 몇몇 공산당들은 歐洲 共同体 내에서 歐洲統合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공동체 내에서 그 기구의 民主化와 国家的, 國際的 独占力의 縮小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은 이태리나 스페인 공산당 보다는 덜 강력한 입장이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이와 반대로 英國 共産黨(英國 勞動黨의 左派와 마찬가지로)은 英國의 구주공동체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日本 공산당은 日本 自民黨과 함께 二次大戰 이후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쿠릴列島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토에 대한 입장도 변했다. 이태리 共産黨은 그들의 最終目標가 美·蘇의 블록을 극복하는데 있지만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구주와 세계의 일부에서 美·蘇 간의 軍事戰略的 均衡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주의깊게 그리고 現實主義的으로 그러한 균형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個個의 국가들이 이 쪽 저쪽의 군사기구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現實主義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태리의 나토 脫退는 國際緊張緩和過

程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나토에서 프랑스의 同盟義務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同盟의 틀 안에서 그들의 최대한의 독립을 維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宣言하였다<sup>12)</sup>.

## VI. 유로코뮤니즘의 勢力 現況

일반적으로 유로코뮤니즘의 勢力은 사실상 다른 政黨에 비해 미미하며 현재(1984)까지 이 지구상에서 독자적으로 政權을 장악한 유로코뮤니스트 政黨은 없다<sup>13)</sup>.

유로코뮤니스트 政黨에는 歐洲내에 6개 政黨(이태리 共産黨, 스웨덴 공산당, 영국 공산당, 스페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그리스 공산당)이 속하지만 이 이외에도 2개의 共産黨을 더 언급할 수 있는데 이들 政黨의 경우는 그들이 지난 시기의 社會主義的 과정에서 더 이상 〈共産主義的〉이란 표현을 그들의 당 정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덴마크의 社會主義 人民黨과 아이슬란드의 人民聯盟이다.

유로코뮤니즘이란 맥락에서 비유럽 지역 공산당들이 또한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로코뮤니즘이란 개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은 日本 공산당, 호주 및 베네주엘라 共産黨이다. 약 40만 黨員을 갖고 있는 日本 공산당은 1976년 선거에서 약 10.4%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계속 유로코뮤니스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비교적 소규모이

지만 베네주엘라 共産黨과 호주 공산당도 유로코뮤니즘의 맥락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네주엘라 공산당은 1971년 親蘇的인 공산당으로부터 분리해 나와 〈社會主義를 향한 運動〉이란 명칭하에 활동해 왔다. 프랑스 공산당은 약 50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의 영향권 밖에서 두번째로 강한 共産黨이다.

프랑스 共産黨은 1981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테랑을 지지함으로써 그 反對給付로 社會黨 내각에 4명의 共産黨員을 入閣시킨 경험도 갖고 있다.

기타 이태리 공산당은 유로코뮤니스트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黨員을 가지고 있으며(160萬 黨員), 中央에서 基民黨과의 聯政 수립에 실패했으나 地方에서는 地方議會를 장악한 것이 상당한 수에 달한다. 1976년 총선거에서 이태리 共産黨은 34.4%의 득표율을 보여 집권의 문턱에까지 접근하였으나 1970년대 말을 고비로 그 기세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共産黨은 프랑코 사망 이후 그의 사망이 가져온 政治的 空白을 메우기 위해 세력신장을 꾀했으나 1977년 선거에서 9.4%의 支持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당세가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 初부터 폴란드에서의 〈自由 勞組〉의 彈壓으로 共産主義의 허구성을 노출시켰던 사태는 西歐 政治風土에서 유로

코뮤니즘의 未來 展望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의 勢力 分布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타 사항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V. 유로코뮤니즘의 評價

유로코뮤니즘은 東歐는 물론 西歐에 대한 挑戰으로서 資本主義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東歐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이 蘇聯의 支配權을 부인하고 社會主義를 위한 민주적 길을 걸으며 그 결과 世界 共産主義 運動에서 모스크바의 独占的 地位를 위협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료적이고 獨裁的인 체제에서는 決定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유로코뮤니즘의 사회주의 모델이 동구제국의 국민에게 더 강한 매력을 주고 그들 스스로가 改革과 人權運動을 주도하는 새로운 活力素가 되게 하여 관료적 權力의 지위까지도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西方의 議會民主主義 制度에 있어서도 유로코뮤니즘이 구주공동체의 政治·經濟的 統合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유로코뮤니스트들이 次期 政權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소비에트식 共産主義의 의미에서 經濟와 社會질서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美國을 비롯한 保守主義者들은 유

歐 洲 共 産 主 義 現 況

	政 党 名	당원수(단 위:千名)	선거투표지지율	비 고
1	이탈리아共産党	1,800	34.4% (1978)	소련블럭 밖의 최대의 共産党 1950년부터 独立政党으로 浮上
2	스웨덴共産党	16	4.8% (1976)	1964년 새로운 코스로 進入
3	英國共産党	25		議會代表 없음
4	스페인共産党	200	9.4% (1977)	1968년 이래 新政策
5	그리스共産党		2.7% (1977)	1968년 反소탕과 형성
6	프랑스공산당	700	21.3% (1978) 11% (1980)	1920년 구주공산당에 接近, 현 재 프랑스內閣에 4名 入閣
7	덴마크사회주의 국 民 党	11		정당명을 과거 공산당에서 現 黨명으로 개칭
8	아이슬란드 국 民 同 盟	215	18.3% (1974)	정당명을 과거共産党에서 現 在의 黨명으로 개칭
9	日本共産党	400	10.4% (선거전)	유로코뮤니즘에 正統함
10	호주共産党	未 詳	未 詳	반소노선 및 유고와 관계개선
11	베네주엘라 社会主義運動	"	6% (1978)	1971년 反蘇路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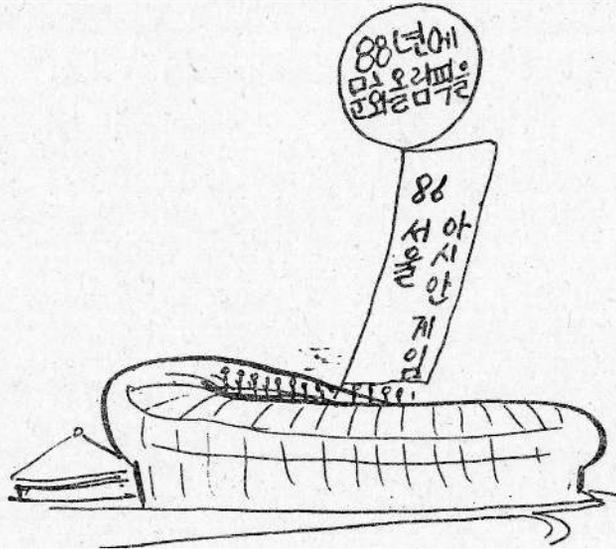
로코뮤니즘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注  
視하고 있으며 美国은 미테랑 프랑스 사회  
당 당수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프랑스  
內閣에 공산당원 4명이 入閣한 것을 가장  
반대했다. 많은 西方 지도자들은 歐洲의 共  
産主義者들이 自由世界를 파괴하기 위한  
(假面을 쓴 폭군) 혹은 <트로이의 木馬>라  
고 부르고 있다.

동구제국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유로코뮤  
니스트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한 체코의 共  
産党 지도자는 유로코뮤니스트들을 資本家

의 使賊에 의해 국제공산주의의 分裂을 조  
장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독일  
共産党 당수(西独) 헤르베르트 미스(Her-  
bert Mies)는 유로코뮤니즘을 西方의 右派  
에 속하는 사회민주주의자의 武器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공통적인 것은  
東·西 兩大陣營 모두 유로코뮤니즘을 상  
대진영의 교묘한 偽裝戰術이요, 기만작전  
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4)</sup>.

유토피아와 현실의 갈림길에서 多元主  
義的·民主的 西歐社会에서 그들의 自求策

## 성공적인 86아시안 게임



으로서의 유로코뮤니즘 이데올로기는 그들이 政權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폭력혁명을 부정하고 있으나 까릴리오의 저서인 「歐洲 共產主義와 國家」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資本主義 체제의 변혁을 위한 그들의 전략을 간파한다면 유로코뮤니스트들의 民主主義에 대한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이 共產主義의 실현이라는 그들의 최종 목표를 갖고 있는 한 그들이 불확실한 목표에 심취되어 언제 어디에서 平和的 수단에 의한 政權奪取戰略에서 폭력전략전술로 전환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만약 인간이 완전하고 특히 完全한 支配者가 있다면 불완전한 피지

배자들을 完全化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共產主義 社會의 실현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時間과 空間의 有限者이며 存在論的 비극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完全한 社會(共產社會)를 건설하고 人間의 社會的 갈등을 完全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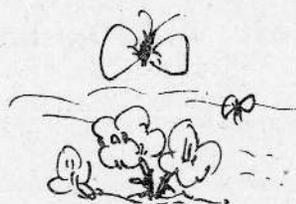
특히 國際的 환경이나 政治·經濟的인 면에서 많은 制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硬直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理念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達成하지 못할 幻想이 아닐까 思料된다.

## 註 解 釋

- 1) Steinkühler, Manfred(hrsg.), Eurokommunismus in Widerspruch, Analyse und Dokumentation, (Köln, 1977), pp.389
- 2) Wolfgang, Leonhard, Der Eurokommunismus, die Herausforderung für Ost und West, (München, 1978)
- 3) Wolfgang Leonhard, Sowjetideologie heute, (Fvankfurt, 1962) pp.124ff
- 4) Enrico Bereinguer, Der historische Kompromuß, (Berlin, 1976), pp. 13ff
- 5) Kelus von Beyme, "Sozialer Wandel in Kommunistischen Parteien," in: Der Bürger in Staat, Heft, 2. (guni, 1978) p.115-5.
- 6) Manfred Spieker (hrsg.), Der Eurokommunismus, Demokratie oder Diktatur? (Stuttgart, 1979), pp.30-40
- 7) 上同, pp. 30-40
- 8) Wolfgang Leonhard, Eurokommunismus, Herausforderung für Ost und West (München, 1978), pp. 14-5
- 9) 上同, pp.15-6
- 10) 프랑스공산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친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11) Leonhard, 上同, pp.19-20
- 12) 上同. pp.20-2 , ,
- 13) 유고는 유로코뮤니스트적인 성향의 정당이지만 의회주의 지향 유로코뮤니스트들과는 달리 유고 공산당은 자체관리 사회주의를 주장하므로 엄밀히 따져 유로코뮤니스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 14) Leonhard, 上同, pp. 22-4

수 필 /

# 봄을 맞으며



중 위 고 중 봉

〈제 6546 부대〉

인간이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된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수험생은 합격통지서를 기다릴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다림은 시간이 흐르고, 그 기다림이 의미가 없을 때 그것은 인간의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작게는 한 사회구성원이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한 나라 한 민족이 그들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민족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생생한 얘기이다. 두 아들을 모두 징용에 보내고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격동기 속에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매일 저녁 두 아들을 위해 정성들여 밥을 지어 아랫목에 두고 밤이 새도록 담뉘어를 살피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어도 그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몇년전 매스컴을 통해서 6.25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목에 명패를 걸고 여의도 거리를 났있는 사람처럼 헤매이던 어느 할머니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어찌 이 뿐이겠는가!

그 여인들의 기다림의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세월은 너무나 길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데 있다”고 했다. 한 사람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그 대상에 대한 무한한 기다림 속에서 키워졌다는 얘기일 것이다.

한 인간이 무엇을 기다릴 때 기다림의 대상보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면 그 기다림의 자세는 사랑일 것이고, 군인으로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기 위치 및 신분에 대한 창조적인 자기 점검일 것이다. 어느 곳에서건 일하고 있는 많은 인간들이 두려워 해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괴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형식화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 자리잡게 된다. 흐르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창조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 자체에서 많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겨울은 무척 길고 추웠다. 어느 겨울이나 그랬듯이 모든 생명 있는 사물은 춥고 삭막한 이 계절 속에 자기의 몸을 움츠리고 마치 죽은 사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움직이고, 또 다른 시간과 계절을 맞이 하기 위해 자기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다면 그 겨울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계절을 위한 준비와 휴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봄은 모든 생명들이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그 생명들의 모습은 작년에 왔던 그 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고 침체되고 움츠렸던 준비의 시간이 새롭게 창조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민족을 느낄 수 있고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순간 과거의 괴로웠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는 기쁨과 희열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완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 군인도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상의 2000년대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재 정비하고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의미없는 형식적인 군대생활이 아닌 육체적인 피로움과 정신적인 부담감 속에서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기다림의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 시인은 “설사 나의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생명과 창조의 시간이라면 그 기다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군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

모든 생명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추위가 아직 가지지 않은 오늘도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

총 과 효 의 참 뜻 알 아

나 라 사 랑 겨 레 사 랑

(詩)

## 레이다 기지 예찬

준 위 전 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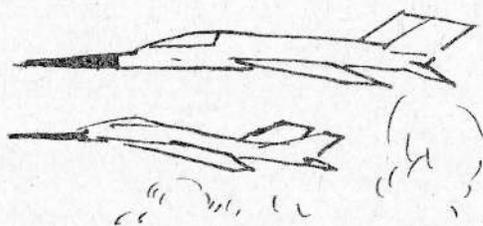
(제3659부대)

높고 높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 둥글게  
바람을 가르는 한 점  
물체조차도  
기술을 발휘하여 척척  
적과 우리를 식별하는 바꿈이

구름 위에 바람을 타고  
비행접시처럼 날을듯  
위풍도 당당하게  
빙긋이 미소하는 「레이다」기지  
하늘의 불침번 반공관제는  
항시 전장입니다.

산은 산대로 푸르고  
하늘은 하늘대로 푸른 조국  
마음도 푸른 병사들이 모여  
잘 훈련된 솜씨로  
과학의 테이블을 주시하면  
아하! 이것이 파수꾼인 것을

엄동설한에 대지는 차거워도  
이어지는 마음은 뜨거워  
잠시도 소홀함이 없는 공군이  
그리움으로 바라다 봅니다.  
하늘을 향해 둥글게  
내 조국, 내 사랑을....





# 戀 歌

大尉 李 聖 鎬

공본 정훈감실

내가 만일  
은밀한 실(絲)올이라면  
당신의 어린 가슴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빛살 고운 천이 되겠어요.

내가 만일  
초록빛 희망이라면  
어디든 당신의  
가벼운 발치 위의  
투명한 하늘이 되겠어요.

내가 만일  
幼年の 뜰이라면  
당신의 베갯모에  
소롯이 쌓이는  
작은 향나무 그림자로  
가만 가만히  
그대를 깨우겠어요.

내가 만일  
먼나라의 王子라면  
당신의 어김없는 세월도  
한삼 먼저 물어버리는  
어린 園丁으로  
그대 곁에  
서겠지요.

夕陽의 붉은 바람이 깔리는  
都心の 지붕 위에선  
만나러 가는  
바람이었다가  
낮고 고른 風琴소리로  
그대의 눈시울을 적시고  
金剛石처럼  
부신 밤의 한 때  
아름다운 세상엔  
이름(達) 꿈이잖는  
별빛같이  
맑은 눈을 뜨겠어요.



# 내가 겪은 6.25

— 6.25 체험 수기 —



준 위 문      종      진

제3252부대

올해로써 6·25 36주년을 맞는다. 그 치욕의 역사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이미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유수와 같은 해와 달의 무상함을 탓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나는 6·25 세대에 속한다. 그 당시 내 나이가 12세. 우리 세대들은 민족의 험난한 시련 속에서 무자비한 전쟁의 상황아래 기아와 전염, 공포를 맛보아야 했고 처절한 골육상잔의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나는 적 치하 3개월에서 공산당의 반민족적 파렴치한의 정체를 절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10대의 소년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체험이었고 상상을 넘는 현실의 비극

의 참상은 지금도 그 악몽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음은 너무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후 유증일 것이다.

약 3개월에 걸쳐 우리 마을에서 자행한 살인행위,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 살인마 장본인들이 지금도 그 흉칙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더 광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호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무차별하게 처형하는 장면을 영화나 TV에서 익히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민족끼리의 살인극이었지만, 내가 겪은 6·25의 살인행위는 한 민족의 살인행위로서 그 원통함을 어디에다 호소할 것인가.

그 때 우리 동네의 가구가 약 천여호에

달했다. 농촌의 인구치고는 제법 방대한 촌락이었다. 반농 반어촌인 우리 평화로운 동네에 빨갱이가 들이닥쳤다. 들어오자마자 곧 처참한 살인행위가 시작되었다. 일단 반동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잡아내어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반 김일성 분자, 자본주의 앞잡이로 몰아세워 몇명씩 철사줄에 묶어 어디론가 데리고 가면 영영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 가족, 재산은 몰수당하고 엄중한 감시하에 숨을 못쉬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슴살이를 한 일자무식들이 빨강완장을 어깨에 두르고 공산당으로 둔갑하여 뭉뚱이를 휘두르며 제 주인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다. 하루 아침에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매일 사람잡아가는 일이 계속되고 온 동네가 살벌한 도살장으로 변해가니 피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감시가 심하니까 밤에만 하나 둘씩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재산이고 땅이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목숨이 살아야 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빠져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재수없이 걸려든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사태가 늘어만 갔다.

청소년들은 의용군에 끌려가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소위 세뇌공작을 시도해 봤지만 들어먹히지 않았다. 갈수록 피바다는 가열되어 가고 피난의 숫자는 많아져 갔다. 죽음을 각오한 피난이었다. 이 판사판 죽을 바에는 도망치다가 죽자는 것이었다. 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빨갱이들에

게 먼저 당한다는 강박관념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하룻밤만 자고나면 이 집 저집이 쓸쓸이 비어 있었다. 그 지독한 철월, 그 해따라 가뭄이 온 대지를 집어삼키었고 피를 본 빨갱이들은 미친개처럼 날뛰며 선량한 농민들을 처형했던 것이다.

온 들판이 무성한 잡초로 꽂차 버렸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이 되었고 밭꼭식은 다 타서 이글거리는 맹벌에 녹초가 돼버렸다. 농민들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농사가 필요 없었다. 설사 농사일을 본다 해도 결국은 빨갱이 배때기나 채워주는 꼴이 '보기싫어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어머님이 피난을 간다고 하셨다. 갈 곳이란 첩첩산중 밖에 없다고 하신다. 백이숙제처럼 고사리를 캐어 먹든지, 산 열매를 먹든지,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든지 여하튼 산중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결론이었다.

우리가 정든 집을 떠나던 그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른다. 보리가루 몇대를 등에 짊어진 나와 어머니는 어둠을 이용하여 막 동구 밖을 나서는데 마침 장총을 맨 피뢰군 두 놈이 불쑥 나타나 길을 막고 있었다. 한 놈이 『동무들 지금 이 밤에 어디로 가나?』하고 묻는다. 순간 간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겁에 싸인 나로서 대답이 금방 나올 수가 없었다.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를 제치고 그 놈 앞에 다가서더니 『우리집 아버지가 지금 원두막에서 밭을 지키고 있는데 낮부터 밭을 못먹여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가

는 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 놈은 반신반의 하는 태도로 한창거리고 있더니 『틀림이 없소?』 『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빨랑 가보시오』 하더니 두 놈은 우리를 놔주고 가버렸다. 모자는 긴 한숨을 쉬고선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이 도와준 피난길이었다.

우리는 그 날 새벽녘에야 산중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산중에는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몰려와 있었다. 비록 초근목피의 생활이었지만 살기등등한 빨갱이 꼴을 안 본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개중에는 라디오를 소유한 사람도 더러 있어서 때때로 새로운 정보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인민군은 곧 패전하여 철수한다는 소리도 들렸다. 근래에 체트기들이 나타나 괴뢰군 진지를 폭격한다는 풍문도 들렸다. 우리는 산속에서 국군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국군이 우리 마을에 입성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 의심하면서도 반가움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얼싸안고 울었다.

우리는 하산하여 집에 도착했다. 온 동네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그 때의 감격, 온 동네가 축발이 되어 버렸다. 북괴가 저질은 죄상, 살인, 약탈, 방화,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제때에도 이러하지는 않았다. 이제 빨갱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저주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체험했

던 것이다.

6·25전쟁. 그 치욕스러운 전쟁, 12세소년의 6·25는 처절하기만 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죽어갔고 피끓는 청소년들이 생사를 모른채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어떤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병신이 되어 버렸고 어느 아낙네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병자가 됐다. 참호 속에 갇힌 인사들이 공산당의 화장으로 불타 죽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죽였다. 그 원혼들이 유령이 되어 날이 꾸무러한 날이면 슬피 통곡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마을의 비극이 이러 했거늘 전 국토가 빨갱이 수중으로 들어가 이러한 동족의 비극을 자아냈으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6·25의 비극이었다.

나는 6·25의 산증인이다. 나는 그 때의 암담한 역사를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3년이란 전쟁 참화 속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자유를 수호하다 숨진 우방과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다. 전쟁 미망인, 전쟁고아,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온 산하에 피로 물들인 국군의 전공도 조국통일의 기원도 수포로 돌아가고 휴전선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36년 전 그 민족분열의 괴수 김일성 도당이 지금도 잔존해 있고, 그때 6·25보다 더 악랄한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우리는 그 놈들에게 속아왔다. 양두구육의 탈을 쓴 이중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 지금 이 시간도 북괴는 무장

간첩을 내려보내 우리의 안보를 엿보고 있다. 나는 항상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불안한 자세이다.

데모도 좋고 장발, 복장, 무슨 자율화 뭐든지 좋다. 팝송도 좋고 디스코도 좋다. 국가경제도 이쯤되었으면 윤택해 졌고 자유도 향락도 누릴만큼 누린다. 이 나라에서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50년대 '60년대 우리 때에는 세세 연년 춘궁기 보리고개를 한(恨)으로 살아왔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전후의 국가재건에 전력해 왔었다. 사실 오늘의 경제번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오늘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의 이 철통같은 방어태세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전선 155마일 바로 코앞에는 최선에 장비로 무장된 북괴 특공대가 우리의 헛점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6·25가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환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로 얼룩진 한 부모, 한 형제들이 이념의 갈등으로 빚어낸 부자지간의 살인 행위가 전설로 생각하는 자. 환상도 전설도 아니다. 어린 12세 소년의 눈앞에 나타난 이 나라 이 민족의 엄연한 비극의 현상이었다. 보리가루 몇 되를 지참하고 산속을 찾아가는 12세 소년의 비극이 아직도 생생하질 않은가.

오늘의 젊은 지성인들이여! 그대들은 부모 잃은 설움을 보았는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해 보았는가. 사흘동안 굶주려 배고픈 설움을 당해 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절박하게 느낀 설움 중에 이 세 가

지만은 골수에 사무친다.

나는 오랜 세월을 공군에 몸 담아 왔다. 한 세대를 군에서 보냈다. 참으로 세상은 격세지감을 금치못한다. 그 옛날 휘발유 드럼통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수출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수출 몇 백달러가 고작인 그 때에, 지금은 300억불을 넘어섰다. 얼마나 번모해 버렸는가. 한 30~40년사이에 국가경제는 성장해 버렸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도의 물질문명과 사치스런 향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정말로 안락한 삶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기우가 있다면 우리의 안보태세이다. 우리의 안보태세 점점은 정말로 완벽한가? 나는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이라고 서슴없이 내세우고 싶다. 만약 우리가 공산당의 실상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계 제일의 반공국가로 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6·25는 우리에게 이울배반적인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6·25와 나, 그 민족의 상처투성인 6·25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암시해 주는 것이 있다.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로만 6·25를 생각한다면 이처럼 위험한 장난은 없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반공정신을 생활화하여야 겠다.

# 6 · 2 5 와 나

— 36주년 6·25를 맞고 장병들의 각오 —



##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 중 위 조 익 래

〈제 5718 부대〉

나는 1960년생이다.

푸른 제복을 입고 정병강군, 필승공군의 일원으로 군문에 들어온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6·25란 거대한 사건과 나와 세월의 격차는 10년인 셈이다. “10년이별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6·25라는 무형의 存在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 어린시절의 6·25는 단순한 흥미거리였으며 표어와 포스터 속의 붉은색과 탱크와 대포로 대표되는 글과 그림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린 나이라는 제약 요소도 있었지만 6·25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괴공산집단과 중공군에 대한 비분강개式 가슴만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6·25를 직접 몸으로 겪은 6·25 전세대의 부모님이나 선배들을 통해 얻어들은 간접 체험으로서 6·25가 얼마나 큰 민족의 비극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

혼을 얻었다는 것 뿐이지 실상 나에게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못했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치고 軍에 들어오고, 또한 몸소 국방의 역군으로서 조국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을 때 그 동안 내 자신이 그동안 너무 몰랐고,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었다는 오류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죄지은 자」같은 마음의 아픔이 젖어왔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요, 다시는 이 땅에 재연되지 말아야 하는 커다란 아픔이요 상처다. 또한 6·25의 성질은 악을 추종하는 강자와 그 악을 용납시킨 또 다른 강자와 강자들 속에서 스스로의 악점과 분열을 드러내 놓고 자신의 운명을 헤쳐 나가지 못했던 약자가 얻은 최악의 결과였다. 그 결과 우리 민족과 산하는 36년이 지난 지금도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6·25가 드리운 회색빛 그림자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국토의 분단이다. 옛날 고구려인들이 보면 가슴을 치고 통분해야 할 일이 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보존치 못하고 붉은 이리떼들에게 38선 이북을 넘겨준 일일 것이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가? 이것은 책임이야 어디에 있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요, 시대적 사명이다. 단순히 금강산의 절경이 어떻고 백두산天池가 어떻게 평양냉면의 맛이 어떻고 하며 새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사진이나 말로만 들려주어야 하는 이 아픔만큼 6·25가 우리들 가슴에 못을 박는 상

처가 어디 있을까?

둘째는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천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이다. 이들의 애절한 사연과 헤어진 혈육을 만나보기 위한 간절한 기원과 절규는 누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

오래 전의 일이다. 아마 내가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려고 청계천 책방을 기웃거린 날은 구정(민속의 날)전날 밤이었다. 하지만 구정이어서 그런지 거의 모든 책방이 문을 닫아 버린채 었고 거리는 한산하였다. 책을 살 수 없다는 작은 실망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철시한 책방의 대열에서 오직 한 곳만이 불빛을 내어 뽐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니 책방이름은 「평양서림」, 머리칼이 온통 은빛인 할아버지가 돗수 높은 안경을 쓴 채 古文집을 읽고 있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책을 살 수 없는 책방이었지만 내일 아침이 구정인 금요일 밤에 유독 이 「평양서림」만이 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서점주인인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댢 책방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웬일이세요? 내일이면 구정인데……” “은 내레 갈데가 있어야지, 집은 너무 썰렁하구……” 이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와 대화는 대충 이러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하였다.

할아버지는 6·25발발 전에 평양에서는 알아주는 알부자요, 수집상이었다. 그러나 6·25가 터지자 30살의 나이로 4살 먹은 외아들(할아버지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이 되었다고 한다)을 업고 아리따운 각시

와 고향 사람들, 그리고 평양 대동강을 등지고 38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 뒤 결혼(재혼)도 않고 통일이 되어 그리던 각시(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각시라고 했다)를 만나고자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공부를 시켰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래도 에미없는 자식소리 듣기 싫고 통일되면 각시한테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 정성껏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도 고향인 평양(피양)이 보고 싶고 지금은 할망구가 됐을 각시가 그리워 지금도 꿈만 꾸면 평양의 대동강 모란봉이 보이고 각시가 보인다고 하며 노인답지 않게 붉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설패를 뒤적이며 꺼낸 것은 누렇게 낡은 결혼기념 사진·이었고 그 속에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얼굴과 곱게 치장한 각시의 얼굴이 있었다.

“젊은이, 나 피양가고 싶네 외로와 못 살겠구만, 내일이 구정인데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만날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나와서 청승이나 떨고 있다네……” 6·25가 발발한지 36년이 지난 지금 칠순이 다 된 할아버지의 소망 앞에 6·25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 한 많은 평양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제는 잊혀져가는 6·25에 대한 구세대(前戰세대)와 신세대(전후세대)의 단절감이라 하겠다. 공산주의와 북괴공산당의 위

험성과 만행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전후세대들은 선배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물질문명의 혜택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완되어 6·25를 하나의 과거지사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또 다른 6·25가 재연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라는 안이함과 현실부정적인 시각이 교정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그 누가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6·25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과 비극의 그림자는 아직도 살아있으며 내일을 예측키 어려운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은 조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다.

나는 군인이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할 젊은이다. 6·25는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생생히 살아있어야 할 실험교재요, 증언이 돼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명찰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양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또 다른 6·25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이제 또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6·25를 맞으며 이제는 장년이 된 상처투성이 「6·25」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데 온국민이 합심 단결해야 겠다.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이요, 피끓는 젊음이 있는 나는 물론이다.

## 6.25가 남긴 것

중령 이 석 규

〈제3591부대〉

“아빠! 옛날에는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지. 왜(?) 끓였어요”하고 어느날 국민학교 5학년짜리 장남인 준석이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교육목적으로 6.25전후의 우리의 가난했던 사회상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교육이 학교 선생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들과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보고 느낀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내 아들 준석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내가 설명을 잘못된 것인지, 어쨌든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이야기 중 “쌀이 없어서 밥을 굼게 되었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쌀을 사야지!”

“그 당시는 돈이 없었단다.” “돈을 벌어야지……” “옛날 사람들은 모두 게을렀었던 것 같아!” 하고 나에게 일침을 놓았다. 아버지로써 자식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이해시킨다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다. 무엇을 이야기하여 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隔世之感!” “이것이 세대차이이구나!” 하고 내 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 세대 차이가 바로 6·25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산이라고 생각하니 다시한 번 6·25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25가 발발하기 전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의 총성과 우리의 부모형제, 동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일들이 지금까지 기억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기 2~3년 전 자유 우방국의 구호물자를 분배받던 일들은 생생히 기억된다. 구호물자라면 단어 자체도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많이 분배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주위환경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쟁의 잔해 위에 험벗고 굼주린 우리 동족에게 구호물자라는 것이 구세주와 같이 느껴졌던 당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세대라면 더 이상의 설

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 때보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생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렬해지는 것과 같이, 휴전 후 우리의 부모형제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지를 더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先人들은 구호물자에 의존하면서도 곳곳에서 출몰했던 공산주의 잔당들을 잘도 싸워 이겼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구호물자를 보내준 우방국에서는 우리 나라가 비참하게 폐허가 된 모습과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사진과 필름에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어야 할 것을 호소하면서 비참한 광경을 소개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수치인가? 다시는 이 강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아닌.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은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개인은 강하나 모이면 약하다”라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다. 이 굴욕의 역사적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한 민족은 전쟁을 겪은 이유만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민족이 아니었다. 일본과 서구의 많은 선진국가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꽃을 피운 것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대들도 서구의 선진국민들 보다 더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족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였고 더 많은 파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부수었던 것이다.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 우리나라에 보내준 우방국의 구호물자와 원조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6·25후의 많은 우방국의 원조를 내일을 향한 건설에는 소홀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우방국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와 미국의 무상원조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의지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두달이 지나고 일년 이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위정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이 원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이다. 원조가 계속되고 안 되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언론인의 글이 생각난다.

「기자와 거지는 사흘만하면 평생 버틸 수 없는 직업이 된다」는 말이다.

원조라는 것이 너와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원조이었기에 당시에는 받는 것만 좋아하였지, 남이 주는 것에 의존하며,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거지와 같은 상황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 민족이 우리 나라를 보고 생각할 때는 거지 국가, 거지 민족으로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 '50년대를 회상해 보면, 원조에 의하여 살아온 우리의 처지가 거지들의 생활상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는가? 6·25가 우리에게 준 크나큰 상처! 이 어찌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일인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6·25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우수함을 단합과 전설로써 결실을 맺어 언제든지 복귀를 앞서가야 할 것이다.

6·25는 우리 민족의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남자 특히 사내 아이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내가 어렸을 당시에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많이 낳은 부모가 표창을 받았던 일들이 생각난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더없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식에게 매를 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귀여운 자식에게 매를 주고, 미운 자식에게 밥을 주라」고 하는 우리들의 속담이 생긴 것같이 생각된다. 먹을 것이 부족한 당시 미운 자식이 굶주릴 것을 생각하여 밥을 주라한 것과, 아들 선호사상에서 자식이 탈선할 것을 우려하여 매를 주라고 말한 옛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당시 사회상의 단면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대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과 부모의 도리

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적인 미덕인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해 왔다. 반면,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가 편안히 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으로도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좋은 우리들의 습관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자식이 옆에서 보고 느끼게 되었던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따르는 우리의 습관이 잘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6·25를 통하여 우리들의 사회상이 바뀌게 되었고, 급속한 사회 변천이 자식과 부모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게 하였다. 즉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의 고생을 몸소 느끼면서 생활하였으나, '70년대와 '80년대의 고도성장은 자식들이 부모의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거나, 체험할 겨를이 없게 하였다. 젊은 세대들이 사고를 하게 되고, 사회적인 성장을 할 때는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회적인 부를 축적하였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던 것이다.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게 된 젊은 세대들은 배우기 쉽고 편리한 서구의 자유방임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이미 자식과 부모의 자라온 생활이 다르게 되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구리는 물에서 생활하고 올챙이는 물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6·25는 나에게 나와 자식간에 “隔世之感!” 세대차이를 갖게 하였다. 모든 사회

의 소요와 젊은이들의 반발은, 나(우리)와 내(우리) 자식이 서로 이해하여 올챙이와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져야겠다.

## 어느 소년의 죽음

군무원 강 위 철

(제2762부대)

작년에 있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하나의 큰 아픔이었다. 세계가 하나로 되어 단 몇 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너서 유럽이다, 미국이다 마음놓고 갈 수 있건만 지척지간인 내 형제동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 가장 멀고 먼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니 생각만 해도 비극이다.

갈 수 없는 것만 하여도 가슴아픈 일인데 한 핏줄끼리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죽여야 했던 과거는 더욱 더 쓰라린 것이다.

지금은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아련한 아픔 속에 가슴 저 밑에서 번져오는 과거가 주마등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할아버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밤으로 밤으로 가던 기억.

일월산 밑 하늘 아래 첫동네라는 우리마을에도 빨갱이는 나타났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네들이 구세주인양 달콤한 말로 무지하고 순박한 주민들을 꾀었다. 하루이틀이 지나 그네들의 본성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들을 서로 서로 감시케 하며 자유를 박탈해 갔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좀 덜하겠지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충청도 계룡산 밑으로 야간도주를 했다. 하지만 빨갱이 있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로였다.

밤은 참으로 싫었다. 밤만 되면 주민들을 모아 사상교육이니 노래니 하면서 밤새도록 주민을 괴롭혔다.

언제 이웃사람과 웃으면서 정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날마다 한숨짓는 어른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라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질곡과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해 무덤덤 여름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악몽이 있었다. 나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러다녔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아이들 이름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어울려 마을 앞 개울로 댕감으로 갔었다.

대여섯명쯤 될까, 우리는 낮에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다. 댕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 마침 인민군 한명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무심코 “저기 빨갱이 지나간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말을 탄 인민군은 뒤를 돌아보면서 “어느 간나새끼야”하고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소리친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민군은 허리의 권총을 빼서 그 아이를 향해 총을 쏘면서 말을 몰았다. 우리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을 갔다. 나는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날 밤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다. 새벽에 살그머니 집을 나와 그 장소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어린 소년은 말발굽에 이리저리 채인 자국과 함께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어 있었다. 주위에는 피자국이 엉겨 있었다. 아직도 어리다면 어린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인 사

건이었다. 그길로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이렇게 무덤고 지루한 긴 여름을 보낸 후 우리 국군들이 빨갱이를 쫓으면서 북진할 때야 비로소 집 밖으로 나와 쫓겨가는 빨갱이를 보면서 국군아저씨 만세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제서야 어린 나로서 처음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그해의 처참했던 광경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소년이 죽지 않았다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40대 후반의 신사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단란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걸 하면서 한 순간이나마 그 어린 소년의 명복을 빌어 본다.

화 합 하 여      더 욱 안 정

단 합 하 여      힘 찬 전 진

— 座談會 —

## 歸順 操縱士는 證言한다 (I)

### 座談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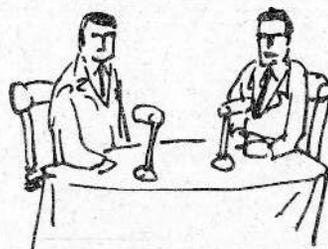
때 ..... 86. 3. 15

곳 ..... 공군본부 정훈감실

참석자.....대령 정 낙 현

소령 이 용 평

대위 이 성 호 (사회)



사 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분께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소령님께서서는 최근 학업에 전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로서 36번째 맞는 6·25에 관하여 돌이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장병들이 이같은 민족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로 말은 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두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분 다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자유를 찾아 귀순하신 분들로 평소 우리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6. 25 발발 직전 북괴는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각종 무기와 장비를 늘리고 공격적 체제를 다듬는 등 총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그들의 전쟁준비 상황은 어떠했는지 특히 북괴 공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현 대령 : 북괴는 애초부터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본전략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지상군 3개사단과 경비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사단은 보통 중국

으로 건너가 연안(延安)지방에서 중공군에 가담하여 장개석의 국부군과 전투한 바 있는 장교와 하사관으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개전시기가 임박해지자 한국인으로 조직된 중공군 제164사단과 제166사단이 중국을 출발 1949년 7월 20일 압록강을 건너 비밀리에 입북하여 북괴군 제5사단과 제6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5월에는 중공군 제12사단은 북괴가 인수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북괴는 1950년 6월 10개 사단에 1개 전차여단, 5개 경비여단으로 총병력 15만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보장교들이 북괴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괴 공군이라고 해봐야 YAK기와 IL기 등 몇대에 불과하여 위협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으나 전쟁 초기 수원근방에서 미공군에 격추된 북괴공군 소좌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후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개전초 YAK-7B, YAK-11, IL-10 등 120대가 넘는 전투기와 연습기 25대 각종 항공기 30대 등 거의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연락기 몇대에 불과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전쟁의 주범은 누구였는지 쉽게 드러납니다. 북괴가 보유하고 있었던 항공기는 모두 소련제이며 전투기 중 일부는 개전직전에 도입한 것입니다.

북괴공군 조종사들은 상당수 일본 항공제에서 전투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북괴가 양성한 풋내기들이었고 심지어 비행시간이 채 10시간이 넘을까 말까한 신참들도 다수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전쟁준비를 서둘러 했으며 급조된 저급수준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전 당시 북괴공군 사령부 내에는 15명의 소련장교들이 모든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괴공군의 제반시설을 언급해 보자면,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건설한 기지를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 중 몇개는 전쟁발발 직전에 북괴가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평양, 신의주, 원산, 연포기지는 완전포장된 활주로와 수리창, 유지고 등의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새로 건설한 신막비행장도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남침음모를 꾸미는 북괴에게 대대적인 군사원조를 하면서도 원산에 있던 수리창 시설을 해방자라고 자처하는 소련군이 철거해 갔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현재 북괴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200마일의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IL-10전투기만이 한국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북괴공군은 전쟁초기 UN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공군력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6·25당시 북괴가 결정적으로 패퇴하게된 동기가 제공권을 우리측에 빼앗겼던 탓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북괴 공군력 현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용평 소령** : 사실 전쟁초기 기세 등등하게 밀고 내려오던 북괴군이 우리가 전력을 재 정비하고 UN군이 속속 전투에 투입됨에 따라 전선이 고착상태에 빠지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중지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UN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제공권을 완전 상실하여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공중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패주만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에서 김일성이 6·25당시 제공권을 빼앗겼던 것이 패전의 원인이라 보고 애 통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후일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을 동독공군사관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곳에 적응하지 못한 김정일이 퇴교당하여 되돌아 오고 말았읍니다만.

그들의 소위 “조국해방전사(戰史)” 등을 보면, 거짓말 투성이인데, 전쟁을 3단계로 나누어 휴전선 부근 전투교착기인 52년도부터 휴전협정에 이르는 시기, 즉 3단계에서는 그들이 청천강 이북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북괴공군 참패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져 보자는 식의 거짓 주장이고 실제로 그들이 얼마만큼 위기에 몰렸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그들의 조종사 양성기관인 비행학교가 만주 연길시로 쫓겨가는 비참한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훈련이 제대로 될리 없고 비행시간이 채 10시간도 못되는 신출내기들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제대로 공중전을 펼칠 수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정낙현 대령** : 그들은 개전초기 YAK-11을 주력기로 삼아 공격해 왔으나 이에 맞서 아군측이 F-80으로 대응하여 격퇴시키자 전쟁말기 MIG-15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아 전세를 바꿔보려고 했고 곧 우리의 F-86F가 대응하여 백전백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거짓선전을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6·25를 일으켰다는 북침설의 근거로도 삼고 있는 주장인데 '50년 6월말 그들은 수원비행장을 공습하여 우리 전투기 140여대를 파괴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140여대에 이르는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말인데 이것을 통채로 부숴 놓았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이쯤에 이르고 보면 회극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투기를 한 기지에 140여대씩이나 몰아 놓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폭격당하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만큼씩 전쟁준비를 해왔다면 전쟁초반에 후퇴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북괴는 6·25동란을 우리의 북침에 의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소위 ‘남조선의 북침설’은 어떠한 근거와 내용입니까?

이용평 소령 : 사전 소련으로부터 적화통일, 남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은 '50년 6월 25일 새벽 이미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해 놓고 북한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떠들어 댔습니다.

즉, '남조선 군대가 6월 25일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인민들은 조국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니 앞장서라. 남조선의 기습침략으로 우리가 처음 10km후퇴를 했으나 곧 반격하여 38선을 넘게 되었다. 서울함락은 시간문제다' 라는 선동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선전에 속아 그대로 믿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6·25직전 델레스 미 국무장관의 전방시찰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위 남조선 북침설의 증거로 제시하고 미국이 이승만을 앞세워서 침략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지시서라는 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그들의 선전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6월 25일 당시 많은 국군이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조선이 국군에게 휴가를 주는 척하여 공격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위장하려 했으나 실제로 병력의 이동이었다고 모략합니다.

북괴의 6·25관련 선전책자인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원인과 참패의 요인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공략해서 3일만에 완전 장악을 했으나 공격부대의 협동작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8선을 넘어 육상으로 내려오는 지상군과 웅진반도에서 출발하여 서해안 쪽으로 상륙해 들어와 서울을 포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인데 상륙부대가 제대로 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 과오이며 일단 서울을 점령해서 약 일주일 동안 그 이남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두번째 과오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을 함락시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우리의 방어전선이 구축되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꾸물뒀기 때문에 신속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최근에 와서도 그때 일을 상기하고 억울해 합니다. 지난'82년에도 김일성이 당시 북괴 사령관이었던 최용진을 타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최용진 동무의 과오를 일생동안 잊지 못한다. 한강을 넘어 계속 공격하지 않고 우물거려서 결국은 놈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게 아니냐. 도하장비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서울주민의 집이라도 허물어 헛목을 만들어 공격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최근 북괴가 구걸외고 행각을 통하여 소련으로부터 MIG-23을 도입하는 등 공군력 보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 이들을 초전에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입니까?

이용평 소령 : 지난 '78년 9월 이라고 기억되는데 김일성이 북괴 공군사령부 사령관급 지휘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떠들어 댔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전투조종사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비행기를 제공해 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지만 조종사가 없으면 큰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6·25때에도 스탈린 동무를 만났는데 그가 IL-28 40여대를 줄테니까.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폭격하라고 했지만 조종사가 부족하여 못했다. 지금도 중동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유사시 항공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우수한 조종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동 여러 나라에 가서 공군지원을 하는 것은 상호부조하는 계모임과 같은 것이다. 중동전에 참전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괴는 중동전에 일종의 용병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동국가에 고용되어 군번을 받고 월급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공중전도 벌이는 것이지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란-이라크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대리전쟁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촌의 망나니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괴의 정체를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추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괴가 이미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MIG-23기에 대한 도입계획은 '70년대 말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예기 MIG-23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만큼 두려운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훌륭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기술, 기량, 정신력 등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훨씬 기량에 있어서 앞선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의 무기와 장비, 기술, 전략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그들의 기습공격을 격퇴함은 물론이고 애초에 도발의욕을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년전에 우리는 국력발전에 힘입어 국산전투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며, 대통령 각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F-16이 연내 실전배치 된다면 우리 전력이 크게 향상되어 MI-23

을 포함한 어떠한 복귀기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낙현 대령** : 복귀가 기습공격을 해올 때 초전에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이러한 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현대전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적이 기습을 해올 때 얼마만큼 이를 재빨리 포착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전술 대응조치를 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코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된 평화적 헌법이고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한 다음에 대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공격을 당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따라서 항상 그들의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 경계심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복귀기가 우리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할 시에는 여지 없이 분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요 살길입니다.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은 적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공격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하루전 또는 한 시간간전 적들의 공격개시 직전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귀 공군의 전기전술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공군이 보장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정낙현 대령** : 복귀공군의 전기전술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다거나 특별히 경계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화야육에 사로잡힌 나머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비행장을 일시 공습하여 분쇄하는 그들의 작전 가운데 화학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집단인 그들이 능히 저지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화학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같은 화학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AN-2 등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야음을 틈타 저고도 비행으로 특공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86, '88 양 스포츠제전 등 우리가 도약 발전하는 이 시기에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격으로 후방교란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전에 해당됩니다. 십 수년전 1. 21사태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보다 훨씬 대규모의 기습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군, 전국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용평 소령** : 저는 북괴공군의 유격전을 더욱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공산당의 기본전술 가운데에도 항상 중시되고 있는 이 유격전의 개념은 그들이 정규전 만으로는 상대방을 대적할 수 없을 때 적절한 대책으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격전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조금씩 조금씩 타격을 주는 소규모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격이 쌓이면 드디어 상대방은 작전수행이 불가능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북괴공군의 공중매복전, 기습전, 사냥전, 교란전 등의 전략전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군력을 장비(또는 무기)와 함께 사상(우리들로 말하면 정신전력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을 절대적 요소라고 보는데 반하여 우리는 장비 또는 무기와 아울러 기술기량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언급된 이야기입니다만 북괴공군은 공격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처럼 충분한 실전훈련을 통한 기술기량 향상을 꾀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론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허점을 간파하고 자신감을 갖되 결코 경솔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우세를 믿고 자만하며 오만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옛 교훈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2월 진보중 중공조종사가 귀순하게 됨으로써 중공기로는 벌써 6번째인데, 그들이 필사적으로 우리 땅으로 망명해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특히 북한 조종사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낙현 대령** : 근자에 중공기 귀순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말씀처럼 우리 나라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공과 같이 최근 서구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에서는 그 인식도가 훨씬 높겠지요. 북에서도 이러한 물결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사회는 안밖으로 굳게 닫혀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은 험벗고 굶주리며 미국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다고만 믿습니다. 지난번 남북이산가족 재회때 평양에서 어떤 국민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북괴조종사들은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다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우리 땅이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상적으로 빈틈을 주지않기 위하여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가족관계 등으로 엮어 매놓는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이용평 소령** : 제가 북괴공군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공군에 관한 것인데 조종사는 모두 정예분자로만 조직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즉 모두가 지주, 자본가, 유력자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보니까 국군은 국민의 군대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도 높고 단결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괴군이 일견 사상적으로 잘 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불만 투성이입니다. 특히 군 복지나 사기면에서 그러합니다. 이를테면 조종사 대기실 같은 곳을 보면 거칠게 대패질한 의자에 아무렇게나 페인트 칠을 해 놓고 그 위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는 것입니다. 더 테이블이나 소파같은 것을 꿈이나 꾸겠읍니까. 그리고 항상 물자부족으로 허덕거리고 도난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문자 그대로 거지군대이지요.

이곳에서의 경험인데요. 우리 부대 정화조에 오물이 차서 곧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손으로 문던지 처분해야 할게 아니냐고 말했더니 다른 분이 연락만 하면 시청에서 곧 치워준다고 했고 그런 것을 치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조금 있으니까 시청의 차가 와서 깨끗이 수거해 가더군요. 북에서는 저를 비롯한 조종사들이 항상 오물청소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력강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군 복장(軍服裝)만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들은 여름용, 겨울용 2벌 뿐입니다. 그리고 보급수준이나 대우를 받는 정도를 보면 우리 장교가 그들 사령관 못지않는 높은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북괴군의 불만은 개인적인 시간은 가질 수 없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평상근 무시간 이외에도 밤 10시까지 전술토의다. 당학습이다. 정치학습이다 하여 붙들어 매어놓고 잠시 쉴틈을 주지 않습니다. 조종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작업량이 배당됩니다. 이를테면 돼지사육인데 조종사들도 늦게 귀가하여 돼지 밥먹이기, 돼지우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탄을 배급받아 연탄찍기를 하고 목욕은 부엌에서 끓인 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우리처럼 레저활동이나 스포츠 같은 것을 즐길 시간이 있겠읍니까?

◎머지 않아 '86, '88대회 등 우리 민족의 결핍된 역량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대제전이 열릴 예정인데 이 기간은 또한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쌓인 북괴가 제2의 6·25와 같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도발 가능성과 도발의 형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낙현 대령** : 북괴는 '86, '88의 스포츠 제전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6이 잘 되면 '88이 더 잘 되고 이 양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이고 그들과 더 이상 좁힐 수 없이 커다란 국력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지 방해하는 책동을 하리라 봅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더욱 긴장하여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해야 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도발을 책동할 것이니까요.

**이웅평 소령** : 김일성은 자신이 죽기전에 꼭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그동안 무수히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인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효도하는 셈치고 전쟁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괴군은 그동안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는 장비, 무기를 비축해 왔습니다만 이제 노후 장비가 많이 생겨 새로 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쓰지 못하게 되는 장비, 한번 써 먹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발형태는 전면전에 앞서서 간첩침투나 사회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북쪽에서 생활했던 경험으로 공군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낙현 대령** : 우리 장병들에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고 고귀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값진 피와 땀을 흘렸는지 생각하고 우리도 조국을 위해 몸바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제2의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괴군과 일대일로 맞서서 필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 지휘관을 비롯한 전장병, 군무원이 합심단결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웅평 소령** : 저도 정대령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한 국가제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자유국가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북에서도 생활해 본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경제만 하더라도 그 발전속도나 물자의 국민충족도에서 감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쳐다 볼 수 없을만큼 효율적이고 좋은 체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 신좌경 사상이니 소외계층이니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한 이론을 믿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나갈 길은 우리 자신이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방의 힘도 좋지만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진정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합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오늘을 사는 민족적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体験記 -

## 歸順 操縦士는 證言한다(Ⅱ)

이 글은 6.25 직전인 1950년 4월 28일 北傀 空軍에 소속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脱出 自由를 찾았던 李建淳大領(予備役)의 6.25 당시 생생한 体験을 問項에 따라 記述한 것임.



李 建 淳 記

### 北傀空軍의 南侵準備 実相

#### 航 空 協 會

北傀空軍의 南侵準備는 8.15 解放直後 金日成傀儡集團이 北韓 땅을 強占하면서부터 着實하게 推進되어 왔다.

解放되던 해 平安北道 新義州에서 日本軍 出身 航空人들이 主軸이 되어 “航空協會”를 創設하였는데, 金日成을 名譽會長으로 推대하였다. 이것은 金日成集團이 이 協會가 앞으로 北傀空軍力의 母體가 될 것이라고 直感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후 이 協會에 當時 滿洲 等地에 흩어져 있던 “少年航空養成所員”들이 吸收되어 組織이 擴大 強化되었다. 이 少年航空養成所는 滿洲에서 10代 少年들에게 操縦, 整備, 通信 등의 航空關係教育 訓練을 시켰던 것으로 여기서 韓国人系統을 뽑아 이곳 航空協會에 編

入市킨 것이다.

解放되던 해 '45年 10月에는 역시 新義州에서 韓人에 의한 첫 飛行이 있었다. 當時 新義州飛行場은 38°線以北 소련占領軍이 日本航空機 및 裝備類의 集結 및 武装解除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金日成集團은 소련占領軍과 交渉下에 武装解除 航空機 및 裝備類 數種 몇 品目を 讓受받을 수 있었다.

소련軍으로부터 물려받은 航空機를 골라서 李活이라는 者가 祝賀/示威飛行을 하였던 것이다. 이 李活이라는 者는 新義州 大地主 出身의 아들로써, 日帝時代 日本에서 民間飛行學校를 卒業하였고, 第2次大戰中에는 日本軍에 徵集되어 日本海軍 조종사訓練所에서 囑託教官으로 일하다 解放과 더불어 歸国하였다. 그는 金日成共產治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自身の 土地를 自進 獻納함으로써 地主肅清을 免하고 다시 北傀空軍 創建 幹部로 登用된 者이다.

## 平壤政治学院

金日成集團은 上記 航空協會가 將次 北傀空軍 母体로서 充分히 價値 있음을 判斷하고 이에 政治, 軍事的 訓練을 集中的으로 實施하여 正規 北傀空軍力化 시키기 위해, 1946年初, 平壤과 鎮南浦 中間地点에 位置하고 있는 “平壤政治學校에 入校시켰다. 이 때, 上記 新義州 飛行場에서 소련 占領軍으로 물려 받은 日本製 航空機와 裝備類도 같이 汽車로 輸送하여 航空軍事學校 教育用으로 活用하였다.

한편, 이 平壤政治学院이라는 곳은, 北傀集團에서 金日成 다음의 第2人者가 校長으로 在職하면서, 北傀共產集團의 政治 및 軍事幹部를 養成 輩出시키는 北傀 最高의 教育機關이었다.

이 学院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日帝가 終戰末期 日本本土 空襲을 避하여 疎開된 航空機 生産工場으로 建立한 “昭和電工”으로써, 그들은 이곳에서 AL機를 精製하여 航空機를 生産하여 戰線(主로 滿洲)로 送出하기 위해 지은 大規模 施設의 工場이었다.

平壤政治学院으로 吸収定着事業을 끝낸 北傀集團은 이곳에서 正式으로 北傀 空軍軍官學校 運用体制로 突入하였다.

이에 따라 本人은 1946年 10月 北傀空軍 軍官學校 第1期生으로 入隊하게 되었다. 그 때 本人은 故鄉인 平安南道 平原郡 漢川面에서 母校인 漢川國民學校(人民學校)에서 教員으로 있었다. 어느 날 面共產黨細胞委員長이 本人을 찾아와 “2~3個月 동안의 短期講習所”에 가보라는 欺瞞工作에 속아서 志願했다. 이와 같이 감쪽같이 속아서 各處에서 志願한 數 10名을 平壤에 集結하여, 매우 敵한 身體 및 學課試驗을 치루었는데, 이 때, 短期

講習所에 가는데 이와 같은 試驗이 왜 必要한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모두가 얼떨떨했으나, 募集者들을 徹底한 秘密 속에 進行시키고 있었다. 우리 郡 出身 應試者中 大部分은 落第되고 不過 몇 名만이 合格했는데, 其中 本人도 合格者에 끼어 平壤政治学院으로 引率되었다. 本人을 비롯한 入校者들은 “사람을 이와 같이 속이는 法이 어디 또 있느냐” 等 強力한, 抗議表示를 하였으나 가진 脅迫과 懷柔에 못전디어 그날부터 軍官生徒 1期生으로서의 生活을 시작하게 되었다.

入校하는 날 本人들은 前記 言及한 李活 副司令官室로 불리어 가서 “우리는 동무들을 空軍幹部로 養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라한 것이니 조금도 마음의 흐터짐 없이 學業에 精進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訓示가 있었다.

그로부터 本人들은 新義州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前 航空協會員들과 合流되어 1期生 生活에 들어갔다.

學科訓練으로서, 韓人婦化 소련教授들로부터 共產主義理論教育, 日本製航空機로 航空學科 및 實習教育, 그리고 初級 Grider滑空訓練과 그밖에 軍事訓練 等이었다.

本人이 平壤政治学院에 入校한 때에 日本軍 出身의 既成航空人들도 強制徵集되어 왔다. 그 중에 우리가 記憶할 수 있는 人物 가운데에는 韓國空軍 作戰司令官을 지낸 바 있던 尹應烈 予備役少將도 들어 있었다. 이들은 解放後 故郷에 돌아와 있다가 北傀当局의 強制徵集으로 끌려온 것이다.

이들은 本人과 같은 航空門外漢이 아니고 有經驗航空人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一部는 指揮官/教官으로 任命되고 나머지는 教官中隊로 編成되어 別途 生活을 하였다.

이들은 거의 航空狂들로서 소련占領軍으로부터 물려 받은 日製航空機를 타다가 數名이 墜落死亡하는 事故가 있었다. 그 主原因은 燃料에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 소련으로부터 現代의 航空燃料를 確保하지 못한 나머지, 日帝가 大戰末期 緊急對策으로 마련한 松炭油를 썼기 때문에 飛行中 別안간 燃料 Pipe가 막혀 事故가 統出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飛行中止措置가 내려, 소련으로부터 新銳機가 導入될 때까지 一切 飛行訓練이 없었다.

### 龍岡飛行場에서 聯隊編成

北傀空軍은 1948年 初 平安南道 龍岡郡 所在 龍岡飛行場에서 飛行聯隊를 編成했다. 이날 同 飛行場에서는 소련軍 조종사들이 自身들의 Yak-9과 IL-10戰鬪機로 大대의인 示威飛行을 마치고 나서 同 航空機들에 對한 一般 公開觀覽도 있었다.

여기에 參加한 航空機와 조종사들이 바로 日帝가 敗戰하기 數日前 淸津 等으로부터 空襲하는데 參戰했던 바로 그 소련占領 空軍部隊所屬 이었다.

이들은 그로부터 얼마 後 平壤飛行場으로 北傀空軍이 移轉하여 本格的으로 소련製 新銳機로 訓練을 시작할 때, 이들 소련占領軍 所有 航空機와 조종사들이 그대로 北傀空軍力 養成에 動員되었던 것이다.

## 平壤飛行場에서 本格的 飛行訓練 開始

北傀当局과 소련 間의 協定에 따라 1948年 12月 소련空軍이 平壤飛行場에서 撤收하게 됨에 따라 北傀空軍은 이곳으로 移轉하여 소련製 新銳機로 本格的 訓練에 突入했다.

本人이 이곳에서 飛行訓練을 받은 課程은 大略 다음과 같았다.

### ● L-4, L-5 初級訓練/連絡機로 感得飛行

當時 北傀空軍에는 韓國에서 越北者가 물고 간 L-4, L-5機 各 1台씩을 保有하고 있어, 本人들은 이것으로 1人 2回씩의 感得飛行, 即 “비행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飛行을 받았다.

### ● 戦闘型機를 複座(教官席)으로 改造한 것으로 本格訓練

위에 L-4, L-5機에 의한 두 번의 感得飛行에 뒤이어 바로 戦闘型機로의 本格的 飛行訓練에 들어갔다.

本人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非正常的 飛行訓練은 世界어디서나 또 歴史的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當時 北傀当局이 왜 이러한 非正常的인 訓練方式을 取해야만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共產體制下에서의 典型的인 虛偽報告制度에 基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北傀空軍은 그동안 日製航空機로 基本訓練을 마친 바 있으니 이제는 소련製 戦闘機로 訓練에 突入할 段階이다라는 虛偽報告를 소련当局 앞으로 提出함으로써 이런 結果를 빚었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그들은 6.25決行이라는 時間表에 쫓기는 나머지 이와 같은 速成方式을 扞한 것으로 본다.

當時 北傀軍은 空軍을 除外한 余他 軍部는 매우 順調롭게 軍事力養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北傀空軍은 이와 같은 非正常的인 速成方法을 取한 것이나, 予想과 같이 別다른 成果를 올리지 못했다.

教官과 同乘飛行時는 곧 잘 하는 것 같았으나, 일단 教官同乘 없는 单独飛行時는 엄청난 事故続出이었다.

그것은 訓練生들의 飛行經驗의 絶對不足에서 오는 心的, 技倆的 未熟으로 많은 事故가 연달았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中級訓練機로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Yak-18 中級訓練機를 써서 離着陸, 航法, 空中機動訓練 등으로 좀더 많은 熟練을 쌓게 해야만 했다.

## 北傀空軍의 南侵準備 血眼

北傀空軍의 飛行訓練이 加速化 됨에 따라 平壤飛行場을 비롯하여 附近에 位置하고 있는 美林飛行場에서 2個 飛行聯隊의 訓練을 받기에는 너무나 비좁아 飽和狀態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北傀는 Yak-9機로 編成된 追擊機聯隊는 現 位置에 남고, 本人이 屬해 있는 IL-10機로 編成된 襲擊機聯隊는 咸鏡南道 咸興의 興南肥料工場을 건너 보고 있는 東海沿岸에 자리잡고 있는 連浦飛行場으로 移動하여 附近에 位置하고 있는 宣德飛行場을 같이 쓰며 本格的인 南侵準備를 위한 空軍力養成体制下에 突入했다.

### ● 各 聯隊에서 8名씩을 選出 集中訓練

北傀는 지금 實施中에 있는 軍官 1期生에 對한 一律的 訓練方式으로는 6.25決行이라는 時期的 要求에 마찰 수도 없고, 또한 所期의 訓練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判斷하여, 兩個 聯隊에서 各各 8名씩을 選拔하여 이들에게 集中的 訓練을 加하여 少数 精銳戰鬪操縱士를 養成해 내려고 하였다.

本人은 오랫동안 1期生の 學生長인 特務上士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問題없이 이 8名 Class에 選拔될 수 있었다.

이들 8名組에 對해서는 他 同期生들과는 전혀 다른 特別 時間表에 의해 強度 높은 集中的 訓練이 取해 졌음은 勿論이다.

本人을 包含한 8名組는 聯隊本部가 자리잡고 있는 連浦飛行場보다는 附近에 자리잡고 있는 보다 넓은 宣德飛行場을 主로 利用했다.

이곳에서 主로 单独飛行 過程을 集中訓練, 얼마 안가서 全員이 单独飛行課程을 마치게 되었다.

勿論, 여기에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엄청난 試作錯誤가 거듭되었음은 勿論이다. 即, 앞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갑자기 戰鬪型機로의 訓練突入이어서, 經驗, 熟練, 心的 壓迫 등으로 单独飛行 操作時, 過多操作 等の 不注意로 航空機大破 等の 事故가 續出하여, 하는 수 없이 中級機로 後退訓練으로 되돌아 가는 등의 웃지못할 年센스가 있었음은 勿論이다.

● 1949年 12月 平壤飛行場에서 1期生 卒業式

1949年 12月 平壤飛行場 屋外에 마련된 式場에서 歴史的인 北傀空軍 軍官 1期生 卒業式이 金日成을 비롯한 北傀集團 重要人物들이 모조리 參席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本人은 北傀空軍 中尉 階級章을 當時 校長 兼 空軍司令官이었던 王連 空軍少將으로부터 받고 任官하였다. 北傀空軍은 軍官生徒期間中 戰鬥機單獨飛行課程을 마친 者에게는 卒業과 同時에 少尉아닌 바로 中尉로 任官시키고 있다.

本人은 卒業과 同時에 飛行中隊長으로 補任되었는데, 이것은 本人의 階級이나 序列上으로 當然한 것이었다.

● 列車中에서 中共八路軍 韓人部隊員을 相逢

1949年 12月 平壤飛行場의 1期生 卒業式에 參席하기 위하여 平元線 汽車旅行을 했다. 이 때 目擊한 한 가지 事實이 北傀의 南侵準備와 直結되는 것이어서 잠시 言及하려 한다.

本人들이 搭乘하고 있는 咸興方面에서 平壤으로 行하는 汽車中에는 毛沢東 八路軍所屬의 韓人出身 軍人들이 큰 集團으로 同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歴戰의 勇士인듯 가슴에 勳章 몇個씩을 달은 누비軍服 차림이었다. 우리들 一行은 하도 이상한 相逢이어서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前記한 바와 같이 八路軍 韓人出身인데, 지금 故郷에 休暇간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本人들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 같이 軍服차림에 武裝을 하고 있어서 休暇가는 軍人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元山을 지나 38°線 가까운 곳에 모조리 下車 감쪽 같이 사라졌다. 이들은 38°線에 配置, 北傀人民軍을 도와 6.25南侵敢行에 있어, 그들 歴戰의 經驗을 살렸음이 틀림없다.

● 戰鬥操縱士 養成, 促求 懸垂幕 設置

北傀는 1950년에 접어들면서 南侵準備를 위한 空軍力強化에 癡狂하고 있었다. 飛行場 入口에는,

5月 30日까지 戰鬥操縱士 30名을 養成하자!!

라는 大型懸垂幕이 내 걸렸다.

그들은 訓練時間을 1分1秒라도 더 짜내려고, 別다른 日課時間運用體制를 取했다. 卽 本人들은 卒業任官 後에도 士兵들의 內務生活과 같은 營內集團生活를 強要 當하고 있었기 때문에 生徒 때와 똑 같은 日課時間 生活를 해야만 했었다.

그러던 것이 特別日課로 바뀌면서, 아침 6時 起床과 同時 빠른 時間內에 身辺整理를 끝냄과 同時, 食堂으로 달려가 바로 食事を 끝냄과 同時에 飛行場으로 달려가 訓練에 臨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變則日課를 함으로써, 從前과 같은 集團集合, 行進 등에서 消費되던 時間이 모조리 訓練時間으로 代替되는 結果를 가져 왔다.

또한, 食事도 하루에 네번 먹이는 特別待遇였다. 卽, 점심과 저녁사이의 間食이 飛行場 訓練場으로 運搬되어 그곳에서 訓練余暇를 利用하여 먹는 것이었다. 또 金日成이가 平壤 먼거리에서 이곳까지 1週日이 멀다하고 飛行場으로 찾아와 訓練生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나는 동무들만 믿소” 하면서 激勵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諸般事實들은 當時 北傀 空軍當局이 南侵決行을 앞두고 얼마나 쫓기고 있는가를 斷的으로 立証해 주는 일들이었다.

當時 北傀軍은 空軍을 除外한 余他軍部는 100% 訓練過程을 마치고 前線配置態勢를 完備한 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空軍만은 事情이 다른 바 있었다. 卽, 前記한 바와 같이 直接 戰鬥型機로 的 訓練突入으로 途中에 中級機訓練으로 後退하는 등의 큰 施行錯誤가 있었음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決定的 要因은 訓練 氣象條件의 惡化를 들 수 있다.

東海岸으로 移轉한 本人들의 襲擊機聯隊의 경우는, 東海岸의 地形的 條件으로 午前中은 거의 海霧가 끼어 訓練進行이 어려웠다. 더우기 本人 등의 未熟訓練 段階生들에게는 萬一의 事故를 위해 氣象條件이 嚴格히 지켜지고 있었다.

本人은 그곳에서 IL-10機로 爆擊, 射擊訓練 課程을 밟던 中, 1950年 4月 28日 IL-10機로 連浦飛行場에서 飛行訓練 開始 直前인 아침 8時 30分頃 非常離陸하여 金海飛行場에 安着하여 大韓民國에 歸順하였다.

## 北傀空軍의 制空權 喪失

本人은 越南歸順(1950年 4月 28日) 直後 勃發한 6.25南侵時, 北傀空軍機들의 南侵攻擊 모습을 非常한 關心 속에서 지켜 보았다.

6.25가 勃發하던 當時, 本人은 原所屬部處였던 空軍本部 情報局(지금의 情報參謀部)으로부터 身辺保護하기에 適格한 곳이라 하여 空軍憲兵隊로 옮겨, 空軍中尉로서 憲兵中隊長을 맡고 있었다.

6.25勃發 当日은 週番士官 勤務中에 있었는데, 그 날 12時頃 突然 北傀 Yak-9機 1台가 金浦飛行場에 機銃射擊을 加해 若干의 被害가 있었다.

駐機中에 있던 民間旅客機가 몇 곳에 被彈되고 油類貯藏所에서 小規模 火災가 있었으나 곧 鎮火되었다.

6月 27日 汝矣島 空軍本部에서 各級 部隊指揮官 緊急會議를 열고 앞으로의 空軍運命을 論議하고 있을 때, 突然 北傀空軍 IL-10 2台의 汝矣島 空軍本部 空襲이 있었으나 어림없는 攻擊이어서 전혀 被害를 주지 못한 채 돌아갔다. 얼마後 2台中 한 台가 美軍 F-80 Shooting Star 2台의 狹攻을 받으며, 汝矣島에서 漢江大橋 쪽으로 쫓기며 계속 攻擊을 받으며 逃亡가다 드디어 露梁津쪽 山에 衝突하고 말았다. 이 IL-10機에는 本人이 所屬되어 있던 襲擊機聯隊 聯隊長이 타고 있었다(崔現珏聯隊長).

같은 날 北傀空軍 Yak-9機 2台가 金浦飛行場에서 撤収中에 있던 外國大使館 職員 및 家族을 輸送하기 위한 비행기의 空襲을 위해 날아오고 있었다.

이 때 上空에서 掩護飛行中에 있던 美軍 P-38 雙胴機에 北傀機가 먼저 攻擊을 加해 왔다. 美軍機들은 재빨리 구름 속으로 避해 Radar射擊으로 瞬間的으로 北傀機들을 모조리 보기 좋게 擊墜시켰다.

이 때도 北傀空軍 飛行大隊長인 日本軍 出身者가 非常脫出 하였으나 甚한 火傷으로 죽었다.

以上에서와 같이 動亂 最初期는 日本軍에서 相當한 飛行經驗을 지닌 北傀空軍 指揮官級이 動員된 바 있으나 美軍機 앞에서는 전혀 相對가 되지 않았다.

仁川上陸이 成功되어 서울을 向해 進擊, 金浦飛行場이 奪還됨에 따라, 本人은 情報局員으로 復歸되면서, 全的 北傀空軍相 調査業務에 나섰다.

金浦飛行場에는 많은 北傀機들이 攻擊받아 破壞된 가운데서도 IL-10 2台를 輕微한 整備作業도 마치지 못한 채 그대로 놓고 다급하게 도망간 것이었다. 이 航空機는 美軍과 共同으로 解体作業을 하여 美本土 Wright-Petterson基地의 "U.S Air Force Musium"에 運送展示 되었다.

그 후 北進과 더불어 白善樺將軍이 指揮하는 第1師團 先鋒隊에 合流되어 平壤攻擊戰에 參加했다. 여기에서 北傀空軍 實相을 여지 없이 찾아볼 수 있었다.

平壤市 奪還을 눈 앞에 두고 主要 幹線道路를 따라 進擊하고 있었는데, 道路 한 가운데에는 北傀軍 軍需品을 運搬中이던 소달구지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것을 目擊하고는 참

으로 感慨無量한 바 있었다.

北傀空軍이 6.25南侵準備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200余台에 達하는 新銳機를 導入하여 南韓 땅을 하루 아침에 썩더미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던 北傀空軍은 이제 어디에 다가고 소달구지로 軍需品을 運搬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럴 것이 莫強한 UN空軍 앞에서의 完全히 制空權을 빼앗긴 狀況下에서는 飛行機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앞에 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戰爭 初期 얼마동안은 夜間에 限하여 Truck에 最小限의 照明으로 輸送作戰을 담당하였던 것이나, 그것마저 UN軍側의 夜間飛行活動으로 沮止 當해 소달구지 運搬 身勢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平壤奪還後 머지 않아 元山에 先發隊進入과 同時에 元山飛行場에 T-6機로 到着하였다. 北傀軍들은 退却하면서 滑走路 使用을 妨害할 目的으로 滑走路에 學校教室에서 冊上과 걸상을 날려다 늘어놓고 있었다. 아주 低速으로 이리저리 避해가며 着陸하여 航空機 格納庫를 調査할 때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은 日帝下에 建設된 곳으로서 山을 파서 만든 大規模 格納庫였다. 北傀空軍은 滿洲地方으로 退却하면서 멸정한 戰鬪機들을 이곳에 몰아 넣고 불을 지르고 逃亡갔던 것이다.

北傀는 일찌기 敗戰을 直感하고 殘余兵力이 滿洲로 逃亡갔던 것인데, 살아남은 航空機로 逃亡가자니 航空機가 擊墜 當하는 것도 問題이지만, 操縦士를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喪失이 아닐 수 없었다. 그토록 많은 돈과 時間을 들여 養成한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補充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飛行機를 태우고 地上으로 逃亡갔던 것이다.

以上에서 言及한 몇 가지 事實만으로도 北傀空軍이 얼마나 徹底하게 制空權을 빼앗기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 北傀空軍의 初戰 粉碎策

北傀 金日成은 南韓땅을 하루 아침에 썩더미로 만들겠다고 壯談하면서 저지른 6.25南侵戰爭에서 制空權을 徹頭徹尾하게 유린 當하고 滿洲로 도망가야 했던 쓰라린 經驗을 가슴아프게 간직하고 있다.

金日成은 第2의 6.25南侵을 劃策하고 있으면서 空軍力 增強에 더 없는 힘을 쏟고 있다. 金日成은 “내 옷을 팔아서도 飛行機를 사다가 空軍力을 養成해야 만 된다”고 입버릇처럼

지저대고 있다. 그는 最近 소련에게 北韓領空 通過權을 넘겨주는 代價로 MIG-23機를 大量 導入하고 있다.

이 소련機의 北韓領空 通過權 부여로 極東周辺國에게 매우 深刻한 軍事情勢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6.25戰爭時 完全敗亡 一步前에 北傀를 救出해 준 生命의 盟國이며 宗主國인 中共이 받는 被害는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소련機의 北傀領空 通過로 中共의 黃海沿岸을 비롯한 國土 相當部分 소련機 包圍網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中共宗主國에게 주는 被害가 深刻함에도 그들은 소련에게 北韓땅을 내주면서까지 MIG-23機를 導入하고 있다.

이에 對備 1旦 有事時 이를 初戰에 粉碎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前線의 國軍과 後方의 國民이 한덩어리로 굳게 뭉쳐 最強의 國民總戰力을 흠어짐이 없이 發揮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잔악한 무리인 好戰的 北傀集團들이 빈틈만 있으면 南侵을 敢行하기 위해 호시탐탐하고 있는 이 때 우리 國民들 내에서 國力을 分散시키려는 一部 몰지각한 者들의 行爲는 甚히 遺憾스럽기 짝이 없다.

둘째로는, 不斷하고 高度의 早期警報體系를 動員하여 北傀의 企圖를 監視하며 이에 適切한 對備가 있어야 한다.

세째로는, 高度의 戰技戰術練磨를 不斷히 推進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美空軍이 實施中에 있는 「Red Flag, Green Flag」等 假想敵機와의 實際的 시나리오 下에서, 敵의 最新 戰技戰術 環境下에서 作戰訓練에 積極 參與하여 一當 五 내지 十의 自身滿滿한 技倆을 培養해 나가야 한다.

네째로는, 最新技術의 積極 開發로 質的 優勢를 堅持해 나가야 한다. 北傀空軍은 우리 보다 數的 優位의 空軍力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눈부신 經濟發展을 바탕으로 高度 技術의 軍需産業을 積極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航空搭載整備를 高度技術로 國產開發하여 數的인 北傀機를 壓倒해 나가야 한다.

## 北傀의 北侵說

北傀共產集團의 6.25南侵이 있는 直後 UN安保理事會는 緊急會議를 열고 北傀를 侵略者로 烙印찍힘과 同時 UN軍을 派遣 參戰케 하였다.

그 밖에 北傀가 南侵을 敢行하였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北傀의 作戰命令書를 비롯한 証

拋가 數없이 있다.

은 世界가 다 알고 있는 北傀의 南侵事實에 對하여 아직까지도 그들이 北侵說을 固執하고 있는 데에는 共產獨裁體制 自体 生理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共產獨裁體制란 우리의 民主社會에서 찾아볼 수 있는, 良心이나 倫理, 道德, 社會 規範 等을 모조리 否定하는 데에서만 그 體制가 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이 269名의 民間人이 搭乘한 KAL 旅客機를 무참히 攻擊 死亡케 하고도 아무런 良心의 苛責이나 謝過 한 마디 없는 것이나, 또한 北傀가 第3國인 버마 叢軍에서 親善訪問 中에 있는 國家元首를 비롯한 國賓에 對한 테러行爲를 저질러 北傀工作員이 生捕되는 等 그 犯罪事實이 여지 없이 드러나 當國으로부터 外交關係 斷切, 國家承認 取消 等으로 그 明白한 事實이 온 世界의 白日下에 들어 났음에도 不拘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이 아직 까지 한 마디의 事實 是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人間以下의 動物集團인 北傀는 이와 같은 그들의 処事로 날이 갈수록 世界 속에서 孤立化의 길을 달리고, 있다. 이제 그들이 北侵說을 主張하던 말던 良識있는 이 地球家族中에서 그들의 主張을 올바르게 믿을 者 누가 있겠는가.

## 우리가 警戒해야 할 北傀空軍 戰術戰技

우리의 空軍은 自由民主體制下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北傀軍의 挑發的 先制攻擊에 對備 해야만 하는 防禦的 立場에 놓여 있게 되며, 이와 같은 戰略戰術的 概念下에서 싸워야만 하는 不利한 立場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敵의 奇襲, 欺瞞作戰을 막아낼 수 있는 萬般의 態勢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最高度의 萬般의 早期警報體制 運用과 더불어 이에 따른 非常 出動態勢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必勝의 信念으로 確固하게 武裝시키도록 精神戰力強化에 끊임없는 努力이 傾注 되어야 한다. 우리는 自由民主體制下에서 生活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自由, 人間性的 尊重이 最大限 保障되는 體制下에서 살고 있는 몸이다.

그러나, 이에 反해 北傀空軍은 共產獨裁體制 속에서 養成된 軍이기 때문에 젓먹이 어린 애 때부터 불타는 敵慨心으로 武裝된 이 世上에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殘惡無道한 人間 以下의 무리다. 그들은 이것만이 살길이요, 이것만이 唯一한 眞實임을 信仰처럼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불같이 용솟음치는 敵慨心으로 武裝한 北傀空軍力과 싸우기 위해서는 보다

올바르게 그들을 알고 이와 對敵할 수 있는 精神力을 培養하는 것이 무엇보다 緊要하다.  
이에 對해 北傀空軍 自身들도,

### ● 空軍戰技

北傀는 高度의 統制體制下에 있기 때문에 自由로운 訓練遂行上 制約點이 있고, 또한 訓練資源이 大韓民國과는 對比的으로 制約받고 있어, 따라서 戰技 練磨 發展에는 多少 뒤떨어지는 것이 事實이나, 그러나 精神力, 戰術에 있어서는 北傀가 越等하게 優勢하다고 自慢하고 있다.

그것은 共產獨裁體制에 따른 革命戰士로서의 精神力의 必然的인 強點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戰術에 있어서는, 先制攻擊戰略에 따르나, 奇襲을 隨伴하는 多樣한 欺瞞戰術 등을 自意的으로 驅使할 수 있음을 強點으로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다.

## 北傀 조종사들의 大韓民國 認識度

北傀 共產集團은 우리의 自由民主體制下의 資本主義의 社會를 根本的으로 否定하고 이를 徹頭徹尾 破壞하는 것만이 그들 體制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이를 위한 소위 赤化革命 課業完遂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共產精神武裝은 나어릴 때부터 철저히 敎育받고 生活해오기 때문에 革命戰士化 程度는 우리들의 想像을 超越할 程度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空軍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資本主義의 奴隸, 돈이나 物資 앞에서 꿈쩍도 못하는 動物에 지나지 않는 存在로 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 社會構成 自体가 徹底한 家族中心으로 된 細胞單位社會制로 되어 있기 때문에, 有事時는 組織을 殫心같이 離脫하여 家族과 같이, 自身들의 生命 安易를 찾아 支離滅裂 狀態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北傀軍은 共產獨裁軍律下에서 強制的이며 他律的으로 마치 못해 규합된 軍隊로서 일단, 獨裁의 統制力이 弱화되려는, 他律에 의해 모여진 이들 무리들은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 實例로 6.25戰爭時, 仁川上陸이 되어, 南쪽으로 進擊하였던 이들 北傀軍이 補給線이 끊어지고 軍指揮體系가 무너진 狀態下에서의 그들의 無秩序, 士氣低下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온 것이다.

두번째로, 그들은 우리 조종사들이 飛行時間이 많고, 飛行技倆도 뛰어난을 自認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우리体制의 優越性에서 온 強点으로서, 共產体制下에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조종사들은 自由로운 環境下에서 自身들의 職分과 規程 範圍内에서 熱心히 우리의 優越한 民主社会와 國民들의 財産, 生命을 保護하는 崇高한 自律的 精神力으로 마음껏 自身들의 飛行技倆 向上에 努力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北傀空軍은 6.25戰爭時 몇 몇 美軍戰鬪機의 擊墜事實들을 自身들의 뛰어난 精神力과 戰術戰技에 따른 것이라며 自画自讚하면서, 이것을 大大的으로 그들의 教育指標로 삼고 있다. 따라서 結論的으로는 精神力上으로는 돈 밖에 모르는 奴隸, 自身の 生命밖에 모르는 利己主義者, 戰技戰術上으로도 形便없는 엉터리 軍隊라고 過小評價 教育되고 있다.

## 第2의 6.25 挑發 可能性

北傀共產集團은 世界共產革命의 一環으로서 南韓에 對한 赤化統一政策을 한 시도 소홀하지 않고 밀고 있는 것이다.

最近들어 여러 가지 形態의 對話에 應해 오는듯한 印象을 주는 것도, 버마 랭군 테러事件 등으로 國際적으로 孤立化되어 가고 있는 苦境을 多少나마 解消해 보려는 意圖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높은 警戒心을 가져야 할 일은 金日成集團이 우리의 對話에 應해 옴으로써, 우리들 國民들 사이에 金日成 一黨들이 善良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잘못된 認識을 주어 放心하게 하여, 우리 内部에 團結力을 弱화시켜, 그 틈을 타서 攻擊의 機會로 노리자는 속셈도 多分히 있는 것이다.

여하튼 그들은 虎視眈眈 南侵의 機會造成에 余念이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GNP의 24%라는 世界에서 類例를 볼 수 없는 높은 軍事費 支出로 國民들은 모두 餓死直前に 몰아넣으면서 南侵軍事力 增強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그들은 이들 軍事力을 地下 要塞化함은 勿論, 全 軍事力의 65%를 前方 配置를 完了해 놓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軍事力은 날이 갈수록 老朽化해 가고 있으며, 또한 地下에 貯藏中인 이들 武器類의 腐蝕化 역시 深刻한 問題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가 86. 88올림픽게임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世界 속으로 跳躍되고 先

進化로 달리게 된다.

또한 經濟發展도 더욱 加速化되어 北傀와의 軍事力 均衡은 더욱 均等化 하게 되고 머지 않아 逆轉하게 된다.

이에 比해 北傀는 우리의 立場과는 正反對의 길을 달리게 된다. 國際적으로 孤立化, 經濟成長 隔差, 軍事力의 量, 質的 對等化로 事態는 더욱 어려워져 영영, 南侵의 機會는 놓치고 말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86, 88大會를 契機로 어떤 形態로든, 挑發해 올 것으로 본다. 가장 可能性 높은 方法으로서는,

- 国内에서의 테러行爲와 同時에
- 10万名이 養成해 놓은 特攻軍을 動員하여 大的인 後方 海岸線 侵略
- AN-2, 500MD Hel機로 動員한 超低空 特攻軍 浸透
- 以上の 第1段階 非正規戰 成果여부를 보아, 38° 休戰線을 통해 그동안 秘密裡의 構築해 놓은 땅굴을 最大限 動員하면서 侵攻해 올 것으로 본다.

## 空軍將兵들에게 드리는 말씀

本人이 北傀空軍을 脱出, 大韓民國에 歸順한지 30余年이 지났다. 그동안 本人은 主로 大韓民國 空軍에서 生活해 오면서, 많은 質問도 받고, 또한 많은 點에 對하여 느껴오고 있다. 우리 社會 各 分野에서 反共教育 弘報가 不斷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反共意識 高吹에 이바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의 극히 一部에서는 이를 全幅의으로 收容을 못한 채 半信半疑하는 者들이 있음은 또한 엄연한 事實이다. 그 한 例로써,

「北傀内 軍人服務에 있어, 軍服務期間이 8年 내지 10年이나 되고, 또한 몇 年씩 外出한 번 나가보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엄연한 事實에 對하여 額面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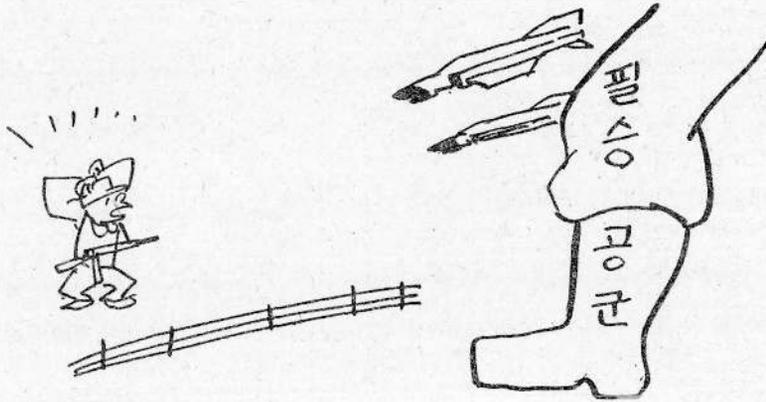
그것은 우리 自由民主社會와는 너무나도 判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北傀의 殘惡相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 「人間이 어떻게 그와 같이 殘惡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主義 理論의 내막을 덜 깨달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하자 6·25

분쇄하자 북괴야육



共産主義의 生理는 “階級鬭爭” 即 敵對勢力에 對한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徹頭徹尾한 鬭爭抹殺만이 自身들의 革命的 成就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敵對勢力에 對한 無慈悲한 敵愾心을 最高度로 高吹시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共産體制를 前進시키는 唯一無二의 推進力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人間社會 生活中에서 無限한 「사랑」의 보금자리인 家庭, 父母兄弟의 사랑을 意圖적으로 破壞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父母의 사랑으로부터 젖먹이 어린애 때부터 애들을 分離시켜 유치원에서 集團적으로 敵愾心に 불타는 革命戰士를 養成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몸 담고 있는 自由民主社會에서는 到底히 찾아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엄청난 異質社會인 北傀 共産獨裁體制 社會下에서 實際로 生活해 보지 못한 大部分의 우리 國民으로서 그들은 內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正確히 把握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殘惡한 무리인 이들과 어떤 形態로든 반드시 싸워야 할 運命的이며 宿命的인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그들의 實相을 보다 正確히 把握하는데 온 精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 2의 6.25는 또 오는가?

— 공산주의 「전쟁론」 분석 —

홍 지 영

〈내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약 력 \*

전직 : 건국대 · 이화여대 · 단국대 교수  
중앙정보부 경제담당 종합판단관

현직 : 한국 종교문제 연구회장  
한국 산업사회문제 연구소장  
내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목 차 -

1. 서 언
2. 6.25의 교훈
3. 공산주의의 본질
4. 공산주의의 전쟁론
5. 제 2의 6.25의 가능성
6. 결 론

## 1. 서 언

일반적으로 “6·25”는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우리 “한 민족”의 처지로서는 그밖에 다른 어떠한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한스러운 울분의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금 그러한 ‘비극’이 재발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버릴 수 없는 상황 아래 “제 2의 6.25”를 걱정하며 그 재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형편에 놓여 있다. 물론, “제 2의 6.25”가 없기를 바라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억지”의 노력에 의하여 그 재발을 막지 않으면 아니 되며, 실지로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의 여러 저명한 “공산주의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이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는 바로 「김 일성」이다』라는 점에 비추어 「김 일성」 및 그에게 맹종하고 있는 추종세력이 어떠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이란 원래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특히 아무런 경륜도 경험도 업적도 없이 하루 아침에 소련공산당에 의해서 그 “충실한 앞잡이”로 기용되어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김 일성」은 심리학이 말하는 이른바 “편집질(偏執質)”의 성격을 지니고, 정신의 학이 말하는 “편집병(偏執病)” 또는 “편집광(偏執狂)”의 증세에 걸려있는 것이 틀림없는 만큼, 우리는 “제 2의 6.25”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나 명확한 기초판단의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불의(不意)의 사태”에 대한 만반의 전투적 및 정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 2. “6.25”의 교훈

이미 우리들은 “6.25”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제 2의 6.25”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약간 번거로운 일이지는 하지마는 새삼 그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열세였다는 사실이다. 북괴군이 소련군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항공기, 탱크, 각종 야포 등 전투장비와 무기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거의 무방비상태였기 때문에 북괴군은 “51일 작전”에 따른 “전면 남침공격”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불시(不時) 선제공격”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둘째, 당시 미국정부는, 극히 일부의 군장성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의 “세계적화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혹시 짐작하고 있던 정치인들도 그것에 단순한 “공산주의자들의 꿈”으로 간주하거나, 당시 소련의 군사력이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군사적인 침공을 획책할 수 없을 것으로 앞잡고 있었다. 거기에서 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각국 공산당에 지령하여 이른바 “평화공세”를 취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군사적 침략을 자행하기 위한 “연막전술”의 방패막이라는 것, 즉 “위장평화”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있었다. 물론, 소련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벌이지 않고 북괴를 이용하여 “대리침략전(代理侵略戰)”을 치루게 함으로써 “남조선 적화”를 감행할 것이라고는 더더구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셋째,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남로당」은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들을 선동하여 “6.25” 전까지 무려 17,000여차례의 크고 작은 사건들, 폭동, 폭행, 방화, 관공서 습격, 살인,

메모 등등을 조성 조작해 왔었는데 북괴군이 무력남침을 감행하면, 상당수의 “민중”이 호응하여 후방지역을 교란, 장악하고 일거에 “남한 적화혁명”을 성취시키게 될 것으로 오산하여, 북괴 「김 일성」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소련도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네째, 「김 일성」은 「스탈린」이 북괴군 군사고문관을 통하여 지령했던 이른바 “비밀작전명령 제 1호”에서 “7월 2일 04시 전면공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을 앞당겨 “6월 25일 04시”에 북괴군이 전면남침하도록 변경했었다는 사실이다. 즉 「김 일성」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남조선 무력적화”라는 소련공산당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만든 것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스탈린」의 지령대로 “7월 2일”에 공격을 시작했더라면 “UN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일성」이 왜 작전개시일을 제멋대로 변경했는지를 밝힐 필요도, 저를도 없지만 어쨌든 「김 일성」이라는 인간이 그야말로 “엉뚱한 독불장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의 경계심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 3. “공산주의”의 본질

“제 2의 6.25”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6.25”의 교훈과 함께 “6.25” 자체의 원인, 즉,

“무력남침”을 자행했던 장본인들인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및 행동의 원리인 “공산주의” 자체의 본질부터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막상 “공산주의”란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것을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우리말사전』에 적혀 있는 “공산주의 풀이”를 찾아 보는 것이다. 사전마다 약간씩 다르게 풀이되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빈부의 차이없이 평등하게 하려는 사상』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상』이고, 그것들을 『실현시키려는 운동』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고 운동의 원리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공”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찬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나부터 ‘찬성’하겠다.

물론, 그러한 사전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국어학자,” “언어학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속임수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뿌려 놓은 책자들을 그대로 참고한 것 뿐이며, 결코 올바른 풀이는 아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정직하게”풀이했던 것은 「마르크스」와 「엔겔스」,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진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공산주의”란 『세계지배 전략전술의 원리』, 즉

“세계지배의 방법론(方法論)”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164개의 공산당들이 있는데, 이들 공산당들이 발행하는 “당 기관지”에는 그 신문의 명칭보다 윗자리에 반드시 『만국(万国)의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라』라는 표어가 적혀 있다. 이 표어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 사용했던 공산주의자는 바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였다. 1848년 2월에 발표했던 「국제 공산당」의 『공산당 선언』에서 이들이 사용한 이래 모든 공산당은 반드시 이 표어를 사용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만국”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 세계”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배”를 근본원리로 삼고 기본목표로 삼는 공산주의자들이 “6.25”를 획책했던 것은 “한국적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를 위한 하나의 “과정(過程)”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북괴의 “한국 침공”에 대항하여 UN이 “국제 경찰군”인 “UN군”을 조직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의하고 그 대표적인 16개의 나라들이 “공동방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휴전 이래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제2의 6.25”의 가능성은 북괴는 물론이며 “공산주의국가들의 종주국(宗主國)”인 소련의 국가권력을 「소련공산당」이 쥐고 있는 한,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공산주의의 전쟁론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지배 계획”은 반드시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 방법 하나로서만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력 적화”와 아울러 “비무력(非武力)혁명”이라는 방법도 사용하는 이른바 “양면전술(兩面戰術)”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적화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가의 형편과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공산국가 자체의 형편 등등 이른바 “객관적·주체적 조건들”에 따라서 “무력” 또는 “비무력”의 적화전술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전술은 그들의 “전쟁론(戰爭論)”에 똑똑히 드러나 있는데, 잠시 참고하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한 나라의 적화는 물론이며 “세계지배”를 성취하는데 있어 “전쟁”의 효과를 특별히 강조했던 “전쟁주의자”였다. 『전쟁은 한 나라의 국민들을 시험한다. 미이러가 공기에 썩이면 단번에 쓸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과 같이, 전쟁은 이제 더는 생활력을 가질 수 없게 된 모든 사회제도에 대하여 죽음의 선고를 내린다』면서 전쟁이 적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전쟁에 관한 논문들을 썼던 것이다.

특히 “유격전”에 대해서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말하여 그 기술에 대한 풀이를 한 논문 『혁명 및 반(反)혁명』을 발표했었는데, 그것은 “전쟁”에 대

한 전술론으로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전술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레닌」은 「마르크스」의 “유격전 기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쟁과 유격전, 무장봉기는 정치투쟁의 특수한 형태로서 우리들(=공산주의자들)이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수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 기술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였다.

가. 결코 전쟁을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였으면, 최후까지 버티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 결정적인 곳, 결정적인 때에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다 우수한 준비와 조직을 가진 적이 우리를 격파하게 될 테니까.

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최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언제나 공세를 취해야 한다. 「수세는 전쟁이나 유격전, 무장봉기의 죽음이다」.

라. 적을 불시에 기습공격하고, 언제나 적의 군대가 아직 분산되고 있는 동안에 호기를 잡아야 한다.

마.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이것을 매일 매일(매시간) 획득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우월」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운운, 즉,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와 같은 전술원칙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25”에 있어서 사용했던 북괴의 전술이 바로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 전쟁론”의 전술원칙에 입각했던 것이 분명해진다.

## 5. “제 2의 6.25”의 가능성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 2의 6.25”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조건 아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6.25” 즉, “새 6.25”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 가. 가능성의 조건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본질이 “세계지배”를 기본목표로 삼는 “세계적화”에 있으므로 북한 공산집단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 “남조선 적화, 지배”는 북괴 자체가 그 본질의 변화를 보지 않는 한 항상 언제까지나 추구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둘째, “6.2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 공산당이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전쟁전술”로서 북괴를 “대리 공격군”으로 이용하려 할 때, “제 2의 6.25”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셋째,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일성」의 “편집질(偏執質)”, 이를테면 「죽기 전에 반드시 남조선적화, 지배를 성취해야겠다」든가, 「김 일성」의 사망 후, 그 추종 세력인 북괴군부가 「김 일성」을 후계한 「김

정일』에 대한 반발로 “남조선 무력적화”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째, 미국정부가 “용공적인 정치세력”에 의하여 집권됨으로써 “주한 미군의 철수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북괴 뿐만 아니라 소련공산당도 “한반도 전역적화(全域赤化)”의 기회를 맞게 된 것으로 고무될 것이다.

#### 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첫째,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월등하게 강화되었을 경우, 즉, 군사력이 월등하게 증강되고, 경제성장과 발전이 월등하게 증진되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의 복지가 확고하게 보장되고, 국제적인 지위가 보다 넓고 높게 향상되면, 소련은 물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 “무력적화”를 단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적화, 즉 “비무력 적화”의 전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김 일성」이 사망하고, 그 추종세력도 힘을 잃거나 퇴진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의 “양면성”에 따른 “비무력 적화”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신봉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경우, 이들은 “무력적화”를 피하게 될 것이다.

세째,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질을 보게 됨으로써 “세계지배”를 포기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경우, “한반도 전역적화” 전략 자체가 포기될 것이며, 미·소 간의 긴장도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중공에 있어서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소련에 있어서도 차츰 그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경우는 북괴에 있어서도 「김일성」이 사망했을 먼 훗날의 시기일 것이다.

#### 다. “새 6.25”의 위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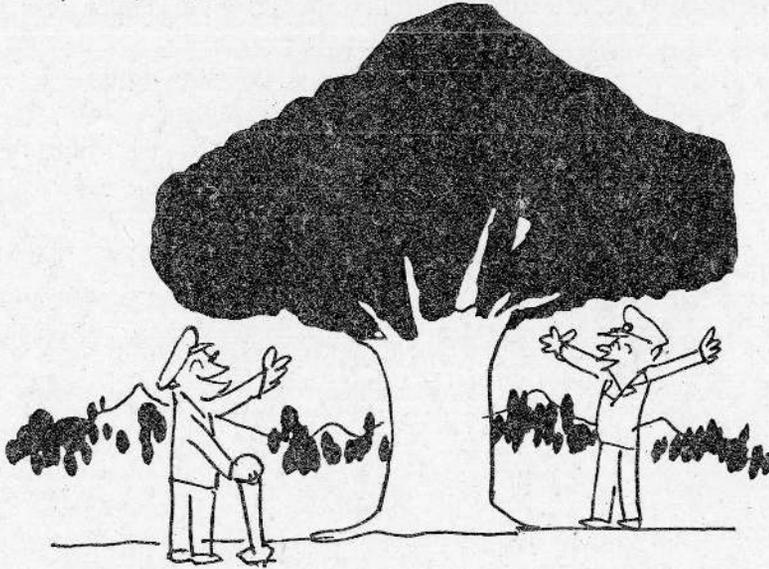
첫째, 이 경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후방지역에의 “특수 게릴라”의 침투에 의한 교란 파괴전술인데, 물론 “국군” “경찰”, “예비군”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위장 내란”을 조작,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10.26사태” 이후 돌발적으로 야기되었던 “광주사태”와 같은 폭동·소요가 서울 또는 그 밖의 다른 대도시에서 발생되도록 선전선동하고 조성, 조장하는 “내란 조성” 전술을 획책할 위협성도 없지 않다.

### 6. 결 론

우리 나라는 세계 186개 국가들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53개 국가의 하나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북수 정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공산당”만은 불법화하고 있는 “반공국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처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최악질 반동 국가』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공국가”로서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막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적화”에 의한 “일본적화”를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소련의 “서 태평양 제패”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이다.

## 식 목 일



알뜰살림 심고가꿔 푸른낙토 이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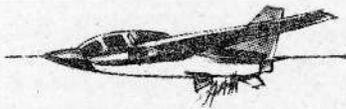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종주국”에 의하여 급조되고 북한 땅을 지배하게 된 북괴 「김일성」으로서는 소련과의 이해일치(利害一致)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남조선 적화”라는 소련이 자신에게 맡긴 ‘의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세계지배”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역사적 및 지리적 조건 아래 국가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고, 민족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의 “국가안보”를 유지·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의 6·25”는 물론 또 다시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있게 되지 않도록 “사전안보(事前安保)”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혹시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또 다시 “제2의 6·25”나 “새 6·25”가 있게 된다면 치더라도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자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 極超音速 大氣圈 横断機 TAV

— 서울에서 L·A까지 2시간에 —



중 위 韓 惺 鏞 譯

(공본 정참부)

- 이 글은 航空 FAN('85. 7), News Week('85. 12. 16), Air Force Times('85. 12. 9)에서 발췌 번역한 것임 -

“저희 Orient Express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탑승하고 계신 여객기는 서울發 L. A도착 107기로써 L. A. 도착까지는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여객기에는 창문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그 대신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前方 TV모니터를 통해 고도 11万foot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구의 전경을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 여객기의 速度가 마하 5에 이르게 되면 저희 승무원들이 여러분들께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식사하실 시간은 없을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객기의 상승 및 하강시에는 반드시 각자 여러분의 좌석에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본 여객기는 가속 및 감속시 발생하는 “G” 압력으로 부터 여러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편히 누워서 아름다운 지구의 광경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승객들 및 항공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신나는 가상 장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상이 머지 않아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21C型 極超音速 여객기는 놀라운 속력으로 여러 승객 및 화물을 지구의 반대편에 빠르고 安全하

게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콩코드 여객기는 겨우 Mach 2 정도의 速度만이 可能하나, 極超音速 여객기는 Mach 25 以上の 速度이 可能하여 영국 런던에서 호주의 시드니까지 公航 활주로를 이륙하여 다시 公航 활주소에 착륙하는데 단지 67分 정도면 充分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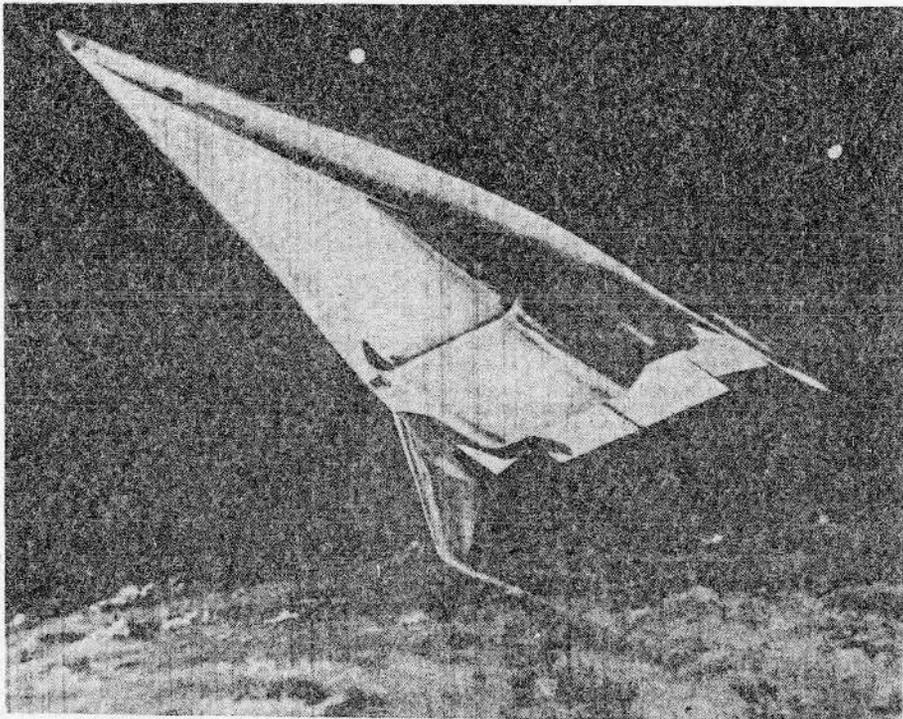
現在 美 國務省이 今年 1月 착수할 예정인 大氣圈 橫斷 極超音速機 TAV(Trans-Atmospheric Vehicle) 研究開發計劃은 이러한 모든 상상을 現實化시켜 줄 것이다.

同 計劃에는 3年間に 걸쳐 총 5억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2개 항공우주산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다.

### 〈計劃추진〉

極超音速機에 對한 商業市場이 불투명한 가운데 백악관 科學담당 고문 George Keyworth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航空宇宙 관련 院外團이 조직되어 同 計劃을 추진 중에 있는데 同 計劃에 必要한 資金中 80%는 美 國務省의 國防技術研究所(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담당하며 나머지 20%의 비용은 美航空宇宙管理局(NASA)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實驗用 TAV 製作에는 20억~30억불의 비용이 예상되며, 1990년대 초에 가서야 최초 비행이 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권 횡단 극초음속기 TAV의 가상도〉

- 出處 : News Week '85. 12. 16 -

TAV의 가상도 및 성능제한은 다음과 같다.

### 〈TAV의 제원〉

- 운용고도
  - 순항 비행시 : 120~150km
  - 정찰 요격비행시 : 30km
- 운항속도 : Mach 30 (케도비행시 필요한 최저속도 : Mach 25)
- 중 량 : 약 500t
- Payload : 약 2~10t
- 임 무 : 여객수송, 우주요격, 정찰공격 등

### 〈TAV의 特徵〉

○ TAV는 一般 航空機와 같이 일반활주로부터 수평 이착륙이 可能하며 宇宙에서도 地上으로부터의 정교한 도움없이 自由로운 飛行이 可能하다.

○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2時間 以内に 도달하여 Payload에 따라 요격, 정찰, 공격 등 다양한 任務 遂行이 可能하다.

○ 蘇聯의 ASAT 对 人工衛星 邀擊衛星은 發射에서 邀擊任務를 遂行하기까지 約 90分이 所要되나 TAV는 수분 내 발사가 可能하다.

○ 비행고도를 約 30km로 낮추어 敵 폭격기, 순항 미사일 등에 처한 邀擊 및 偵察任務 遂行이 可能하다.

○ 宇宙 往復船은 飛行後 再 투입시 最少한 1個月 以上の 期間과 2억불 以上の 엄청난 비용이 所要되지만, TAV는 別度の 비

용없이 수분 이내에 再飛行이 可能하다.

- 宇宙 往復船 발사費用의 1% 만으로도 화물의 대기권 케도에 運搬할 수 있어 現在 美国이 구상 중인 SDI 宇宙防禦計劃에 새로운 代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TAV 内에 高性能 레이더 및 Computer를 탑재하여 自力으로 정찰, 목표탐지 및 정밀공격수행이 가능하므로 地上의 C<sup>3</sup>I 体制가 파괴되어도 既計劃된 任務遂行이 可能하다.

### 〈TAV 開發現況〉

TAV를 開發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술적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우선 TAV의 대기권 돌입시 발생하는 대기마찰로 인한 高度의 熱때문에 견고하고 내열성이 강한 航空機 動體 재료 및 정교한 냉각방식이 요구된다.

냉각방식에 대한 可能방안으로서 액체수소와 같은 저온 연료를 냉각제 및 추진연료로 使用하는 方案이 研究中인데 航空機의 結 표면을 통해 흐르는 연료가 연소실 안으로 분사되기 以前에 기화되면서 항공기 표면을 냉각시켜주는 방법이다.

한편, 極超音速 飛行時 가장 문제가 되는 엔진은 Airturbo ramjet으로 알려진 Hybrid engine이 使用될 豫定으로 있는데 低速운행시는 空氣가 연료와 혼합되기 이전에 空氣를 압축시키기 위해 터빈을 사용하나 高速에서는 內入하는 超音速 氣流의 엄청난 힘이 압축기 力活을 담당함으로써 마하 16에 이르러 로켓트 파워는 항공기를

케도진입에 必要한 速度인 마하 25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엔진에 대해서는 연소율이 매우 높은 연료와 초음속 기류 사이의 정확한 統制가 要求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초 고성능 컴퓨터에 의한 대규모 열 역학적 계산에 의해 可能하게 될 것이다.

現在 캘리포니아주 Sacramento에 있는 Aerojet General Corp에 의해 개발 중에 있는 Airturbo ramjet 로켓 항공기 엔진은 事實상 1949년에 이미 고안된 바 있다.

미국은 當時 소련의 첫 인공위성인 Sputnik 발사에 당황한 나머지 미사일 발사용 캡슐 개발을 선호 同 로켓 항공기엔진 제작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 1958년 제작되었던 X-15는 당시 354,000피트의 고도로 마하 6.7 세계적인 극초음속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X-15의 조종사이자 극초음속 항공기의 주창자인 Scott Crossfield氏(現 64才)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8년 NASA를 창설하였을 당시 기술분야에 있어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다고 당시 미국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이제 미사일 제작 광신자 및 독일인(독일인 이주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이끄는 로켓 과학자들을 지칭) 과학자 수중에 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宇宙往復船(Space Shuttle)과 같은 Rocket Vehicle은 원래 비경제적이라 지

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事實로서 現在 客의 費用을 들여서 宇宙 往復船이 운반하고 있는 연료 중 78%가 산소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Scott Crossfield는 주장하고 있다. 대기권의 20%가 산소이며 대기권 내에서는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산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초음속 항공기 계획도 아무런 비용없이 무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상업시장이 매우 좁은 것으로 보인다. 적재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탑승권 구매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또한 엄청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하여간 엄청난 제작비용으로 인해 극초음속 대기권 횡단기 TAV의 商業性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의 장거리 수송기가 서기 2000年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초음속 항공기로 대체될 것이 예상되므로 TAV 제작추진은 적어도 항공기 Design분야에 있어서 新世代의 章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出處: ● 航空 FAN '85. 7.

● News Week '85. 12. 16

● Air Force Times '85. 12. 9

# 美國의 次期 戰鬪機 開發計劃(2)

李 建 淳 訳

(군무원, 공본 정참부)

- 이 글은 Flight International('84. 10. 20)에서 발췌 번역한 것임 -

## - 목 차 -

4. Avionics의 結合
5. 새로운 Engine
6. Digital Control
7. 戰鬪 自動化
8. 操縱席의 目標資料作函

## 4. Avionics 統合

次期 戰鬪機의 avionics는 VHSIC(超高速 處理集積回路) 技術을 活用하여 Common-module blocks로 avionics를 構成시키게 되어:

- 높은 信賴性
- 低整備 所要

의 統合 avionics体系化하게 하는 것이 主

要適用 主眼点으로 推進되고 있다.

이에 따라 美空軍에서는 이미 "Pave Pillar 統合 avionics開發計劃"을 次期戰鬪機 基本設計 段階에 앞서서 本格的으로 開發 推進하고 있다.

從來의 戰鬪機 設計方式에서는 avionics에 對한 設計比重은 機體나 推進機閥設計 보다 낮아서, avionics設計는 이들 設計가 다 끝난 후 끼워 맞추는 式이 되어 完璧한 統合的 設計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事實이었다. 그 結果 72台 編成의 F-15機 1個 飛行團運用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6台分 以上の C-141B輸送機 荷物分의 avionics 部品 等の 支援裝備가 別途로 必要하는 實情 等 이 일어나고 있다.

### "Pave Pillar" 統合 Avionics 開發計劃

이는 從前까지는 個別的 機能을 갖던:

- 航 法
- 地形追從 및 回避

- 威脅 狀況의 探知, 識別 및 回避
- 目標 探知 및 追跡
- 武器發射
- 電子戰

등의 諸般 機能들을 統合作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統合的 avionics機能은 VH-SIC가 좀 더 低廉하면서도 高機能化함으로써, 可能하게 할 것인데, 이로써 統合 avionics化한 次期戰鬪機는 日日 出擊率이 現用一線機에 比하여 50%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 統合 avionics system은 VHSIC 의 共通 modules family를 써서 Blocks 方式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 Radar의 경우는

- Vector array Processor와 演算記憶의 共通 modules으로써 大部分 構成하게 되며

- radar 自体가 갖는 特有的 modules이라는 것은 1~2가지에 不過한 것이다.

- 共通 modules는 他 avionics 任務에도 共同 活用될 수 있기 때문에, Pave Pillar 開發計劃으로 登場하게 될 新技術의 統合 avionics system品은 損傷, 故障率이 輕減하게 될 것이다.

光纖維技術이 活用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databus는 現用 1553B multiplex digital databus보다도 高速, 高機能의 것으로 登場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databus로 連結하게 되도록 現在 開發中에 있는 common modules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超高信賴性 radar

- 發展된 戰場管理体系
- Integrated inertial reference assembly.

- 統合電子戰 体系

- 統合地形接近 / 修正 system (Integrated terrain access/retrieval/system)

- 操縱 / 推力 controls.

- 操縱席內 諸般 controls/displays 여기에는, color graphics와 Voice Command 등의 control도 包含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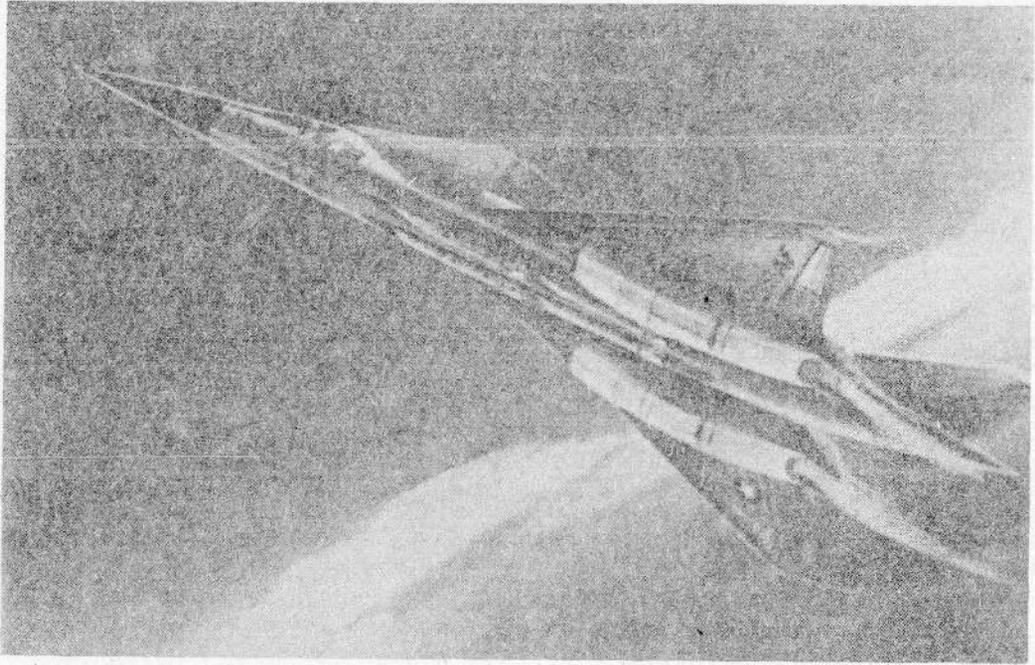
各 avionics裝備品들도 서로 共通 modules를 使用하게 되어, spares取扱도 크게 容易하게 된다. Built-in self-test 方式으로 開發되기 때문에 未熟練者들도 野外에서 故障品을 손 쉽게 交換할 수 있게 된다. 故障난 modules는 特別히 故障分析을 해야 할 必要가 있을 경우를 除外하고는 버리게 된다.

또한 modules을 bus에 그냥 插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Cable이나 connectors 등의 必要量이 90%나 輕減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avionics故障의 50%以上이 이들 cable이나 connectors原因으로 일어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의 F-16機에 이와 같은 Common modules를 適用하였을 경우, 全体 整備所要量에서 avionics分野가 占하는 整備所要를 40%에서 4%로 激減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써 :

- 整備要員이 減少되고

- 複雜한 試驗裝備를 갖춘 中間整備所가 不必要하게 되고



Boeing社의 ATF 提案品, 飛行任務 適應性 主翼(MAW)과 機體 密着武器 積載技術이 導入되고 있다.

● 巨大한 量의 Spare Parts量도 輕減하게 될 것이다.

現在 開發中인 “Pave Pillar統合 avionics 計劃”은, F-15, F-16機 等 一線 戰鬪機는 勿論, 海軍機, 그리고 陸軍의 新型 LHX輕 Hel機 等 広範圍하게 適用하게 될 것이다.

이 Pave Pillar Systems을 '87年中 F-16 機에 適用 試驗토록 開發이 推進中에 있는데, 이것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 適用機들의 運用費가 크게 節減될 것이다.

## 5. 새로운 Engine

美空軍의 現用 一線戰鬪機 Engine인 F100

은 무려 17年前에 設計된 것이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Engine開發計劃들이 推進되어 왔다:

- ATEGG(Advanced Technology Gas Generator)
- JTDE(Joint Technology Demonstrator Engine)

● APSI(Aircraft Propulsion System Integration) 等の 開發計劃 推進으로 새로운 engine 技術들을 習得하기에 이르렀다.

美空軍/海軍이 共同으로 推進中에 있는 JAFE(Joint Advanced Fighter Engine)開發計劃은 위와 같은 諸般 開發計劃 推進에서

얻어진 새로운 engine技術들을 活用시키는 開發計劃인 것이다. 이 共同開發計劃의 目標은 :

- 現用 F 100 engine보다 推力 / 重量比가 大幅 向上되고

- 信賴性和 耐久性은 犧牲됨이 없이 오히려 높이게 한다.

이와 같이 매우 嚴格한 作戰要求條件이 性能示範試作 engine 契約社인 General Electric과 Pratt & Whitney社에게 要求되고 있다. 이 engine開發이 成功하게 되면, 全 engine壽命期間中 維持運營費가 大幅 輕減하게 될 것이다.

兩契約社들은 지난 '83年 9月 各各 2億 300万弗의 開發費로 向後 50個月 期間으로 새로운 性能 示範 engine試作 契約을 推進하고 있다. 美空軍은 이 契約推進으로 現用 engine보다 大幅 改良化된 engine이 出現하게 될 것으로 큰 期待를 하고 있다.

### ● 美空軍의 새로운 engine에 對한 期待는 :

- 이 새로운 engine을 裝着한 ATF는 現用 F-15/F 100에 比하여, 50~100% range 增大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 非 A/B推力으로 超音速巡航 飛行과 空中戰이 可能하게 되며

-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 推力 / 重量比는 現用 F100 이 7.8 : 1인데 比해 10 : 1程度의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은 큰 剩餘 推力으로 加速時間 短縮은 勿論 上昇率이 約 30% 增大하게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 ● Stealth技術

低探知性, 即 Stealth技術의 強要로 새로 開發될 engine은 :

- 거의 完全 無煙性 engine이 될 것이며 또한

- 空氣吸入口와 排氣口는 radar나 赤外線 探知量을 極小化 시키도록 設計하게 될 것이다.

- 非 A/B超音速 巡航飛行과 二次元 推力指向 可能 노즐 等도 이 Stealth 技術의 觀點에서 높이 評價하게 될 것이다.

### ● STOL F-15와 ATF

Pratt & Whitney社에서는 2次元 vectoring nozzle engine을 裝着한 STOL F-15 機를 오는 '88年 初 飛行시킬 수 있도록 하는 開發契約을 推進中에 있다.

이 航空機는 A/B推力을 thrust vectoring 技術을 써서

- 短距離 離陸과

- 戰鬪機動力

을 크게 向上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 dry thrust를 送推進시켜 短距離 着陸을 可能시킬 것이다.

- 이 STOL F-15機는 ATF機와 같이 1,500×50Ft程度의 滑走路에서 作戰可能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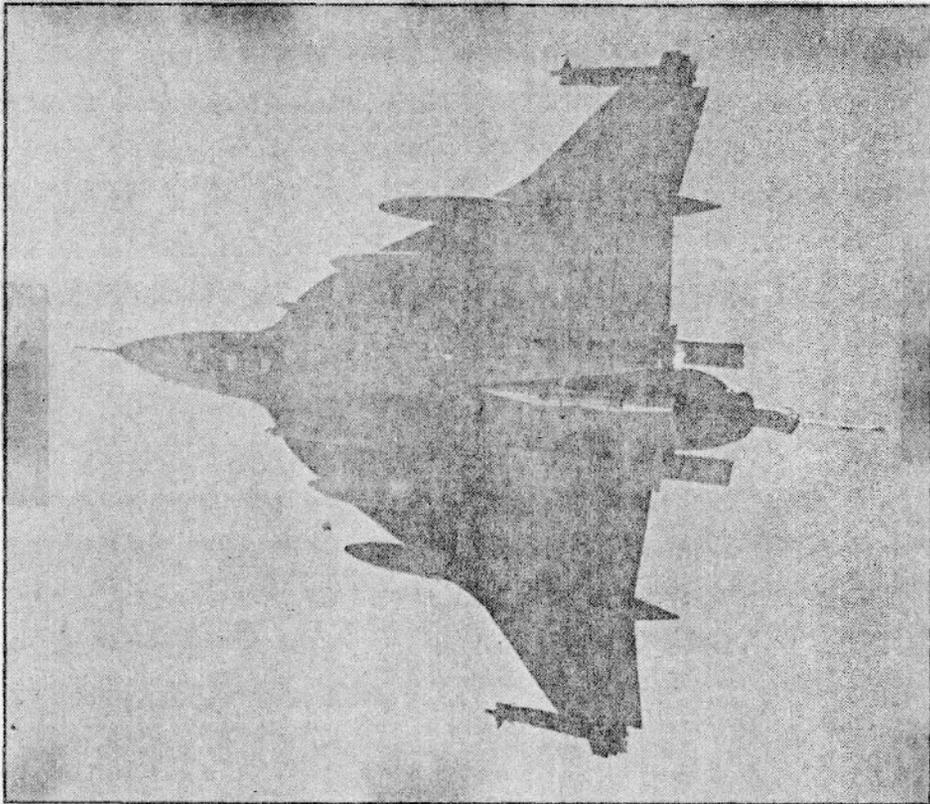
● JAFE engine概要

Joint Advanced Fighter Engine을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core压力比는 그리 높지 않는 中程度의 것이 될 것이며
- fan을 高压比
- turbine 入口程度를 높게 하여 超音速巡航飛行이 可能토록 높은 dry 推力을 發生케 할 것이다.
- 最大 dry推力을 28,000Lb程度로서 이는 現用 F100 engine의 倍의 値이며, bypass比는 0.3 또는 그 以下値가 될 것이다.
- Parts數 激減

JAFE engine의 Parts數는 現用 F100 engine에 比해, 約 60%가 적은 것이 될 것이다. 또한

- 高压 Compressor는 5~6段에 不過하며
- turbine은 1段
- Computer를 活用한 空力學的 設計로 chord幅이 從前것 보다 넓고 더욱 작은 數의 Compressor blades의 것이 될 것이다.
- 또한, engine의 信賴性이 크게 向上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單結晶材(single-crystal) blades, 粉末高加压 金属合金(Powder-metal alloy) 등의 새로운 技術로 engine製作을 可能하게



General Dynamics社가 開發中인 F-16 XL機

할 것이다.

- 故障間 稼働時間(Mean Time Between Failures : MTBF)도 現用것 보다, 4~5 배가 높은 400時間 程度 것이 될 것이다.

### ● JAFE 開發計劃

- 初度試驗은 1986年

- 約 860時間의 core 및 engine 試運転이 實施하게 되며

- 250時間의, 試驗은 加速飛行 任務用 Power試驗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typical mission profiles를 short cycles로 壓縮한 方式으로 實施하게 될 것이다.

- GE와 PW의 兩社中 1個社가 最終 選定되어, 10~15億弗 程度의 本格開發契約에 들어가게 되며, 開發 engine은 約 14,000 時間의 試運을 거치게 된다.

## 6. Digital Control

ATF의 flight control system은 어느 程度의 損傷을 입고도 機能飛行을 계속할 수 있는 所謂 "damage-tolerant"의 것이 될 것이며, 또한 높은 信賴性을 갖게 될 것이다.

- flight control, Propulsion 및 Weapon system들이 서로 統合的으로 運用하게 되어 많은 機能들이 自動化하게 되어 Pilot들의 Work-load를 크게 輕減해 주게 될 것이다.

- 美空軍은 이미 實用 및 技術示範開發計劃들을 통하여 4重 및 3重 余裕性(redundancy)을 갖는 analogue 및 digital fly-

by-wire control技術의 經驗蓄積을 해오고 있다. 美空軍에서는 最新 一線機로 就役하게 될 F-16C型機에 이 4重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을 採用하게 된다.

- 그러나, ATF1/F-16로 3重 digital flight control技術을 實驗해본 經驗에 따르면 3重것이 4重것 보다 故障間 稼働時間이 25% 더 긴 것이 立証되고 있다. 또한 3重쪽이, 自力修復機能(self-repairing) flight controls나 電子 驅動的 側面에서 볼 때도 有利하게 作用하고 있다.

- 自己修復機能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을 갖추게 되면, 戰場에서 損傷을 입거나 또는 actuator의 故障等으로 一部操舵機能이 喪失되었다 하더라도, 航空機自体나 Pilot를 잃어 버리는 災難을 막아 준다. 이와 같이 一部 flight control機能이 잃게 되며는 機能이 살아 있는 control surfaces로 하여금 自動的으로 機能인 補正 되도록 flight control system이 再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생각보다 그리 複雜한 것이 아니다. ATF의 경우는 canard나 또는 vectoring nozzle等を 具備하게 되면 flight control system上的 余裕性은 더욱 擴大하게 될 것이다.

- 美空軍의 推算에 따르면 지금의 戰鬥機들이 實際戰鬥에서 37mm對空砲를 맞게 되면 그 生存率은 10%以內가 될 것이나, 위에 self-repairing control system의 戰場損傷補正 措置로 그 生存性은 10배나 向上되어, 任務 拋棄率은 1%以內로 抑制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self-repairing flight control system을 system이 어떤 damage를 입었을 때, 殘存操縱能力에 對하여 pilot에게 自動적으로 알리게 된다. 이 경우 Pilot는 4段階의 生存措置를 取하게 된다:

(1) 最上의 경우는, 損傷을 입은 操縱機能 이 system內에서 自体修復되어 所定の 飛行任務를 계속 遂行하게 되는 경우이다.

(2) 다음으로는 飛行性能의 減退에 따라, 本來의 飛行任務 아닌 代替 mission을 遂行하게 되는 경우이다.

(3) 第2段階 飛行任務 遂行도 不可能한 狀態下에서는, 最寄 我軍基地에 歸還하여 生存性を 確保한다.

(4) 그것도 不可能한 狀態에서는 我軍 領空까지 最大限 強行 飛行하여 非常脱出하는 方法을 取한다.

- Pilot에 對한 警報裝置는 誤報發生을 嚴格히 制限하도록 마련된 人工情報(artificial intelligence)를 活用한 操縱裝置의 自己診斷體系와 連結되어 있다. 自己修復體系의 主目標은 flight control system의 信賴度를 增大시키려는데 있다. 同時에 整備間稼動時間을 增大시키려는 目的도 있다. 現用 一線戰鬪機의 flight control system의 故障間 平均稼動時間(MTBF)은 35~40 時間이다. 그러나 實際적으로 사소한 欠陥이 생길 경우도 flight control system의 完全化를 위하여 整備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實은 그 稼動時間이 10~20 時間에 不過한 實情에 있다.

- 이 Self-repairing system의 設置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flight control surface機能의 取扱을 software base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多重的 hardware方式으로 余裕性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flight control概念에 따르면 3重 system으로서도 從來의 4重 system의 余裕性에 比해 同等 또는 그 以上の 安全性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flight control system의 actuator의 動力源을 從來의 油壓方式에서 電氣式으로 轉換시킴으로써, 三重方式으로 할 수 있어 從來에 比해 故障에 對備한 余裕性을 갖게할 수 있다. 現用은 油壓과 電氣의 複合方式으로 되어 있어서, 兩方式 採擇에 따른 故障에 對備하기 위하여 actuators 構造가 매우 複雜하게 된다. 電氣式인 경우는 完全한 三重方式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余裕性을 갖게 됨과 同時 構造重量의 減少 및 信賴性을 增大시키는 利點을 가져 오게 된다.

## 7. 戰鬪自動化

ATF의 開發目標은 元來가 現 F-15機가 갖는 制空機能을 發展적으로 向上하여 交替하려는데 있는 것이나 美空軍에서는 이 ATF의 開發当初부터 空對地 戰鬪機能도 發揮할 수 있도록 開發하러 하고 있다.

따라서, 從來까지 手動式으로 이루어져 오던 戰鬪任務遂行方式이 大幅적으로 自動

化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特別히 한 名의 Pilot 만으로

- 空對空 戰鬪任務飛行時

同時多目標 處理의 可能은 勿論

- 高度의 敵電子戰 環境下에서도

夜間空對地 作戰任務遂行 等이 大幅 自動化遂行될 수 있도록 重點開發하게 될 것이다.

- 지난 '84年 末頃부터 實施하고 있는 AFTI/F-16의 第2段階(phase II) 試驗의 主課題는 戰鬪自動化的 評價이다.

- 이 AFTI/F-16試驗機가 裝備하고 있는 主要 戰鬪自動化 關聯體系品으로서는 :

● 三重의 余裕性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

- 円方向目標追跡(angular target tracking)의 正確性을 높일 수 있는 FLIR sensor.

- laser rangefinder

- 360° coverage가 可能할 radar altimeter.

- 發射直前に 撒布器內 munitions의 fuze를 自動적으로 目標物에 따라 交替possible한 system.

등의 system들이 搭載되어 自動化 試驗된다.

- 自動戰鬪化的 關鍵點은 지난번 IFFC F-15機를 通하여 成功裡에 試驗된 바 있는 操縱 및 火力統制의 統合運用(Integrated Flight and Fire Control system)이 된다. 그런데 이번 試驗하게 되는 AFTI/F-16機는 F-15에서 試驗된 것보다 더욱 發展된

것으로써 :

- 目標機와의 接戰,

- 武器發射,

- 離脫機動

등이 完全 自動化된다.

- 한편, 空對地 作戰任務遂行에 있어, AFTI/F-16機의 自動機動攻擊體系(Automatic Maneuver Attack System : AMAS)는 :

- 飛行經路와 姿勢의 調整

- 攻擊誘導

등의 自動化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Pilot는 :

- 目標探知, 識別 및 攻擊計劃 樹立

- 威脅 回避機動

등에 專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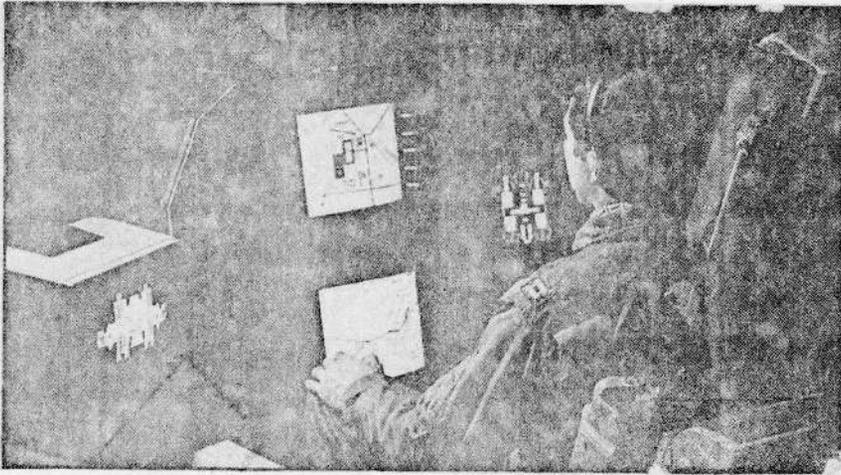
- 맨 처음 radar가 探索한 地上目標物을 FLIR가 이를 捕捉하게 되며, 이와 同軸作用을 하는 laser裝置가 正確한 目標位置를 把握하여 이 資料를 慣性航法體系에 入力시키게 된다.

- 既計劃 外의 目標物은 helmet에 裝置된 照準裝置를 써서 手動的으로 捕捉하여 이를 FLIR와 laser off boresight에 指向시키게 된다.

- 일단 目標의 正確한 位置資料가 慣性航法體系에 入力시키게 되면 攻擊機는 自身을 감추면서 은밀히 目標에 接近, 目標를 再確認할 때까지 最大限 地形地物을 活用하면서 目標物에 다가선다. laser裝備는 계속적으로 目標의 距離 測定을 하여 AMAS가 自動的인 fuze setting과 武器發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AMAS를 活用하면 機



AFTI/F-16機 試驗飛行 過程中서 computer가 作圖한 digital map이다. 이 그림에서 道路網 등이 잘 나타나 있다.



特異한 單座戰鬪機 座席內 모습이다. 여기에,  
• graphic displays  
• programmable keyboards  
• voice command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動中에도 正確한 武器發射가 可能할 뿐만 아니라 水平, 降下飛行 및 loft-turn時 等에도 正確한 爆彈投下가 可能하게 된다.

- 空對空 任務 飛行時, IFFC AFTI/F-16機는 自動 또는 半自動的으로 目標機와의 高速交叉率(high crossing rates)로의 交戰을 可能하게 한다. radar 또는 helmet 裝置 照準機로 目標機가 捕捉되면 이를 FLIR 體系로 移管시켜 flight control system으로 하여금 機関砲가 目標物에 正對할 수 있어 操縱誤差 修正을 하도록 指令을 내린다.

- 美空軍에서는 AFTI/F-16試驗計劃 以後에도 攻擊機들이 統合, 自動的으로 地形 追從/回遊 및 威脅環境 回遊할 수 있는 技術 開發 및 試驗을 계속하여 나갈 計劃으로 있다. 이에 따르면, 垂直的인 地形追從과 橫的인 地形 回遊 機動이 同時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와 同時에 威脅 回遊機動이 能動 및 受動的인 對抗策에서 破壞抑壓에 이르기까지 選別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機動行爲를 위해서는 radar, FLIR 및 威脅 警報受信裝置를 비롯하여 digital方式의 三次元 位置地圖 資料들이 서로 有機的으로 連繫作用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高度의 精密機動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 8. 操縱席內的 目標資料作圖

ATF는 1名의 Pilot로 操縱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Pilot는 從來의 "System operator" 概念에서

"system manager" 概念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system manager의 管理手法은 오로지 여러 가지의 controls와 displays外는 없다. 오늘날 cockpit에 導入 可能한 여러가지 開發技術中, 그 適用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서는:

- color graphic display formats로써
- keyboard로 再 program이 可能하고,
- one-touch方式이 銳敏하고, 音聲指令으로 作動되는 switch方式이 지금 適用 檢討되고 있다.

- 美空軍이 지금 推進中에 있는 作圖 및 相互作用通信業務의 마이크로컴퓨터適用 技術開發計劃(Microcomputer Applications of Graphic and Interaction Communications : MAGIC)에서는

- 垂直 및 水平 그리고 戰術 作戰 狀況 展示(vertical, horijontal, tactical situation displays)

用으로 컴퓨터作成의 그림圖形(pictorial formats)方式의 活用을 檢討中에 있다. 이 開發計劃에서는 또한:

- 敵情資料의 貯藏管理
- engine 및 諸般 systems의 status displays
- displays를 통한 通信方式
- 銳敏, 再 program可能한 keyboards
- display screens
- 音聲指令에 依한 操作

等の 諸般研究項目들이 開發檢討되고 있다. 또한 이 MAGIC計劃은 單座 cockpit適用을 原則으로 開發되고 있다.

- MAGIC概念으로 操縱席을 꾸미게 되면:

- 지금까지의 side consoles (cockpit兩側에 配置된 計器類盤)는 모조리 除去되고 이들의 機能은 cockpit前方에 設置될 displays上에 展示하게 될 것이다.

- 現用一線戰鬪機 cockpit內에 設置되어 있는 90%의 dials나 controls 들이 制限된 數의 原色 陰極線管(color cathode-ray tube) 또는 平面液晶 展示盤(flat-screen liquid-crystal displays)로 代替하게 될 것이다.

- 위에서 言及된 새로운 모습의 cockpit 設計모습은 우선 AFTI/F-16試驗機에서 그 선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 航空機에서는 各 systems의 機能遂行別 매우 精巧하게 設計된 head-up/head-down display formats 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AFTI/F-16機에서는 또한 音聲指令 操作 system의 機能試驗도 받게 된다. 이번에 適用試驗될 項目들은 飛行任務遂行上 決定的 影響을 미치지 않는 事項들로써 例를 들어서:

- 通信連結

- 航 法

- 資料貯藏管理

等이 될 것이다.

- 合成音聲技法을 活用한 pilot 에 對한 音聲警報(voice warning)는 pilot 가 cockpit 밖을 내다보고 있어 cockpit內 計器類를 볼 수 없을 때 座席內 異狀狀況을 警報한다.

- 音聲指令 操作 機能은:

- head-up display monitoring이나

- 日常的인 cockpit機能의 controls 等을 모두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되고 있다.

- AFTI/F-16第1段階 性能試驗에서는, 每 任務飛行當 該當音聲指令을 36個 言語를 収録하여 試驗하게 된다. 試驗飛行余件은 最大 5g까지의 持續旋回狀況下에서 音聲指令의 信賴度 여하를 試驗받게 된다.

- 한편, '85年 7~8月 사이로 計劃되어 있는 第2段階 試驗飛行時는 戰鬪作戰 關聯 音聲指令 性能을 試驗評價받게 될 것이다.

뜻 모 아 86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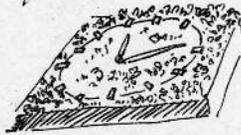
힘 모 아 88 성공

海外  
委託教育  
留學記

# 英國 空軍參謀大學

中 將 李 鎬 一

〈공군대학 교수 3 처〉



## 目 次

1. 序 論
2. 沿 革
3. 編成 및 教育過程
4. 空軍參謀大學 高級過程
5. 海軍參謀大學
6. 陸軍參謀大學
7. 結 論

## 1. 序 論

英國空軍參謀大學은 「살몬드」(Sir John

M. Salmond)에 의하여 1922년 「안드오버」(Andover)에서 創設되었으나 실제적인 英國空軍의 參謀教育의 必要性을 느끼고 英國政府나 國防省에 空軍參謀大學의 設立을 建議한 사람은, 「미첼」(W. Mitchell), 「듀헤」(G. Douhet)와 함께 航空力 創始의 三巨頭中的 한사람인 「트렌차드」경(Sir. Hugh M. Trenchard)였다. 「트렌차드」는 英國空軍의 創始者이며 英國空軍을 發展시킨 人物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는 陸軍將校로 1892年 임관을 하였으나 「미첼」처럼 自費로 操縱術을 배운 후, 陸軍航空隊로 편입하였다. 1914年 8月, 英國이 第一次世界 大戰에 參戰할 당시의 航空戰力은 아직 幼年期에 불

과했었다. 航空機는 偵察과 連絡任務 등에 만 使用되어 지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事實을 안 「트렌차드」는 보다 積極的 攻勢政策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초의 空中戰과 敵 地上軍 目標物에 대한 攻撃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1917년에는 美國으로부터 聘請된 「미첼」소령을 만나, 그와 함께 근무하면서, 미래의 航空思想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특히 「미첼」의 航空戰略思想은 「트렌차드」의 獨일에 대한 戰略爆擊概念은 陸軍과 海軍의 航空隊를 統合시켜 空軍省과 英國空軍을 創設시켜 주게 되는 重要한 結果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차드」의 航空思想으로 創設된 英國空軍은 第一次大戰 후 陸軍省과 海軍省의 批判과 論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第二次大戰 당시의 Battle of Britain에서의 勝利를 括目할 만한 것이었다. 그후 「트렌차드」의 後裔들은 英國空軍을 世界의 最高수준의 空軍으로 維持하여 왔으며, '50年代까지만 하여도 그 基礎가 되는 航空工業力도 世界를 主導하는 英國의 代表産業이라고 自他가 共認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年代 이후 거듭되는 經濟不況으로 國防組織의 縮小 再編成이 있자, 空軍 자체가 縮小되면서 英國유일의 戰略核攻擊軍이었던 V-Bomber도 海軍의 Polaris 잠수함대로 戰略核攻擊力을 넘겨주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空軍指揮部와 英國航空産業系가 지속적인 努力을 한 結果, Tornado 航空機를 生産配置함으로써 大英帝國空軍의 면모를 다시 갖추어 가고 있다.

더구나 英國空軍의 指揮官들은 現代에 있어서 나날이 發展되어 가는 武器體系에 適應하기 위해서, 이를 運用해야 할 中堅幹部의 教育은 軍 發展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고 認識하고, 지금도 「트렌차드」의 航空思想부터 現代의 宇宙武器體系의 適用에 이르기까지 잠시 날개를 접고 앉아 읽고, 생각하고, 쓰고 討論하는 課程의 參謀教育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筆者가 1년간 수학했던 英國空軍參謀大學의 教育制度를 紹介하고, 아울러 英國의 海軍과 陸軍參謀大學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紹介하고자 한다.

## 2. 沿 車

英國空軍參謀大學은 대략 London에서 서쪽으로 25mile 떨어진 Berkshire주 Bracknell이라는 소도시에 位置해 있으며, 주변에는 Windsor Castle과 英國 陸軍士官學校인 Sandhurst가 있고, Oxford大學이 근교에 있다. Bracknell은 人口 5만 정도의 조그만 도시로서 2次大戰을 전후하여서는 軍關係로 거주하는 人員이 전부였으나 現在는 British Aerospace, 3M 등의 대기업을 들어서면서 工業도시로 工業단지가 造成되어 發展을 이루어 가고 있다.

현재 Bracknell에 位置한 參謀大學은 1922年 Andover에서 創設되어 5명의 教官과 20名の 學生으로 出發하여 1年課程으로 運營되었으나, 2次大戰의 발발에 따라 3個月課程으로 줄여 運營하던 중, Andover 基地의 特性상 독일空軍에게 노출되어 폭격의

위험성이 커지자, 당시 英國第二戰術空軍司令部이던 현재의 Bracknell로 이동되었으며 1945年 戰爭이 끝나자 10個月 課程으로 정상 환원되었다. 1947년에는 英國과 英聯邦 國家의 參謀教育의 必要性에 의거 Andover 와 Bracknell에 2개의 參謀大學을 運營하여, Andover에서는 일부 英國空軍將校와 英聯邦 및 아랍제국의 學生들을 수용하고 Bracknell에서는 英國將校들 만으로 구성 運營하였으나 전후 國防予算의 삭감으로 인하여 2개의 空軍參謀大學이 1970年 Bracknell에 統攝되었으며 지금까지 高級課程만 76個 차수를 배출하였다.

### 3. 編成 및 教育課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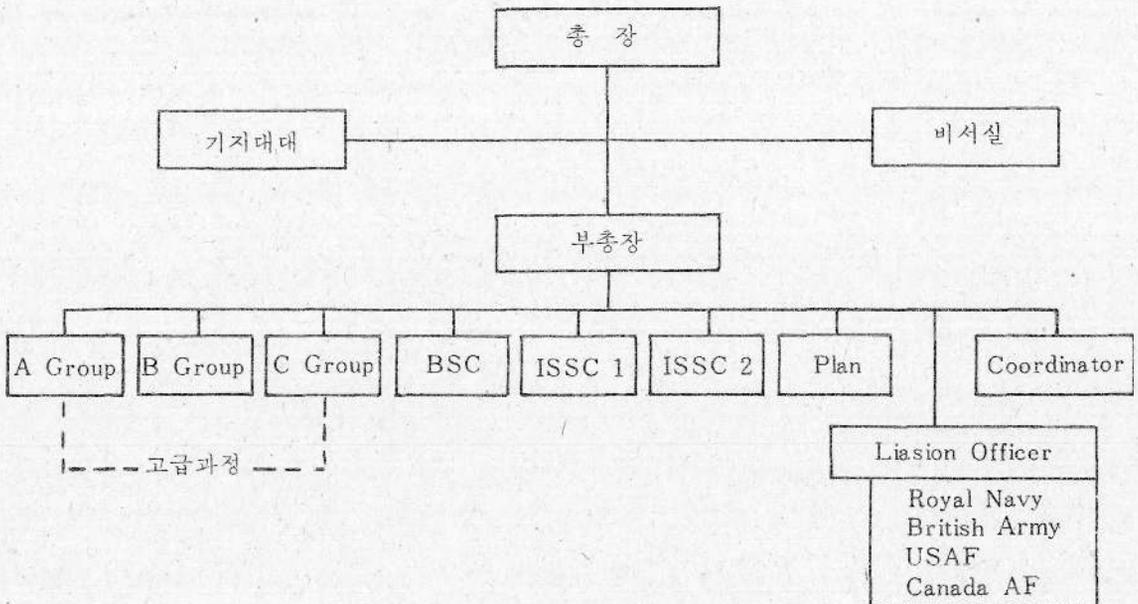
英國空軍參謀大學은 2星將軍이 總長으로 英國空軍 全體의 指揮參謀教育에 對한 책임

을 지며, 英國空軍의 教育 軍需資源管理를 담당하는 空軍支援司令部(RAF Support Command) 산하의 教育담당 부사령관의 指示를 받는다.

英空大의 教育관계는 1星將軍인 부총장의 責任하에 個人通信課程(ISSC : Individual Staff Studies Course), 初級參謀課程(BSC : Basic Staff Course), 高級參謀課程(ASC : Advanced Staff Course)의 3個 課程을 運營한다. 人事行政관계는 학교비서실 (College Secretary)에서 關望하고, 기타 후방지원은 基地支援大隊長(Station Commander). 산하의 각 中隊에서 담당하게 된다. (편성표 참조).

教育課程은 앞에서 언급한 3個의 課程을 中心으로 運營되나 그외에 初級指揮課程(JOCC : Junior Officer Commanding Course)

英國空軍 參謀大學 編成



으로서 將校로 임관과 동시에 비겐힐(Viggen Hill : 장교후보생교육대)이나 크란웰(RA F Cranwell : 英國空軍士官學校)에서 받게 되는데 全將校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初級指揮課程의 教育目標은 初級指揮 업무에 능통 할 수 있도록 專門知識을 涵養하고 指揮能力을 啓發하는데 두고 있다. 教育科目은 Command Environment, Theory of Command, Application of Command, Management Tools, Administration에 對하여 실시하며 그중 Application of Command가 40%로서 重點的으로 教育을 받게 된다.

個人通信講座課程(ISSC : Individual Staff Studies Course)는 우리의 現行 ECI와 비슷하나 2년 동안 실시하며 國외파견자를 포함하여 연간 900名 정도를 教育시킨다. 教育目標은 초임소령급 將校들로 하여금 參謀 업무 절차를 啓發시키고, 英空軍의 統一된 文書作成能力 및 문제해결능력을 부여함에 있다. 學習科目은 Written Communication,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NATO and UK Defence Policy, Employment of Airpower, Britain's role in the modern world이며 個人學習은 주당 4~6시간을 個人的으로 計劃하도록 하여 年40週 學習하도록 하고 있다.

初級參謀課程(BSC : Basic Staff Course)은 통신과정을 끝낸 少領급 將校들이 入課하여 1個月간 教育을 받으며 年間 8個차수를 運營하며, 차수당 人員은 24名으로 教育目標은 계급에 적합한 指揮參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教育科目은 Communication, Project Control, Computer Application, Cost Accounting, Organisation Principle이나, Verbal/Written Communication이 全體의 70% 정도를 차지해 文書나 口頭의 意思傳達 위주로 進行된다.

이러한 일련의 課程이 끝난 將校들은 英國空軍의 最高의 教育인 高級參謀課程에 入課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高級參謀課程에 對해서는 다음 章에서 자세하게 說明하고자 한다.

#### 4. 空軍參謀大學 高級課程

高級課程의 教育目標은 선발된 將校들로 하여금 그들의 現階級에서 指揮 및 參謀補職에 適合하고 나아가서는 장차 上位補職에 대비할 수 있게끔 軍의 高等教育을 실시함에 있다. 高級課程의 入課者 선발은 英國空軍의 人力管理所(PMC : Personnel Management Center)에서 將校로서의 소양과 그동안의 業務遂行能力, 個人通信講座課程이나 初級課程의 成績을 고려해서 上位補職이 가능한 우수한 將校만 서열순으로 추천해서 入課를 시킨다. 그러므로 일단 高級課程을 수료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英國學生將校들은 일선부대의 大隊長이나 國防省, 空軍省의 參謀부서로 보임을 받게 된다.

高級參謀課程은 예비과정과 44週의 本課程으로 구분되는데, 모국어가 英語가 아닌 學生은 8週간의 Preperary Term에서 축소된 ISSC課程의 內容을 분임장 주관하에

공부하고, 英國空軍이 아닌 英國의 陸·海軍將校나 英聯邦國家 또는 英語권의 학생들은 Pre Study Period라고 해서 2週間 英國空軍에 對한 內容의 教育을 받아, 本課程에 入課할 英國將校들과 비슷한 지식수준에 맞추어, 本課程에 入課시킨다. 本課程은 3個의 学期로 구분되며, 8部로 나뉘어져 공부하게 된다. 入課者는 每年 91名으로 이중 높은 外國學生들이 차지하고 있고 3個

의 Group, 13個의 分임으로 나뉘어져 있다. 참고적으로 1985年에 入課한 77차 高級課程 學生은 英國空軍이 55名, 海軍 및 陸軍이 각 3名, 國防公務員 2名과 나머지 28名의 外國學生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8個의 部로 나뉘어져 있는 教科課程은 個人指導 教授制度에 의한 發表와 討論, 각종 講義와 現地視察 그리고 學生들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 部別 時間配定

	Lecture	Visit	Exercise				계
			Written	Spoken	Tutorial	Reading	
Oral/Written Com.	3.0		50.5	27.5	21.0	9.0	111.0
Problem Solving	8.5		2.0	0.5	8.5	10.5	30.0
Leadership/management	10.5	13.0		10.0	2.0	4.5	40.0
Air Power	79.5	42.0	85.0	30.5	37.5	90.5	365.0
UK Defence Policy	32.5		0.5	7.0		21.5	61.5
NATO	21.0	52.5	5.5	6.0	61.0	1.5	146.5
Joint Service	72.0	13.0	7.5	56.0	9.5	6.0	164.0
Geo/Political Studies	10.5			12.0		16.5	39.0
계	237.5	120.5	151.0	148.5	139.5	160.0	957.0

#### 가. 意思傳達(Oral/Written Communication)

1部는 意思傳達에 對한 內容으로 參謀로서의 文書 및 口頭로 效果적인 意思傳達能力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고서나 文書를 作成하고, 작성문서를 가지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수정을 해

보는 연습과, 3회의 演說을 통해서 演說文의 조직과, 傳達能力, 연단태도에 對해서 담당분임장이 일일이 指摘, 修正해 주어 學生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 또 이 期間을 통해서 速讀法을 배우고 標準化된 文書나 參謀建議書 作成能力을 쌓아가게 된다. 1部에서의 課題賦與연습은 복잡한 問題가 없는 基地建設공사 問題와 作戰基地選定 問題를

학생에게 주어 指揮官에게 간단명료하게 要約보고하는 연습을 하여 指揮官으로 하여금 問題를 認識하고 解決할 수 있도록 助言하는 參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실제연습을 함으로써 장차 上位部署의 參謀로서의 能力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 준다. 이러한 口頭나 文書의 意思傳達연습은 全課程을 통하여 거의 매일 수행된다. 各部別로 科目은 틀리지만 매일 問題를 解決하고, 쓰고 이야기하는 課程의 連続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인지 高級參謀 課程의 필수선행조건인 ISS C課程에서는 쓰는 것이 강조되고 초급과정인 BSC에서는 말하는 것 위주로 進行된다.

#### 나. 問題解決(Problem Solving)

2部는 問題解決의 方法에 對한 教育으로 主로 Computer 教育 위주로 進行된다. 參謀로서의 建議는 体系的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골치아픈 知的活動으로부터 해방되어 意思決定 支援을 위해 Computer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空軍의 業務가 단순한 수치 이외의 복잡한 자료처리를 必要로 하며 더구나 現代戰은 빠르고 효과적인 意思決定을 요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戰爭은 새롭고 가공할만한 武器體系와 상호전력의 우열관계 등은 作戰상의 重大問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機動性的의 增大로 作戰參謀나 指揮官은 짧은 시간에 意思決定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處理를 해야 하고 실제로 軍에 導入되어 있는 Com-

puter에 對해서 알아야 하고 또 이를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戰爭에서의 勝敗가 決定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다. 指揮管理(Leadership and management)

3部는 Leadership과 Management에 對한 研究로서 장차 空軍將校로서의 各種 資源을 活用하여 問題를 解決하고 應用할 수 있도록 學生들에게 指揮管理이론이나 適用分野에 對해서 충분한 知識을 부여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이 期間에는 Trade Union이나 British Industry의 Manager들이 와서 講義를 하고 英國空軍의 人력관리센터를 방문하여 人력관리절차를 이해하게 되고 British Industry를 방문하여 民間組織과 軍組織과의 指揮管理의 차이점을 배운다. 이러한 訪問이 끝나면 英國의 各種 企業의 Manager들을 100여명 參謀大學에 초대하여 分任당 4~5名씩 分任討議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勞使간의 問題가 많은 英國으로는 經營者集團의 Management와 勞働者集團의 Leadership이 重要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러한 제반문제에 對한 解決策을 相互 助言하면서 討論을 展開해 나간다.

#### 라. 空軍力 運用 (Principle of Airpower and Role of the RAF)

4部는 Air Power에 對한 內容으로 全体 參謀大學 教育의 1/3 이상인 365시간으로 80여 시간의 講義 90여 시간의 個人研究 및 130여 시간의 제반 空軍力問題에 對한 個

人이나 集團研究發表 등이 포함되며, 4 部 期間 동안 駐英·美空軍基地見學 Strike Command, British Aerospace社 등 見學이 라기 보다는 해당 司令部나 航空産業에 關 連된 部署를 訪問하여 空軍力 再構成에 大 한 問題點을 相互討議하는 것이 主目的으로 見學 전에 充분한 知識을 個人研究시간을 통하여 習得하고 많은 질문거리를 준비하여 가지고 간다. 그리고 研究發表는 소련의 作 戰將校의 立場에서 英國本土攻擊計劃을 수 립함으로써 英國本土의 防空의 問題點을 도 출하며 作戰支援問題로서는 1984년 실제로 英國 자체에서 유럽지역에서의 전면전 발발 시에 대비하여 실시했던 軍需支援作戰이었던 Exercise-Lionheart 機動訓練 結果를 가 지고 16명 정도로 구성된 集團이 細部作戰 에 따른 制限 問題點을 檢討하여 發表를 하 게 되는데 發表시에는 英國國防省의 軍需담당자들이 와서 敬청을 하고 학생들이 導出 한 問題點 및 解決方案을 가지고 함께 討 議를 하게 된다.

#### 마. 國防政策 (Defence Policies)

5 部는 英國의 國防政策에 關한 內容을 研究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講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國防長官을 비롯한 軍의 權威者 들과 國防에 연관된 外交 政治 및 經濟의 專門家들이 와서 講義를 하게 된다. 또한 NATO 國家의 外交官들이나 武官이 와서 自 國의 外交와 國防政策에 關해서 紹介한다. 이러한 講義를 바탕으로 해서 英國의 防衛 白書(Statement on the Defence Estimate)

를 검토하고 三軍의 政策 國防購買 武器販 賣 등에 대해서 각 分任별로 研究發表를 하 게 된다. 한개의 Group이 4 개의 分任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分任別로 다른 主題를 갖고 全体 Group에서 討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TC(Long Term Costings) 에 대한 分任研究를 한다. 現在의 戰力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20年間의 予算이 配定되면 配定된 予算을 가지고 2005년까지의 公軍장 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現在의 적의 위협 및 아공군의 취약點을 分析하고 앞으 로의 적의 武器體系 發展추세에 따라 空軍 의 予算을 再分配하여 전력규모를 設定하는 計劃으로서 2個月 정도 걸리는 大規模 綜 合練習이다.

#### 바. NATO 研究(NATO and The UK)

6 部는 NATO에 대해서 146시간 정도 研 究하게 되며 期間中 花란과 독일의 空軍基 地를 訪問하여 現地에서 직접 보고 의문事 項에 대해서는 相互討論을 한다. 講義는 프 랑스, 花란, 독일, 이태리와 스페인의 參謀 大學長이 와서 그들의 觀點에서의 NATO 동맹체제에 關해 講義를 하고 美國의 空軍 參謀大學과 캐나다의 空軍參謀大學의 일부 教官 및 學生들이 英國空軍參謀大學을 訪問 해 1週가량 함께 生活을 하면서 NATO 에 關한 討議를 하게 된다. 討議期間이 끝나면 Theater Warfare Exercise라고 하여 일주 일간 學生들은 淸·홍군으로 나뉘어 現在의 Central Europe의 NATO와 Warsaw Pact 의 戰力을 갖고 Computer War Game을 실

시하게 된다. 제각기의 經歷에 의거 戰爭計劃을 하고 實際로 運用을 함으로써 NATO 空軍力의 強点이나 弱点이 導出되고 軍需支援上의 問題點을 이해하게 된다. 매년 가장 큰 問題點으로 대두되는 것이 作戰으로는 NATO 空軍基地의 生存性問題가 대두되고 있어 NATO 空軍基地의 分산 및 展開基地 運用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고 軍需支援에 있어서는 신속성 있는 전술전투지원대의 支援이 導出되고 있다. 이러한 전술전투지원대의 概念은 전진기지에 보급은 무장 헬기와 공정전투요원을 동반하여 헬기로 신속히 보급을 한다는 概念으로 支援의 機動性이 要求된다는 것이다. 또한 NATO의 概念이 방어위주에서 긴장고조시에는 先制攻擊의 概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決論이 導出되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억지수단에 의거한 政治的인 問題로 종결되고 만다.

### 사. 3軍合同作戰(Royal Navy, Royal Marine, Army and Joint Activities)

7部는 全体課程의 18% 정도를 차지하며 4部의 空軍力 運用 다음으로 강조해서 教育을 하는 部分으로 英國의 여건이 海洋國이라는 地理的인 여건 때문에 모든 作戰은 海陸空의 三軍合同作戰으로 이루어 진다. 英國은 전국이래 몇 차례의 危機를 맞았지만 최근의 포클랜드전쟁을 비롯하여 海軍의 善戰에 의하여 극복한 적이 많았다. 이 期間 동안에는 三軍의 參謀大學이 함께 모여 合同으로 실시하는 行事가 많다. 海軍의 날인

Sea day에는 海軍의 Portsmouth基地에서 三軍의 參謀大學生들이 海軍의 각종 기함을 타고 대잠전 空海合同作戰 화력시범 등을 보게 되며 陸軍基地見學은 독일주둔 영국육군(BAOR: British Army of The Rhine) 기지를 訪問한다. 이때는 英國의 三軍參謀大學生 全体가 함께 4일동안 生活하여 독일기갑사단과 英國陸軍의 화력시범 및 機動訓練을 觀望한다. 이러한 訪問이 끝나면 다시 全參謀大學生이 陸軍參謀大學에 함께 모여 合同作戰에 대하여 分任研究發表 위주로 세미나를 하게 되며 NATO 남부지역에서의 가상우발상태를 가정하여 三軍合同機動隊를 編成하여 美國의 支援軍이 올 때까지의 展開作戰計劃을 수립하는데 지휘통제부터 부대이동 후방지원 교전규칙까지 細分하여 分任員 모두에게 課題를 주어 綜合作戰計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戰爭中에는 陸海空軍의 相互協助없이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그 주안點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三軍參謀大學의 合同分任討議는 課程中 2회 정도 이루어 지는데 연사들은 NATO 총사령관 NATO북부/남부사령관 英國의 國防長官과 英國 제 2정당의 국방위원장 등 실무의 最高權威者들이 講義를 하게 된다.

### 아. 地政學·經濟研究(Geo-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8部는 地政學 및 經濟에 관한 研究로서 全課程期間을 통하여 실시하는데 그때 그때 일어나는 時事性있는 問題를 놓고 한학생이

의장이 되어 分任이나 必要에 따라 時事性이 큰 것으로 戰爭研究의 對象이 되는 것은 集團으로 討議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PLO의 테러에 대한 것이라든가 미·소간의 軍縮會談 核問題에 관해 討議를 하는데 集團으로 할 경우에는 論争(Debate)이라고 하여 論題에 처한 贊成論者, 反對論者의 2個 集團으로 分類하여 贊成이나 反對하는 이유를 組織的이고 論理的으로 發表하도록 하여 相対를 說得시킬 수 있는 실득식 연설을 전원 모두에게 시켜 장차 큰 國防問題에 있어서 자신의 主張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貫徹시킬 수 있는 意思傳達能力을 부여한다. 이러한 討論을 통하여 外國將校들은 英國人의 意識構造를 익게되고 義務에 처한 말없는 履行이나 自由 속에서의 規律을 이해하게 된다.

## 5. 海軍參謀大學

英國海軍參謀大學은 戰艦이 바람에서 동력으로 목조선에서 철선으로 바뀐 1873년 London 동쪽에 위치한 Greenwich Palace에서 創設되었으며 英國人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Painted Hall of Greenwich"라는 參謀大學의 將校食堂을 갖고 있다. Painted Hall은 17세기 초 WREN에 의거 設計되고 John Fothergill 경에 의하여 Paint된 것으로서 지금도 參謀大學 學生의 食事時間을 제외하고는 一般觀光客에게 開放되고 있으며 부근에는 海洋博物館 Greenwich天文台가 있어 英國人들에게는 海軍參謀大學이라기 보다는 觀光명소로 더 잘 알

려져 있는 편이다. 海軍參謀大學은 陸軍이나 空軍과 달리 1년에 1月과 6月 2個 차수가 入課하며 2개학기로 구분된 27週를 運營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수당 60名으로 構成되며 15~20名이 外國將校와 英聯邦 學生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課程에 入課하기 전 英國의 海軍學生을 제외하고는 직접 英國海軍의 作戰艦을 타고 2週 동안 海軍基地 見學 및 海上生活에 대한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外國學生들도 英國海軍에 처한 경험을 위하여 일주일가량 作戰艦을 타도록 教科課程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本課程에 入課하기 전 모든 外國將校나 타 軍장교들은 英國海軍에 처한 모든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얻도록 하여 英國海軍將校와 同等한 知識을 갖도록 하여 入課시키고 있다. 本課程에 入課하자마자 첫 4주간은 個人學習으로 學校에 출근하지 않고 通信講義로 1일 8시간의 個人學習을 하고 나머지 23週는 중간의 10일 동안 휴가를 제외하고 2個의 학기로 구분 運營되고 있다.

학교관사는 모든 學生들에게 入住기회가 주어지나 教科課程 자체가 英國海軍의 特性上 빈번한 이사를 줄여주고 자녀교육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월요일 12:00에 시작하여 금요일 12:00시에 강의가 끝나 주말은 3박 4일 정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外國學生이나 海外基地에 근무했던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주말통근을 이용하고 있어 英國海軍의 參謀教育의 重要性 認識과 함께 海軍자녀들의 教育問題나 이사문제 등 海軍가족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등 英國

海軍의 세심한 고려를 엿볼 수 있다.

教科課程은 英國의 陸軍이나 空軍參謀大學과 비슷하나 期間이 다른 參謀大學에 비해 2~3個月 짧은 관계로 인해 타참모대학에 비해 더많은 課題가 부여된다. 특히 모든 學生들은 個人이나 分任별로 Task Force Deployment, Future Naval Technologies, Navy Long Term Costings 와 NATO에 대해 研究發表를 하며 대잠전 海上防空作戰이나 STUFT(Ship Taken Up From Trade) 등에 대해 새로운 概念適用練習을 한다. 海軍參謀大學의 見學 및 訪問은 Industry, Media, EEC와 SHAPE 本部 BAOR(British Army of Rhine) 화력시범참관 등으로 독일, 벨기에, 화란 등을 訪問한다.

個人對外活動이나 社交活動도 參謀大學의 重要한 部分으로 講演者-주로 對外部署의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政策立案者나 學界의 權威者-들과의 접심이나 저녁식사 正裝을 하고 高유예식에 의거하여 3~4 시간 정도 進行되는 晚餐인 Dining-in Night, Ladies Guest Night, Annual Tri-Service Dinner 등으로 社會의 名사들과 접촉시킴으로써 將校 指揮官이나 參謀로서 갖추어야 할 英國의 傳統的 騎士道를 涵養하는 訓練을 한다. 특히 마지막 날은 First Sea Lord의 강연으로 參謀大學을 修了하며 大部分의 學生들은 國防省이나 海軍省의 參謀部署로 가거나 一部는 바다로 돌아가 本然의 任務를 하게 된다.

## 6. 陸軍參謀大學

英國의 陸軍參謀大學은 1801년 創設되어 現在는 London에서 서쪽으로 30mile 정도 떨어진 陸軍士官學校인 Sandhurst 內에 位置하고 있다. 陸軍參謀大學의 象徴은 올빼미가 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올빼미는 智慧의 女神인 Minerva를 象徴하고 칼은 戰爭의 神인 Mars를 象徴하는 것으로서 學校의 Motto는 Tam Marte Quam Minerva (As much by Mars As by Minerva)로서 參謀大學에서 일정期間 동안 戰爭의 智慧를 배우고 연마하여 실제 戰爭에 適用하여 승리를 한다는 意味로써 將校 勝利를 위한 準備를 한다는 것이다.

教育課程은 Junior Command and Staff Course와 Army Staff Course의 2가지로 区分, 運營되고 있어 Junior Command and Staff Course는 26세에서 29세의 將校로서 初급대위들이 入課하여 Formation Commander로서의 資質과 參謀業務를 배우고 The Army Staff Course는 31에서 33세의 대위나 소령이 入課하며 全入課 대상자의 40%만 선발 입과시켜 參謀教育을 실시한다. The Army Staff Course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高級參謀課程으로 每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1年 課程으로 차수당 180名으로 構成되며 50名의 外國學生 및 他軍學生으로 國防公務員도 포함된다. 高級課程에 入課하게 되는 英國陸軍將校들은 先行條件으로 中부지방에 位置한 Shrivenham에 있는 Royal Military College of Science에 1年 정도 入課하여 Military Technology에 대한 基本教育을 받고 高級課程에 入課하게

된다. Royal Military College of Science 에서의 教育은 士官學校에서의 專攻科目이나 學位에 의거하여 3個 集團으로 나뉘어 運營하며 기타 要求에 의거하여 몇명 정도는 RMCS에 入課하는 대신 주독 영국군의 通역을 위한 독일어과정에 入課하기도 한다. RMCS에서의 教科課程은 高級課程을 위한 準備期間으로 武器體系의 基本理論과 適用 그리고 未來의 武器體系 適用 可能性에 對해서 研究한다.

陸軍參謀大學의 本課程은 6部로 나뉘어져 Tactical Principles and Doctrine 에서는 國內安保問題부터 全面核戰爭에 이르기까지 Operations, Staff Duties, Training 에서는 作戰이나 特別參謀業務의 節次를 Intelligence 와 Geo-Politics는 國際情勢 등 英國의 對外的인 安保問題에 對해서 研究하고 Administration은 軍需支援의 制반事項과 平時戰備態勢維持에 對해서 Leadership과 Command Studies는 주로 學生들 間에 個人研究 내지는 集團研究로서 戰爭 戰場과 Leadership에 對해서 研究發表 위주로 進行된다. 마지막으로 Joint Studies로서는 空軍 및 海軍參謀大學과의 合同Seminar 運營 및 NATO指揮官들이 講義로서 全體의 20% 정도를 合同作戰研究에 割當하여 運營하고 있다. 일련의 課程이 끝나고 일단 修了를 하게 되면 모든 學生들은 英國國防政策의 方向이나 現代의 多樣한 戰場에서의 武器體系의 適用 能力 등의 制반 參謀業務에 對한 能力을 具備하게 된다. 이러한 英國陸軍 參謀大學의 教育課程은 軍의 參謀나 指揮官教育에 副應

하여 發展되어 가는 科學武器體系에 適應하기 위한 教育에 더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다.

## 7. 結 論

以上에서 英國의 參謀大學에 對하여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筆者의 觀點에서 英國 參謀大學 教育의 特性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철저한 選拔概念에 의한 教育으로 中堅幹部의 精銳化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 各軍大學의 教育目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參謀大學의 軍事전문교육은 現 임무수행상 必要한 知識과 次上位 職務知識이나 技術을 習得키 위해 實施되는 教育으로 補職 進級과 더불어 人事管理 體系上的 근간을 이루고 있다. 空軍參謀大學 수료 후 거의 대부분의 英國學生들은 일선부대의 指揮官이나 國防省의 참모부서로 발탁 기용되어 自負心을 갖고 소신껏 일한다는 것이다.

둘째, 個人啓發 위주의 教育 및 評價制度를 들 수 있다. 參謀大學의 教授方法은 英國의 民間大學처럼 철저한 個人指導教授制度(Tutorial System)이다. 學生 개개인을 상대로 담당분임장이 직접 指導하여 學生 스스로가 自發的이고 創意的으로 研究할 수 있도록 하는 參謀業務에 對한 訓練이다. 評價 역시 學生의 生活 전체가 評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언어 행동 外樣, 對人關係, 問題解決의 明哲度와 合理性 등 學生의 全體的인 面에 對한 폭넓고 깊이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장래의 훌륭한 指揮官이나

參謀로서의 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째, 三軍合同作戰에 對한 重點的인 教育을 들 수 있다. 各參謀大學의 高級課程 中 20%가 三軍合同作戰에 關한 內容으로 三軍의 均衡적인 發展과 상호이해를 爲해 課程 中 三軍大學 高級課程의 學生들이 함께 모여 Symposium이나 Seminar를 실시한다. 특히 各軍大學에는 상호간 교환敎官을 유지해 各軍大學 間的 協助 또는 教育의 連繫性을 유지하고 있다.

네째, 參謀大學의 教育과 實務와의 철저한 連繫性을 들 수 있다. 軍의 存在價值는 戰爭에 있어서 勝利에 있고 勝利와 敗北는 戰爭을 指導하는 各級指揮官과 이를 보좌하는 參謀들의 能力에 따라 決定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英國의 參謀大學 教育은 철저히 實務와 연관을 두고 思考하며 실제문제를 놓고 解決하는 演習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空軍本部나 司令部의 주요 참모보직에는 서로 다투어 그해 英空軍大學 高級課程을 나온 將校들을 원하고 있다.

우리의 空軍基本敎理에서도 “現代戰의 勝敗는 武器體系의 優劣과 運用要員의 技倆 그리고 戰鬪意志에 의해 左右되며 그들의 精銳化는 教育訓練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라고 說破하였다. 또 모든 國家는 군사전문직에 대하여 教育과 訓練을 받은 將校들이 指導하는 강력한 軍隊를 必要로 한다.

더구나 2000年代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 空軍에 있어서 航空力에 關係되는 여러 가지 問題는 그 質과 量이 急速히 膨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空軍力을 運用해야 할 指揮官 및 參謀의 教育이 그 重要性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 空軍大學도 1956年 7월 15일 여의도基地에서 正식으로 創設된 이래 30年 동안 많은 發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보다 더 큰 發展을 爲해서 指揮參謀 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中堅級將校들의 專門的 知識과 技術을 增進시키는 教育의 投資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 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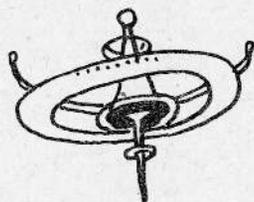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現在 運營되는 우리 空軍大學의 制度 發展에 여기 紹介한 英國參謀大學의 教育制度가 多少 미흡하나 參考가 될 수 있으면 한다.

분수지킨 생활속에

자신크고 나라큰다

# 미국이 북방의 전쟁

## — 蘇聯의 戰略防衛構想 —



중 위 任 忠 植

(공 본 정 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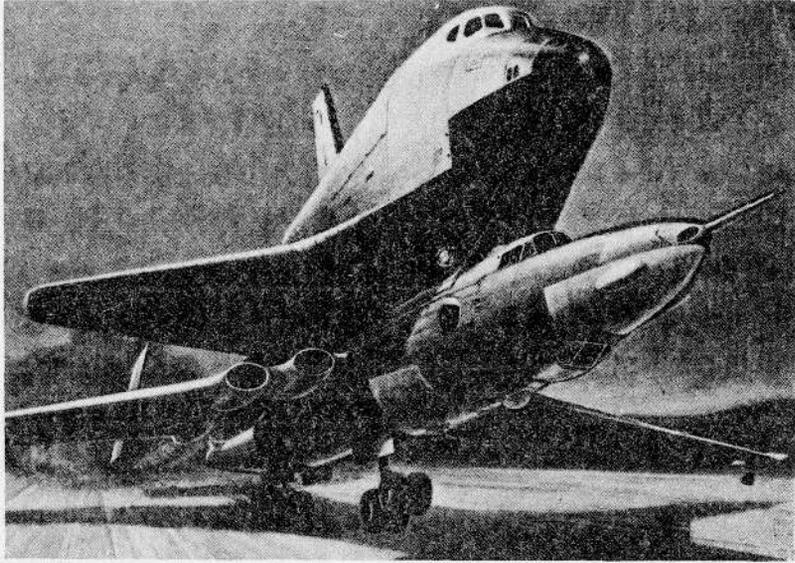
本 内容은 1985年 가을号 Asia-Pacific Defense FORUM에 英国上院 国防委員會 委員長인 Alan Lord Chalfont가 “Red Star Wars”란 題目으로 寄稿한 것을, 讀者들의 理解를 돕도록 完譯한 것이다.

\* 譯者 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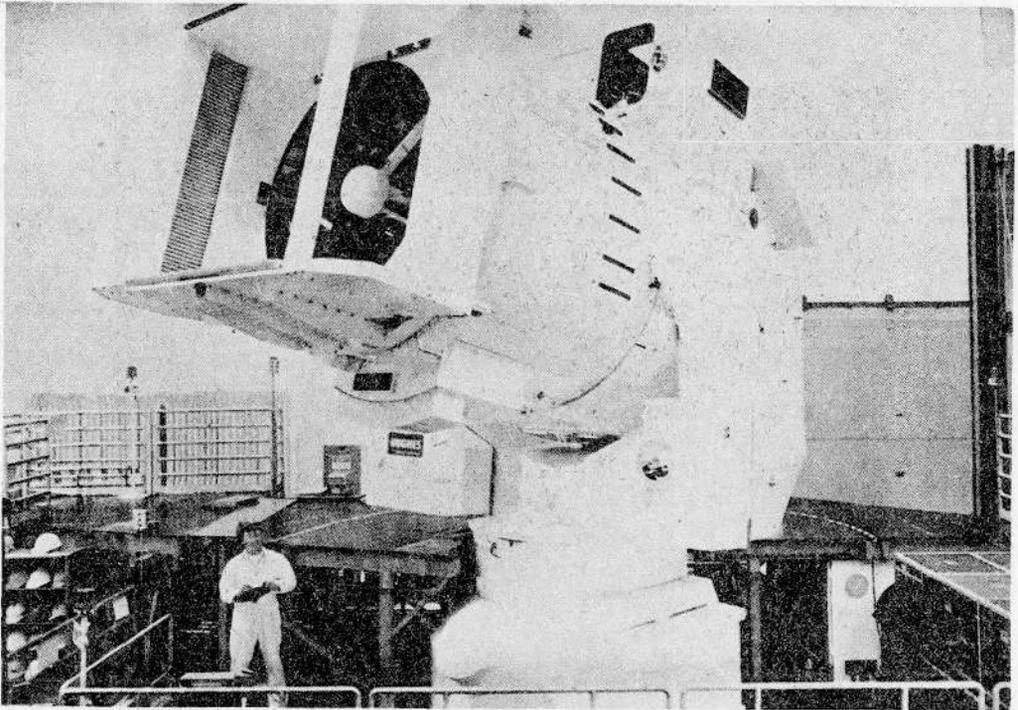
蘇聯은 美国과 달리, 自國의 戰略防衛研究 内容을 外部世界에 宣傳하지 않는다. 萬若, 소련이 그들이 推進하고 있는 戰略防衛構想 内容을 公開했었다면, 美國의 別들의 戰爭 計劃을 “危險하고, 安定을 깨뜨리며 그리고 挑發的”이라고 罵倒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984년에 核威脅에 對抗하여 平和를 追求한다는 소련 科學者 協會의 實務委員會가 報告書를 發刊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 是 宇宙體制가 너무 經費가 많이 들고, 技術的으로 到達하기가 어려우며, 또 現在 西方國家에서 選舉遊說의 焦點이 되고 있는 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에 反對하는 論爭에 의해 쉽사리 無力化될 수 있다고 結論짓고 있다. 하지만 1985年 1월에 소련 科學學術院의 Nikolai Basov는 소련이 美國의 戰略防衛構想(SDI) 計劃과 實際로 競爭을 한다면 科學技術上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公言했다.

SDI가 위험하고 도발적이며 安定을 沮害하거나 또는 아무 쓸모가 없고, 費用이 많이 들며 또 쉽사리 無力化될 수 있든지,



〈BISON 爆撃機の 등에 실린 蘇聯의 宇宙往復船의 想像圖〉



美 海軍의 빔(Beam) 照準機. 이 實驗的인 体系는 飛行中인 目標物을 追跡하여 選定된 目標点에 強力한 레이저 빔(Laser Beam)을 發射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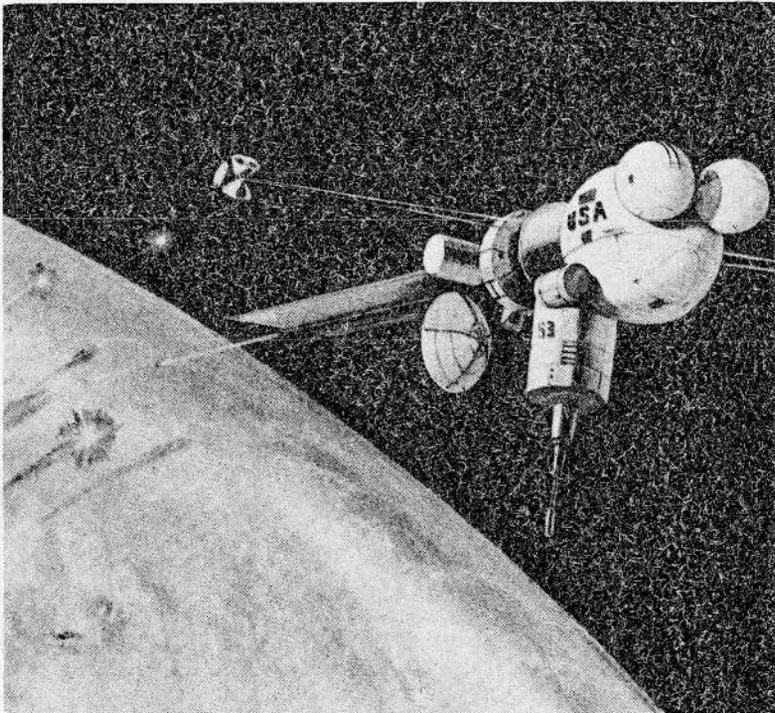
아니면 기술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소련 軍事과학자들이 충분히 開發할 수 있다고 하든간에 소련은 실제로 SDI를 推進할 能力이 없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Nikolai Basov의 証言은 상당히 考慮할 價值가 있다. 왜냐 하면 그가 量子電子工学分野의 研究도 1964년에 노벨상을 受賞했으며, 또한 소련 戰略防衛計劃을 幕後에서 추진해 온 核心人物 中の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戰略防衛에 對한 소련의 態度가 이처럼 矛盾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簡單한 命題가 받아들여 진다면 쉽게 說明될 수

있다. 즉, 소련은 宇宙에 基地를 둔 防衛體制에 關한 秘密研究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이제는 西方의 과학기술 産業上의 下部構造 및 經濟資源으로 뒷받침되는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소련이 戰略防衛研究를 하는데 있어서 重點을 두고 있는 主要 과학기술분야는 “指向性 에너지(Directed Energy)”라고 알려져 있다. 이 Directed Energy에는 미사일을 겨냥하여 그것의 表面을 浸透하고, 그것의 誘導體制과 彈頭에 被害를 입히는 電磁氣 放射線의 強力한 빔(Beam)인 레이저와 미사일의 電子部品과 回路에 피해를 주

大氣圈으로 再突入하는 核武装한 宇宙船을 宇宙에 떠있는 電磁氣 Railgun으로 邀擊·破壞하는 場面の 想像圖



도록 設計된 레이더의 波長과 비슷한 波長으로 電磁氣 放射線을 放出하는 無線周波 武器, 그리고 高 에너지 加速器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目標미사일 内部 깊숙이 熱 被害 또는 機械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二次的인 核 效果 또는 X-ray 效果를 주는 素粒子 Beam도 包含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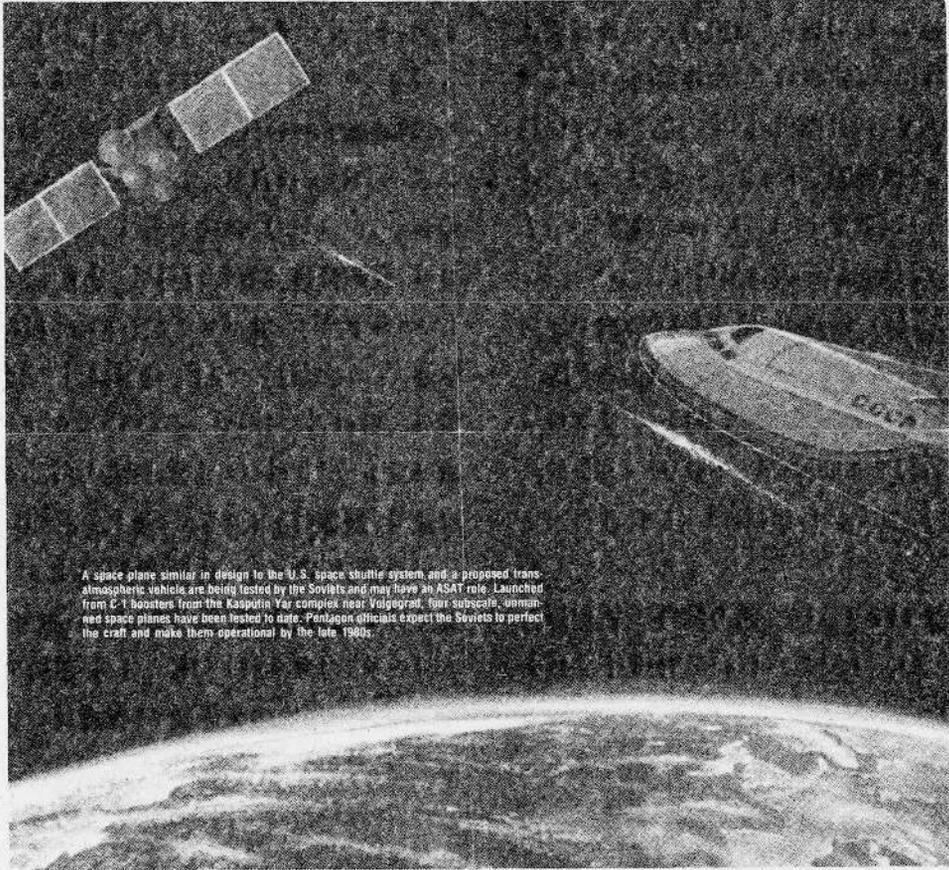
소련의 레이저 武器 研究는 1960年代 初에 始作된다. 현재 이 연구는 Nikolai Basov와 1964년에 노벨상을 共同 受賞했던 Alexander Prokhorov를 포함한 소련 最高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에 의해 遂行되고 있다.

最近 數年間에 나온 西方側의 情報報告書에 따르면, 소련은 여러 分野에서 最小限 미국과 같은 水準으로 發達했으며, 軍事的 應用을 위한 레이저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소련은 이미 地上에서 試驗을 마친 對衛星 体制(현재로서는 唯一함)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情報判斷에 의하면, 今世紀末以前까지는 宇宙体制를 運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련의 연구 및 개발이 레이저 기술분야에 置重해 온 傾向이 있기는 하지만, 素粒子 Beam 분야에서도 飛躍的인 進歩가 이루어졌다. 核 加速器에 대한 연구가 平和的인 目的을 위해 通常的인 高에너지 物理學에 응용되는 것이 分明하기는 하지만, 軍事적 목적으로 使用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마이크로波 무기 분야에 있어서도 소련의 기술은 최소한 미국 수준에 到達해 있다.

그러나 소련의 戰略에 대해 深度깊게 연구해 온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소련은 相互確實破壞戰略(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 概念을 한번도 首肯한 적이 없다. 소련의 戰略家들은 그들의 戰略企劃이 NATO와 바르샤바 條約機構 間의 어떠한 전쟁도 결국에는 核戰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計算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強調해 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効果적인 防衛야말로 믿을만한 전쟁 抑止力의 必須不可缺한 要素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 소련은 NATO의 어느 國家보다도 民防衛에 중점을 두어 왔고, 모스크바를 현재로서는 唯一하게 運用되고 있는 彈道미사일 防衛体制로 保護해 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새로운 방어체제를 構築했고, 나아가서는 宇宙軌道 및 地上發射 對衛星体制를 발전시켜 왔다. 게다가 소련은 대규모 位相 調整 레이더(Phased-array Radar) 체제를 構築했는데, 이것은 西方 관계 기관에 의하면 對彈道미사일 協定에 違反되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어떤 종류의 西方陣營 탄도미사일은 邀擊할 수 있는 地對空 미사일 体制(SA X12)를 展開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련 과학자와 軍事 計劃官들이 宇宙에 바탕을 둔 戰略防衛体制에 대한 深度깊은 연구를 遂行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물론, 소련은 이러한 事項을 大統領이 발표해야 하는 政治체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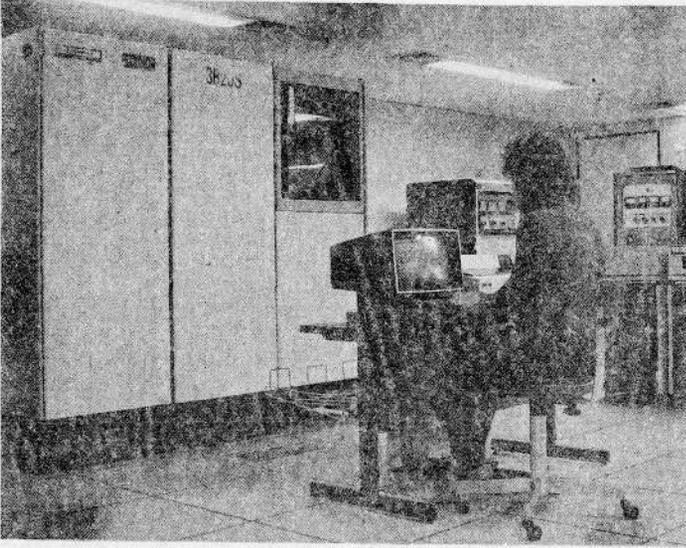
A space plane similar in design to the U.S. space shuttle system and a proposed trans-atmospheric vehicle are being tested by the Soviets and may have an ASAT role. Launched from C-1 boosters from the Kaspurin Yar complex near Volgograd, four subscale, unmanned space planes have been tested to date. Pentagon officials expect the Soviets to perfect the craft and make them operational by the late 1990s.

한 이러한 사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Star Wars”라는 表題下에 이것을 批判, 反對하는 기사를 실을만한 言論체제도 갖추고 있지 않다.

成功的인 軍縮協商을 위해서 미국이 戰略防衛研究計劃을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레이건 大統領이 1983年 3월 23日 戰略防衛構想(SDI)에 關해 演說한 지 數한달도 못돼서 이 SDI계획을 비난하는 書翰이 뉴욕 타임즈지에 登場했었다는 것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이 서한은 200명이 넘는 소련 과학자들에 의해 署名됐었는데, 戰

略防衛의 概念 自体를 全的으로 否定하는 強力한 내용의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 Basov와 Prokhorov를 包含한 署名人들 中の 多數가 소련의 戰略미사일 體制, 軍用 航空機 및 核潛水艦 設計에 平生을 몸 바쳐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흥미있는 사실은 소련 科學學院 副會長이자 소련에서의 “Star Wars” 研究事業의 核心人物인 Evgeny Velikov도 여기에 署名했다는 점이다.



소령 李 錫 浩  
(공본 통신감실)

# 近距離 通信網 (Local Area Network) 에 대하여

— 목 차 —

1. 근거리 통신망의 출현
2. 근거리 통신망의 구성방식
3.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매체
4. 근거리 통신망의 실제적인 구성방법
5. 근거리 통신망의 실제

## 1. 근거리 통신망(LAN)의 출현

1946년 컴퓨터가 세상에 나타난 직후인 1950년대에는 컴퓨터가 매우 크고, 가격이 고가이었으며 복잡한 기계로서 몇몇 숙련가

들에 의해서만 조작되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모두 모아순서에 의해서 한사람의 일이 끝나면 그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배치처리시스템으로만 운영되었다(그림 1).

1960년대에 이르러 Operating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시분할방식(Time Division)에 의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한 대의 컴퓨터와의 상호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한 대이나 여럿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중앙시스템에 저속선로를 통하여 Dump (무지능) 터미널을 연결하므로써 사용자들은 컴퓨터와 대화(Input, Response, Output)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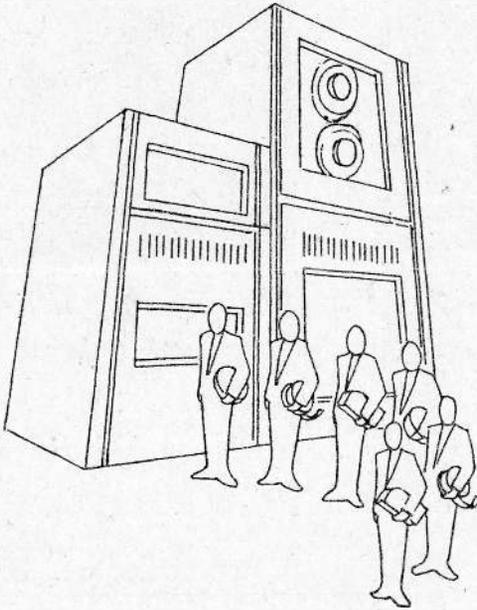


그림 1. 1950년대 : 배치처리 (여기서는 직접 통신을 하지 않는다.)

통해서 각기 다른 문제들을 동시에 직접 처리할 수 있었고 이의 정보처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컴퓨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의 미니컴퓨터가 정착되었다. 이용자들은 보다 넓은 응용범위를 갖는 화일, 프로그램, 축적장소(Memory), 주변기기(Peripheral Device)들을 공유함으로써 장거리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길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은 Dump 터미널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보다 더 고속, 고용량이 요구된다.

분산된 미니컴퓨터들을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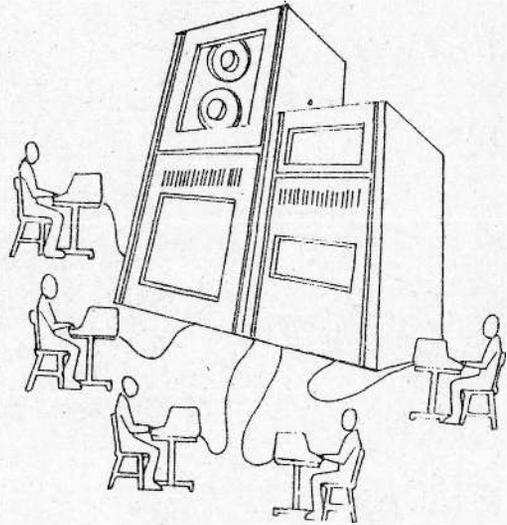


그림 2. 1960년대 : 시분할처리 (터미널대 컴퓨터간의 저속통신)

각 컴퓨터 간의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중앙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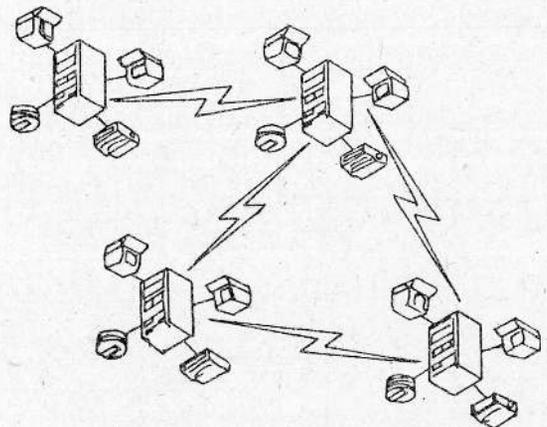


그림 3. 1970년대 : 분산처리, 미니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킹 (터미널대 컴퓨터, 컴퓨터대 컴퓨터와의 통신 및 장거리 통신기술의 개발)

즉 각 단말기(컴퓨터, Telex)들이 서로서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로서 연결될 때 하나의 메인 프레임이 처리하는 업무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체제를 갖추어서 정보교환 및 업무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네트워크라 하며 지역적으로 0.1~10km 이내의 지역적 제한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이라 한다.

여기서 제시한 근거리 통신망의 응용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무실 :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통신이 전자우편, 문서처리, 서류분배, 음성축적과 같은 O. A(사무자동화) 기능을 제공

한다.

- 대학 : 집중화 혹은 분배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워드 프로세싱과 같은 특별목적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공장 :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로봇, 수치제어, 제조공정과 같은 자동제조기술을 점차 추구하고 있다.

- 연구소 : 통신망은 실험에 대한 분배 공정제어를 도운다.

- 병원 : 환자의 회복상태, 상황조회, 진단에 이용된다.

- 유통업체 : 주문과 재고관리 시스템에 이용된다.

## 2. 근거리 통신망의 구성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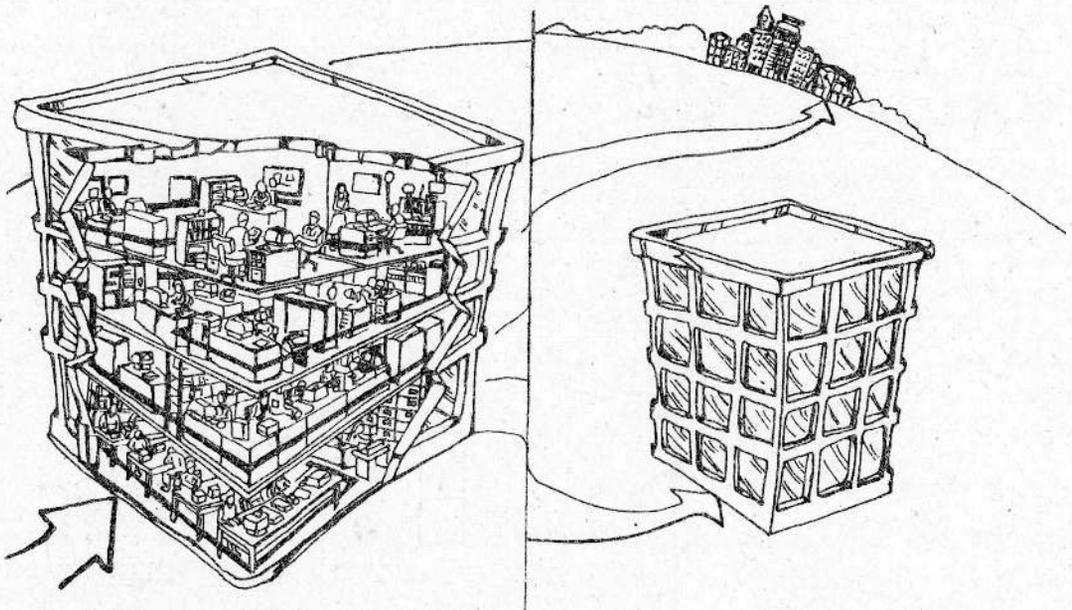


그림 4. 1960년대 : 근거리통신망(자원공유의 종합정보, 개발 및 다른 LAN처리를 가능케 하였으므로 고속 근거리통신기술과 장거리통신망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네트워크는 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마다, 그 회사 개발상품의 특성에 따라, 혹은 사용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몇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근거리통신망의 구조는 스타형, 링형, 버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스타형 구조 : 이는 몇개의 Point to Point (지점간) 통신방식으로 접속되고 있으며 중앙의 Hub에서 Hub까지 트래픽 (음성

신호 및 Data라고 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여기의 Hub는 각 기기들을 공유하는 교환기를 내장하고 있다.

- 트리 형 : 많은 상호연결된 전송링크로 구성되며 Head End 쪽으로 모든 데이터 정보를 전송한다. Head End는 마찬가지로 각 연결된 기기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처리하여 똑같은 루트를 통하여 각 기기로 보내게 된다.

- 링 형 : 능동 재생기 (Ring Interface Unit : RIU) 에 연결된 Point to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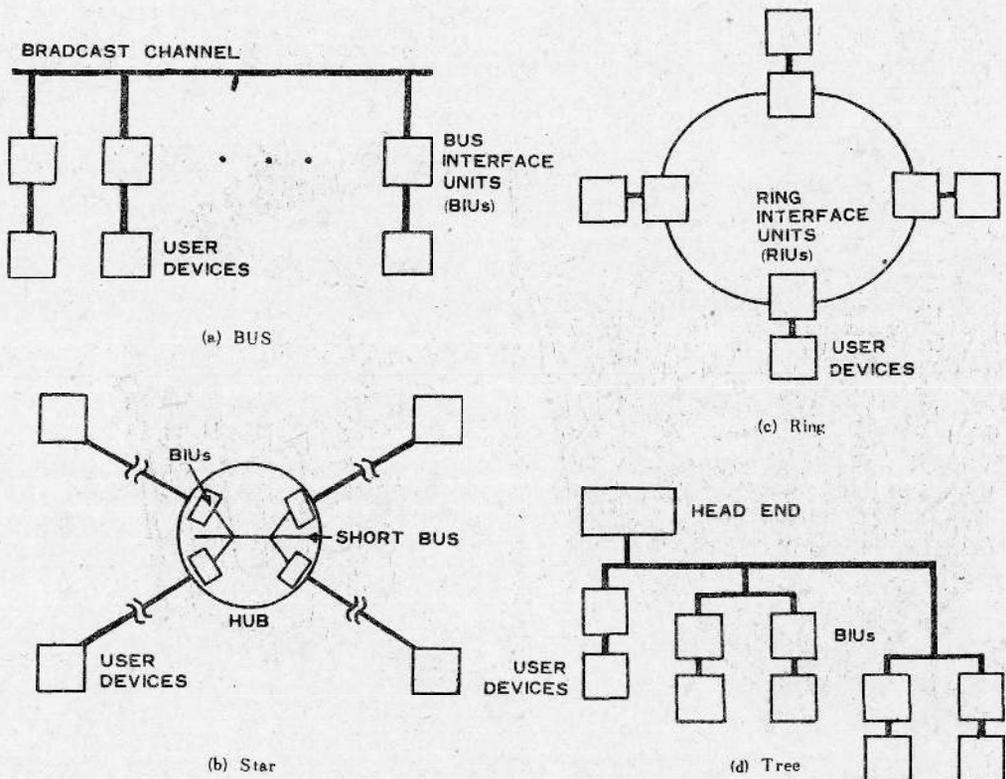


그림 5. LAN의 각 구조

전송 링크로 구성되며 RIU는 데이터소스에 가깝게 위치하여 짧은 액세스선로에 의해 이들 각 기기에 연결된다. 여기에서 정보는 능동재생기를 거쳐 단일방향, 즉 링방향으로 순환하게 된다.

● 버스구조 : 하나의 기다란 전송채널로서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전송되며 각 기기들은 Bus Interface Unit (BIU) 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 3.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매체

전송매체는 네트워크에서 상호연결 노드에 쓰여지는 물리적 채널을 제공한다. 즉 전화선과 같은 와선, 동축 케이블 (Coaxial) 그리고 광파이버 (Fiber Optic) 와 같은 Bounded 매체와 방송신호와 같은 Un-Bounded 매체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Bounded 매체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와 선

본래 전화통신에 쓰여졌던 선로 유형 가운데 하나였으며 구배전화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요 매체이다. 선은 주로 구리로 만들어지고 전화공사에 의하여 막대하게 쓰여졌던 관계로 가장 저렴한 매체이며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비가 많다.

전화 통신망에서 이 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는 대개 회선 교환선로에서 2.4kb/s이고 임대 전용선로에서는 4.8 kb/s이다.

이러한 와선은 300~9.6kb/s에서 동작하

는 저속 데이터 장비에 많이 쓰여진다. 그러나 와선은 많은 양의 전기적 간섭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를 발생시키며 비화가 중요할 때에는 암적인 문제가 된다.

#### 나. 동축 케이블 (Coaxial Cable)

동축 케이블은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전기적 간섭에 대해 높은 면역성을 갖는 고속의 데이터 속도와 낮은 에러율을 제공한다. 이는 하나의 케이블에 많은 통화를 다중화 (Mutiple) 시키기 위한 전화 통신망, 특히 장거리 통신망에 널리 쓰이며, 지상에 설치된 수천개별선로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켜 준다.

넓은 대역폭과 낮은 에러율은 비용 대 효과면에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또한 이러한 동축 케이블을 위한 전송 콘트롤 및 설치, 연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되어 다양한 TAP, Splitter, Repeater 등을 이용함으로써 쉽게 확장, 분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동축 케이블의 대용량, 낮은 오류 그리고 구성의 융통성 (확장 및 분기능력) 때문에 근거리 통신망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매체가 되어 있다.

#### 다. 광 파이버 (Fiber Optics)

광 파이버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만들어지며 어떠한 응용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성능의 전송매체로서 작용한다. 동축 케이블의 500MHz에 비하여 3.3GHz에 달하는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다.

- 1 Gb/s 이상의 데이터 속도가 제공된다.

- 오류율이 매우 낮다( $10^9$  당 1 비트) - 에러 검출 및 재전송(Overhead)가 제거될 수 있다.

- 광 파이버 전송은 전기적 또는 전자적 간섭에 의하여 방출되지 않고 비화성이 보장된다.

- 가볍고 작아서 공간과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광 파이버지만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코넥터 기술, 다중화 능력이 뒤지기 때문에 아직은 LAN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상호 간의 고속 및 대용량의 Point to Point (지점간) 링크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광 파이버를 위한 송·수신 기술 및 부가장비가 개발되면 곧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근거리 통신망의 실제적인 구성방법

여러 장비(단말기)들을 연결하여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교환하기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PBX, Broadband·LAN, Baseband LAN)가 있으나 여기서는 PBX와 그의 발전 형태인 CBX, DBX를 소개하겠다.

##### 가. PBX(Private Branch Exchange)

PBX는 최초로 수동식 교환대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교환기술과 PBX 기술의 발전으로 스트로저 교환기와 같은 전자식 교환기가 등장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환양의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바 교환기가 개발되었다. 또한 데이터 통신 수요가 급증하자 컴퓨터간 통신을 위하여 전화망과 PBX망의 임대 전용회선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신호 형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뎀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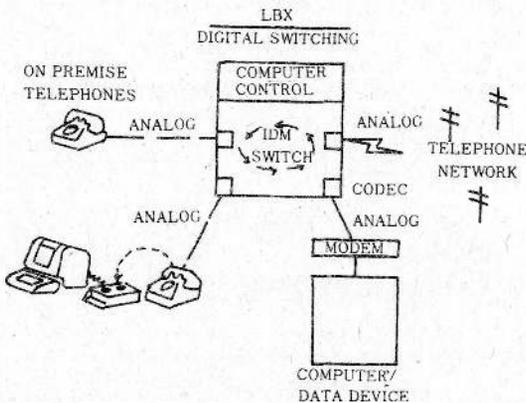


그림 6. PBX 통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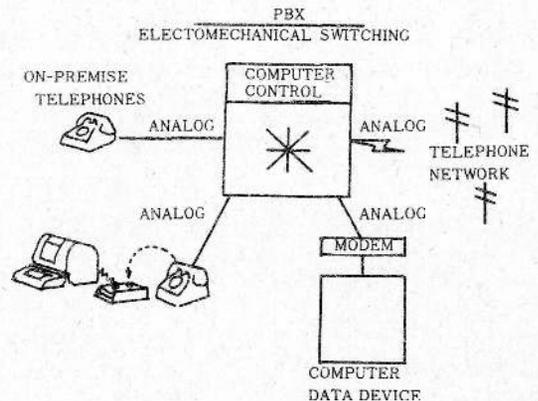


그림 7. CBX 통신망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은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PBX 망으로서 여기서의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로서 아날로그 신호는 물론 디지털 신호까지도 모뎀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나. CBX(Computerized Branch Exchange)

CBX란 전자식 교환기를, 이용 가능한 채널을 할당하고 교환하기 위해 TDM(Time Division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는 완전 디지털화된 컴퓨터 교환기로 대체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PBX는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형태로 그 장치 내에서 변환되지만 <그림 7>에서 보듯이 CBX에서는 음성신호(아날로그)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고 데이터 장비로부터의 신호는 모뎀을 거쳐 아날로그로 전송되고 수신기에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야만 CBX 교환기 내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은 CODEC(Coder/Decoder)

칩을 이용하고 있다.

CBX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교환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환기에 디지털 신호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으며, PBX보다 더 많은 변환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CODEC 칩이 비싸기 때문에 교환기 부분에 집중시켜 놓고 TDM 메카니즘으로 분산하여 CODEC을 이용하고 있다.

#### 다. DBX(Digital Branch Exchange)

PBX와 CBX는 이제 DBX라 불리우는 완전 디지털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업체에서 DBX 시스템을 제조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고가의 장비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TDM교환기가 사용되지만 교환기에 연결되는 선로의 신호가 어느 것은 디지털이고 어느 것은 아날로그라는 점이 다르다. CODEC 칩이 전화기에 부착되어 음성신호를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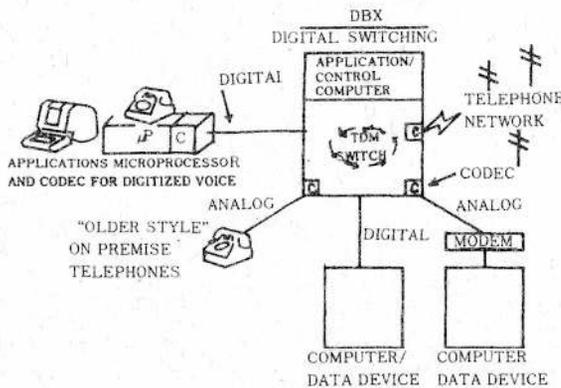


그림 8. DBX 통신망

를 음성신호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BX와 DBX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디지털 교환기술로서 선로의 이용효율을 더욱 개선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5. 근거리 통신망의 실례

K사의 근거리 통신망은 컴퓨터 통신 이

외에도 같은 Cable 상에서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영상, 음성, 제어등을 할 수 있다.

- 화재 / Gas 검지등의 보안시스템
- Energy 관리시스템
- T. V 감시시스템
- 지역 내의 Tele-Conferencing
- 교육용 영상시스템
- 음성시스템

K사의 근거리 통신망은 연구소에 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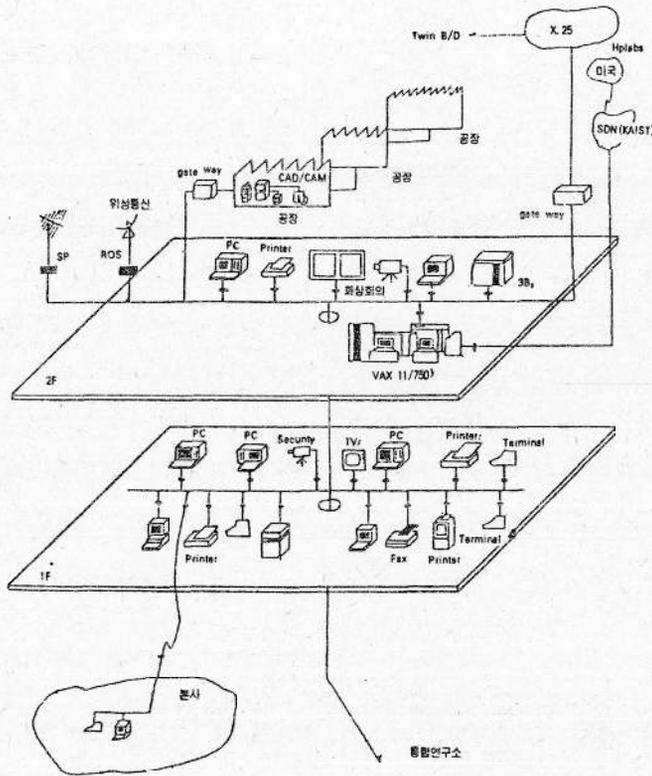


그림 9. K사의 LAN Layout

-End가 있고 부속공장 및 본사까지를 연결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FA 및 O A용의 Software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1층과 2층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Line을 네트워크(LAN)라 볼 수 있으며 공장 및 본사로의 연결은 장거리 통신에 의한 네트워크 연결의 연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自然環境 造成을 위한 올바른 植樹와 造景



강 준 일

教授 · 서울대 환경대학원

## - 目 次 -

1. 序 言
2. 公共을 위한 造景
3. 步行者 空間에 관한 문제
4. 結 語

## I. 序 言

전국의 나무들이 전 국민의 정성과 山林 綠化 意志,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산림정책에 힘입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近者의 신문보도를 보고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었다. 한 때는 「민둥산의 나라」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우리 나라지만 멀지않아 우리 山地도 산림이 울창한 先進國型 山地가 될 것이라고 山林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나무의 成長에 加速度가 붙어 성장이 놀라게 빨라지고 있는 것은 樹木이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1년 성장 속도가 60cm를 넘을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85년 표본조사결과 소나무 성장 속도가 62.5cm가 넘어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산지도 수목이 울창한 人工造林의 先進國型으로 變貌될 것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造林政策도 國土의 單純 '絶對 綠化'에서 벗어나, '山林의 資源化 및 育林'으로, 그리고 均衡과 造化, 美를 아울러 갖춘 人工造景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심으면 된다는 式의 植木은 경제원칙에 어긋나며, 育林에도 많은 손길이 가기 어려워 볼품없는 山林을 만들고 만다.

그래서 가까운 주위환경부터, 公衆이 자주 접하는 장소부터 植栽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本稿에서는 장차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公共을 위한 造景(주로 公園), 그리고 歩行者를 위한 空間의 造景에 関하여 論해하고자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先進經濟大國이라고 뼈기는 日本도, 社會間接資本中 公用綠地—특히, 都心의 公園 절대면적—로 본 先進적도는 歐美 各國에 順位가 밀려 세계 30位에도 못끼는 것임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나라도 山地 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造景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지 가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 II. 公共을 위한 造景

공공을 위한 조경의 始初는 古代 그리스 의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廣場의 설치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시장터로서의 역할에 있었을 것이나, 이 광장이 시민의 공공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시대의 포룸(forum)도 시민의 공공생활을 위한 중심적 시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中世에는 길드에 의해 경영되는 園地가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園地는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共同耕作을 주목

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르네상스시대로 내려와서는 別莊(Villa)의 庭園 또는 루이(Louis)14세의 宮苑 등이 시민을 위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그 정원 전체를 항상 대중을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자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를 제한해 가면서 공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르사이유宮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정원에 자르맹(Jardin) 또는 파르크(Parc)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같은 정원이나 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이 가해진 정도에 따라 궁전이나 대저택(Chateau)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자르맹, 그곳으로부터 떨어진 넓은 부분을 파르크라 이름지어 구분한데 지나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원이라는 개념에 어울리는 시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로 접어들어서부터이며, 런던의 하이드 파아크(Hyde Park), 리젠트 파아크(Regent Park), 켄싱턴(Kensington) 파아크, 세인트 제임스 파아크(St. James Park), 파리의 킬리리園(Jardin des Tuileries), 뤼상부르園(Jardin Laxemboury), 몽소 공원(Parc Monceau), 뷔테 쇼몽공원(Parc de Buttes Chaumont),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스하인(Fridrichshain), 로마의 보르게제園(Giardino Borghese)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現代公園으로서의 요소를 갖춘 최초의 공원은 1857년 미국 뉴욕市에 설치된 센트럴 파아크(Central park)이다. 이 공원의 설치와 설계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인

물은 옴스테드(F. L. Olmsted:1822~1903)로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 미국은 세계에 있어서의 公園界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40ha에 이르는 이 내공원은 명칭 그대로 뉴욕市民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나 騎馬道路 따위도 갖추어져 存在綠地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利用綠地로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이 공원이 설치되면서 주변의 地價가 등기하여 市の 조세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공원설치를 위하여 투자한 경비는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센트럴 파아크는 뉴욕市の 시민생활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 여러 도시가 이것을 본받아 넓은 공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공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공원 사이를 이어 놓기 위한 파아크 웨이(Park Way)에 의해 소위 公園系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國立公園의 창설을 비롯하여 広域公園系統이나 動的 厚生을 위한 공원의 설치 등으로 공원제에 있어서 항상 선도자적인 구실을 하여 왔다. 광역공원계통은 시내의 공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주변 일대에 포함시키는 大區域의 공원계획을 뜻하며, 유럽이나 동양 여러 나라에 비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쉬운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오늘날 문화 국가라면 좋거나 나쁘거나 광역 공원 계통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 말 미국의 보스턴을 중심

으로 하여 일기 시작한 이 착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보스턴市는 광역 공원 계통의 설치에 앞서서 아동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으며, 금세기 초엽에 시카고에 조성된 運動公園은 이용자를 성인층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되풀이 되었으며, 그 취지는 옴스테드 시대처럼 공원을 靜的인 厚生에 주안을 둘 것인가, 아니면 동적 후생이 都市公園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쟁의 종결을 보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그 까닭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공원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소개한 센트럴 파아크는 정적 후생을 위해 축소된 공원이었으나, 후일 동적 후생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개조되었으며, 또한 정적 후생을 위한 공원과 별도로 동적 후생을 위한 유희장이나 운동공원을 조성하여 자기 그 말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성격의 공원이 相存함으로써 공원에 부여된 사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쪽으로 중론이 기울어 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現代公園의 발달 과정에서는 미국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 나라마다 綠地造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의 그것이 불 만하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市·邑·面의 共有地를 부근 주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리로 이용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인구가 늘고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그것만을 가지고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1848년에 公衆保健法을 제정하여 그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公共遊步場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이 설치된 것은 공중 보건법이 대폭 개정된 1925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뒤에도 당분간 공공을 위한空地는 주로 靜的 厚生을 위해 설계 이용되었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 도시의 공원은 모든 연령층과 계층의 요망에 응할 수 있도록 靜的과 動的 양면의 시설이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다.

영국의 綠地계획 가운데에서 특기될 만한 것은 하워드(E. Howard:1850~1928)의 제창에 의해 실현된 田園都市이다. 19세기 후반에 식견이 높은 공장주들에 의해 田園地 주택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하워드는 '都市와 전원의 결합'을 지향하여 광대한 교외의 환경적 잇점과 대도시의 사회 및 문화적 잇점을 결부시키는 한편, 토지의 사유를 배제한 공동체중심의 전원 도시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러한 구상에 의해 레치 워드(Letch Worth) 웰윈(Welwyn)을 비롯한 몇몇 전원 도시가 런던 교외에 생겨났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綠地帶(Green Belt)의 착상과 결부되는 것이라 하겠다.

튜넨(Thünen)의 '孤立國'이 주로 산업 경제적인 견지에서 제창된 데 대해, 하워드의 견해는 도시와 지방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구상이 실현되었다는 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의 탁견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獨逸의 造景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어 놓았으며, 전후 독일은 비로소 고유의 造景手法를 확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패잔국인 독일은 국력회복을 위한 기본 방침을 국민 체위의 향상에 두어 그 한 방법으로서도 市の 공원과 녹지의 정비에 온갖 힘을 기울였으며, 그 당연한 귀추로서 양적으로도 유럽의 公園界를 선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우선 명실 공히 대전 후 독일의 造景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폴크스파르크(Volkspark)를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제창자 루드비히 레서(L. Lesser)가 말하듯이 폴크스파르크는 전국민의 공원이며 그곳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이다. 이 공원은 푸르름이 적은 도시에 설치되며 그 면적은 대략 10ha 이상이다. 또한 센트럴 파야크를 시조로 세계 여러 나라의 규모가 큰 공원이 自然風景式 위주로 꾸며진 데 대하여 폴크스파르크는 자기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각 부분이 정연하게 구획지어져 있으며, 설비라는 면에서

볼 때 미국이나 영국의 공원이 추종할 수 없는 훌륭한 것으로서, 예를들어 日光, 空氣浴場(Licht-Luftbad)이나 飲泉場(Trinkhalle) 등 특수한 시설을 볼 수 있다. 공업 도시 에센의 구르거파크는 1933년의 '푸르름의 週間(Grüne Woche)'에 開園된 것으로서 동적 후생과 정적 후생을 위한 각 구획에는 각기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폴크스파크를 신설하였고, 때로는 정적 후생에 중점을 둔 시타트파크(Stadtspark)도 설치되었다.

독일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기능주의적인 조경 수법이 제 2차대전을 겪고 난 오늘까지 계승되어 있으며, 그 한 면모를 造景展覽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투트가르트 교외의 킬레스베르크(Killesberg) 또는 베를린의 메세 겔렌데(Messe Gelände)에서는 해마다 조경 전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관공청을 비롯하여 많은 조경업자들이 최선단을 걷는 조경쇼우를 벌이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分区園(Kleingärten, Allotment Gardens)이 급격히 발달된다. 分区園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같은 主旨로 꾸며진 일이 있으나, 1930년대의 독일의 分区園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分区園은 대전기간 동안 시민에게 있어서 식량생산을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는 한편, 정부가 조성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발달에 박차가 가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베를린을 비롯한 각 도시의 곳곳에서 分区園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分区園은 라이프찌히의 의사였던 시레버(Schreber)박사가 제창한 바와 같이, 국민 특히 대도시의 주민의 보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2회에 걸친 대전 중 그것이 예기치 않았던 식량생산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分区園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정화면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베를린과 같은 주택사정이 불량한 도시에서는 週末帶在의 원칙을 벗어나 상주하는 주택으로 변해버린 것도 적지않다. 그러나 建蔽率은 원래 정해진대로 있고 대부분의 공지는 소채나 과수의 재배를 위해 쓰이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한편, 도시의 綠地로서의 효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그 이외에도 공장의 녹화나 학교원의 설치 등 공공 조경면에 있어서 불만한 것이 많으나, 폴크스파크나 分区園과 함께 독일의 造景史上 특기되어야 하는 것에 都市林(Stadtuald)이 있다. 1935년에 제정된 聯邦自然保護法(Reichsnaturschutzgesetz)이 도시림을 삼림공원으로 보존하고 후생적 이용을 위하여 이것을 개발하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과 개발은 각 도시의 주변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수림이 과거부터 가꾸어져 있었던 독일에서만 실현이 가능했던 것으로서, 이것은 오늘날 독일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廣域綠地計劃의 일환

인 田園風景(Feurlandschaft)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高速道路(Autobahn)의 조경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선진국과 캐나다, 중남미 각국 등지에서는 볼 만한 都市公園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의 세 나라가 도시 공원과 綠地問題에 있어서 세계의 선도자적인 구실을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공원은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함께 성장 분화되어 간 것으로서 現代 都市의 복잡하고도 지나치게 큰 규모로 자라난 都市機構上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시설의 하나로 등장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대도시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도시 속에 산재하는 공원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 또한 한층 더 확대되어 도시근교에 자리잡은 레크리에이션에 이용될 수 있는 景勝地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외지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원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것이 自然公園으로 발달해 간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라는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공업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나, 이에 따르는 천연자원의 가속적 개발과 공장부지의 조성은 여러 고장에서 自然環境과 景觀의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해 놓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8세기 중엽 유럽에서 태어난 자연 환경과 향토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은 自然的 景觀地를 지정하여 모든 인위적 계획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여 이것을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한편, 시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태어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기계문명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던 미국에서 최초로 그 열매를 맺어 1865년에 현 요새미티 국립공원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요세미티 溪谷과 말리포사의 巨樹林地帶가 캘리포니아주의 州立公園으로 지정되었다. 그 뒤 원시적인 경관을 가진 엘로우스토운 지역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가에서는 그 自然景觀의 특이성과 가치를 認知하여 그 광대한 지역을 영구히 국민 전체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1872년 국립공원제도를 법으로 제정하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오늘날에는 29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국립공원을 본떠 국립공원을 설정하였으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협소한 국토를 고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규모가 큰 국립공원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자연보호에 중점을 둔 소면적의 자연공원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31년에 국립공원법을 제정하여 終戰 전에 이미 12개의 국립공원이 지

정되어 있었고, 1958년에는 국립공원법을 발  
전 해소시켜 自然公園法을 공포하였다. 오  
늘날에는 26개소의 국립공원과 48개소의 국  
정공원 및 280여개소의 都道府縣立 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3년에 公園法이 제정  
공포되어 1967년에 최초로 智異山이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12개소의  
국립공원과 10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 Ⅲ. 步行者 空間에 관한 문제

오늘날 造景의 계획 대상은 넓은 분야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제  
획된 조경 공간 속에서 散策하고 달리며, 앉  
거나 배회하면서 행동을 계속하여 간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공간 속에서 공통적  
으로 필요로 하며, 또한 조경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공간, 즉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  
로서 이것을 步行者 空間(Pedestrian Space)  
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에 대해 전혀  
고려가 가해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자동  
차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재인식되어  
인간 위주의 공간이 모든 造景計劃에 있어  
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  
어가고 있다.

\* 보행자 공간은 居住区 규모는 물론, 도시  
규모와 나아가서는 국토 규모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모든 공간 속에 일관적으로 체계 있  
게 존재해야 하는 基礎空間이다.

이들 공간은 보도, 통학로, 자연 보도,  
부울리바아드(Boulevard: 나무가 줄지어 심  
어진 遊步道) 따위와 같이 線的인 존재일  
때가 있는가 하면, 공원, 광장, 모을(Mall),  
번화가, 해안 등과 같이 面的인 존재일 때  
도 있다. 계획면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일정  
한 서열 밑에 체계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을  
것이 이용 공간의 성격상 바람직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기성 도시의 공간 속에  
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  
이다. 즉 어린이의 놀이는 일정한 공간 속  
에 오래도록 머무는 일이 없으며, 공원으로  
부터 가로의 보도로, 보도로부터 골목길로,  
그리고 다음 광장이나 공원으로 자리를 옮  
겨 가면서 놀이의 종류 또한 장소에 따라  
차례로 바뀌어 간다.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  
은 모두가 步行者 空間의 網狀組織에 따라  
행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의식  
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주택단지 속의 공  
간이다. 즉, 해방 직후에는 4~5층의 건물  
을 4시간의 日照를 얻을 수 있도록 줄지어  
배치해 놓은 단지 속에 定量的으로 계산된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무늬를 그리듯이 배치해 갔으며, 제 2 단계  
로 접어들어서는 자동차의 물결로부터 보행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의 주축에 따라  
중심부에 步行者 專用道路(Pedestrian Way)  
를 설치하고 아동공원이나 유치원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붙여 배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이 고안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한층 더 확장되어 차량이 가로지르는 따위의 위협이 전혀 없는 歩行者專用道路가 단지 안에 아메바(Ameba)와 같은 不整形의 생김새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에 놀이 기구나 街路備品(Street Furniture)을 알맞게 배치한 공간이 놀이를 위한 공간의 구실을 한다. 그곳에서 거리가 떨어진 棟 사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支線이 길게 뻗어나가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와 이어지는 꾸밈새가 실시되고 있다.

보행자 공간이 도시 규모로 확장된 것이 공원 계통을 구성하는 공원과 道路公園 또는 부울리바야드나 광장, 모울 등이고 지방 또는 국토 규모로 확장될 때는 자연공원과 자연보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를 중흥하는 두 개의 자연보도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국민보전에 지대한 寄與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이나 国土防衛라는 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IV. 結 語

그동안 벌거숭이 강산으로서 험벗고 메말랐던 우리 나라가 '60년대 이후부터는 거국적인 愛林運動으로 綠色革命을 일으킨 뒤 주목할 만큼 산이 푸르려 졌고 이제는 環境造景과 經濟的 價值를 고려하여 植樹와

育林을 해 나가리만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軍·兵營에서도 해마다 많은 장병들이 식목에 투입되어 부대주변에 나무를 심고 자연에 調和되고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한 위장식수가 잘 된 부대도 있고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은 部隊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날 부대주둔지는 自然環境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연을 훼손하여 人工的으로 부지를 넓이고 조경하여 뚜렷하게, 또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본다.

자연과 조화해서 자연의 생김새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宿營地를 造成한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중이나 기타 목표에서 保護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앞서 살펴본 外國의 造景政策과 같이 앞으로 우리도 公園이나 休息空間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하고 특히 그러한 公共場所에 대한 집중적인 植樹를 해야 하리라고 보며, 兵營에서도 '單純 植樹'의 次元을 넘어 經濟樹種의 선택적인 植樹와 均衡있는 造景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강산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產業革命의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산, 우리의 자연을 내몸같이 아끼고 보호하는 정신은 바로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愛國心이라는 것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 기가 막힌 관상

= 장병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



중령 이 정 남

(공본 군종감실)

관상장이 관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실새없이 떠들었다. “관상을 보고 가시오. 틀림없습니다. 한번만 보면 어떠한 인생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그곳을 지나치던 한 익살꾼이 관상장이 걸음로 접근하며, “이보시오 관상장이 내가 한번 댁의 관상을 봐 드리리다” 하고 익살스럽게 접근하였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어이없는 듯 관상장이 물자 “나야말로 틀림없이 관상을 보는 기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오.” 그러자 관상장은 “그럼, 어디 내 관상을 좀 봐 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익살꾼은 “당신의 관상은 관상장이 되어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지금까지 외친 그런 말을 실새없이 토하는 그런 관상이오” 했더라.

군종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전력과 관련하여 기가 막힌 관상을 봐 줄까 한다. 독자들이 저의 관상을 봐준다고 할까 겁이난다.

카네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있는 세가지 화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재산·종교이다” 라고 했다. 성에 의해서 우리는 생을 창조하고 재산으로 유지하며, 종교에 의해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가장 흥미있는 세가지 화제 중 인생과 종교에 대해 몇마디 할까 한다.

제가 봐드리는 관상은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드리고 싶을 뿐이다.

오랜 세기를 거쳐서 많은 철인들이 그

리고 문인들이 인생을 철학적이요, 문학적 주제로 삼아왔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는 수학적 진리처럼 명확한 해답을 한 두마디로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어떤 수학적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의 뜻이 깊어지고 더 값스러운 것이 될지 모른다.

어찌됐던 인생이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요, 나라는 존재가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경솔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세월에 쫓기고, 일에 쫓기어 사는 우리들은 삶의 여유를 잃기 싫고 땅에 애착하다 보니 하늘을 우러러 볼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볼 기회도 적었던 것 같다. 그럼 우리의 대선배들이 남겨 놓은 인생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스쳐나가 보자.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나그네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일장춘몽이요, 초로와 같고 또 심한 표현으로 말짱 황이요, 도루묵이라고 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을 가볍게 들논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것도 일자 목을 추기면서 말이다. 이 얼마나 허탈감을 주는 말들이냐? 이러한 것이 진정 인생의 전부라면 하루라도 살 맛이 없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고생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 “하숙생”이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은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의미를 새겨 보면서 마음 속으로 불러보기 바란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의 가사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애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인생은 하숙생, 그 여정은 나그네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나그네 길이니 가시밭 길이니 하는 것은 인생행로가 고달픈 것이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고달픈 나그네 길! 그나마도 가시를 헤쳐야 하는 가시밭 길일진대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실의에 찬 내용인 것 같다. 또 한편 일장춘몽이니 초로니 하는 것은 나그네 같은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나마도 하룻밤 꿈처럼 또는 아침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처럼 수명이 짧은 인생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보다 높은 삶의 뜻을 지니고 있고 드높은 가치의 차원을 염원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서서 걷는다는 것이며, 생각 하는 것, 말하는 것,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양심이 있는 것, 웃는 것. 그리고 최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하느님께 죄를 짓고 수치심을 깨달아 몸을 가린 점이다. 인간은 수치심을 가진 하나의 동물이다. 생태학적으로 봐서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동물은 머리가 죄다 몸둥이 옆에 붙어 있지만 사람의 머리

는 유일하게 위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워 있으면 옆에 붙어 있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뭐라 답변할 수 없지만 말이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고 하니 비록 인간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일하며 피곤을 느끼는 '인간이지만 하늘을 그리워 하는 인간,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이란 뜻 아니겠는가? 인간은 감각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 예전대 자유를 찾고, 평화 정의를 운운하고, 진·선·미를 논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종교를 논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해 보고 싶다.

생명은 죽기를 싫어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신부인 저나 독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바로 여기서 세네카의 말이 생각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래 오래 살려고 발버둥칠게 아니라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인생의 출처를 모르고 그것의 알맹이를 모르고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놓고 때론 비관을 하게 되고 인생의 존엄성을 망각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주관대로 살아 보려고 한다.

더우기 우리 목숨, 우리 삶이 여러 개가 아닌 이레봐도 저레봐도 좋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다. 첫번째 제가 봐드리는 관상은 독자들이나 저나 우리 각자는 온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에 각자의 삶은 최대

의 유일회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연습삼아 살아서도 안 될 삶이요, 연습 삼아 살아 봐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가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로 규정했지만 저는 종교인이기에 종교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강조하고 싶다. 종교애걸 하면 마음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리라 본다. 예로부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많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도 많았고, 또 한편 신을 엉뚱하게 종교인을 이상하게 꼭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솔직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리라.

예전대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 텃셀은 “신은 없다.” 샤르트르는 순진난만한 어린이가 무서운 페스트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을 보고 신을 부정해 버렸다. 종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종교에 관심 별로인 사람들도 상가집에 가서는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명복을 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누구에게 왜 비는지를 모르겠다.

반면에 데칼트는 “아무도 신을 부정할 수 없다.” 고백록의 저자 성 아오스딩은 33년 동안 인생을 방황하면서 쓴맛 단맛을 골구루 맛보고 얼룩진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자기 고백록에서 “오! 하느님, 우리 영혼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됐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시인 피테는 “인간의

모든 갈망은 참으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인 것이다”라는 진리를 갈파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을 규정하기를 “실존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지향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절대자 하느님을 인정하고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살아가는 성직자 중 하나이요, 수십억 신앙인중 한 사람이다. 군중신부 생활하면서 신앙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에게 성당에 나오셔서 종교 생활 할 마음은 없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군대생활이 워낙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또는 달콤한 세상맛을 보고서 나중 늙으막에 가서 믿어 볼 생각입니다. 그때가서 부탁드릴테니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얘길 종종 듣게 된다.

여기서 광세의 제자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파한 파스칼이 무신론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을 인용 전달해 보겠다. 파스칼은 신앙문제를 앞에 놓고 누구보다도 정신적인 갈등과 진통을 치른 지성인이었는데, 드디어 그는 신을 인정하고 신앙을 찾는 겸손한 철인이 되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무신론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신론자는 경솔한 신앙가들이다”고 했다. 즉 뚜렷한 근거없이 신이 없다고 믿어 버린다는 뜻이다. 즉 지레짐작으로 신이 없다고 믿어 버리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마음 속에 신의 부르짖음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발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했다.

간략하게나마 인생의 의미와 종교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종교를 올바르게 진지하게 선택하여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어 보자고 부르짖고 있다. 강요가 아닌 독자들의 진실된 마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 말마따나 인생은 제멋에 사는게 인생인데, 제멋대로 사는게 인생인데 한다면 뭐라 할 말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벽에 거는 시계, 책상 위에 두는 시계, 팔목에 차는 시계 등 재료도 생김새도 다양하다. 이 많은 시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시계가 시계로서 긍정되기 위해서는 —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계의 참 목적이 시간을 바로 가리킨다는 이것 하나 밖에 없다. 1, 532종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것이 가치를 지니고 완전히 긍정되기 위해서는 그 참목적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나름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나름이요 주관적이요 부분적이요 피상적인 것이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하는 한가지 답 이외에 다섯 혹은 여섯은 제 나름대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리는 아니다. 저는 종교인이다. 저는 하느님을 제나름대로 제주관대로 제멋대로 믿지를 않는다. 또 내나름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철학상으로나 그 진리의 진실성으로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믿고 싶은 것을 버리고 참진리(眞理)로 제나름을 바꾸었을 뿐이다. 자기 나름대로 믿고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주변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제나름이란 말이 표현상 편리한 말마디이긴 하지만 제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 봐드리는 관상이다.

우리가 일컫는 정신전력은 한마디로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작용은 아주 복잡적이다. 정신전력을 신앙전력과 관계맺어 생각해 볼 때 군인들에게 있어 신앙은 올바른 인생관, 사생관 확립은 물론이요 신앙은 무한한 정신력의 원천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하고 싶다. 믿음은 자기 삶의 방향의 근본적인 재정립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뭔가 종교란 말마디를 어원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宗教할 때 宗은 마루종이요 모든 것의 중심 근본 핵심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문중의 근본되는 집을 종가, 종가의 말손자를 종손, 큰집의 말며느리를 종부, 문중의 높은 어른을 종정, 역대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宗教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기본되는 가르침이요, 근본되는 진리이다. 옛말에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이니라 했다. 이 말의 뜻인즉 하늘이 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이미 새겨진 인간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덕이요, 이 도를 더욱 빛나게 갈고

닦는 것이 宗教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동양사상에 있어서도 인격의 도야에 세가지 단계를 두었다. 주어진 본성대로 사는 인간과 본성을 넘어서 윤리도덕을 예찬하는 인간, 윤리도덕을 넘어서 소위 종교적인 -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자 페스탈로찌는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다.” 했다. 톨스토이는 “종교를 인생의 한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연 종교가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忠孝를 부르짖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지만 효도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요, 忠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이 국가에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볼 때 宗教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절대자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겠다.

간략한 말마디로 종교를 정의해 본다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 생명과 사랑의 관계, 하느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에게 충실하기를 바라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몇마디 인용하고자 한다.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그것이다.” 했고 성 아오스딩은 “잘 살지 아니 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산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그리스

도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했다. 라틴어 격언에도 모든 일에 목적을 바라 보라고 했다.

군대조직 안에 신앙전력을 통해 정신전력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성직자이긴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나약한 인간본성을 지녔기에 부족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성마저도 체험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군대 안에서의 종교생활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군성직자들을 위하고 돕는 길은 3개종파 기성 종교인들이 생활화 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는 길이라 본다. 어떤 맑스주의자들은 “예수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전에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우리 관심 밖의 일이다. 단지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되묻고 싶을 뿐이다” 했다.

종교에 대한 세속적인 비난의 대표자인 니체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들의 구세주를 믿기를 원한다면 왜 그들 자신은 좀더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인도의 간디성웅은 “나는 그리스도(부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불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부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

변의 비신자들이 종교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그리스도인, 불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군 안에서의 종교인들과 성직자들도 이같은 외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봄이 좋을 것이다. 군성직자들이 종교인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하는 길은 올바른 종교교육과 신앙생활지도에 있다 하겠다. 우리의 군종장교로서의 직분이 생의 직업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장병의 봉사자로서 위로부터 불림을 받아 이 직분에 맡김을 받았다는 聖召의식이 투철해야 되겠다고 본다.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다. 하나의 표현방식이나 사고방식도 아니다. 믿음이란 생활방식이고 오로지 나날의 삶 가운데 실천에 옮김으로써만이 신앙은 성장될 수 있고 성장되어 지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어떤 악세사리나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사람의 뼈대요, 본바탕이요, 중대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인들이 군대 안에 있다면 그 군대 또한 막강한 군대일 수 밖에 없으리라. 기가 막힌 관상을 본다는 게 종교에 대한 상을 두서없이 피력한듯하다. 지금껏 독자들에게 했던 그 어느 한마디라도 마음을 깨우쳐 주어 마음 속 깊이 지니고 있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희생에 대한 보람을 얻게 될 거라 믿으며 시인 괴테의 말을 인용하여 관상보기를 끝마치겠다. “우리의 모습과 사람됨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尿(뇨)의 生成과 그 異狀



대 위 이 윤 수

〈항공의학연구원〉

만일 각자의 집에 하수도가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허드렛 물이 고이고 나중에는 그 고인 물이 썩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하수도가 있으므로 인하여 쾌적한 주위환경 속에 별다른 불편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신체 내에도 이런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비뇨기관으로 체내에서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여 주는 배설기관의 하나이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뇨기계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의 여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그 기능이 며칠간 만이라도 저하된다면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비뇨기계통은 각각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 4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여과를 담당하는 신(腎), 둘째는 신에서 형성된

요를 방광으로 보내는 요관(尿管), 세째는 요를 저장하여 두는 방광(膀胱), 마지막으로 저장하여 두었던 요를 방광에서 체외로 내보내는 요도(尿道)가 있다(그림 1).

### 〈신의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

신은 후복벽의 복막 뒤에 좌우 한개씩 놓여있으며 크기는 약  $3 \times 6 \times 12\text{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50gm 정도이다. 각 신의 후방은 배근(背筋), 측방과 전방은 제 11, 12늑골과 복강 내 장기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 경한 복부외상이나 중등도의 복부외상으로 신까지 손상을 받는 일은 드물다. 옆이나, 앞에서, 신에 강력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신실질(腎實質)에 열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국소 해부학적 위치는 신이 생명유지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자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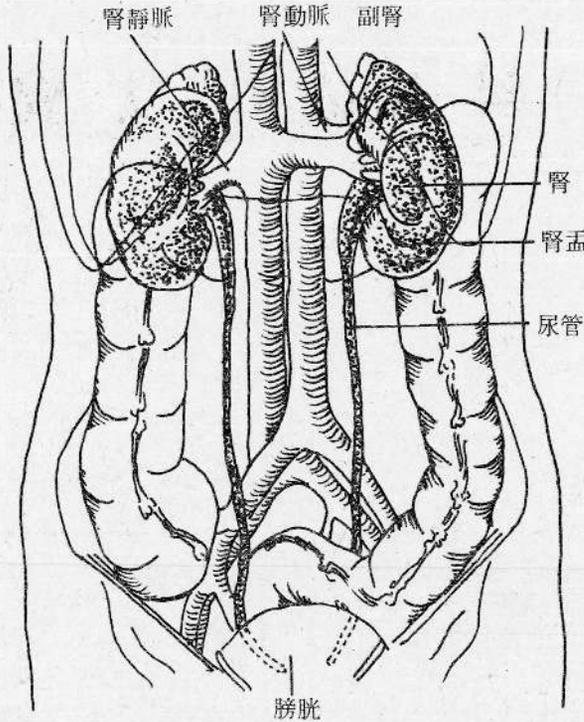


그림 1. 신의 국소 해부(전면)

으로 보호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중요한 신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이요, 둘째가 혈장의 성질을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조절기능이 있다.

### 尿의 生成

양측 신에는 약 2,400,000개의 신원(腎元)이 있다. 이 신원은 신기능을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여과기 역할을 하는 사구체(絲球體)와 여과된 물질이 통과하면서 소변으로 농축되어 지는 세뇨관(細尿管)

으로 구성된다. 요의 생성은 이 여과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며 단백질을 제외한 성분이 모두 여과된다.

신을 흐르는 혈류량은 체중이 70kg인 정상인의 경우 1분간 심박출량이 약 5,600ml이라고 할 때 이중 1/5인 1,200ml가 양측 신으로 흐르게 된다. 양측 신의 무게는 체중의 0.5%에 지나지 않으나 혈류량은 무려 심박출량의 1/5에 순환되어 지는 것이다. 이때 순환되는 혈류량은 24시간 동안에 약 1,800ℓ이며 사구체에서 여과된 요의 양은 180ℓ이다. 그러나 이 180ℓ의 요를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면 사람은 하루종일

소변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이며 모자라는 수분의 보충을 위하여 계속 물을 먹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신기하게도 여과된 액이 긴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수분과 당, 아미노산, 전해질 등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재흡수한다. 그의 전혀 불필요한 요소 등과 세뇨관에서 분비되는 일부 물질이 합쳐져서 체외로 나오는 것이 요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체외로 나오는 요는 요형성에 직접 관여되는 비뇨기계통의 이상은 물론 혈액성분이나, 순환기계통의 이상들도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수분섭취, 음식물과 일반대사와 중간대사에 따라 좌우되며, 요의 양, 색, 냄새, 조성, 반응 등이 건강상태에는 정상범위에 있으나 이상이 있으면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 배뇨의 경로와 기전

신을 통해 배출된 요는 후복벽에 위치한 요관을 따라 방광에 고이게 된다. 고여진

요가 일정량에 도달하기까지는 방광내압은 거의 상승되지 않는다. 방광의 용량은 개인차가 크며 환자가 강한 요의를 느낄 정도로 충만된 방광용적을 최대방광용적이라 한다. 정상인에서 방광용적은 300~500cc로서, 방광이 차면 신경계에서 배뇨하도록 작용한다. 배뇨(排尿)는 방광배뇨근(排尿筋)의 수축으로 방광경부가 크게 열림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방광경부(膀胱頸部)에 있는 괄약근(括約筋)은 이완한다. 이로써 배뇨가 시작되는데 정상에서는 배뇨시간이 약 15초가 된다.

배뇨시 요선(尿線)의 굵기와 양은 방광내압과 괄약근의 기능과 요도의 내경같은 단순한 물리적 법칙에 좌우된다. 정상배뇨압은 약 80mmHg이다. 압력이 적어지든지 괄약근에 이상이 있든지 요도내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요선의 방출력이 감퇴되어 방울방울 떨어지고 요선이 가늘어지고 오줌줄기가 꼬이든지 갈라진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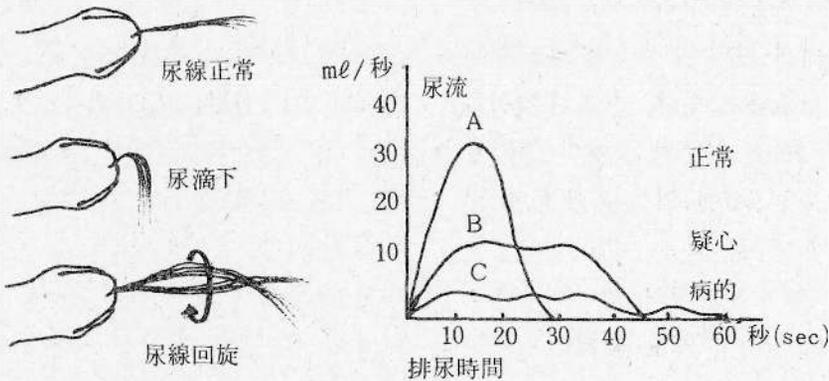


그림 2. 요선의 변화와 요선 측정 : 유류량 측정

## 정상적인 소변량과 횡수는?

소변량은 대체로 체중에 비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소아가 어른보다 많다. 어른의 소변량은 24시간에 보통 1,200~1,500ml 혹은 1ml kg/hr 정도이며 1~6세까지의 어린이의 소변량은 500~1500ml 정도이다.

하루에 보는 소변횡수는 수분 섭취량, 수분 배설량, 기온, 운동, 정신적 영향 등으로 변동이 많다. 처음 출생시에는 약 10회 3~4살에는 약 9회로 차츰 감소하여 12살 이상이 되면 성인과 같이 4~6회로 된다. 주간에는 야간에 비해 5~6회 정도이며 야간에는 0~1회 정도이다.

그러나 신기능이 나빠지면 이 비례가 바뀔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경우 야뇨증 등을 볼 수 있다. 소변의 양과 횡수는 정상인에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소화과정, 신진대사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 외에도 기온이나 운동에 따라서 땀 입김 등으로 내뿜는 수분량이 달라지고 순환기나 신의 기능 여하에 따라 수분조절 정도에 의해 소변량이 변동하기 쉽다. 그러나 24시간 소변량이 2,500ml를 넘으면 요량의 증가로 보는데 이것은 신질화에 의한 신의 농축, 기능저하, 이뇨제 복용, 과음, 추위, 뇌하수체 종양, 당뇨병 및 요붕증에서 볼 수 있다.

요량의 증가(多尿)와 빈뇨(頻尿)는 다르다. 빈뇨란 요량에 관계없이 횡수가 느는 것으로 이는 방광염, 신우염 및 전립선 비대증 때 온다.

24시간 요량이 600ml 이하이면 피뇨(乏尿)라 하여 요량의 감소로 보는데 일단 주의를 요한다. 마시는 수분의 양이 적다든지 혹은 출혈 구토 고열 땀 등으로 탈수되든지, 또는 부종 대상불능의 심장질환 및 급성신염 등에서 볼 수 있다.

요의 형성이 정지된 것을 무뇨(無尿)라고 말하며, 소변이 배설되는 경로가 막혀서 발생하는 요폐(尿閉)와 구별해야 한다. 척추손상, 70mmHg 이하의 혈압강하 급성신염 및 요로의 완전폐쇄같은 경우에 볼 수 있다. 요량이 감소되었다 혹은 소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요의 생성 및 배출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즉 심장에서 혈액을 신으로 보내주어야 하고 신에서 여과 및 농축되어져 하수도 역할을 하는 요관, 방광 및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심장에서 요도로 나오는 과정의 어느 한 군데에 이상이 생기면 요량의 감소 및 무뇨를 나타낸다.

## 만일 요의 배설이 안 된다면?

요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되며 전해질-산염기 평형의 장애 및 수분대사 장애를 동반하며, 식욕부진, 구토, 기면, 혼수 등의 증상 및 신체 각 부위에 이상을 가져 온다. 또한 무뇨가 수일간 계속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노폐물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제한하며,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공신(人工腎)이나 복막투석(腹膜透析)을 이용하여 보존요법을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의 혈액이 여과지 역할을 하는 반투과막(半透過膜)을 통하여 전해질이나 당이 포함되어 있는 관류액 내에서 대사교환하는 것이다. 최근 1950년 최초의 신이식술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이식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신부전증 환자들이 인공신장기를 돌리며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꼭 건강한 생체(生體)의 신장 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死體)에서도 가능하며 외국의 경우 신장의 제공을 시체로부터 얻는 경향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자기의 영혼은 떠나더라도 자기의 육신은 많은 불행한 사람을 위해 쓰여지도록 자신의 장기(臟器)를 기증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

### 요의 정상소견은?

신선한 요의 반응(PH)은 대개 산성이다. 심한 발한에 의한 농축뇨의 상태에서나, 열이 있을 때나, 육식을 한 후 체내 단백질 대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산성도는 높아진다. 또 방광 내 감염에 의해 세균의 번식이 있을 경우 요소가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요는 알칼리성으로 된다. 이럴 때는 특징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는 마치 청소를 잘 하지 않은 소변기나 밤새도록 방치해 둔 요강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 따라서 신

선한 정상 요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없으나 간혹 신선한 요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대개 폐쇄성 방광염의 경우이다. 남자의 경우 여자와 달리 전립선이라는 성선이 있으며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의 비대를 가져오며 심하면 요폐증을 유발한다. 여기에 감염이 동반될 경우 마치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고여 썩는 것처럼 요의 저류로 인하여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요에서 신냄새가 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요 중에 아세톤 등을 배설하는 경우에 일어나며 이런 경우는 환자가 숨을 쉴 때도 과일냄새가 난다.

신선하게 배뇨된 정상체온을 가진뇨는 주로 연한 미색 즉 벗질색으로 나타나며 투명하다. 힘든 육체운동과 땀을 흘렸거나 발열 후의 농축뇨는 호박색을 띠며 요량이 많고, 비중이 낮은 요는 무색이다. 소변에 혈액이 섞이면 그 양에 따라 적색, 갈색계통의 색을 나타내며 용혈되면 차츰 흑갈색으로 변해간다. 황색, 녹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경우는 담즙의 존재를 의미하며 흔들면 노란색의 거품을 보인다. 또한 복용한 약제에 의해서 오렌지색, 붉은색 등의 요를 볼 수 있다. 적혈구와 관계없이 붉은 색의 요가 나올 경우는 고기를 먹은 후 요 중 betac-ganin의 배설, 근육손상 후 Myoglobinmia 혹은 혈구과과로 인해 Hemoglobinmia 등이 있다. 그러나 일단 소변의 색이 붉은 색을 띠는 경우 혈뇨와의 감별을 위해 현미경적 소변 검사를 요한다.

신의 농축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요비중

(尿比重) 측정이 있다. 요의 비중은 용해된 물질의 무게를 나타낸 것으로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요의 농축력이 감소되어 비중이 낮아지며 이것을 저장뇨라고 한다.

그외 사구체의 투과력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단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비뇨기과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요중 백혈구나 적혈구의 함량이 많은 경우에도 단백배설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혈구세포없이 단백뇨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의 심한 운동을 하거나 발열 등에 의해서도 일과성 단백뇨를 보일 수 있다.

당뇨는 대부분 혈중 당의 농도가 180mg/

dl 이상일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은 체내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부족에 의하여 당대사 장애를 수반하는 질환으로 과량의 당을 배설하기 위하여 요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요의 비중도 높다. 이 병은 여러 신체 각 부위에 합병증을 수반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외의 이상으로 신유두괴사, 반복되는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혹 아스피린, 비타민-씨, 항생제 등의 약제를 과량복용시 위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표 1).

표 1. 사구체 신염성 단백뇨와 혈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

주요 단백뇨
- 당뇨병성 신질환(diabetic nephropathy)
- 만성 신우신염(chronic pyelonephritis) (단백뇨 < 3g/일)
- 아밀로이드신(amyloid kidney) (흔히 신증후군을 동반)
- 루푸스 신염(lupus nephritis)
- 양성 신경변증(benign nephrosclerosis)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
주요 혈뇨
- 신낭종(renal cyst), 낭종신(cystic kidney)
- 혈응고 장애(coagulation disorder) (thrombopenia 등)
- 신결석(renal stone)
- 신유두 괴사(papillary necrosis) (간질성 신염의 경우)
- 결핵(tuberculosis)
종 양
- 요로 국소 출혈(Osler 병)

요중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유기질과 무기질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요산(尿酸), 수산염(磷酸鹽) 및 인산염(磷酸鹽) 등이 있다. 이들은 항상 소량씩 정상에서도 발견되거나 이들의 배설이 많아지면 각각 요산뇨, 수산뇨, 인산뇨라고 한다. 정상상태에서는 용액상태로 뇨에 녹아있으나, 병적인 상태에는 집뇨계에 나와서 유기물 등에 부착되어 미세결석(微細結石)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미세결석은 자각증상없이 요의 배출되는 힘에 의하여 배설된다. 그러나 이것이 신유두(腎乳頭)나 신배(腎杯)의 점막에 부착되어 남아있게 되면 결정타의 핵으로서 작용하여 이 주위에 다른 염류가 더 부가되면서 점차 자라 육안적 결석이 된다.

요중에 백혈구가 나타날 때 이를 농뇨(膿尿)라고 하며, 비뇨기계의 염증을 의미한다. 육안적 농뇨의 경우는 요의 혼탁으로 인하여 뿌옇고 투명하지 않다. 백혈구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나 실같이 뭉쳐지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백색침전물이 된다. 요로감염은 혈행성(血行性), 임파성(淋巴性), 상행성(上行性)으로 올 수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있어 어느 한곳에 감염시 요의 배출 경로를 따라 퍼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요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血尿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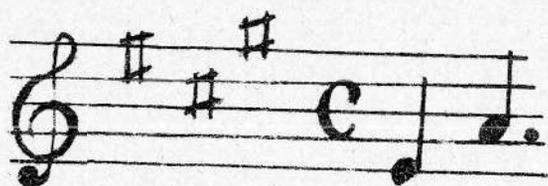
현미경이나 육안으로 볼 때 요중에 관찰되는 혈구가 있다면 혈뇨라고 하는데 혈뇨가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뇨기계

통의 심각한 질병을 의미한다. 육안적 혈뇨(肉眼的血尿)에 있어서는 요의 색깔이 혼합된 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현미경적으로는 적혈구가 2개 이상 보일 경우 이상소견으로 간주한다. 혈뇨가 배뇨의 처음인지 마지막인지에 따라 초기혈뇨(初期血尿) 또 종말혈뇨(終末血尿)라고 한다.

그러나 남녀에 관계없이 어느 연령층에서나 특별한 증상없이 지속적인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관찰 및 다른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년층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이 혈뇨를 보이거나 소변을 본 후 속내의에 혈흔이 보인다고 하면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암의 조기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여 미루다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채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검사요는 비뇨기계의 이상은 물론 혈액성분이나 순환기계통의 이상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신체에는 2개의 신장이 있고 각각 약 백만개 이상의 신원이 있어 이 중의 약 1/4만 완전하여도 생명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요 검사나 신기능검사에 아무 이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뇨기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검사와 병행해야 한다.



# 세계의 国歌 어떻게 만들어 졌나 (Ⅱ)

— 미국의식의 영원한 찬가 —

준위  
尹  
德  
鉉

(제 3639 부대)

## 4. 영국군의 집중포화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성조기

1931년 3월 3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가 정식 국가로 채택되었다. 이전에는 미국에 공식적인 국가는 없었고, 미국의 애국가에 해당되는 「콜롬비아 만세」(Hail Columbia!)와 「양키 두들」, 영국 국가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 「우리의 조국」, 그것은 당신(하느님)의 것(My C-ountry'tis of thee)이 비슷한 인기도를 누리면서 불려졌다. 이외에도 영국 국가의 가사를 바꾸어 만든 「신이여 아메리카를 구하소서」, 「신이여 13주를 구하소서」, 「신이여 대통령을 구하소서」 등과 같이 여러 변형들이 나타났다. 『우리의 조국, 그것은 당신의 것』은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S. F 스미드 목사(1808~95)가 가사를 썼다. 어느 날 스미드의 하버드 동창생인 O. W. 흠즈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명성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6천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쓰는 일이라네.”

그가 24세 되던 해 앤트버 신학교에 다닐 무렵, 미국의 음악학교의 창시자 로웰 메이슨이, 친구가 독일서 가져 온 악보들을 스미드에게 보여 주었다. 여기서 그가 자극을 받아 애국적인 노랫말을 쓸 마음을 먹은 것이다. 완성된 가사가 로웰 메이슨에게 보내졌고, 이 노래는 뉴욕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독립기념주일(1932. 7. 4)

에 어린이 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1798년 여름, 미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교전이 한창일 즈음, 「콜롬비아 만세」가 작곡되었다. 프란시스 홉킨스의 아들 조셉은 변호사 겸 미국태생의 최초의 시인, 작곡가이다. 조셉이 작곡한 「콜롬비아 만세」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지냈던 필립 파일의 편곡으로 미국 「대통령 찬가」로 유명하게 되었다.

미국국가 「성조기」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한 신사가 말보로에서 체포된 그의 친구를 영국부대로부터 풀어 주기 위해 파퓌센트의 어귀까지 갔다. 그는 발티모어에 대한 공격계획을 입수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파탐스코 어귀까지 해안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나 그도 마침내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영국군 프리깃 함 갑판에서 맥헨리 요새의 포격광경을 보아야 했다. 영국 해군대장은 몇 시간 안에 도시 전체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벌려댔다. 1814년 9월 14일, 그가 갑판 위에서 바라본 맥헨리 요새의 성조기는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난 밤에도 지칠 줄 모르고 곳곳하게 펄럭였던 성조기. 그는 해가 저서 깃발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석양을 배경으로 휘날리는 성조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날 밤 벅차오르는 감동을 한 편의 시에 옮겼다. 이 가사는 곧 영국

작곡가 J. S. 스미드(1750~1836)의 노래, 「하늘에 있는 아나크레온에게」의 선율에 붙여졌다.』

이 미국신사는 바로 프란시스 스코트키(1779~1843)이고, 그의 친구는 빈즈 박사로 둘 다 발티모어 출신이다. 이 가사의 원본은 뉴욕 콜롬비아에서 2만 4천 달러에 팔렸다.

캐나다의 국가는 두 개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학교에서 1877년부터 불러 온 「단풍잎이여 영원하라」는 1867년 국민학교 교장 알렉산더 무어(1830~1906)의 작곡이다.

『옛날 영국 해변에서 용감한 영웅 월프가 왔네. / 그가 캐나다 땅에 영국 국기 꽂았다. / 여기서 깃발과 우리 궁지도 펄럭이고 / 사랑으로 모두 뭉쳤다. / 신이여 여왕을 구하시고 / 단풍잎이 영원하도록 축복하소서. 오 캐나다, 우리의 조국…… 우리 영원히 그대 지키리』

프랑스계 지역에서 인기있는 「오 캐나다」는 원래 세례요한을 찬송하는 노래였으나 캐나다 연대에서 공식국가로 채택했다.

## 5. 하이든, 모짜르트, 구노 등이 작곡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国歌)

하이든의 「황제」 4중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서독의 国歌도 독일에서의 정치변동에 따라 많은 가사 수정과정을 겪었다. 원래 「신이여 프란츠 황제를 도우소서」로 시작되는 가사는 영국 국가에 자극을 받아 독일제국의 대법관 로렌츠 레오폴트 하쉬카

(1749~1827)의 것이다. 하이든은 여기에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크로아티아 민요선율을 하나를 갖다 붙였다. 1848년의 혁명 와중에 지은 A. H. 호프만(1798~1874)의 가사를 붙여 「최고의 독일」, 독일로 불려졌으며 이것은 곧 1922년 독일의 정식 国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에서 나타난 정치성을 이유로 그가 교수직을 박탈당하기 까지 했다.

## 6. 조국 독일을 위해 / 통일과 정의의 자유를 / 우리 모두 이 목표를 이룩하세 / 통일과 정의 자유는 / 행복의 심부름꾼.

1933년부터는 이 노래와 함께 나찌당가도 불려졌다. 나찌당가의 가사를 쓴 호스트 베셀(1907~30)은 당시 학생이었다. 베를린에서 폭풍부대 장교로 있을 당시 그는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때문에 3명이 나찌의 손에 죽어야 했다. 1950년 연방공화국은 호프만의 원시 1절과 3절을 바꾸었다. 서독에는 이 외에도 「라인강가의 보초병」, 「오 독일」, 「그 이름 높다」, 「나는 프로이센인」과 같은 애국가가 있다. 하이든은 늙어서 자신의 선율을 피아노로 즐겨 연주했으며, 프랑스군이 비엔나를 침공했을 당시 죽기 직전에도 이 곡을 연주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1590)를 자랑하는 네덜란드는 「빌헬름루스」, 「여왕찬

가」라는 제목의 노래를 국가로 사용하는데, 작곡자는 미상이다.

스위스의 국가는 가사가 모두 4개 국어로 되어 있고 공식제정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의 나라」, 「강의 나라」, 「들의 나라」로 시작되는 오스트리아의 국가는 모짜르트 곡이다. 모짜르트는 원래 이 곡을 그의 「메이슨 칸타타」 K. 623'에 덧붙여 만들었다.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는 전통민요에서 선율을 따서 만들었고, 둘은 서로 비슷하다. 영국에 뒤이어 오래된 국가의 전통을 자랑하는 덴마크, 「군인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아일랜드, 샤를르 구노가 작곡한 바티칸, 이 외에도 스페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네덜란드, 원래 외설적인 가사가 붙었던 민요선율을 사용하는 스웨덴의 국가가 있다. 터키의 국가도 국기를 노래하고 있다.

『두려워 말아라 / 이 심홍색 깃발은 색깔이 바래지 않으리니 / 그것은 조국을 위해 불타오르는 심장 / 그것은 영원히 빛날 조국의 별』

1830년 브뤼셀에서의 시위동안에 작곡된 벨지움의 국가 「브라방송」(Brabacons)은 브라방 주의 용병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헝가리의 국가는 기독교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사를 담고 있다.

『적과 싸울 때 보호하소서 /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 희망찬 번영의 날들을 주소서 / 모든 과거와 미래가 이 민족이 지은 죄의 댓가입니다.』

1946년에 제정된 이태리 국가는 1847년에

작곡되어 1860년 「가리발디 장군」이 부르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널리 불려졌다.

『이태리의 형제들이여, 이태리는 깨었다. 스피치오의 투구를 썼도다. / 신이 주신 승리는 어디에? / 로마의 노예여, 뭉치자. / 이태리가 부르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도다.』

뭇솔리니는 정권을 잡은 후 옛날 왕정 때의 국가를 고집했다. 「토스카니니」가 「라지오비네자」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국가는 「신이여 황제를 구하소서」로 「A. P. 로보프」의 작곡이다. 이전에는 영국 국가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로보프의 곡에서도 영국 국가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917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노래는 국제공산당가(Internationale)로 바뀌어졌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파리의 부두노동자인 포티에이다. 1944년 1월 1일 소련은 이 노래를 폐지하고, 림스키 콜사코프의 제자이며 붉은 군대 합창단 지휘자였던 A. V. 알렉산드로프가 「소련의 찬가」라는 국가를 새로이 제정했다.

## 7.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남미의 국가(国歌)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독립전쟁 이후 민족문화의 형성기(1750~1900)에 작곡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그들의 민족 문화와는 거의 무관하게 유럽에서 이주해

온 작곡가들에 의해 이태리나 독일방식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다. 콜롬비아의 국가는 이태리에서 자신의 오페라단이 파산하자 보고타로 이주해 온 테너가수가 작곡했다. 칠레의 국가는 처음에는 칠레 땅을 한번도 밟지 않은 스페인 사람의 작품이었으나 칠레, 스페인 간에 평화조약체결 이후 칠레 본국인이 다시 작곡했다.

『칠레 너 맑고 푸른 하늘, 부는 달콤한 바람』

멕시코시티에서 공모하여 제정한 멕시코의 국가는, 미국에 우연히 정착하게 된 스페인 사람의 작품이다. 엘살바도르의 국가는 이태리인 후안 아베를레가 작곡했으며, 파나마의 국가는 원래 스페인 이주자가 작곡한 학교용 노래이다.

쿠바 독립전쟁때 바야모전투에서 독립군이 구아나바코아 마을로 들어올 때 시골의 밴드리더가 자발적으로 작곡한 쿠바의 국가는 『전장터로 나가세, 바야모 사람들아』로 시작된다. 아마투어가 즉흥적으로 작곡하여 공모당선된 우루과이의 국가는 도니젯티의 오페라 「루크레지아 보르지아」에 나오는 뱃노래와 매우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살던 음악선생이 쓴 것으로 구식 이태리 오페라풍이다. 남미의 국가 중 가장 긴 곡이다.

1822년 9월 7일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 그날 저녁 5시 반에서 9시까지 페드로 1세 자신이 작곡한 브라질의 국가는, 상파울로에서 그날 밤에 열린 애국행사에서 황제 자신의 노래와 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가 퇴위한 다음에는 다른 곡으로 개정되었다.

남미에서 가장 맨 먼저 국가를 채택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마르세이유」를 국가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전쟁 동안 작곡된 것이다.

『굴레를 벗어 던지고 / 법을 존중하는 민중에게 영광 있으라』

코스타리카의 국가에는 매우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1853년 영·미 사절단이 산 호세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은 이들 귀빈을 감동시키기 위해 환영식에서 국가를 연주하기로 결심했다. 그 전에는 국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당시 그 나라 최고의 음악가인 쿠티에레스에게 국가를 작곡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작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망설였다. 마침내 투옥된 그는 불쌍하게도 부르기 쉬운 노래 한 곡을 짜낼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코스타리카의 국가이다.

## 8. 베에토벤 제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주제를 편곡한 짐바브웨의 国家

시인 타고르가 작사, 작곡한 인도의 국가는 1950년 채택되었다. 인도음악의 선율을 연상케 하는 이 노래는 민속적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을을 통치하고 / 인도의 운명을 주장하도다. / 당신의 이름은

/ 편집 · 신드 · 구지랏 · 마라타 · 드라비드 · 오릿사벵골 사람의 마음 속에 있도다』. 이란의 국가는 1933~79년에 「왕이여 만세」가 불려졌으나, 팔레비의 퇴위, 호메이니의 등장으로 현재 공식적 국가는 없다. 「희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는 전통민요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온주의 운동에서 많이 불려졌다. 「스메타나의 물다우」 주제와 매우 비슷하다.

『아직 마음 깊숙이 숨어 있지만 / 유태인의 영혼은 동방의 시온을 갈망하도다. /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 우리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 2천년 동안 품어 온 꿈은 / 아직 잃지 않았다』

『삼민주의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로 시작되는 자유중국의 국가는 원래 국민당의 당가였다. 손문(孫文)의 가사에, 곡은 공모하여 정한 것이다. 일본의 국가는 궁정악사 히로모리 하야시의 작곡으로, 군악대장 엑케르트가 편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티끌이 모여 바위가 되도록 / 그위에 이끼가 두껍게 질 때까지 / 평화로운 제국이여 수천년 동안 영원하라』

해방전에는 영국 식민지 로디지아로 알려졌던 짐바브웨는 1965년까지 영국의 국가를 사용했다. 현재는 베에토벤의 9번 교향곡 마지막 악장의 주제를 편곡하여 국가로 쓰고 있다.

중공의 국가는 1932년에 작곡되어 1949년에 제정되었다. 가사가 집단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탄자니아의 국가

도 집단창작에 의한 가사를 가지고 있다.

### 9. 1936년 6월 초에 안익태에 의해 작곡된 우리의 愛国歌

우리나라의 국가는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대한제국의 국가를 「프란츠 엑케르트」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896년에는 두 개의 애국가가 서울 장안에서 불려졌다. 9월 9일 새문안교회의 고종 탄신축하예배에서는 영국 국가를 그대로 번역하여 불렀다.

『늙으신 상주님 저비론 흥주님 공홀히 보쇼셔 / 이 노릇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 오주여 이 노릇 보우호쇼셔』

올드랭 사인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 애국가가.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려졌다.

『성주신성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 산고수려 /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조선사름 조선으로 길이 보존호세』

이 외에도 안창호의 「거국가(去國家)」, 「망국가(亡國家)」, 「대한혼가(大韓魂歌)」와 같은 애국가가 있었다.

위의 애국가에서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후렴이 이미 이때부터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애국가의 가사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도산 안창호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안익태에 의해 베를린 올림피아 열리던 1936년 6월 초순에 작곡된 「애국

가」는 일제 말엽의 독립운동에 불씨를 던졌음에 틀림없다. 가사에 나타나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는 영국국가의 『God Save The Queen』,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Long Live The King(country)』와 같은 구절에 해당된다. 굳이 분류하자면 애국가는 자연을 노래한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에 국가에 해당하는 노래로 채택된 애국가는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개정의 논란이 잦았다. 애국가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1) 애국가가 원래 불가리아의 민요를 엑센트 위치만 바꾸어 인용한 것이며 (2) 가사가 일본 국가의 긍정성(티끌→바위→이끼)과 비교할 때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3) 엑센트와 선율에서 음악적인 약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반대론자들은 (1) 어차피 남북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가를 제정할 것이고 (2) 40여 년간 계속 불리어 온 노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이다.

위에서 우리는 세계의 국가(國家)의 유래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간단히 결론을 대신하자면 (1) 국가제정의 움직임은 19세기에 세계적으로 나타난 민족의식의 발전에 기인한다. (2) 전투, 혁명을 노래하는 국가는 음악이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역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 「찬가」의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는 종교와 정치의 상호연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編輯 後 記

○... '人間生涯의 最高의 날은 자기의 使命을 발견하는 날' 이라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터는 외쳤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며, 우리를 眞摯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작은 日課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거듭확인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월남이 패망한지 10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지금껏 가르쳐 주는 역사적 교훈은 호국의지가 없는 국민에게는 아무리 강한 군대와 무기를 주어도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맨주먹으로 붉은 피흘리며 조국수호를 위해 생명바친 護國英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職分을 다하고 時代的 使命意識으로 어떠한 난관도 克服해야 할 것 입니다.

○...「空軍」 197호가 나오기까지 많은 장병과 각계 각층의 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아직 아쉬운 점도 많으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將兵 投稿 환영

「空軍」은 空軍 유일의 將兵教育 및 教養誌이며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미는 잡지입니다.

평소 병영생활과 자신의 日課를 통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軍發展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등을 모아 투고하면 소중한 여러분의 玉稿를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藝作品도 물론 환영합니다.

### 〈投 稿 要 領〉

- 枚 數 : 200자 원고지 20~40매 정도  
단, 論文은 제한 없음
- 마감일자 : 제한 없음
- 보내실곳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10호 정훈감실 「공군」  
담당. (우편번호 151-01)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제196호

1986년 4월 15일 인 쇄  
1986년 4월 20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으나, 부지불식 중에 적의 전략 정보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책자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